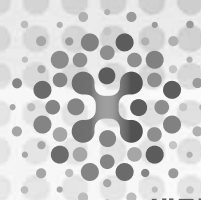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73-6430000-000114-14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 종합계획

(2011~2020)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고 제2011-1026호

2011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된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을 국토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발전계획도



수륙 연계 협력지구



{ 목 차 }

제1편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3
제3절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5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11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30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 수정계획 평가	44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53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분석 : SWOT분석 및 계획과제	73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79
제2절 계획지표의 설정	82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 발전축 구상	87
제2절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구상	96
제3절 연계와 협력을 위한 지역생활권 형성	104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1절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111
--------------------------------	-----

제2장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1절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123
제2절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141
제3절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	156

제3장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제1절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175
제2절 생명력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충북 실현	192
제3절 활력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214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제1절 내륙권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체계 구축	225
제2절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254

제5장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제1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65
제2절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	272
제3절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의료서비스체계 구축	282
제4절 창조교육 환경조성 및 평생 생활체육 구현	293

제6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1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관리	309
제2절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320

제3절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자원개발	329
----------------------------	-----

제7장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제1절 환경보전을 통한 자연이 숨쉬는 청정충북 실현	345
제2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360

제8장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제1절 재난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377
제2절 방재형 도시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383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399
----------------	-----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재정계획	413
----------------	-----

제3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제1절 투자·재원조달 계획	429
----------------------	-----

제5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청주권

제1절 청주시	441
제2절 청원군	447

제2장 중부권

제1절 증평군	453
제2절 진천군	458
제3절 괴산군	462
제4절 음성군	466

제3장 북부권

제1절 충주시	473
제2절 제천시	476
제3절 단양군	480

제4장 남부권

제1절 보은군	485
제2절 옥천군	490
제3절 영동군	494

부 록

부록 1. 부문별 투자계획	501
부록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충청북도 종합계획 (2011~2020)의 비교	523

{ 표 목 차 }

〈표 1-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3
〈표 1-2〉 수립절차 과정	5
〈표 1-3〉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8
〈표 1-4〉 충청북도 세대수 · 총인구 · 인구밀도	13
〈표 1-5〉 시군별 인구수	15
〈표 1-6〉 시군별 노령화 지수	15
〈표 1-7〉 시 · 군별 인구증가율	16
〈표 1-8〉 충북의 연령별 인구분포	17
〈표 1-9〉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18
〈표 1-10〉 도시지역 지정현황	19
〈표 1-11〉 지목별 면적	19
〈표 1-12〉 규모별 사업체 현황	21
〈표 1-13〉 산업단지 현황	22
〈표 1-14〉 전국대비 충청북도 도로시설 수준	23
〈표 1-15〉 시·군별 도로시설 현황	24
〈표 1-16〉 충북 철도수송 현황	25
〈표 1-17〉 청주공항 연도별 이용 현황	28
〈표 1-18〉 국내선 장래 예측 수요	28
〈표 1-19〉 국제선 장래 예측 수요	28
〈표 1-20〉 충청북도 광역상수도 건설현황	29
〈표 1-21〉 동북아 주요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지수	45
〈표 1-22〉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2008~2020)」의 추진성과	52
〈표 1-2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설계	53
〈표 1-24〉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54
〈표 1-25〉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도민의식조사 내용	54
〈표 1-26〉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도민의식조사 실시진행 내용	55
〈표 1-27〉 조사대상자 응답자 특성	56
〈표 1-28〉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73
〈표 2-1〉 당초 및 관련계획 인구	82
〈표 2-2〉 인구추정 결과	83
〈표 2-3〉 충청북도 장기발전 지표	84
〈표 2-4〉 권역별 발전 프로젝트	90
〈표 2-5〉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 체계	105
〈표 3-1〉 충청북도 경제지표 총괄	123
〈표 3-2〉 규모별 사업체 현황	125
〈표 3-3〉 충청북도 제조업 · 업종별 현황	125

〈표 3-4〉 산업단지 현황	126
〈표 3-5〉 국가신성장동력산업 분야	127
〈표 3-6〉 충북의 8개 클러스터 중심의 권역별 특성화 계획	138
〈표 3-7〉 시군별 특성화 계획	140
〈표 3-8〉 충북의 농가인구 추이	141
〈표 3-9〉 충북의 총 경지 면적과 가구당 경지면적	142
〈표 3-10〉 충북 시군별 경지면적(2009)	142
〈표 3-11〉 충북 특화계수(2009년)	144
〈표 3-12〉 농가경제 현황	145
〈표 3-13〉 농업·농촌 메가트렌트와 파급영향	148
〈표 3-14〉 충청북도 국제교류 현황(2010년 12월 기준)	156
〈표 3-15〉 각 시·군별 국제 교류 현황	157
〈표 3-16〉 교류 활성화 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158
〈표 3-17〉 부진 교류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158
〈표 3-18〉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입 동향	159
〈표 3-19〉 충북 10대 수출국	160
〈표 3-20〉 충북 10대 수출국 주요 수출품	161
〈표 3-21〉 충북 10대 수출품목	161
〈표 3-22〉 충북 10대 수출기업	162
〈표 3-23〉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대별 분포	163
〈표 3-24〉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	163
〈표 3-25〉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및 특징	169
〈표 3-26〉 도내 주요 문화시설 현황	175
〈표 3-27〉 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176
〈표 3-28〉 도별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	177
〈표 3-29〉 도별 공연장 현황	177
〈표 3-30〉 충북 소재 예술단 현황	178
〈표 3-31〉 충북의 문화예술협회 현황	178
〈표 3-32〉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활동 현황	179
〈표 3-33〉 전국 및 충북지역 지정문화재 현황	180
〈표 3-34〉 충북의 등록문화재 현황	180
〈표 3-35〉 전국의 등록문화재 현황	182
〈표 3-36〉 문화정책의 진화과정	183
〈표 3-37〉 국립공원 현황	192
〈표 3-38〉 국립공원 방문객 추이	192
〈표 3-39〉 자연휴양림 현황	193
〈표 3-40〉 여행업 현황	194
〈표 3-41〉 관광숙박업 현황	195
〈표 3-42〉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업 현황	195
〈표 3-43〉 유원시설업 현황	196

〈표 3-44〉 충북의 시군별 주요관광지 방문객 추이	197
〈표 3-45〉 지정관광지 현황	198
〈표 3-46〉 관광특구 현황	199
〈표 3-47〉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199
〈표 3-48〉 관광특구 방문객 추이	200
〈표 3-49〉 충북의 문화관광축제 결과	200
〈표 3-50〉 전국 지역별 축제수 및 비중	201
〈표 3-51〉 권역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205
〈표 3-52〉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사업비	206
〈표 3-53〉 권역별 숙박시설 조성계획	208
〈표 3-54〉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내용	208
〈표 3-55〉 웰빙 체험 가족형 관광상품 및 세부내용	210
〈표 3-56〉 지역별 문화관광 테마	212
〈표 3-57〉 시·군별 농촌관광관련 마을개발사업 선정 현황	215
〈표 3-58〉 충청북도 등급별 도로현황 총괄(2009년 12월 31일 기준)	225
〈표 3-59〉 충청북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226
〈표 3-60〉 자동차의 증가추이	227
〈표 3-61〉 충북선 선로용량 및 운행현황(2009년)	227
〈표 3-62〉 청주공항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228
〈표 3-63〉 청주공항 수송실적	229
〈표 3-64〉 고속도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233
〈표 3-65〉 국도 사업 및 사업내용	234
〈표 3-66〉 지방도 사업 및 사업내용	235
〈표 3-67〉 호남고속철도 사업 및 내용	238
〈표 3-68〉 중앙선과 태백선 전철화 사업내용	238
〈표 3-69〉 세종시 및 혁신도시 연계교통망 확충 사업	239
〈표 3-70〉 내륙권발전을 위한 교통망 사업	239
〈표 3-7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사업	240
〈표 3-72〉 오송역 접근성을 위한 연계철도 건설 사업	240
〈표 3-73〉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사업	242
〈표 3-74〉 신규 국제노선 개설 사업	242
〈표 3-75〉 청주국제공항 저가항공사 허브화 사업	243
〈표 3-76〉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대상업체	243
〈표 3-77〉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244
〈표 3-78〉 BRT 건설 사업	244
〈표 3-79〉 신교통수단 건설 사업	245
〈표 3-80〉 복합환승센터 건설 권역 및 대상시설	245
〈표 3-81〉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을 사업	245
〈표 3-82〉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 사업	246
〈표 3-83〉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업	247

〈표 3-84〉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247
〈표 3-85〉 충북지역 산업단지 운영 및 계획	249
〈표 3-86〉 중부권 권역별 K자형 물류벨트 구축 사업	250
〈표 3-87〉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	253
〈표 3-88〉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253
〈표 3-89〉 u-Health 시범사업 내용	258
〈표 3-90〉 주택보급 추이	265
〈표 3-91〉 주택수요 산정지표	267
〈표 3-92〉 충북 시군의 상수도 보급현황(2009년)	272
〈표 3-93〉 광역상수도 취수 현황	273
〈표 3-94〉 하수도 보급현황 추이	274
〈표 3-95〉 시군별 하수도 보급현황(2009년)	275
〈표 3-96〉 충청도내 시군별 하수처리장 운영현황(2009년)	275
〈표 3-97〉 상수도 년도별 보급계획	277
〈표 3-98〉 하수도 년도별 보급계획	277
〈표 3-99〉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분포(2009)	283
〈표 3-100〉 충북의료현황(2009)	284
〈표 3-10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2009)	284
〈표 3-102〉 충북의 교육시설현황	294
〈표 3-103〉 충북 공공체육시설 현황	295
〈표 3-104〉 충북의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295
〈표 3-105〉 충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296
〈표 3-106〉 토지이용 현황	310
〈표 3-107〉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310
〈표 3-108〉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현황	311
〈표 3-109〉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312
〈표 3-110〉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312
〈표 3-111〉 이용인구 1인당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314
〈표 3-112〉 제조업체 평균종업원 밀도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315
〈표 3-113〉 2020년 용도별 소요면적	315
〈표 3-114〉 충청북도 댐 현황	320
〈표 3-115〉 충주댐 수질현황(2008년)	323
〈표 3-116〉 대청댐 수질현황(2008년)	323
〈표 3-117〉 분야별 전력사용량	329
〈표 3-118〉 1·2차 산업의 전력사용량	330
〈표 3-119〉 가스 사용량	330
〈표 3-120〉 석유류 소비량	330
〈표 3-121〉 신·재생에너지 분류	331
〈표 3-122〉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2009)	332
〈표 3-123〉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2009)	332

〈표 3-124〉 녹색기술분야별 특허현황(2009)	336
〈표 3-125〉 지하자원 생산량	337
〈표 3-126〉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342
〈표 3-127〉 청주지역 평균기온 변화	345
〈표 3-128〉 월별강수량	346
〈표 3-129〉 대기배출업소 현황	347
〈표 3-130〉 생활쓰레기 발생량 변화추이	348
〈표 3-131〉 쓰레기 처리 변화추이	348
〈표 3-132〉 쓰레기 매립지 현황	349
〈표 3-133〉 충청북도 경관행정 현황(경관조례, 위원회, 경관계획)	361
〈표 3-134〉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현황	377
〈표 3-135〉 최근 3년간 구조·구급·민생지원 활동현황	379
〈표 3-136〉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소방활동현황	379
〈표 4-1〉 행정구역 규모에 따른 장단점	399
〈표 4-2〉 지방행정체제 현황(2011년 1월 현재)	400
〈표 4-3〉 광역자치단체 회계별 결산 규모 추이	413
〈표 4-4〉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414
〈표 4-5〉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2001~2007)	415
〈표 4-6〉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2008-2009)	415
〈표 4-7〉 충북 재정자립도 추이	416
〈표 4-8〉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416
〈표 4-9〉 충북 재정지표 분석	417
〈표 4-10〉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	419
〈표 4-11〉 연도별 지방세수입 추이	420
〈표 4-12〉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투자계획	430
〈표 4-13〉 부문별 투자계획	430
〈표 4-14〉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431
〈표 4-15〉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규모	436

{ 그림목차 }

〈그림 1-1〉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역할	4
〈그림 1-2〉 계획의 공간적 범위	6
〈그림 1-3〉 국토공간상의 충북의 위치	11
〈그림 1-4〉 충북의 지형 및 수계	12
〈그림 1-5〉 충북의 총인구, 세대수, 인구밀도	14
〈그림 1-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20
〈그림 1-7〉 전국대비 도로시설 수준	23
〈그림 1-8〉 시·군별 도로연장 현황	24
〈그림 1-9〉 오송허브역 연계 여건도	25
〈그림 1-10〉 고속철도 오송허브역 구상도	26
〈그림 1-1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30
〈그림 1-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미래상	35
〈그림 1-13〉 충청광역경제권 1허브 5대 산업발전축	37
〈그림 1-1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39
〈그림 1-15〉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구상	42
〈그림 1-16〉 충북발전계획도(2008~2020)	41
〈그림 1-17〉 충청북도 도로망 체계 구상	43
〈그림 1-18〉 생활분야 만족도	57
〈그림 1-19〉 가장 만족하는 생활분야	58
〈그림 1-20〉 충청북도 거주자의 자랑스러움	58
〈그림 1-21〉 충청북도 지속적 거주여부	59
〈그림 1-22〉 충청북도 현 지역발전 정도	60
〈그림 1-23〉 충청북도 발전 장애요인	61
〈그림 1-24〉 충청북도 종합계획 중점적 법정계획분야(1순위)	62
〈그림 1-25〉 충청북도 장기종합계획 중점적 법정계획분야(2순위)	62
〈그림 1-26〉 충청북도 도정목표 우선방침(1순위)	63
〈그림 1-27〉 충청북도 도정목표 우선방침(2순위)	64
〈그림 1-28〉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64
〈그림 1-29〉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65
〈그림 1-30〉 산업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66
〈그림 1-31〉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분석	67
〈그림 1-32〉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68
〈그림 1-33〉 복지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	68
〈그림 1-34〉 소방·방재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69
〈그림 1-35〉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	70

〈그림 2-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79
〈그림 2-2〉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삼각 발전축 구상도	87
〈그림 2-3〉 발전축 설정	89
〈그림 2-4〉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동력 프로젝트	95
〈그림 2-5〉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96
〈그림 2-6〉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97
〈그림 2-7〉 수도권 협력지구	98
〈그림 2-8〉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99
〈그림 2-9〉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100
〈그림 2-10〉 영호남융합권 협력지구	101
〈그림 2-11〉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102
〈그림 2-12〉 수륙연계 협력지구	103
〈그림 2-13〉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체계	105
〈그림 3-1〉 계층적 도시결합	114
〈그림 3-2〉 네트워크형 도시결합	114
〈그림 3-3〉 거버넌스 구축성공을 위한 8가지 원칙	115
〈그림 3-4〉 도시간 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	117
〈그림 3-5〉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118
〈그림 3-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124
〈그림 3-7〉 전국과 충북 GRDP 및 GRDP 증감률 비교 : 1985-2009	128
〈그림 3-8〉 바이오 경제의 대두	129
〈그림 3-9〉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129
〈그림 3-10〉 충북의 3차원 산업 육성 전략	132
〈그림 3-11〉 오송바이오밸리와 아시아솔라밸리 개념도	134
〈그림 3-12〉 충북의 산업 발전축 및 공간 구상	135
〈그림 3-13〉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 동향	160
〈그림 3-14〉 충북 10대 수출국 비중	160
〈그림 3-15〉 농촌관광 시장규모의 변화 전망	217
〈그림 3-16〉 도계획 교통부문 기본방향	232
〈그림 3-17〉 2020년 충청북도 고속도로망 계획	237
〈그림 3-18〉 2020년 충청북도 철도망 계획	241
〈그림 3-19〉 충청북도 물류/산업단지 계획	252
〈그림 3-20〉 세계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PB)	255
〈그림 3-21〉 국내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TB)	255
〈그림 3-22〉 그린 ICT 개념도	257
〈그림 3-23〉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도	262
〈그림 3-24〉 충청북도 용수공급지역 현황	273
〈그림 3-25〉 년도별 인구·노인인구비중·고령화 지수 변화	282
〈그림 3-26〉 충청북도 수계현황	320
〈그림 3-27〉 충청북도 주요 강우관측소별 강우량 현황	321

〈그림 3-28〉 충청북도 수계별 수질현황	322
〈그림 3-29〉 미호천 상류의 수질현황(2009년)	324
〈그림 3-30〉 미호천 하류의 수질현황(2009년)	324
〈그림 3-31〉 대청댐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325
〈그림 3-32〉 태양광 에너지 생산비율	333
〈그림 3-33〉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333
〈그림 3-34〉 바이오에너지 생산비율	334
〈그림 3-35〉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334
〈그림 3-36〉 폐기물에너지 생산비율	335
〈그림 3-37〉 폐기물에너지 생산량	335
〈그림 3-38〉 상황처리 흐름도	384
〈그림 3-39〉 방재형 도시구축의 개념 모델	385
〈그림 3-40〉 산불관리 통합시스템(예시)	389
〈그림 4-1〉 행정부문 목표 및 기본방향	403

[제 1 편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1장 |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과 목적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제3절 계획의 법적근거와 범위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과 목적

1. 배 경

제3차 도중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략 및 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북 발전(국토 내륙) 전략 수립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 국가발전전략과 연계

-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문제의 심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에너지 사회의 도래에 대응한 지역공간구조 개편전략 수립 필요

☐ 개방형 국토기반형성에 따른 국토 내륙축 발전 전략 강구

- 초광역개발권으로 육성 중인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등과 5+2 광역경제권의 틀 속에서 충북 발전(국토 내륙)의 특화된 발전전략 전개 필요

☐ 저탄소 에너지 저감시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기후변화, 고유가 시대 등 녹색성장시대로 대변되는 저탄소 에너지 저감시대 국가발전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

-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도시 축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시·군을 선정 특화형 발전모델 구축 필요
- 성장도시와 축소도시간 상생협력 모델의 구축을 통해 내륙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

☐ 민선5기의 도정 이념과 운영 전략의 수용

- 개방형 국토를 견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지로서 민선 5기 도정의 비전인 “생

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도정이념과 운영전략을 수용하여 미래 충북의 발전모델 구축 필요

- 급변하는 지역개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건변화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북차원의 전략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 제기

2. 목 적

-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충북지역의 창의력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유·무형의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장·단기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충북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차원의 균형개발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
- 민선5기 충북비전인 3+1 프로젝트(바이오벨리, 슬라벨리, 균형발전과 MRO산업)전략과 도내에서 추진되는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이 지역발전사업과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북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국토내륙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상 확립
- 지역간 이동성 제고와 문화·관광,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증대에 대응한 지역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패턴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 IT 및 BT 특화 인프라 기반의 연관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 고속철도 개통,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혁신적인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성 격

□ 국토기본법 상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

□ 충북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 충청북도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 충북의 미래상 제시

□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한 충청북도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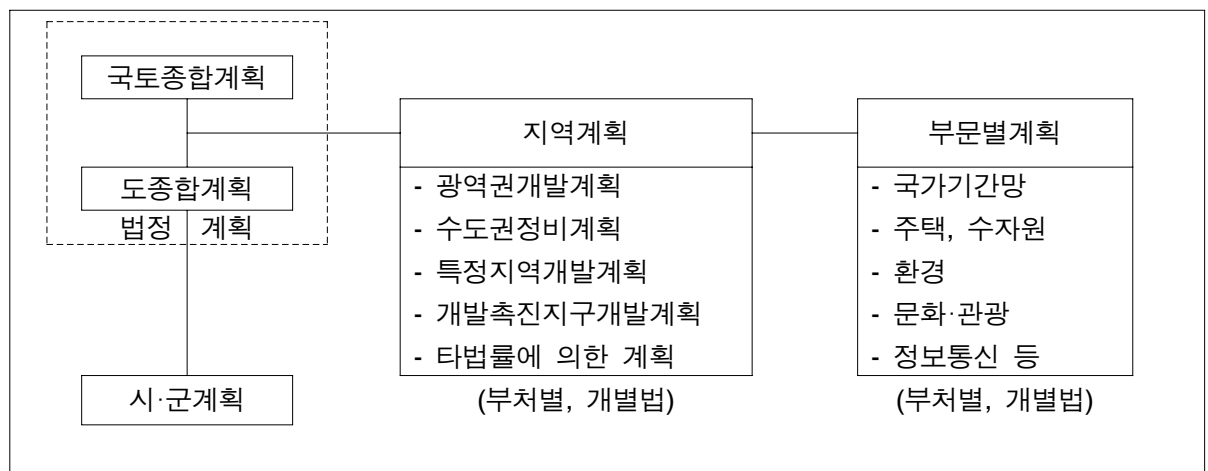
□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는 도 차원의 “지역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구체화하여 균형발전과 미래비전 실현

□ 시·군별,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하위 법정계획에 대한 개발방향 제시·유도

〈표 1-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2. 역 할

□ 지역 발전에 대한 미래상 제시

- 민선5기 충북발전전략과 중장기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

□ 도 및 시·군에 대한 부문별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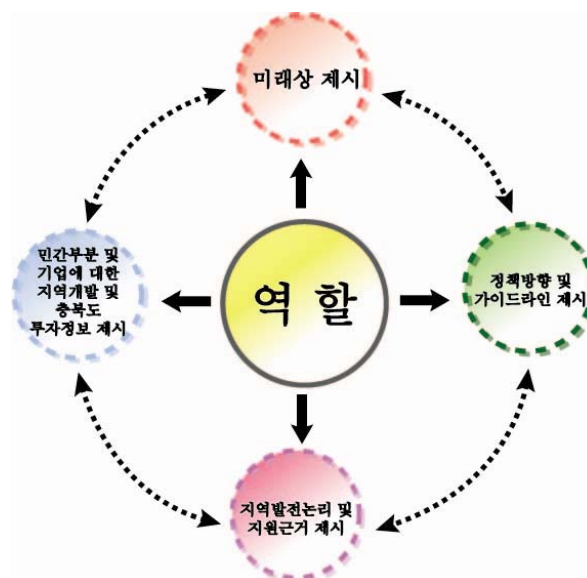
- 도 단위의 장기발전전략 제시를 통하여 도 및 시·군의 지역발전정책 수립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

□ 중앙정부에 지역발전 논리 및 지원 근거 제시

- 국토내륙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각종 법정계획 수립시 충북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 논리와 지원근거가 되는 지침서 역할

□ 민간 부문 및 기업에 대한 지역개발 및 충북도 투자 정보 제시

-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내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부문 및 기업에 대한 충북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 정보와 충북도 투자정보를 제시하는 지침서의 역할



<그림 1-1>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역할

제3절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1.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1) 법적근거

-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

※ 「국토기본법」 제13조

-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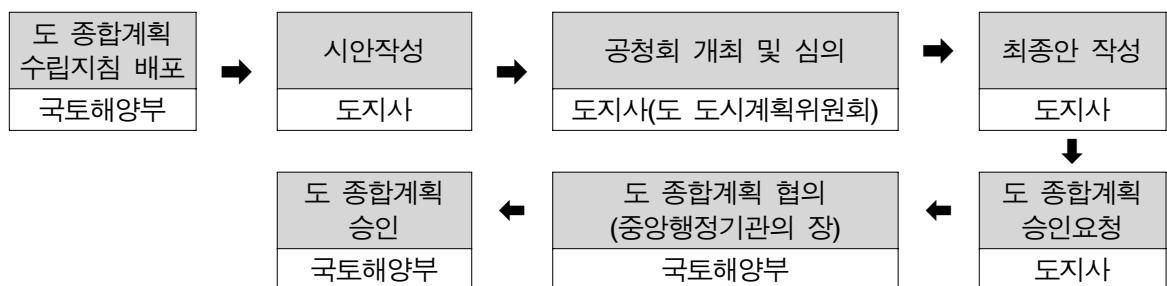
※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6조

-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 도종합계획은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국토해양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도지사) → ④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⑤국토부장관 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⑦도종합계획 승인(국토해양부장관)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표 1-2> 수립절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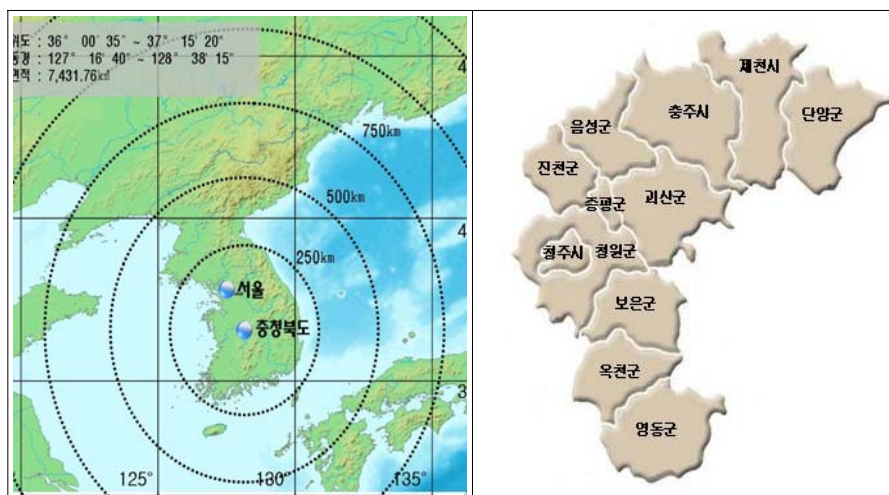
2.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2020년
- 기준년도 : 2010년

2) 공간적 범위

- 광의 범위
 - 충청북도는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역할을 하는 국토내륙지역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조 아래, 거시적 관점에서 국토전체를 계획 대상지역으로 함
- 협의 범위
 -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강원도, 경기도(수도권),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을 계획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실천 범위¹⁾
 - 도 종합계획의 실천적 공간 범위로는 2010년 말 충청북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의 시급 지역 3개 시(2,020km²)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등의 군급 지역 9개 군(5,411km²)을 대상으로 함



<그림 1-2> 계획의 공간적 범위

1) 2012년 7월 이후 청원군(부용면 8개리 29.06km²) 일부지역 세종시로 편입

3) 내용적 범위

□ 국토해양부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11. 3)에 따라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 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2011~2020) 내용의 지역적 구체화와 창의적 수용
-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평가를 통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 도종합계획의 내용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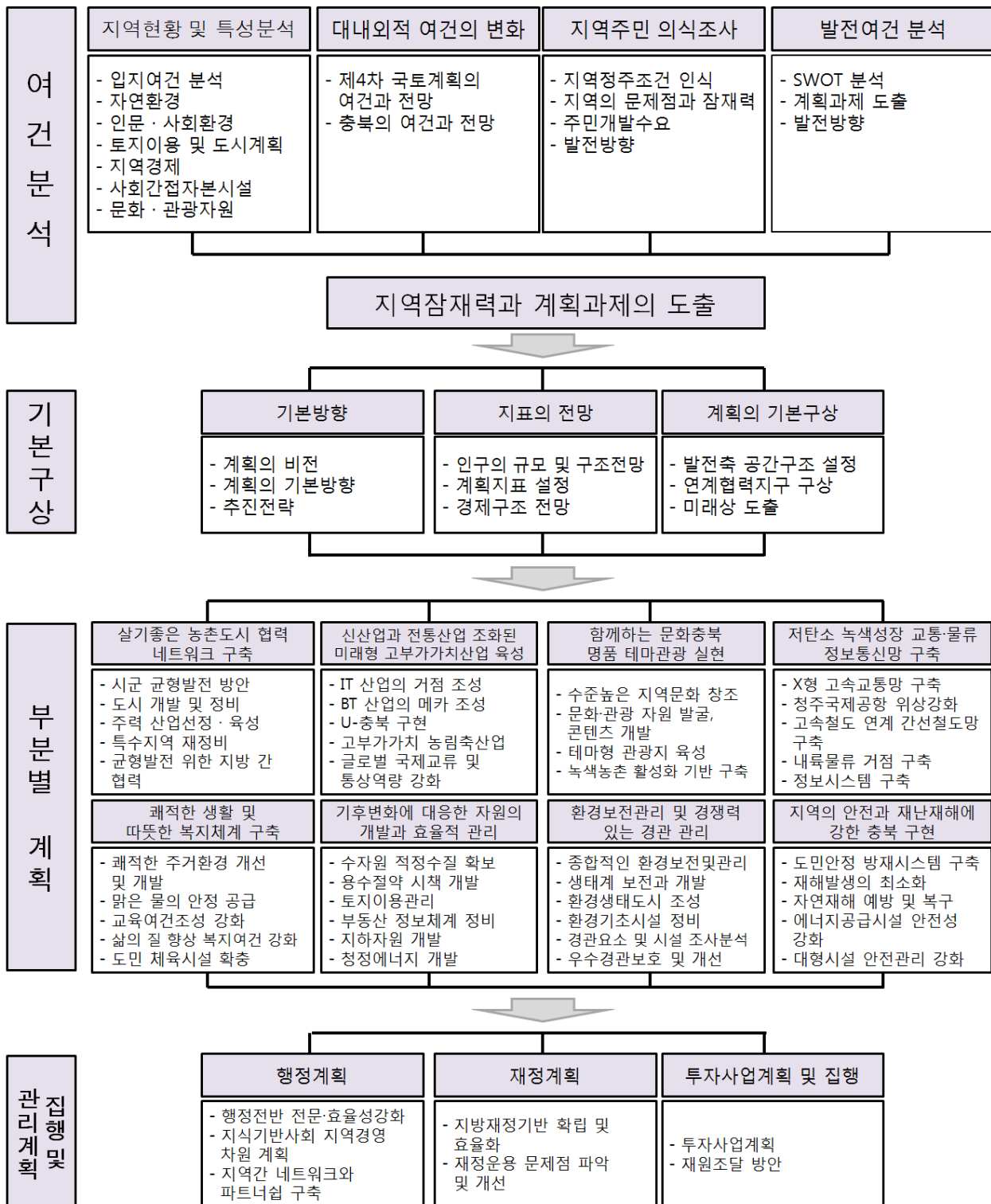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 주택, 상하수도, 공원, 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표 1-3>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제2장 |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수정계획 평가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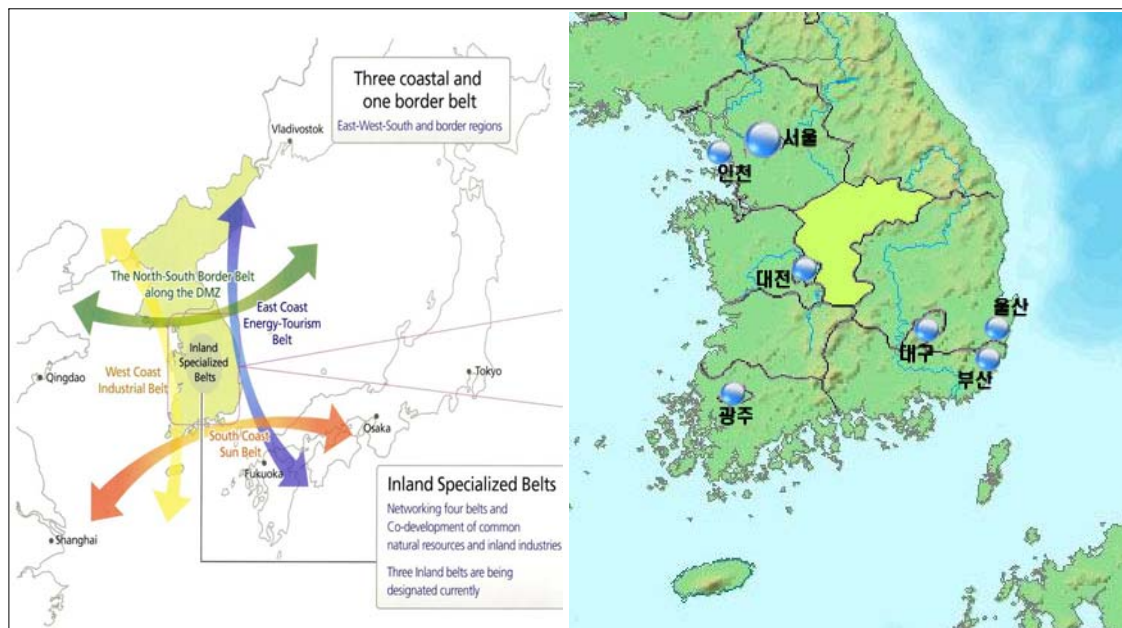
제2장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1.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1) 지리적 여건

- 충청북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1개 광역시, 5개 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음
-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 김천시, 서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 등과 인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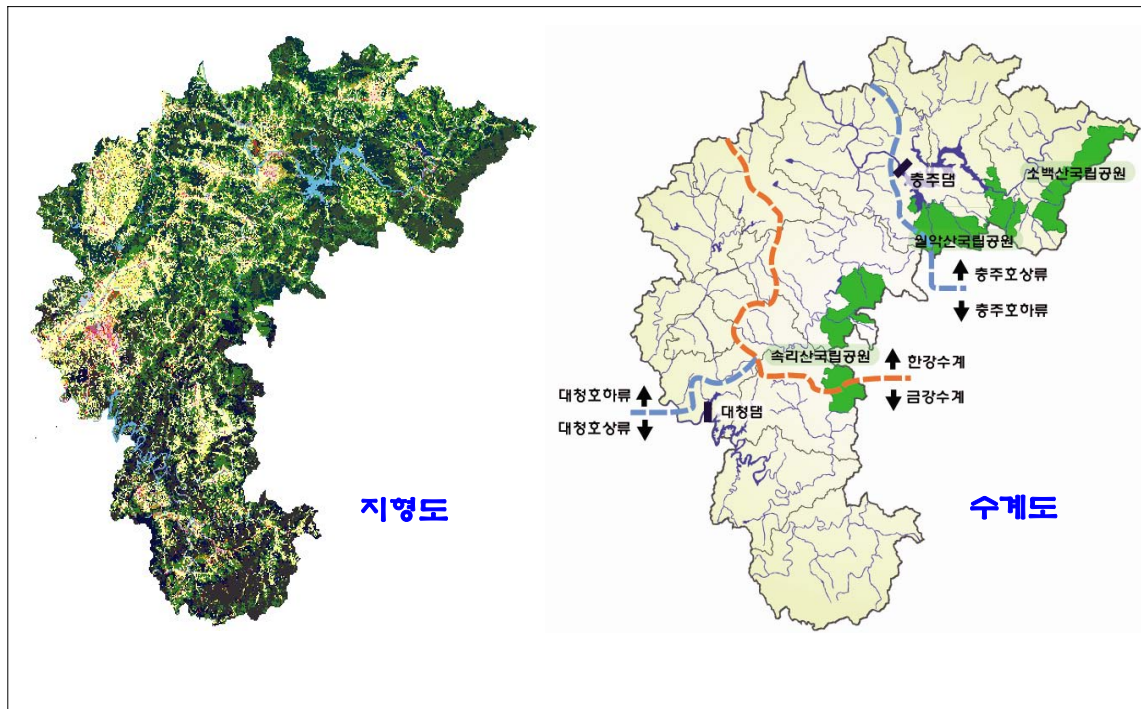
<그림 1-3> 국토공간상의 총복의 위치

- 총복은 수도권과 산악자원의 보고인 강원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 대전, 경북, 전북에 둘러싸인 해안을 접하지 않는 국토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 국토공간상으로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됨

- 수도권내의 서해안 산업지대, 국토 서남부에 입지한 산업 및 교역지대와 연계축 형성이 가능하고,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자연환경

- 지형적 특성은 동고서저의 산지가 많고 평야가 협소한 산악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류가 전면적의 2/3정도로 넓게 분포되어 자연풍화작용에 의한 분지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충북은 동남쪽으로 소백산맥, 북서로는 차령산맥이 지나고 서쪽은 구릉지 및 평야로 되어 있어 개방적인 남고북저형의 분지지형이 생성되어 있으며, 경북과 전북을 경계로 하는 소백산맥은 장년기 산지로서 비교적 험준한 산악을 이루고 있음
- 하천은 남한강과 금강의 2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한 남한강은 강주변의 침식분지 발달로 동북부지방의 중요한 생산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장수군에서 시작된 금강은 영동천, 보청천, 미호천 등과 만나 산간분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1-4> 충북의 지형 및 수계

2. 인구와 경제활동

1)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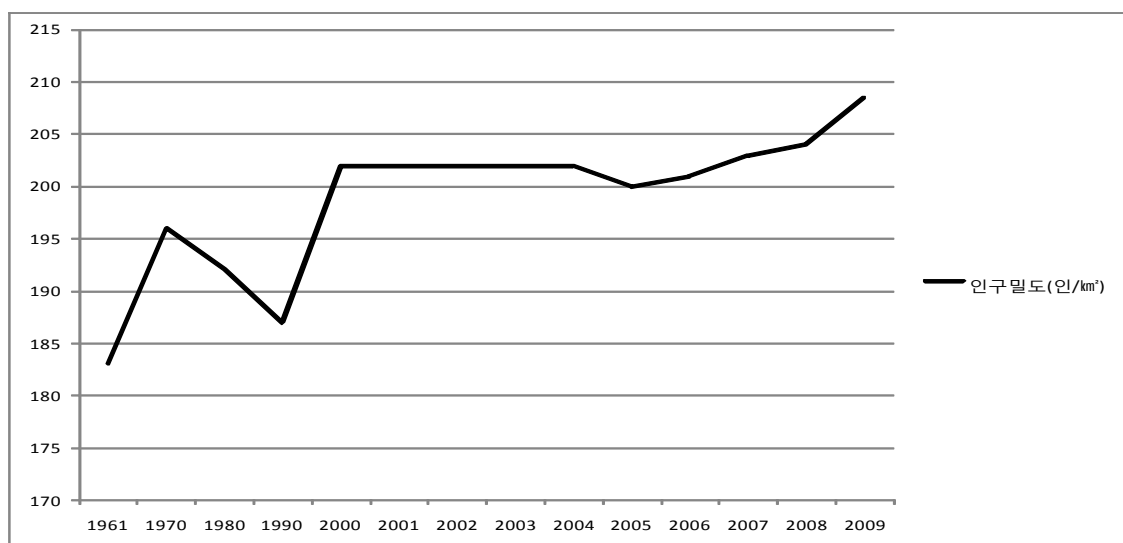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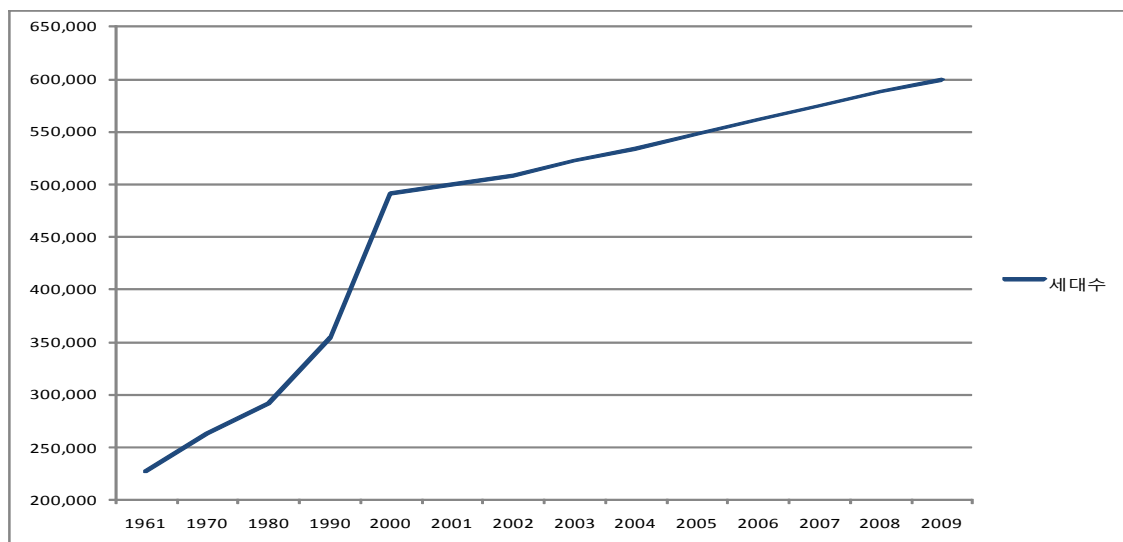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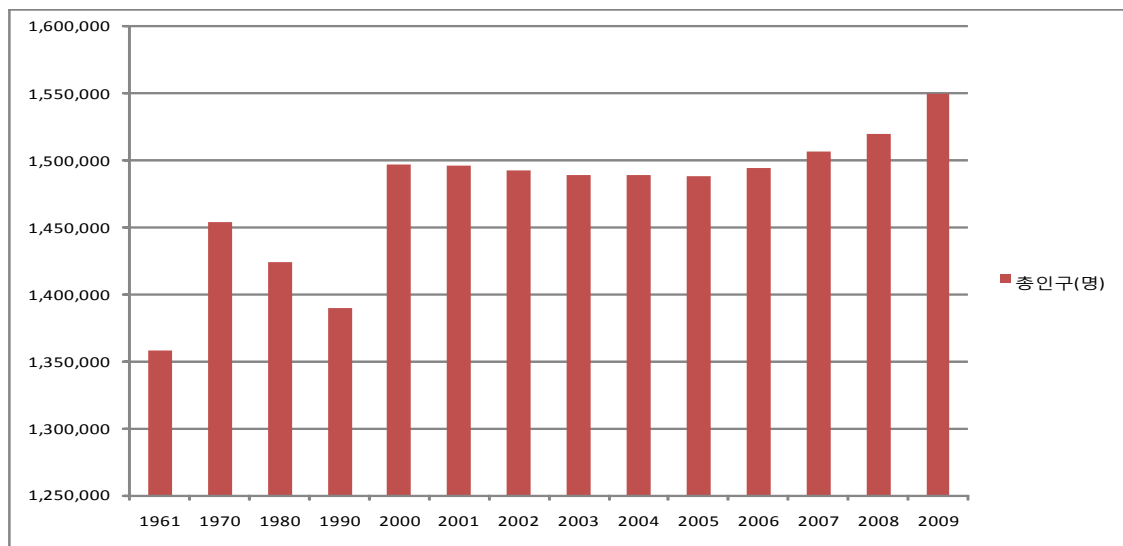
- 충북의 인구는 1990년대 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정체 내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세대수는 2009년 기준 599,204세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 세대당 인구는 3명으로 집계됨

〈표 1-4〉 충청북도 세대수 · 총인구 · 인구밀도

년 도	세대수(세대)	총인구(명)	인구밀도(인/㎢)
1962	223,941	1,416,391	190
1970	262,183	1,454,824	196
1980	291,050	1,424,785	192
1990	354,193	1,390,150	193
2000	491,781	1,497,513	202
2001	499,739	1,496,520	202
2002	508,561	1,492,713	202
2003	522,501	1,489,635	202
2004	534,231	1,500,610	202
2005	547,213	1,501,674	202
2006	561,762	1,511,885	203
2007	574,198	1,527,339	206
2008	587,411	1,542,287	208
2009	599,204	1,550,126	209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충북의 연령별 인구규모는 1990년대에는 15~19세가 1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4세, 20~24세가 9.7%로 나타나 청소년에서 청년층의 인구규모가 높았던 반면, 2009년에는 45~49세가 8.5%, 35~39세 8.3%, 40~44세 8.6%, 25~29세 7.2%, 50~54세 7.7%로 1990년대에 비해 장년층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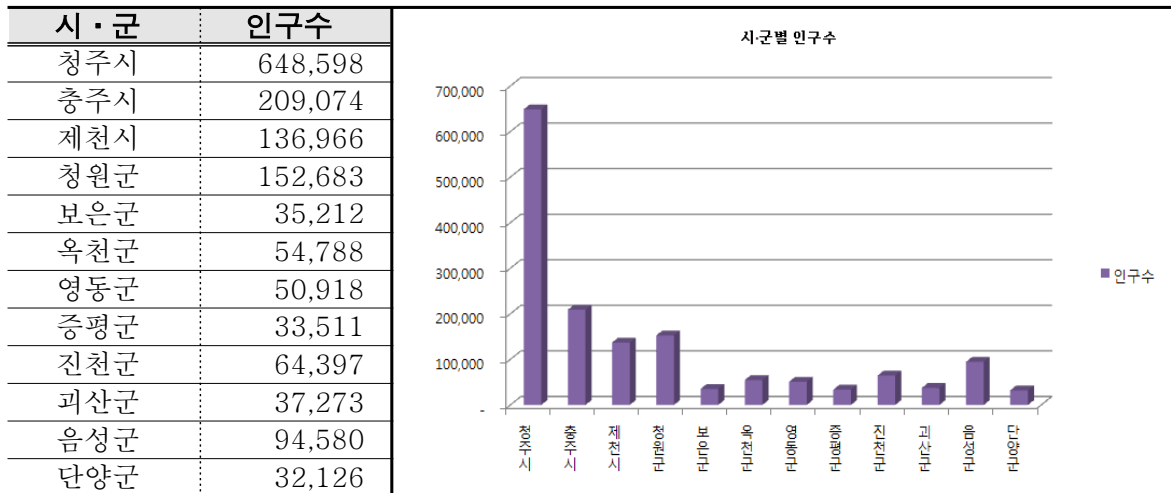


<그림 1-5> 충북의 총인구, 세대수, 인구밀도

- 시·군별 인구수는 청주시가 648,598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수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시가 209,074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수의 13%, 청원군이 152,683명으로 충북 전체 인구수의 9.8%, 청주시와 충주시, 청원군에 전체 충북인구의 약 65%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시군별 인구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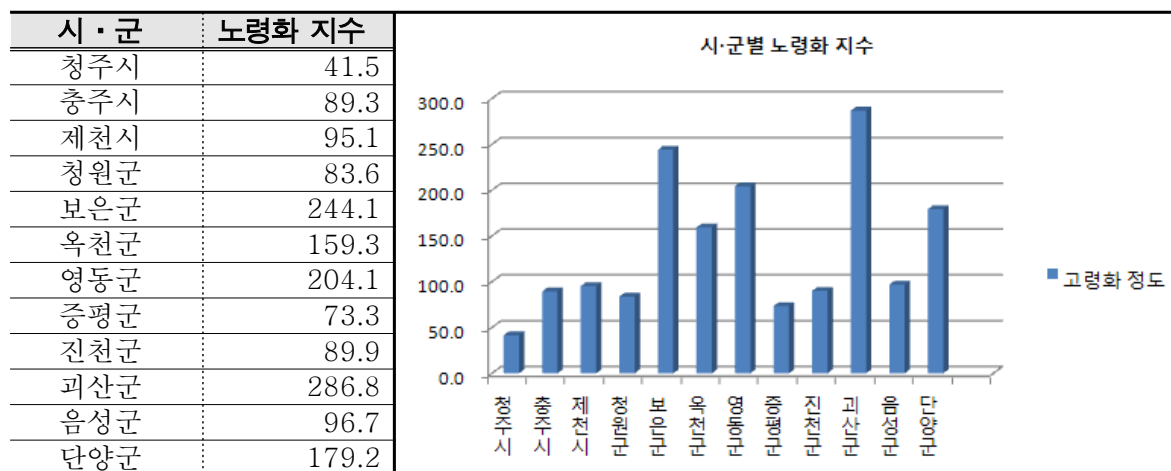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전국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노령화 지수는 136.9%로 전국 평균 노령화 지수인 69.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괴산군과 보은군은 265%대의 높은 노령화율을 보이고 있음

<표 1-6> 시군별 노령화 지수²⁾

(단위 : %)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2) 연소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 청주·청원지역 및 도내 북부지역 일부(제천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정체 내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속되는 도시화와 출산율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보여짐

<표 1-7> 시·군별 인구증가율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충 북	-0.06	0.00	0.07	0.68	1.02	0.98	0.51
청주시	1.81	1.52	1.16	-0.51	1.23	0.91	0.68
충주시	-1.27	-0.77	-0.66	-0.45	0.39	0.86	0.13
제천시	-1.70	-1.28	-0.35	-0.95	-0.04	-0.23	-0.19
청원군	-1.11	-1.17	0.12	14.38	5.21	3.55	1.04
보은군	-3.48	-2.26	-2.18	-2.02	-2.57	-0.91	-0.65
옥천군	-1.51	-1.41	-1.66	-1.06	-0.52	-0.14	-0.69
영동군	-3.01	-2.54	-1.36	-1.84	-1.28	0.37	0.32
증평군	0.00	-1.28	-0.87	-0.10	2.17	3.34	3.00
진천군	1.15	1.34	-0.57	0.88	0.28	1.15	1.29
괴산군	-3.06	-2.05	-2.43	-2.48	-1.70	-0.65	0.56
음성군	0.27	-0.09	0.23	2.01	2.62	1.76	0.46
단양군	-4.18	-2.46	-1.69	-2.13	-2.79	-1.42	-0.2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 충북 생산활동인구 중 15~54세의 인구는 60.8%로 전국의 62.9% 보다 낮으며, 0~14세 연소 인구의 규모가 줄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1990년대의 피라미드형 인구형태가 서서히 중형 인구형태로 변모하고 있음

<표 1-8> 충북의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연령	충 북				전 국	
	1998		2009		2009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합계	1,484,466	100.0	1,527,478	100.0	49,773,145	100.0
0 ~ 4세	105,987	7.1	70,077	4.6	2,263,425	4.5
5 ~ 9세	105,935	7.1	83,196	5.4	2,659,544	5.3
10 ~ 14세	102,908	6.9	105,418	6.9	3,326,018	6.7
15 ~ 19세	131,883	8.8	106,840	7.0	3,485,632	7.0
20 ~ 24세	130,499	8.7	95,528	6.3	3,134,026	6.3
25 ~ 29세	135,212	9.1	109,556	7.2	3,894,236	7.8
30 ~ 34세	126,938	8.5	107,762	7.1	3,872,630	7.8
35 ~ 39세	130,588	8.7	126,700	8.3	4,498,903	9.0
40 ~ 44세	110,987	7.4	131,934	8.6	4,374,778	8.8
45 ~ 49세	74,959	5.0	129,440	8.5	4,354,717	8.7
50 ~ 54세	63,937	4.3	118,088	7.7	3,852,573	7.7
55 ~ 59세	74,049	4.9	80,758	5.3	2,655,504	5.3
60 ~ 64세	67,062	4.5	64,066	4.2	2,133,451	4.3
65 ~ 69세	47,242	3.1	66,423	4.3	1,914,041	3.8
70 ~ 74세	32,794	2.2	59,304	3.9	1,518,328	3.1
75 ~ 79세	23,172	1.5	38,184	2.5	959,109	1.9
80세 이상	20,314	1.3	34,204	2.3	876,230	1.8

주 :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총조사 결과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통계청, 『연령별 인구통계연보』, 2010.

2) 경제활동인구

- 최근 10년 간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60.8%와 비교하였을 때 충북은 60.6%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취업자 수는 2001년 667천명에 비해 2009년 72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실업률은 2.1%로 전국평균 실업률 3.6%보다 1.5% 낮게 나타남

<표 1-9> 충북의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실업률	고용률
충 청 북 도	2001	1,156	691	667	24	465	59.8	3.5	57.7
	2002	1,159	700	682	18	459	60.4	2.6	58.8
	2003	1,160	689	668	22	471	59.4	3.1	57.5
	2004	1,162	696	677	19	466	59.9	2.7	58.3
	2005	1,175	698	682	16	477	59.4	2.2	58.1
	2006	1,182	701	686	15	481	59.3	2.1	58.1
	2007	1,185	710	694	16	476	59.9	2.2	58.5
	2008	1,199	726	710	16	474	60.5	2.2	59.2
	2009	1,219	739	723	15	480	60.6	2.1	59.4
전 국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3.6	58.6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3. 국토이용과 공간구조

1) 토지이용현황

- 충북지역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유일한 내륙도로서 국토의 7.5%인 7,433,175k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야의 비중이 높고 도시계획구역의 비중이 낮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표 1-10> 도시지역 지정현황

(단위 : ㎡, %)

구 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전국	17,317,258,219 (100)	2,350,957,352 (13.58)	294,297,582 (1.70)	877,482,645 (5.07)	12,619,619,721 (72.87)	1,516,332,411 (8.76)
충북	704,703,938 (100)	82,406,359 (11.72)	11,421,797 (1.93)	44,527,165 (5.41)	565,289,815 (80.73)	1,058,802 (11.46)
전국비중	4.06	3.50	3.88	5.07	4.48	0.07

자료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2009.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표 1-11> 지목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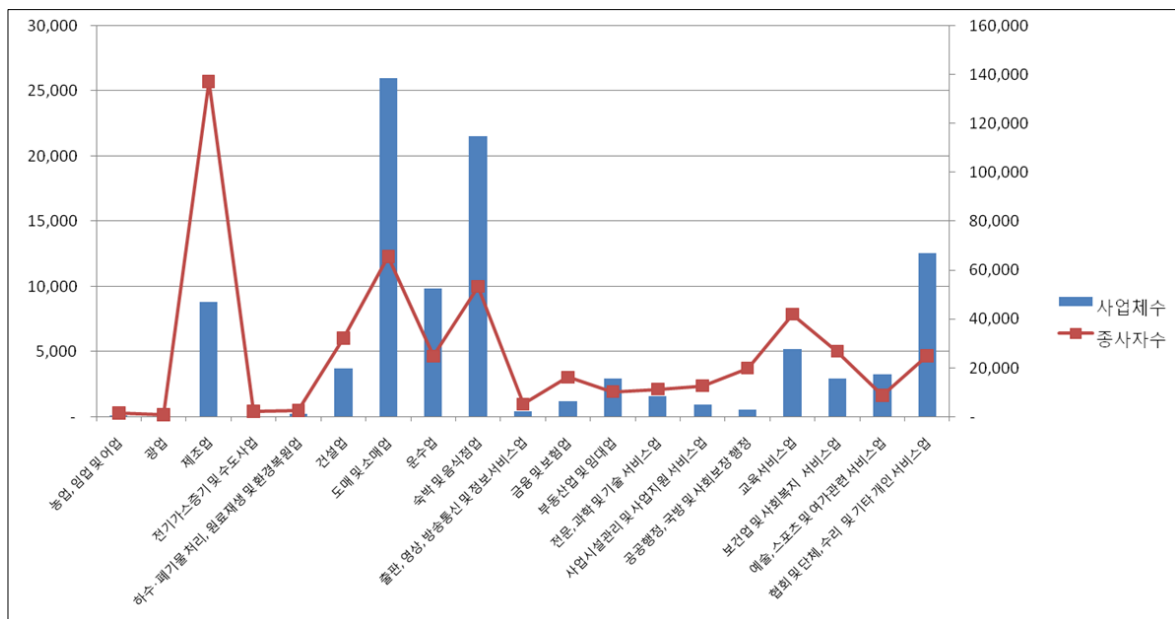
구 분	전국		충북		전국비중 (%)
	(㎡)	구성비(%)	(㎡)	구성비(%)	
총 면 적	99,827,784,396.0	100.00	7,433,175,078.4	100.00	
전	7,852,439,167.6	7.87	668,832,148.7	9.00	8.6
답	11,945,473,834.3	11.97	673,216,205.9	9.06	5.7
과수원	542,857,171.9	0.54	46,265,800.9	0.62	8.4
목장용지	583,352,155.6	0.58	29,386,230.6	0.40	5.1
임야	64,545,559,098.4	64.66	5,019,484,432.0	67.53	7.8
광천지	5,027.6	0.00	55.0	0.00	1.1
대지	2,659,462,689.6	2.66	146,587,138.4	1.97	5.4
공장용지	702,665,096.6	0.70	55,518,665.1	0.75	7.6
학교용지	278,385,919.8	0.28	19,125,581.0	0.26	6.8
주차장	13,307,042.6	0.01	883,502.8	0.01	6.0
주유소용지	14,915,513.1	0.01	1,244,258.5	0.02	8.0
창고용지	63,802,611.1	0.06	4,811,561.6	0.06	6.7
도로	2,742,873,642.8	2.75	205,875,134.9	2.77	7.3
철도용지	122,081,439.4	0.12	12,437,391.9	0.17	10.2
제방	189,840,184.0	0.19	12,495,206.2	0.17	6.6
하천	2,839,451,477.4	2.84	209,822,926.5	2.82	7.4
구거	1,780,205,653.8	1.78	123,848,629.9	1.67	7.0
유지	1,254,946,692.1	1.26	134,204,278.1	1.81	10.7
양어장	15,296,486.5	0.02	647,213.8	0.01	4.1
수도용지	46,023,716.6	0.05	2,236,663.7	0.03	4.8
공원	108,377,479.9	0.11	5,530,909.1	0.07	4.9
체육용지	222,501,640.0	0.22	8,981,718.4	0.12	3.5
유원지	23,205,988.2	0.02	1,400,050.7	0.02	5.5
종교용지	41,022,646.9	0.04	3,273,802.4	0.04	7.6
사적지	12,412,253.8	0.01	434,410.5	0.01	3.5
묘지	283,988,270.5	0.28	19,116,505.4	0.26	6.7
잡종지	837,397,084.9	0.84	27,514,656.4	0.37	3.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9~2010.

국토해양부, 『시도별 면적통계』, 각 년도.

2) 사업체 현황

- 2010년 기준 도내 사업체수의 구성비는 도매 및 소매업이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2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3%, 운수업 9.6%, 교육 서비스업 5.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는 제조업이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3.2%, 숙박 및 음식점업 10.7%, 교육 서비스업 8.4%, 건설업 6.4%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그림 1-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 2010년 기준, 전사업체의 84.0%가 1~4인 규모의 사업체로 종사자의 30.0%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업체당 평균 1.70인을 고용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대규모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1-12>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 %, 명)

구분		충북			전국		
		사업체수	종사자수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업 체 규모	1~4명	84.0	30.0	1.7	2,712,483	4,864,888	1.8
	5~9명	8.5	11.2	6.4	309,810	1,969,754	6.4
	10~19명	3.8	10.6	13.5	131,797	1,745,360	13.2
	20~49명	2.4	14.6	29.9	72,807	2,178,097	29.9
	50~99명	0.8	11.8	68.0	24,208	1,647,499	68.1
	100~299명	0.3	10.8	158.0	10,748	1,703,462	158.5
	300~499명	0.1	3.8	373.8	1,613	608,249	377.1
	500~999명	0.0	3.1	666.8	873	598,807	685.9
	1,000명이상	0.0	4.2	1,729.8	443	972,164	2,194.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3) 산업단지 현황

- 충청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은 국가산업단지 1개소 2,199천㎡, 일반산업단지 15개소 10,924천㎡, 농공단지가 40개소 4,480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업체는 전체 1,067개소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산업단지 입주지역은 진천·음성군이 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원군이 7개소, 제천시 6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농공단지는 진천군이 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천시, 옥천군에 5개소, 충주시에 4개소,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에 3개소, 괴산군, 증평군에 각각 2개가 입지해 있음

<표 1-13> 산업단지 현황

구분	개소	총면적(천 ㎡)	입주업체수(개소)	종업원수(인)
합 계	56	17,603	1,067	56,917
국가단지	1	2,199	57	—
지방단지	15	10,924	614	41,555
농공단지	40	4,480	396	15,416
청주시	1	3,019	267	22,513
충주시	7(4)	1,559(524)	113(49)	3,131(1,422)
제천시	6(5)	1,253(522)	103(56)	2,000(1,058)
청원군	7(3)	6,625(354)	214(5)	14,702(591)
보은군	3(3)	399(399)	55(55)	809(809)
옥천군	5(5)	692(692)	74(74)	2,232(2,232)
영동군	3(3)	392(392)	17(17)	1,060(1,060)
증평군	3(2)	676(169)	25(7)	1,111(920)
진천군	8(7)	935(755)	50(49)	4,737(4,686)
괴산군	2(2)	138(138)	18(18)	874(874)
음성군	8(3)	1,692(322)	117(40)	3,357(1,319)
단양군	3(3)	222(222)	24(24)	445(445)

주 : ()는 농공단지분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3. 국가기반시설(SOC)

1)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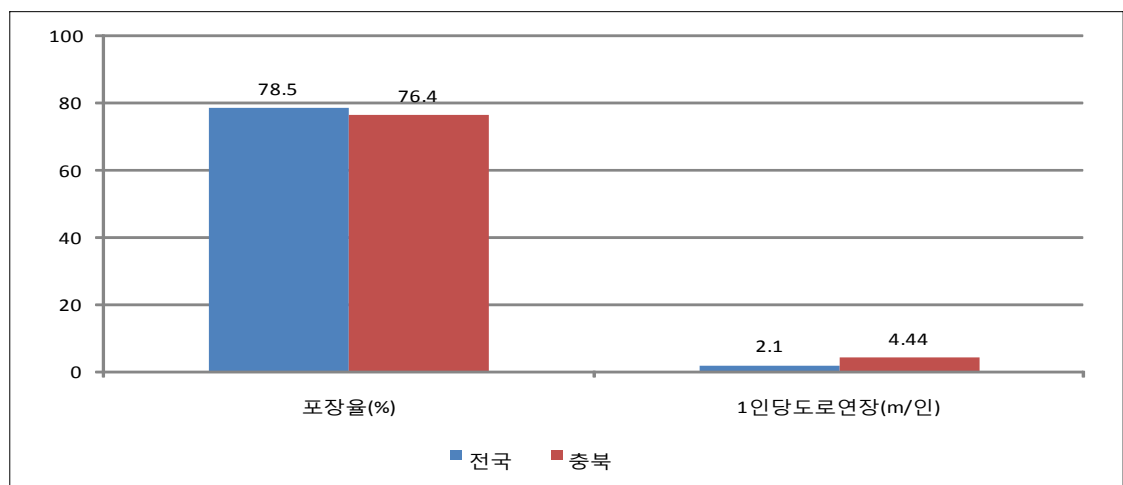
- 2010년 현재 충청북도 도로연장은 6,674km로 전국 총 도로 연장 104,983km에 6.4%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내 1인당 도로연장은 4.44m/인으로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고, 행정면적당 도로연장은 0.91km/km²로서 시급 단위보다는 낮으나, 도급 단위에서는 제주도와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국평균 1.04km/km²와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14> 전국대비 충청북도 도로시설 수준

구분	인구 (만명)	행정면적 (㎢)	도로연장 (km)	포장율 (%)	1인당도로 연장(m/인)	도로연장/ 행정면적 (km/㎢)	비고
전국	4,954.0	100,141	104,983	78.5	2.10	1.04	
서울시	1,020.1	605	8,144	100.0	0.80	13.45	
부산시	356.5	766	2,993	97.0	0.84	3.90	
대구시	249.3	884	2,392	98.9	0.95	2.69	
인천시	269.3	1,010	2,466	90.9	0.89	2.38	
광주시	142.3	501	1,604	98.7	1.05	2.98	
대전시	148.1	540	1,893	99.7	1.26	3.46	
울산시	111.2	1,058	1,694	96.5	1.51	1.59	
경기도	1,129.2	10,186	13,179	84.0	1.16	1.29	
강원도	150.9	16,875	9,715	70.6	6.40	0.58	
충청북도	152.0	7,433	6,674	76.4	4.44	0.91	변경
충청남도	201.9	8,601	7,803	75.2	3.76	0.88	
전라북도	185.6	8,061	7,870	71.6	4.25	0.98	
전라남도	191.9	12,213	10,271	69.9	5.31	0.83	
경상북도	267.4	19,028	12,370	71.8	4.58	0.64	
경상남도	322.5	10,531	12,709	67.1	3.94	1.21	
제주도	56.1	1,849	3,206	83.7	5.72	1.73	

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2009.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그림 1-7> 전국대비 도로시설 수준

- 2010년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의 도로관련지표를 살펴보면 1인당 도로연장은 청주시가 1.57m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지역은 모두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은 청주시가 6.57km/km²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지역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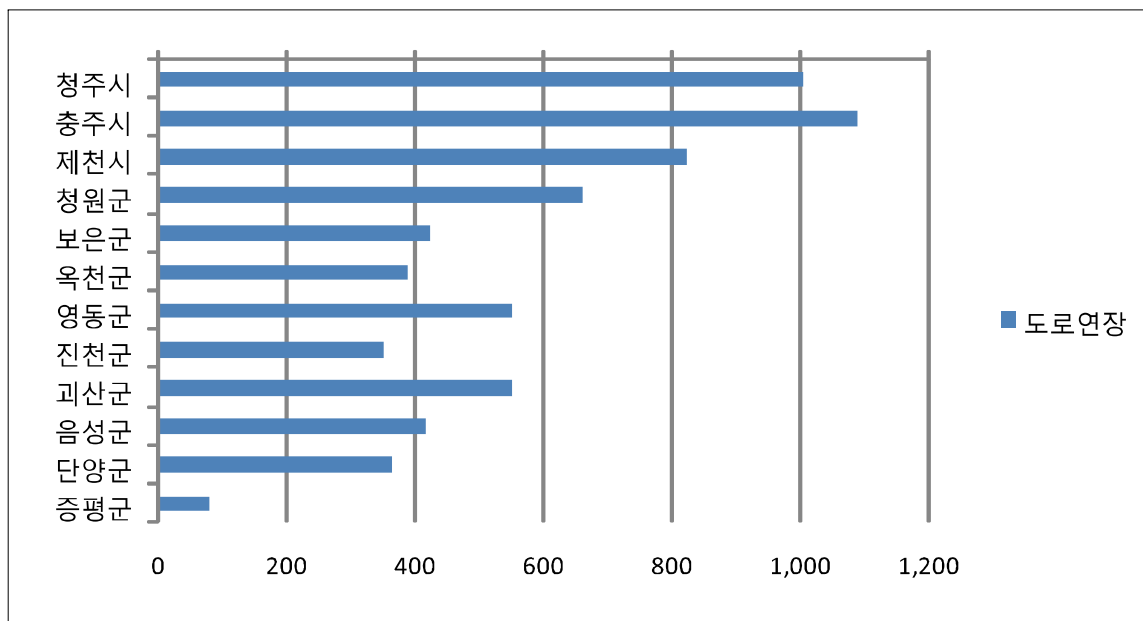
<표 1-15> 시·군별 도로시설 현황

구 분	인구 (천명)	면적 (km ²)	도로연장 (km)	포장율 (%)	1인당도로 연장 (m/인)	도로연장/행정 면적 (km/km ²)
합 계	1,519.6	7,433	6,674	76.4	4.44	0.91
시 계	985.3	2,020	2,923	75.0	2.98	1.45
청주시	643.1	153	1,005	74.4	1.57	6.57
충주시	206.6	984	1,092	74.7	5.29	1.11
제천시	135.6	883	826	75.8	6.09	0.94
군 계	542.0	5,413	3,825	77.0	7.10	0.71
청원군	149.8	814	662	80.1	4.47	0.81
보은군	34.8	584	426	74.5	12.14	0.73
옥천군	54.1	537	392	65.3	7.19	0.73
영동군	50.4	846	552	76.9	10.97	0.65
증평군	33.2	82	80	71.9	2.48	0.98
진천군	61.4	407	353	81.5	5.82	0.87
괴산군	36.8	842	554	75.8	15.14	0.66
음성군	89.7	520	418	82.5	4.67	0.80
단양군	31.8	781	367	84.3	11.50	0.47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충청북도, 『연도별 통계표』, 시도별 면적통계, 2010.

(단위 : km)



<그림 1-8> 시·군별 도로연장 현황

2) 철도

□ 철도이용 현황

- 철도수송 현황은 여객의 경우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7년 이후 여객수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여객수입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화물의 경우 뚜렷한 증감 추이를 보이지 않고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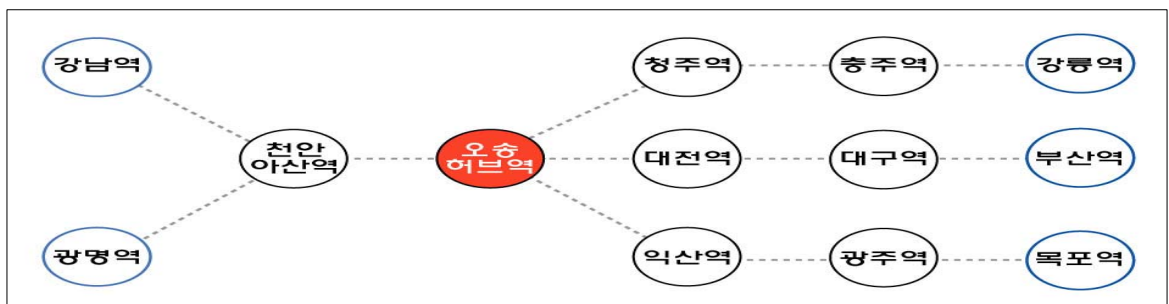
<표 1-16> 충북 철도수송 현황

구분	여객(인)			화물(톤)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천원)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천원)
2004	2,057,082	2,077,661	10,459,535	14,517,831	8,325,870	82,673,825
2005	2,071,368	1,893,036	12,469,972	12,257,224	7,439,098	74,530,617
2006	1,814,510	1,847,698	12,099,201	12,809,674	6,864,879	75,389,313
2007	1,778,480	1,800,014	12,990,534	13,809,616	7,780,969	89,866,259
2008	1,911,205	1,939,101	13,550,173	14,824,925	8,489,456	98,440,074
2009	1,971,634	6,309,311	12,775,341	13,569,016	7,021,652	91,216,877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오송허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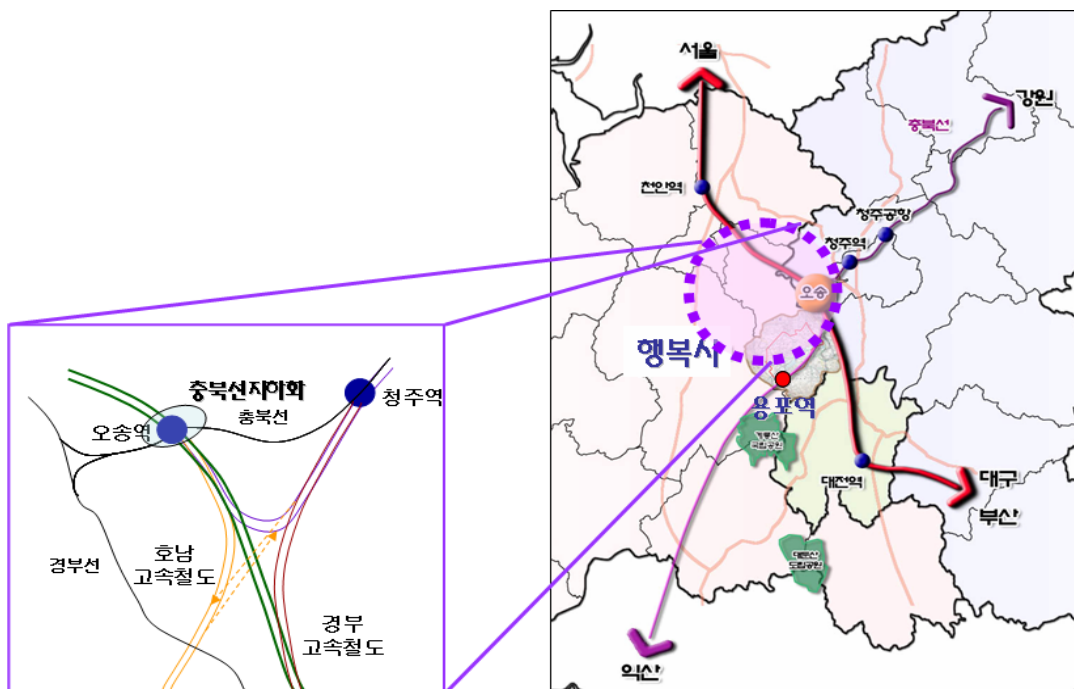
- 고속철도와 기존철도의 연계효과는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고속·고속수요의 안전·대량수송과 안정·지속적인 수송체계를 확보하고, 지역간 균등한 접근성 보장과 미개발 지역의 개발유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국토 및 환경보전, 남북통일과 이에 따른 국제교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허브역은 서울, 부산, 목포 각 방향으로 연결되는 분기역으로서의 연계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충북선과의 지선연결을 통해 강원권과의 연계도 가능



<그림 1-9> 오송허브역 연계 여건도

□ 단계별 개발계획

- 고속철도 환승역 개발
 - 고속철도 오송허브역에서 환승체계를 통해 충북선과 간접적인 연계
 - 오송을 포함한 청주권과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세권의 개발
 - 오송허브역은 경부고속철도 6선(상행3, 하행3)과 호남고속철도 4선(상행2, 하행2), 총 10개로 배선하고, 승강장은 경부선 2개소와 호남선 2개소를 설치하며, 그 크기는 $11.0\text{m} \times 450.0\text{m}$ 로 건설
- 오송허브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X축" 구축
 - 오송허브역은 경부고속철도 10선(상행5, 하행5)과 호남고속철도 4선(상행2, 하행2), 충북선 4선(상행2, 하행2), 총 18개로 배선하고 승강장은 총 6개소로 구성
 - 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 경부고속철도(부산방면)와 충북선 그리고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를 연계
 -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충북선의 직결을 위한 철도부지에 교통공원 설정



<그림 1-10> 고속철도 오송허브역 구상도

3) 공항

- 청주국제공항은 “충북경제자유구역”내에 위치한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며, 오송·오창 등 신산업단지와 인접하고 대전, 청주 등 기존도시와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수행
- 전국 공항별 위상
 - 중추공항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인천국제공항)
 - 거점공항 : 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기능과 권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공항
 - 대형 : 전국 국내선 여객의 10% 이상, 혹은 전국 국제선 여객의 2% 이상(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
 - 소형 : 대형의 수요규모 미만(청주, 대구, 무안, 양양)
 - 일반공항 : 지역에 일반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울산, 사천, 원주, 포항, 여수, 군산, 광주, 목포, 울진, 김제)
- ※ 청주공항의 기능은 제주노선과 중·단거리 국제선이 운항되는 “중부권 거점공항”임
- 부지 전체면적은 674만㎡(여객공항 1,313,481㎡)
 - 활 주 로 : 2본(2,744×45m, 2,744×60m)
 - 여객청사 : 22,406㎡
 - 화물터미널 : 2,257㎡
 - 주차장 39,741㎡(전체 1,305면), 계류장 90,648㎡로 구성
- 청주공항은 1997년 개항당시 국제선 정기운항노선이 5개였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모두 폐지되었다가, 중국과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점차 노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8월 현재 여객노선 운항현황
 - 국내선 : 제주 1일 14회 운항(대한항공 7, 아시아나 3, 제주항공 2, 이스타항공 2)
 - 국제선 : 오사카(대한항공) 주 4회, 방콕(대한항공) 주 2회, 연길(대한항공) 주 2회, 항주(대한항공) 주 3회, 북경(아시아나) 주 2회, 무단장(이스타항공) 주 2회, 치앙마이(이스타항공) 주 2회, 하이난(이스타항공) 주 2회, 세부(제스트항공) 주 2회
- 청주공항의 경우 국내선 여객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선 여객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했으며, 화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1-17> 청주공항 연도별 이용 현황

구분	국 내 선				국 제 선			
	도착		출발		입국		출국	
	여객(인)	화물(톤)	여객(인)	화물(톤)	여객(인)	화물(톤)	여객(인)	화물(톤)
2002	297,764	9,047	294,794	9,858	19,031	199	22,477	274
2003	345,450	10,101	341,221	10,747	37,005	477	37,472	1,696
2004	376,295	9,108	367,806	9,110	36,945	442	40,213	2,634
2005	381,091	6,674	375,129	5,479	49,204	618	51,845	772
2006	433,854	6,463	431,961	5,679	67,133	923	66,615	749
2007	439,410	6,188	432,141	5,607	80,117	957	80,816	764
2008	462,655	5,889	454,083	4,792	62,516	703	63,258	617
2009	497,803	6,134	493,528	4,083	16,277	180	15,924	209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 항공수요 예측

- 국내선 항공수요 예측결과 2010년에 1,254천명에서 2025년 2,275천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것으로 예측

<표 1-18> 국내선 장래 예측 수요

(단위 : 천명)

연도	2010	2015	2020	2025
여객 수	1,154	1,489	1,847	2,275

자료 :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

- 국제선 여객 수요는 2010년 122천명에서 2025년 247천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동남아 노선 확충 및 화물전세기 취양 지원과 저비용항공사의 전략적 기지화 전략 등의 추진으로 소형거점공항에서 대형거점공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표 1-19> 국제선 장래 예측 수요

(단위 : 천명)

연도	2010	2015	2020	2025
여객 수	122	157	197	247

자료 : 국토해양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

4) 상하수도

- 충청북도는 남한강과 금강 수계에 속하며, 하천과 댐을 주요 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충주, 대청댐의 광역상수도가 완료되어 2016년까지는 수도사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문제없음

〈표 1-20〉 충청북도 광역상수도 건설현황

구 분	사 업 명	시설용량 (천톤/일)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급수지역	비 고
완공	대청댐 I 단계	250	1984~1989	789	청주, 청원, 충남 일원	
	충주댐	250	1994~2002	1,544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경기 일원	
	대청댐 II 단계	980	1995~2003	4,849	충주, 청원, 오송 의료, 오창 과학	
계 획	두평댐	11	2011~2016	753	보은, 옥천	(취소)
	대청댐 III 단계	500	2016이후	3,875	청주, 청원, 충남 일원	(유보)
계	5			11,810		

자료 : 충청북도, 『환경백서』, 2009.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1) 계획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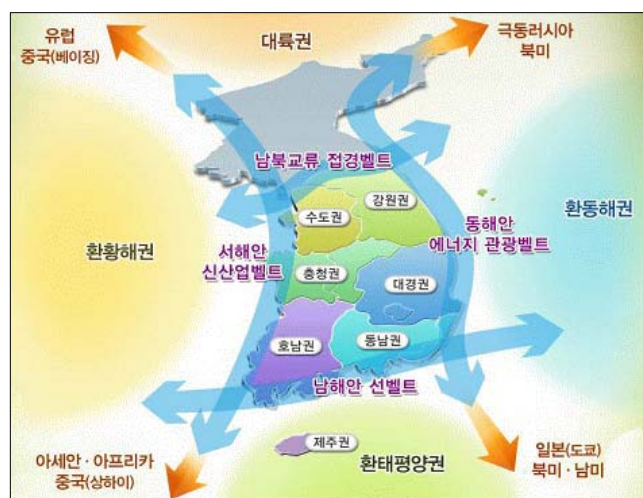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2) 계획의 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3)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그림 1-1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4) 충청권 발전방향 : 동북아 첨단과학기술·산업의 허브, 녹색국토 창조지대

가. 기본목표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R&D산업의 중심
-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산업의 거점
- 자연과 문화와 미래가 만나는 국제관광 허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성장의 중심

나. 권역의 발전방향

① 충청권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대도시권 구축과 충청권내 특성화된 지역발전거점도시 육성
- 지역발전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광역거점시설 및 주변지역간 광역 네트워크 강화와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도모
- 낙후지역의 새로운 발전역량을 제고하여 자립적 특화발전과 향토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

②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철도 등 녹색교통체계 확충
- 충청권역 지역발전거점도시간 광역연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 공항·항만·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일관복합운송시스템 구현

③ 新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해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중점 육성
- IT·BT·GT 융합산업의 광역적 혁신거점 창출과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4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권내 에너지 절약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로 개발
-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홍수 및 범람 방지 등을 위한 하천정비와 수변공간의 환경친화적 활용 방안 모색
- 대도시 및 근교관광권, 서해안 국제관광권, 내륙휴양관광권, 중부내륙관광권, 백제문화관광권 등 권역내 5대 관광권별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과 광역관광루트의 공동개발 및 경관 형성
- 충청권 그린-블루 네트워크(Green-Blue Network) 구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공간구조 창조

5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충청권내 해안과 내륙의 연계를 강화하고 타광역경제권과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 충청권내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5) 충청북도계획 : 생명·첨단산업 거점, 녹색성장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생명산업·첨단산업의 거점지역
- 차세대 대체에너지산업 핵심지역
- 국가 녹색성장의 중심지역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복지 선진지역

나. 발전방향

① 개방적 공간구조 개편과 인프라 확충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축 설정 및 지역발전거점 육성
- 해외자본 유치에 위한 「공항중심형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
- 중부권 국제교류기반 정비와 광역 인프라확충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내륙물류거점 확보

② 글로벌 의료산업 및 BT산업의 메카 육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동북아 생명기술(BT)산업의 메카 조성
-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거점 조성
- 아시아 태양광산업 거점지역 육성
-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신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바이오농업 기반 구축

③ 중부내륙 휴양레저와 역사·문화관광의 거점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적 관광거점 조성
-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조
-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녹색관광 기반조성

④ 지역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안정 도모
- 평생복지체계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품격 있는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2.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2차 수정계획(2001~2020)

1) 계획의 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2) 추진전략

①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②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③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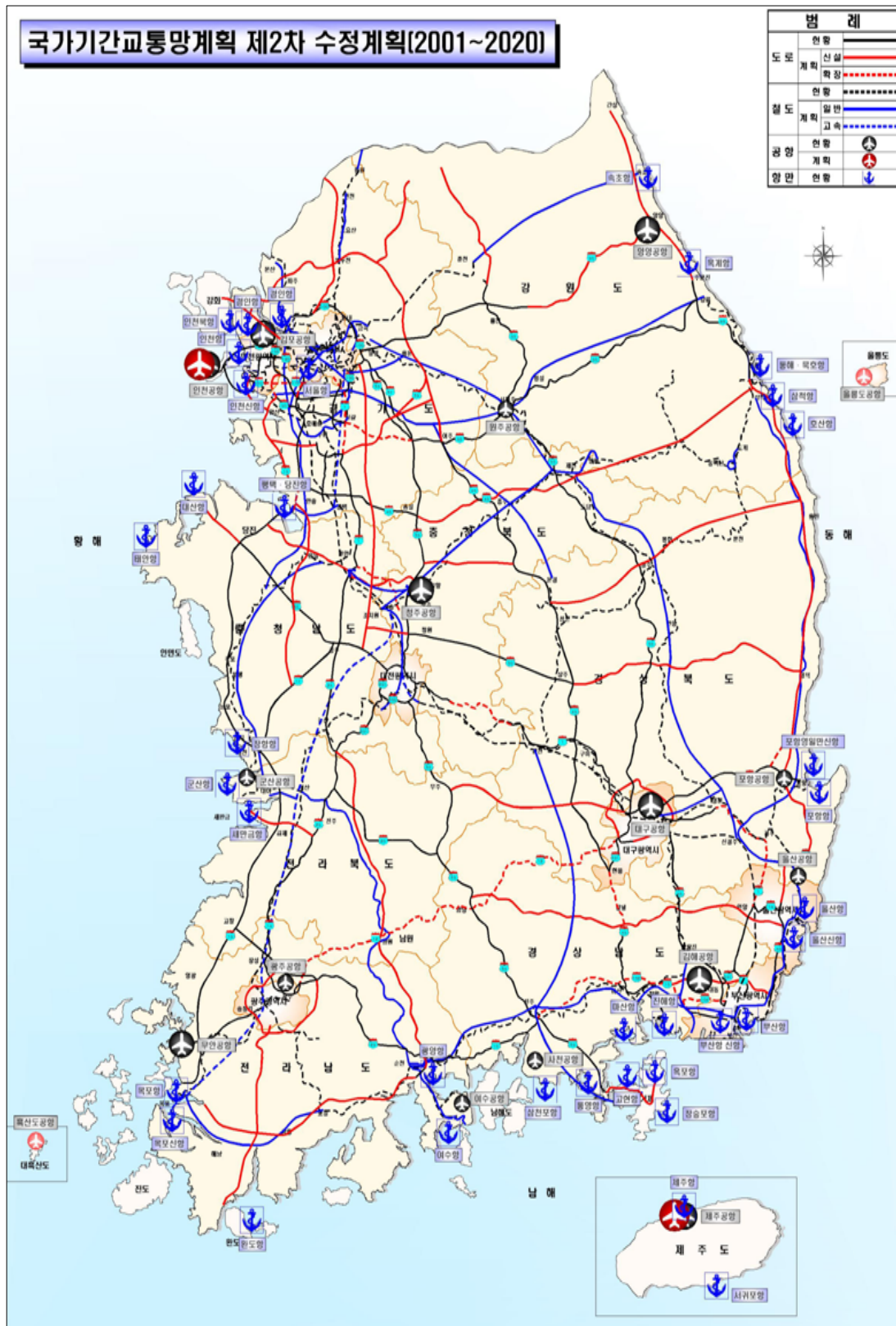
-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④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⑤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재난대응 및 보안체계 강화
-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그림 1-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미래상

3.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

1) 발전비전

【최종목표】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 -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의 선도 -
---------------	---



【중간목표】	국내 최고 IT·BT 산업의 핵심거점	전문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과학기반형 광역거점육성 및 연계강화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발전지역 창출
---------------	----------------------	-----------------------	---------------------	-------------------------



【중간목표】	【광역권 추진전략】
◇ 대한민국 IT·BT산업의 핵심 거점	○ 대한민국 IT·BT 과학기술의 R&BD 허브 기반 조성 ○ 선도·전략·특화산업을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과학기술거점 조성	○ 과학기술 인재 네트워크로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 ○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으로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 광역거점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지역발전 선도 성장거점의 연계로 광역경제·도시권 형성 ○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발전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발전지역 창출	○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기반 조성 ○ 신발전지역 성장동력원으로 녹색산업 육성

2) 추진 전략

□ 충청권 과학기술·행정거점 기반 마련

- 과학기술·문화·행정의 글로벌 중심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 미래 원천과학기술과 기술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조성
-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기반 조성

□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신융합(New Combination)

- 충청권 선도산업(의약바이오, New IT)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도-전략산업의 신융합으로 융복합산업 육성
- 기술융합산업시대를 대비한 창조적 융합과학기술인력 양성

□ 충청권 신발전지역 공동육성

- 신발전지역 성장동력원으로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 성장거점 광역적 연계와 혁신역량 강화
- 지역자원의 창조적 활용으로 지역 브랜드화 및 세계화 추진

□ 충청권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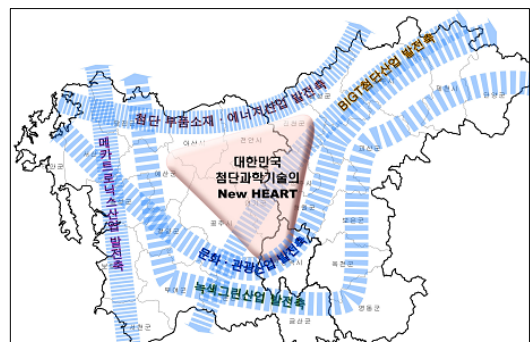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 성장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신성장거점의 효과적 조기 육성
- 항만, 공항, 내륙화물 거점 연계로 물류의 국제경쟁력 강화

□ 충청권 문화·관광·생태자원 브랜드화

- 해양(내포), 백제, 과학, 고인쇄 문화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역사문화대로 구축
- 백두대간, 금강수계를 활용한 에코뮤지엄 트러스트 브리지 형성
- 충청권 백제문화와 일본 아즈카 문화를 연계한 충청국제관광프로젝트 추진

□ 광역경제권 권역간 연계·협력으로 상생발전 모델 구축

- 수도권과의 광역적 연계 : 자동차·부품, 전자정보, 그린바이오 매스
- 강원권과의 광역적 연계 : 의료기기, 전자정보, 한방산업
- 호남권과의 광역적 연계 : 자동차·부품, 식품, 신재생에너지
- 대경권과의 광역적 연계 : 전자·정보



〈그림 1-13〉 충청광역경제권 1허브 5대 산업발전축

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2006~2020)

1) 계획의 목표

-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거점권역 형성과 문화·정보·친환경 도시 네트워크 구현

 -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권역 형성
 - 21세기형 문화 및 정보산업의 혁신도시 네트워크 구현
 - 환경친화적인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 및 연담화 방지

2) 추진전략

-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거점권역 형성
-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네트워크 구현
-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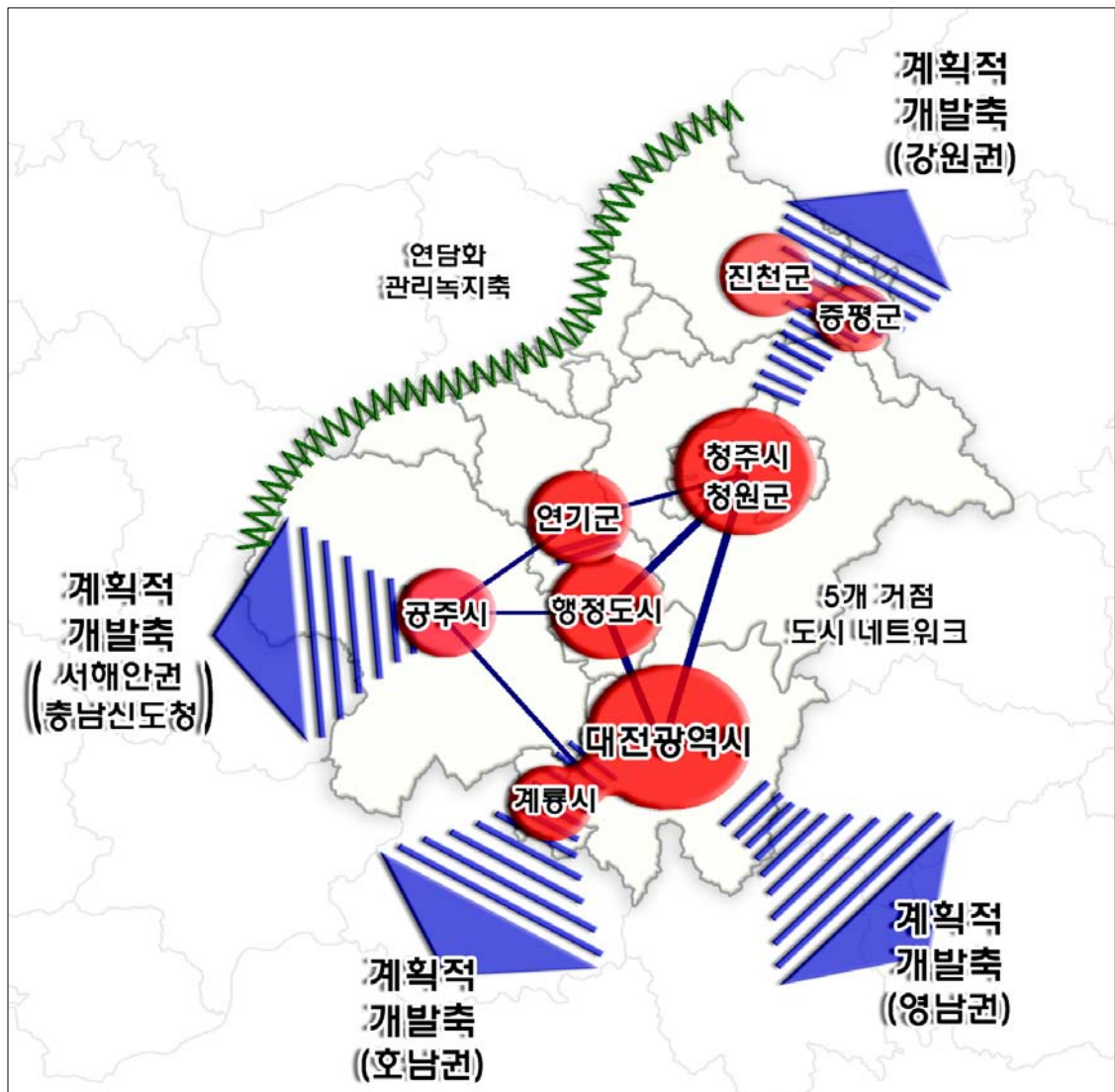
3) 공간구조 기본방향

- 대전~청주~행정도시의 3중심 체계 광역도시권으로 개편
-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거점 육성
-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 광역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지향의 효율적 도시개발체계 구축

4) 광역도시계획의 지역별 기능배분 기본방향

- 광역권의 기능적 위상과 시·군간 기능배치 원칙
 - 행정도시 광역권에는 수도권 수준의 국가 중추 행정,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류 등 (국가)중심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배치
 - 행정도시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서비스, 교육·연구, 금융, 지식기반산업 및 국제교류·문화·관광·의료·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배치
- 광역권에 포함된 충북의 청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의 기능 배분의 기본방향

- 청주시·청원군은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을 통한 행정도시의 관문으로 국제교류와 광역적 도시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진천·증평→청주·청원→연기·행정도시→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벨트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진천군·증평군은 동북부 거점지역으로 강원권 및 충북내륙권 개발축과 연결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설정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증평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첨단산업 혁신거점 역할 수행



<그림 1-14>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5.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변경)

1) 계획의 비전

중원국토의 블루오션 청주광역권

2) 계획의 목표

- 경제(Economy) : 도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 환경(Environment) :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 형평(Equity) : 균형적 삶의 질 구현

3) 공간구조 개편방향

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거점기반 마련

- 세종시의 관문도시로서 청주국제공항으로부터 세종시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거점지역간 연결로를 확충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체계를 구축
-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을 통한 세종시의 관문으로 국제교류 및 광역적 도시 서비스기능 보완

나. 첨단산업 (BT, IT, GT) 집중 육성으로 경제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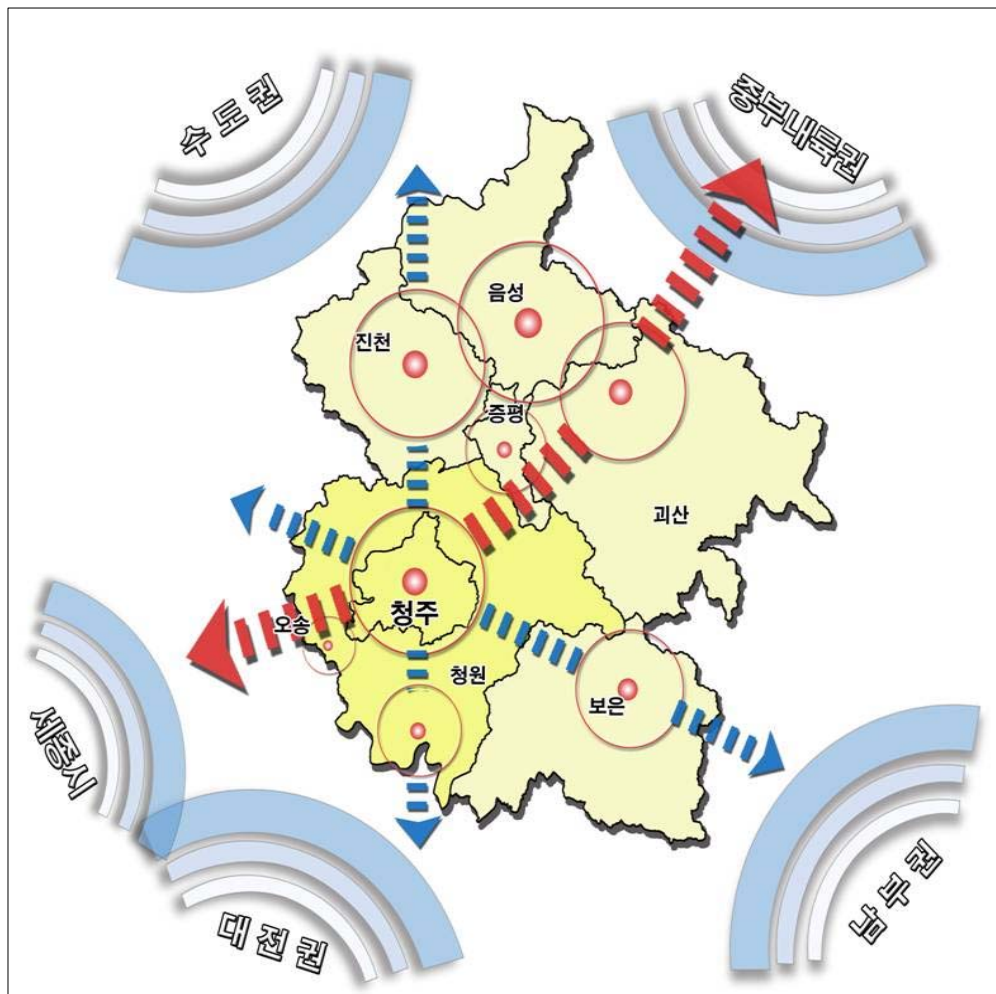
- 청주, 청원, 진천 등 지역내 IT, BT분야의 R&D 및 생산거점이자 대덕특구, 천안·아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함을 고려하여 충북의 중핵 클러스터 역할 기대
- 생명산업, 보건의료산업, 차세대 반도체, 항공우주(오송·오창)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육성
-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증평, 괴산을 연계하는 BIT클러스터 구축

다.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간 사회 경제적 통합

- 청주공항과의 접근성개선, 청주와의 직결노선, 중부 신도시와의 BRT연결노선, 연기·공주 연결도로 확장 등 연결도로망 정비
- 세종시 건설에 맞추어 KTX 오송분기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외삼역과 연결하는 국도1호선을 확장하면서 2개 노선에 BRT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 구축

라. 청주광역 도시간 녹색산업 R&D 허브 조성

- 광역권내에 환경업체, 환경분야 연구기관 자원 및 에너지분야 연구기관 및 이들과 관련된 벤처기업, 저오염형 제조업체 등을 유치하고 이들을 산업생태 네트워크로 연계시키고 클러스터화
- 산업단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에코디자인(eco-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환경오염-자연생태-경관이 조화되는 산업공원(industrial parks) 개발전략으로 추진



〈그림 1-15〉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구상

6.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1) 계획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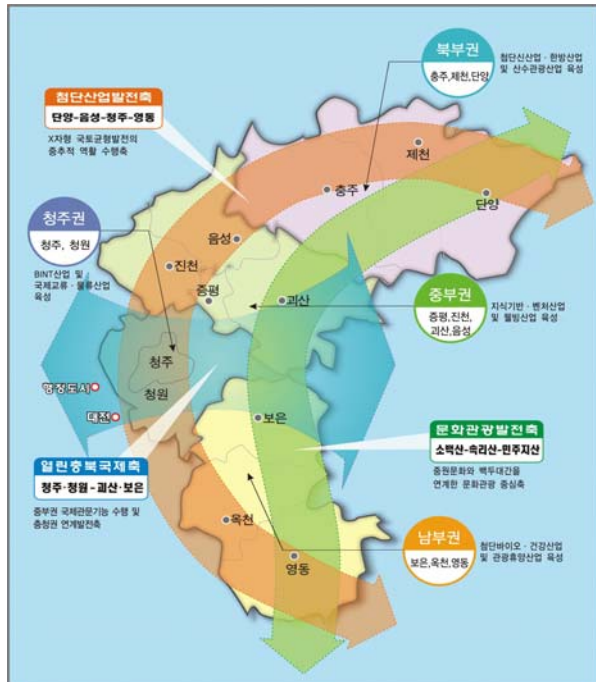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2) 계획의 목표

- 국토융합 발전축의 중심지역 ⇒ 『코아 충북』
-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 『첨단 충북』
- 민족문화·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 『관광 충북』
-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 『웰빙 충북』
-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 『쾌적 충북』

3) 추진전략

- 미래지향적 발전 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및 확충
-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육성을 통한 선진 충북 건설
-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 충북의 실현
-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그림 1-16> 충북발전계획도(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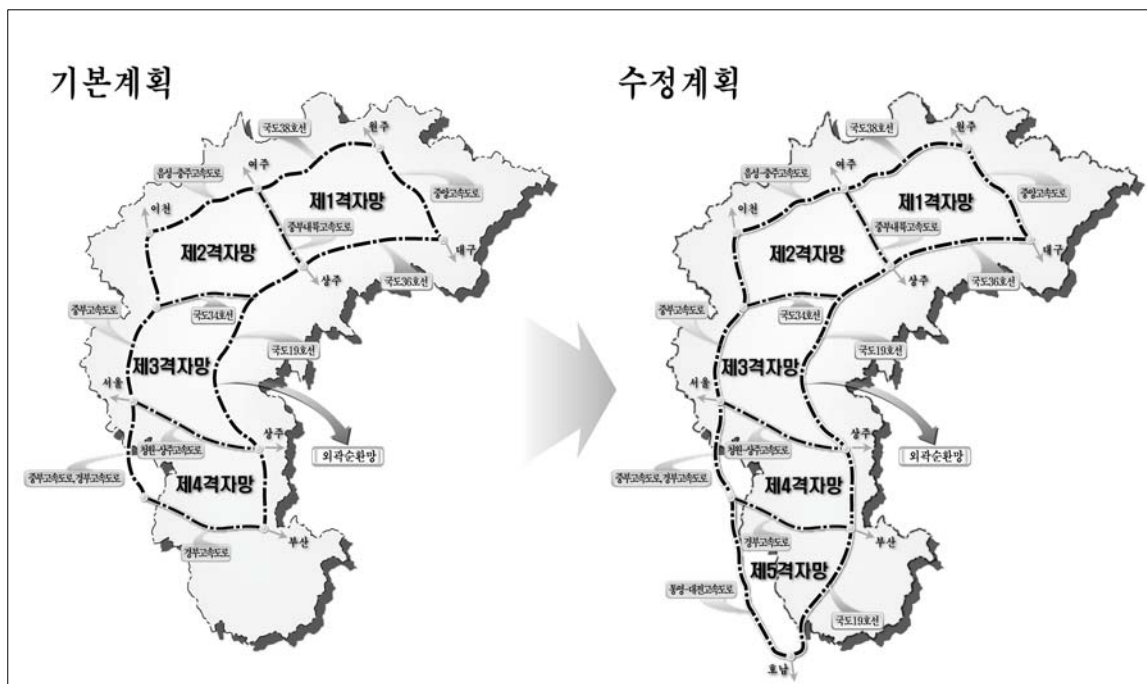
7.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9~2020)

1) 기본목표

-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균형적 발전과 통합적 교통체계의 구축으로 거점지역 연계 인프라를 완성하고,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녹색도로 건설

2) 부문별 내용

- 충청북도 공간구조에 부응하는 기능적인 도로망 체계 구축
-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로 건설
- 농촌형 신산업 지원도로 건설
- 이동이 편리한 도로 건설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



<그림 1-17> 충청북도 도로망 체계 구성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 수정계획 평가

1. 여건변화 전망

1)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³⁾

□ 기후 변화 대응 미흡 및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 공간의 지속

- Post 2012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간구조 개편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
 -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가 건물·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마련 시급
 - 도심내 주거·상업지역 등의 일률적 구분(zoning), 승용차 위주 교통체계 등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정된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에너지 가격 급등,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관한 대비책 마련과 해양자원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가 필요
-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에 부합하는 국토발전전략 마련 미흡
 -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성장국가전략 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전략 마련 필요
 -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이후 수변공간의 체계적 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국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국토관리방안 미흡
 - 강, 산림, 연안 등 생태계 구성요소별 특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 개발로 국토 관리 네트워크의 단절이 초래되고 있어 국토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한 종합적 방재시스템 및 체계적 대처방안 미흡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및 재난의 반복·대형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대비태세 마련 및 사전예방 투자 확대 필요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하는 저탄소·에너지절약형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新국토전략 수립 필요

□ 유라시아-태평양 관문국가 성장을 위한 글로벌 국토 기반 취약

- 산술적 균형 위주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유라시아-태평양 중추국가 지위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 행정구역별 산술적 균형을 위한 중복·분절적 투자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외 경쟁력도 저하
 -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완화를 위한 경직적·물리적인 규제로 국제경쟁을 선도해야 할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
 - 국가 및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용·보완할 수 있는 계획 마련 필요
- 지경학적 위치는 우수하나 각종 규제, 높은 토지비용, 취약한 인프라, 경직된 노동시장, 불편한 생활여건 등으로 실제 투자유치 성과는 미흡
 - 다기화 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엄격한 행위 제한 등으로 토지 확보 및 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매력 있는 생활환경, 양호한 인프라,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 마련과 투자유치 제도 정비 필요

<표 1-21> 동북아 주요국가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및 성과지수

국 가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지수1) (2008)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지수2) (2009)
한 국	16위	124위
중 국	30위	76위
일 본	25위	135위
대 만	22위	122위
홍 콩	5위	4위
싱가포르	2위	18위

주 : 1) GDP 실질성장률, 1인당 GDP, GDP 대비 수출, GDP 대비 R&D 지출, 총인구대비 고등교육인구, 국가 위험도, 서비스 수출의 전세계 비중 등 12개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

2) 해당국가 경제규모에서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세계 GDP에서 해당국가의 GDP 비중, 세계 외국인 투자유입에서 해당국가에 대한 투자유입액 비중으로 산출.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거점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시급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 관리체계 구축

-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관리 기반 형성 미흡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패턴 변화, 주택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성 증대
 -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이주여성 증가 등 외국인 정책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성 증대
- 저성장 시대 도래에 대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흡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생산인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 지속
 -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국토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이용 및 관리 방식 정립 필요
 -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토지이용전략과 수요맞춤형 국토공간 조성

□ 지역의 자립적 통합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

- 광역화되는 산업·경제활동에 대응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관리의 미정착
 - 도시주변의 개별적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 및 농지, 산지의 효율적 보전·활용 곤란
 - 지역간 개발 및 갈등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수단 및 협상문화의 형성이 미흡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성장기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취약
 - 2008년 현재 전국 인구의 49.1%(2475만명), 제조업체의 56.9%가 수도권에 집중
 - 지방의 산업구조는 수도권과의 교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교역형 경제구조 형성⁴⁾
- 수도권 과밀은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4)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2007.

-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215개 주요도시 가운데 86위⁵⁾에 불과
- 고속철도 등 초고속 교통망의 확충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재편 전략 미흡
 - 초고속 교통망의 확대로 전국 1시간 30분대 생활권 시대에 진입하여 기업 및 국민의 활동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조 형성 필요
 - 산업 및 인구의 재배치, 생활권 확대 등 국토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복수의 지역을 통합한 광역적 공간구조 형성 및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 양질의 정주 환경 및 사회 통합 기반 미흡

- 주택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주택재고가 부족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상존
 -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350호(2009년)로 선진국의 70% 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3%를 차지
 - 선진국형 정주환경 및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로 인해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
 - 아파트 건설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미흡
 -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G20 정상회의 개최국 등 글로벌 리딩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국토경관 및 정주환경 조성방안 마련 필요
- 여가·문화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정시설 공급 및 자원 활용이 미흡
 - 적정 수준의 문화·여가시설 공급 및 강, 산지, 해안 등 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 필요
- 고령인구, 장애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불충분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설계 기준 마련, 교육 및 복지시설 공급 확대 등 필요

☞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필요

5)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2008」, 2008.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선도형 산업 기반 미흡

- 녹색성장을 미래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성장기반 조성 미흡
 - IT산업,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은 미흡
 - 신성장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형 산업의 특화발전 미흡
 - 기존 도심산업단지는 노후화되어 첨단 신성장산업 입지 자체가 곤란하여 도시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
- 육지부 중심의 국토이용 전략으로 해양영토 및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해양자원의 발굴·활용 및 산업화전략 마련 필요

▶ 녹색산업 육성, 산업간 융복합화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신성장선도형(trend-setter model) 산업기반 형성 시급

2) 충북의 여건전망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공주·연기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1위원회)과 소속기관 16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충청지역의 국토 중심지적 역할 증대가 기대됨
- 세종시의 건설은 집권국가·집중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분권국가·분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며,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권력집중과 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여 인구와 기능의 분산을 통해 각 지방이 고루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세종시가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관광 등의 배후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북차원의 연계협력방안 모색 필요

- 세종시의 건설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고급 인력이 대거 유입되어 이들 인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의 고급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기업체 및 금융기관 이전으로 인한 민간수요 증대, 국제교류기능의 확대, 고급 여가수요의 증대가 전망됨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 제시

-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주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등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 활성화 계기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 지방행정체제 마련을 위한 추진동력이 갖추어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제시 필요
- 시·군·구 개편, 시·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대도시 특례 발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의 강화 등 개편분야별 개편대안 검토가 필요

□ 3+1 Project 추진으로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 체계 구축

- 충북의 4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세부 포지셔닝(positioning) 및 지역별 특성화 전략 검토를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기반 확보 및 바이오밸리, 솔라밸리를 중심으로 한 충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보급 필요성 증가
- 전통산업의 근간으로부터 'BIGH-T산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술지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외 흐름에 선도 대응 및 국내외 나라와 도시들이 주목하고 있는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 기반 Greenomics(Green + Economics) 선도 필요

□ 인력수급 변화와 인적자원 개발

-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고용형태가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여 고학력·고급기술 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형태와 직종이 다양화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기대됨
- 세종시로 인해 충청지역이 국가중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공공기관 이전, 민간수요 증대, 국제기능 확대, 여가수요 증대효과에 따라 충북지역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고용구조가 고도화 될 것이며, 특히 IT·BT 중심의 산업구조의 형성으로 고급전

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임

- 저출산 고령화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고령인구 및 청년층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생학습과 자기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재교육·훈련 등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지역주민의 개인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내륙첨단산업벨트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4대 초광역벨트의 조정을 통한 왜곡된 국토공간구조 개편 및 국가경영, 국토정책 차원에서 국토의 중심에 부합하는 위상 확보와 내륙형 첨단산업의 연계성 강화, 첨단융합산업과 녹색기술산업의 조화, 확산 및 발전거점의 육성 필요성 대두
- 국가 성장축에서 소외된 내륙지역의 발전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권의 해게모니 선점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토의 X축 완성으로 국토 중심기능 수행 및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산업 르네상스 시대 도래

- 충청북도는 역사적으로 선사문화와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의 문화가 집합된 중원 문화권으로, 통합과 융합을 특징으로 통일 한반도의 통합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임
- 충북의 지정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충북의 관광은 청정한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높음
 - 호수, 산 등 고유의 자연 및 생태관광자원으로 충북이 대한민국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단양 소백산에서 영동 민주지산에 이르는 내륙 관광벨트 선상에 위치하여 3개의 국립공원과 대청·충주댐 등 2개의 깨끗하고 풍부한 용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역사·문화적 잠재자원을 활용한 테마·미래형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2. 도종합 수정계획(2008~2020) 평가

1) 인구지표

-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준년도인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충북의 인구는 연평균 0.65% 증가하였고,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1,537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2020년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세종시 및 중부 신도시 건설 등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오송·오창과학단지 건설,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2020년 충북의 인구는 1,730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2) 지역경제지표

-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25조 5,200억원에서 2010년 현재 31조 6,820억원으로 약 24%정도 증가하였으나,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43조 5,110억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기존 계획에서 연평균 6~9%대의 경제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라 충북의 경제성장율은 3.3%대로 나타났음

3) 사회기반시설지표

- 충북의 도로포장율은 2005년 71.0%에서 2010년 현재 77.0%로 신장되었으며, 이는 2010년 예측치와 동일한 결과임
-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5년 51만대에서 2010년 현재 59만대로 약 8만대 가량 증가하였으며, 도로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2005년 257km에서 2010년 315km로 2개 노선 58km정도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의 확충은 충북의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연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4) 생활환경지표

- 생활환경부문에 있어서도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80.0%에서 2010년 85.1%로 크게 향상 되었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2005년 72.8%에서 2010년 현재 77.9%로 신장되었음
-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90.2%에서 2010년 110.3%로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결과를 뛰어넘어 목표연도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생활환경부문은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5) 복지부문지표

- 충북의 의료기관수는 2005년 1,325개에서 2010년 현재 1,449개로 124개가 증가하였으나 기존 계획에서 예측한 1,732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계획에서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지표 데이터가 불확실 하나 향후 사회복지지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지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관광부문지표

- 2010년 충북의 관광객수는 4,369만명으로 2005년과 대비하여 약 790만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존 계획에서 예측한 4,309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여가시간 증대로 인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따른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충북만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표 1-22>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2008~2020)」의 추진성과

부 문 별		단 위	주 요 내 용				비 고
			2005년 (현황)	2010년 (예상치)	2010년 (실적치)	2020년 (목표치)	
인구 및 소득	인 구	천명	1,502	1,537	1,573	1,570	
	G R D P	10억원	25,520	43,511	31,682	87,576	
	1인당 GRDP	만원	1,699	2,831	2,014	5,578	
교통	도로포장율	%	71.0	77.0	77.0	89.0	
	자동차보유대수	만대	51	62	59	75	
	고속도로	km, 노선수	257(4)	307(6)	315(6)	915(11)	
	국 도	km	967.9	967.9	979.6	981.9	
	지 방 도	km	1,315.7	1,357.9	1,369.8	1,462.0	
생활 환경	주택보급률	%	90.2	97.0	110.3	110.0	
	상수도보급률	%	80.0	85.0	85.1	88.0	
	하수도보급률	%	72.8	80.0	77.9	90.0	
복지	의료기관수	개소	1,325	1,732	1,449	2,203	
	사회복지시설	개소	42	69	129	127	
관광	관광객수	만명	3,579	4,309	4,369	6,820	

주 :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시설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 통계연보』, 2010.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충북 도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충청북도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찾기 위한 목적임
- 이는 충북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각종 정책과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표 1-2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설계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충청북도 12개 시군 도민 전체
유효표본	- 1,067(±0.03%), 12개 시군 지역별 할당
조사방법	-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표본추출방법	- 3단 층화추출
조사 실시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20일

3) 표본설계 및 회수율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은 3단층화추출(지역별/연령별/성별)법을 사용하여 각 지자체별 인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1,190명을 조사하였고, 총 1,102⁶⁾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6) 각 지자체별 할당된 표본 수 이외에 추가된 설문지로 인해 100% 이상인 지자체가 포함되었음.

<표 1-24>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시군	남 자	여 자	합계	회수수	회수율	비고
상당구	82	86	168	150	89.3	
홍덕구	123	129	252	249	98.8	
충주시	81	82	163	173	106.1	
제천시	54	54	108	108	100.0	
청원군	45	46	91	91	100.0	
보은군	15	16	31	32	103.2	
옥천군	23	23	46	50	108.7	
영동군	24	25	49	50	102.0	
증평군	10	11	21	21	100.0	
진천군	22	22	44	50	113.6	
괴산군	16	17	32	32	100.0	
음성군	33	32	65	66	101.5	
단양군	14	15	29	30	103.4	
합계	542	558	1,099	1,102	100.2	

4) 조사 내용

- 본 조사는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을 위해 도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및 충청북도 발전방향 및 세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음

<표 1-25>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도민의식조사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생활분야	주거, 교육, 사회복지, 정보·통신, 문화생활, 도로·교통 환경, 안전한 생활, 행정서비스 만족도
심리사회적 의식 및 가치관	충청북도 거주에 대한 인식 지속적 거주 의사 및 타 지역 이주 이유
발전방향 및 세부정책	지역발전정도, 발전장애요인 법정분야별 장기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민선5기 5대 방침 중 우선순위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정책 농·축산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산업경제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문화관광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문화관광개발 방향 환경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복지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소방·방재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행정서비스분야 시급히 추진할 정책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 충청북도 추진 시책 인식 충청북도 추진 시책에 도민의견 반영 여부 충청북도 각종 정책 인지 경로

5) 실사 진행 방법

- 실사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1-26〉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도민의식조사 실사진행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실사 진행요원 교육	교육대상자 : 실사 진행요원인 조사원, 코딩, 에디팅 담당자, 검증원 교육내용 : 조사내용 파악 및 실시 진행 방법 교육
실사 진행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회수된 설문지는 100% 검증과정을 거쳐 미흡한 설문지 폐기
설문지 코딩	회수된 설문에 대한 코딩 및 1차 점검단계를 통해 응답내용의 일관성 여부 점검, 응답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 포함
에디팅 (오류/누락 자료 확인)	1차 점검이 완료된 설문지는 전용 입력 프로그램 이용, 입력 진행, 2차 자료 확인과정 포함
Data Cleaning (입력오류 수정)	입력완료된 설문자료는 Data Cleaning 프로그램(Excel data Filtering) 이용, 입력오류 및 응답의 논리적 오류 내용 검색, 수정
통계분석	Data Processing의 최종 단계로 통계패키지 SPSS(17.0)이용 기초 통계표 작성(응답자 특성, 질문 문항별 빈도분석 실시) 후 보고서 작성

6) 분석방법

- 본 조사의 목적은 충북 도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충청북도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찾기 위함이며, 응답자 특성 및 충청북도 발전방향 및 정책에 대한 응답대상자의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빈 도 분 석 : 응답자 특성, 충청북도 발전방향 및 정책
 - 평 균 분 석 :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 생활실태 만족도 분석
 - T-test, 분산분석(ANOVA), 사후분석(Scheffe)
 - 교 차 분 석
 - 성별, 연령별, 직업별, 권역별 충청북도 발전방향 및 정책
 - 카이스퀘어(χ^2) 분석

7) 응답자 특성

○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27> 조사대상자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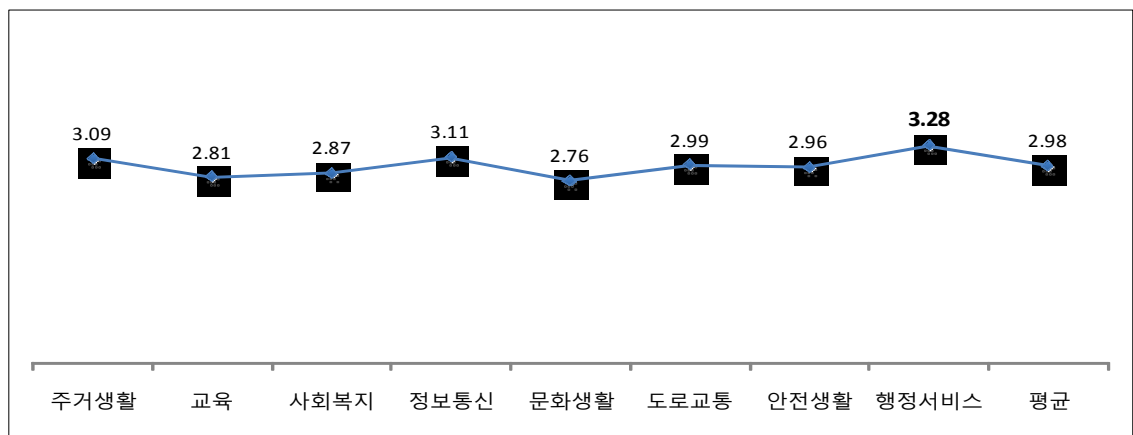
구분		빈 도	구성비 (%)	구분		빈 도	구성비 (%)
성별	남자	617	56	결혼 유무	기혼	800	72.6
	여자	470	42.6		미혼	250	22.7
	무응답	15	1.4		무응답	52	4.7
연령	20대	203	18.4	거주지	상당구	159	14.4
	30대	345	31.3		제천시	108	9.8
	40대	319	28.9		청원군	35	3.2
	50대	169	15.3		보은군	32	2.9
	60대이상	32	2.9		옥천군	49	4.4
	무응답	34	3.1		영동군	47	4.3
					증평군	12	1.1
직업	농림축수산업	75	6.8		진천군	46	4.2
	상업·서비스업	94	8.5		괴산군	30	2.7
	제조업·건설업	28	2.5		음성군	46	4.2
	사무직·관리직	234	21.2		단양군	29	2.6
	전문직	72	6.5		도외거주	2	0.2
	공무원	287	26		무응답	11	1.0
	주부	144	13.1	출퇴근 교통 수단	자가용	702	63.7
	학생	44	4		시내버스	146	13.2
	기타	106	9.6		통근버스	20	1.8
	무응답	18	1.6		오토바이	10	0.9
					자전거	15	1.4
					보행	128	11.6
					기타	16	1.5
				65	5.9		

2. 분석결과

1) 생활분야 만족도

□ 생활분야 만족도

- 생활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행정서비스” 3.28점, “정보통신”3.11점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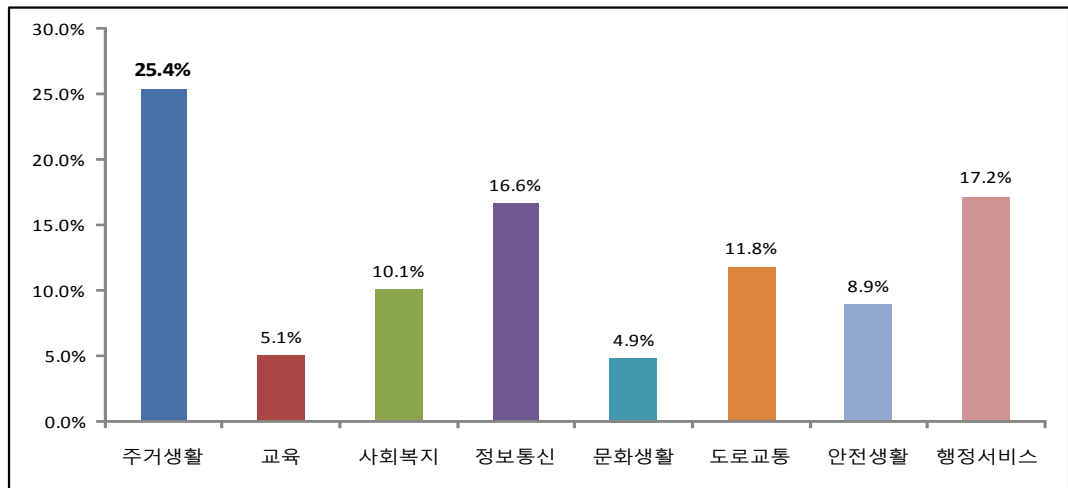


<그림 1-18> 생활분야 만족도

- 권역별로 청주권, 북부권, 남부권은 “행정서비스”, “정보통신”의 순이며, 중부권은 “행정서비스”, “주거생활”과 “도로교통”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 분석 결과 “교육분야”에서는 청주권이 나머지 모든 권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생활분야”에서는 남부권이 청주권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행정서비스분야”에서는 남부권이 청주권과 북부권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가장 만족하는 생활분야

- 생활여건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주거생활” 25.4%, “행정서비스” 17.2%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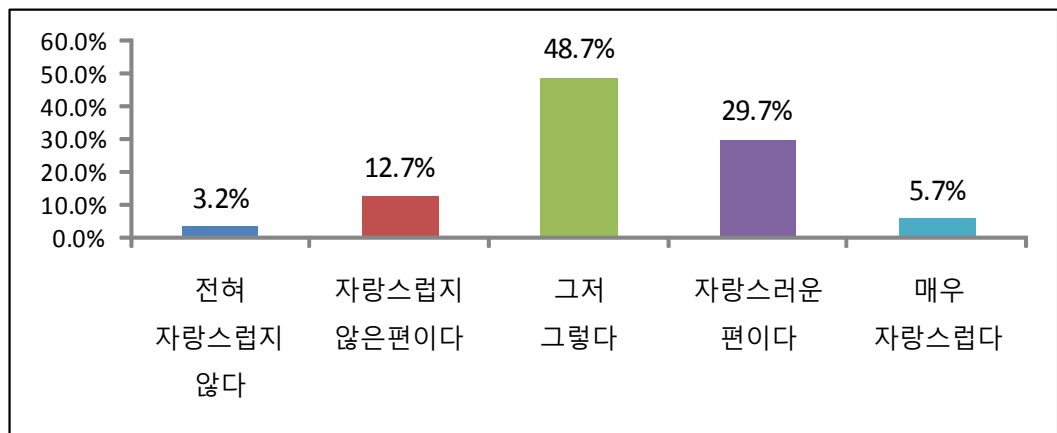
<그림 1-19> 가장 만족하는 생활분야

- 권역별로 청주권은 “주거생활”, “정보통신”의 순이며, 북부권은 “주거생활”, “행정서비스”의 순, 중부권은 “행정서비스”, “주거생활”의 순, 남부권은 “도로교통”, “주거생활”의 순으로 나타남

2) 심라사회적 의식 및 가치관

□ 충청북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롭다

- 충청북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가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적(자랑스러운 편이다, 매우 자랑스롭다)”인 응답이 35.4%, “부정적(전혀 자랑스롭지 않다, 자랑스롭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이 15.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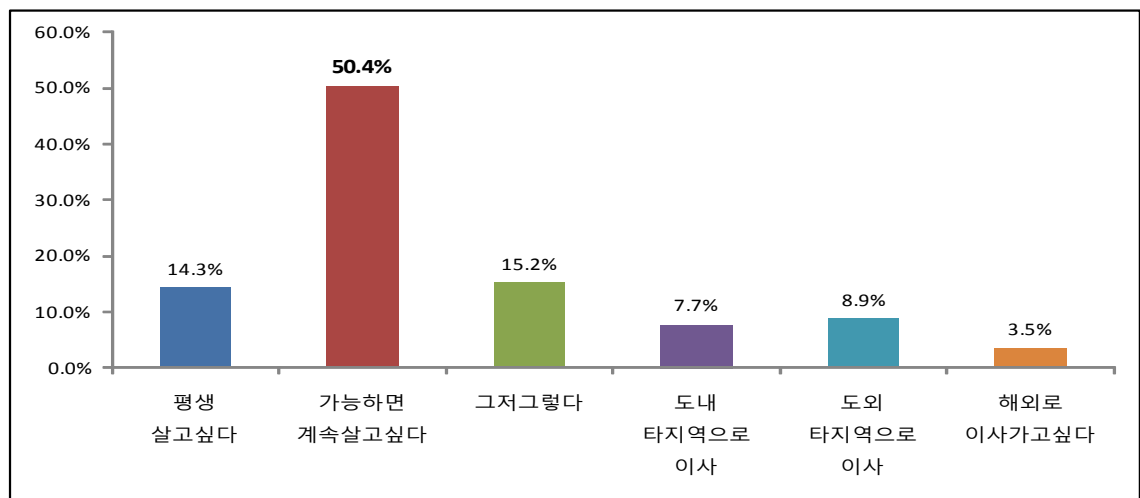


<그림 1-20> 충청북도 거주자의 자랑스러움

- 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적인 응답이 29.7%, 30대는 29.3%, 40대는 41.1%, 50대는 43.4%, 60대는 43.8%로 나타나 20, 30대보다는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직업별로 공무원은 긍정적인 응답이 38.0%, 민원인은 34.9%로 공무원의 긍정적인 응답이 약간 높았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에서 공무원은 8.0%인 반면, 민원인은 18.8%로 민원인의 부정적인 면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민원인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권역별로 청주권은 긍정적인 응답이 39.3%, 북부권은 25.5%, 중부권은 39.8%, 남부권은 40.6%로 나타나 북부권의 도민들이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현 거주지 지속적 거주 의사

-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정주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긍정적 거주(평생 살고 싶다,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다)”인 응답이 64.7%, “이사 의향(도내외 타지역, 해외로 이사)”의 응답이 20.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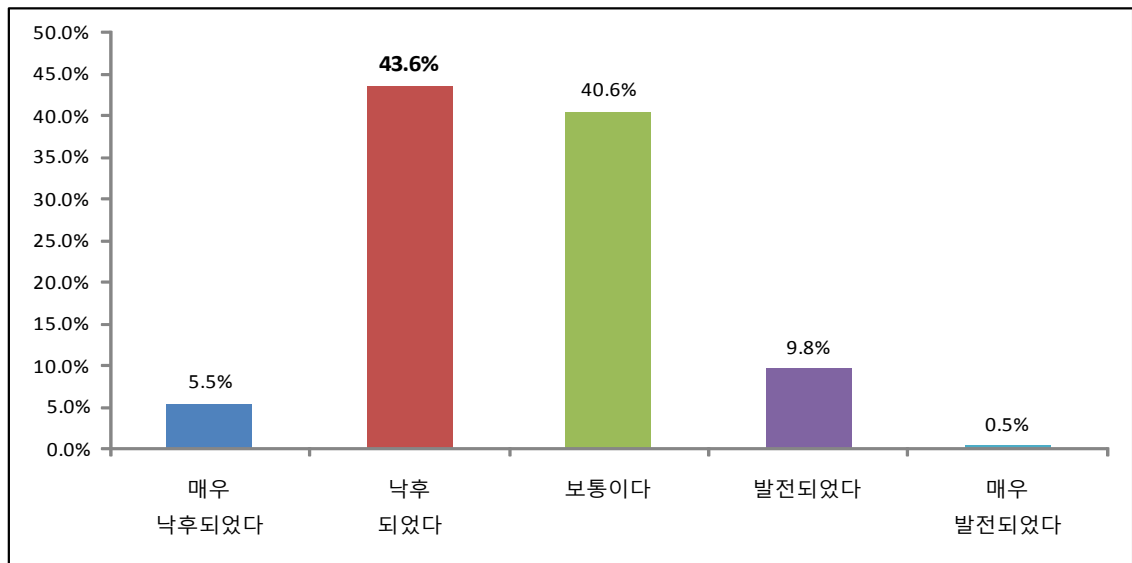
<그림 1-21> 충청북도 지속적 거주여부

- 성별로 남자는 긍정적 거주가 66.3%, 여자는 62.5%로 나타났고, 평생 살고 싶다에서 남자가 여자응답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로 20대는 긍정적 거주가 52.8%, 30대는 62.0%, 40대는 71.2%, 50대는 72.2%, 60대는 78.1%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 거주 의향이 더 높음
- 권역별로 청주권은 긍정적 거주가 68.6%, 북부권은 57.0%, 중부권은 65.7%, 남부권은 66.9%로 나타나 북부권의 응답자들이 긍정적 거주가 다소 낮은 경향으로 나타남

3) 발전방향 및 세부정책

□ 충청북도 현 지역발전 정도

- 충청북도의 현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낙후되었다(매우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다)”가 49.1%, “발전되었다(발전되었다, 매우 발전되었다)”가 10.3%로 나타나 낙후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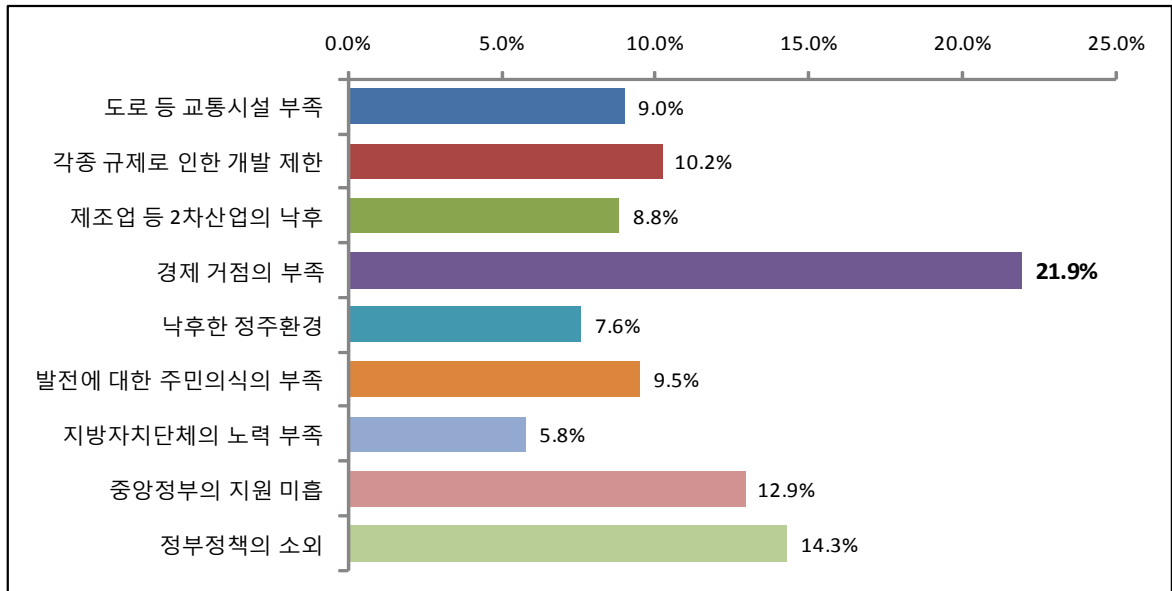


<그림 1-22> 충청북도 현 지역발전 정도

- 연령별 20대는 “낙후되었다”가 41.4%, 30대는 51.6%, 40대는 50.3%, 50대는 54.1%, 60대는 43.8%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낙후되었다”가 51.0%, 민원인은 48.7%로 나타나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발전되었다”에서는 공무원이 5.2%이고 민원인은 12.2%로 민원인이 발전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음
- 권역별로 청주권은 “낙후되었다”가 43.4%, 북부권은 61.3%, 중부권은 39.5%, 남부권은 51.6%로 나타나 북부권이 “낙후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충청북도 발전 장애요인

- 충청북도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경제거점의 부족” 21.9%, “정부정책의 소외” 14.3%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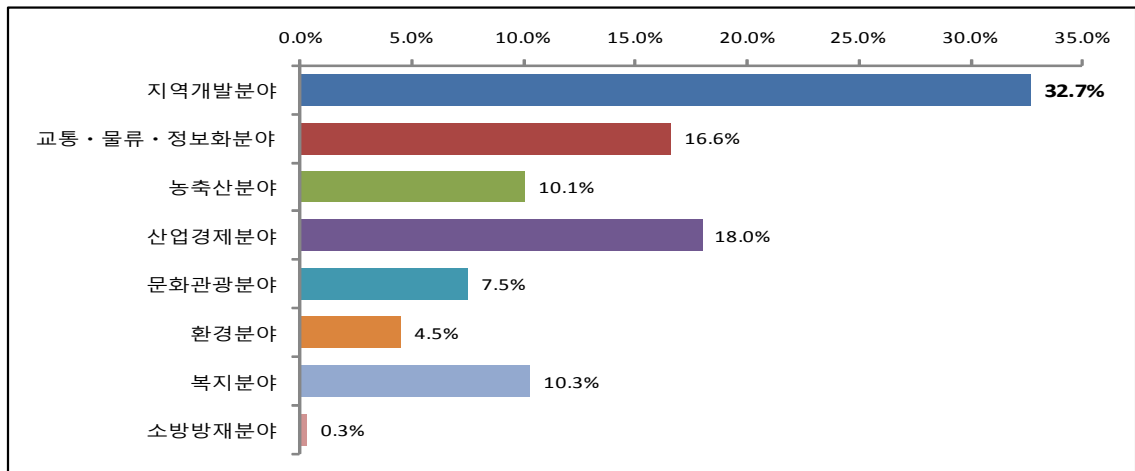


<그림 1-23> 충청북도 발전 장애요인

- 연령별로 20대와 30대, 50대는 “경제거점의 부족”, “정부정책의 소외”의 순, 40대는 “경제거점의 부족”,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의 순, 60대는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경제거점의 부족”, “정부정책의 소외”의 순임
- 권역별로 청주권·중부권은 “경제거점의 부족”,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의 순, 북부권은 “경제거점의 부족”, “낙후한 정주환경”의 순, 남부권은 “각종규제에 의한 개발 제한”, “경제거점의 부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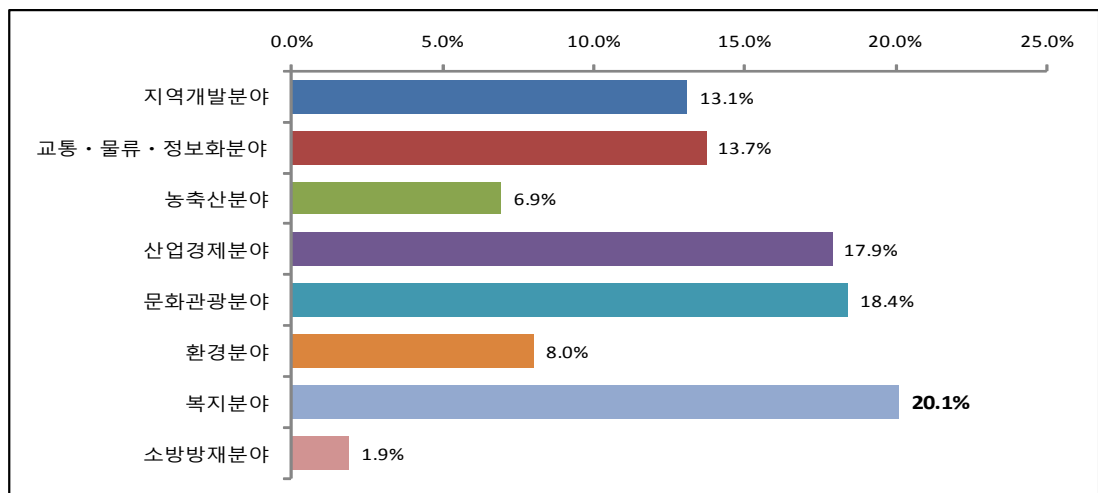
□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정분야

- 법정계획의 분야별 목록 중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1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개발분야” 32.7%, “산업경제분야” 18.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4> 충청북도 종합계획 중점적 법정계획분야(1순위)

- 연령별로 20대와 40대는 “지역개발분야”, “교통·물류·정보화분야”의 순, 30대는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 50대는 “지역개발분야”, “교통·물류·정보화분야”와 “산업경제분야”의 순, 60대는 “지역개발분야”, “교통·물류·정보화분야”와 “농축산분야”와 “산업경제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중부권은 “지역개발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 북부권은 “지역개발분야”, “교통·물류·정보화분야”, 남부권은 “지역개발분야”, “농축산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법정계획의 분야별 목록에서 충청북도 장기종합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사항(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복지분야” 20.1%, “문화관광분야” 18.4%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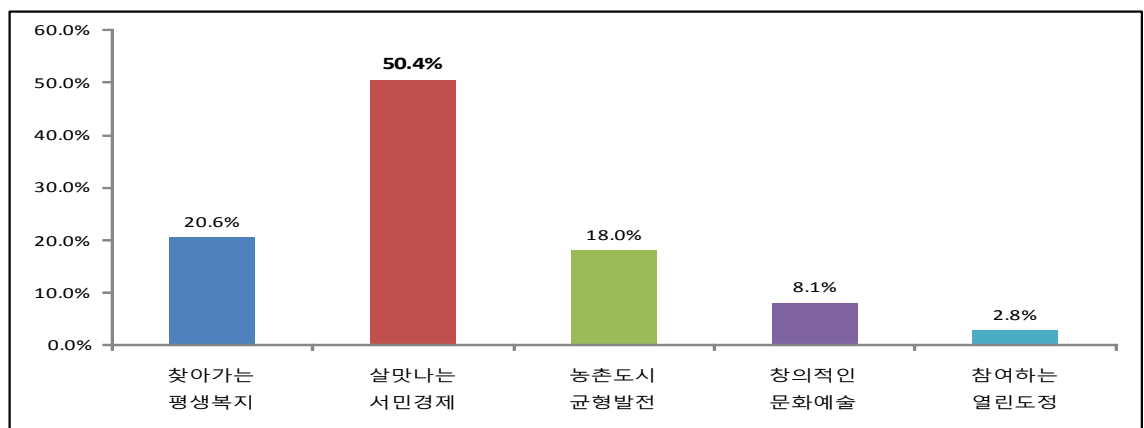


<그림 1-25> 충청북도 장기종합계획 중점적 법정계획분야(2순위)

- 연령별로 20대는 “문화관광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 30대는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의 순, 40대는 “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 50대는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의 순, 60대는 “농축산분야”, “산업경제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문화관광분야”, “복지분야”의 순, 민원인은 “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와 “문화관광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은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의 순, 북부권은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의 순, 중부권은 “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의 순, 남부권은 “산업경제분야”와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민선 5기 도정목표(함께하는 충북) 우선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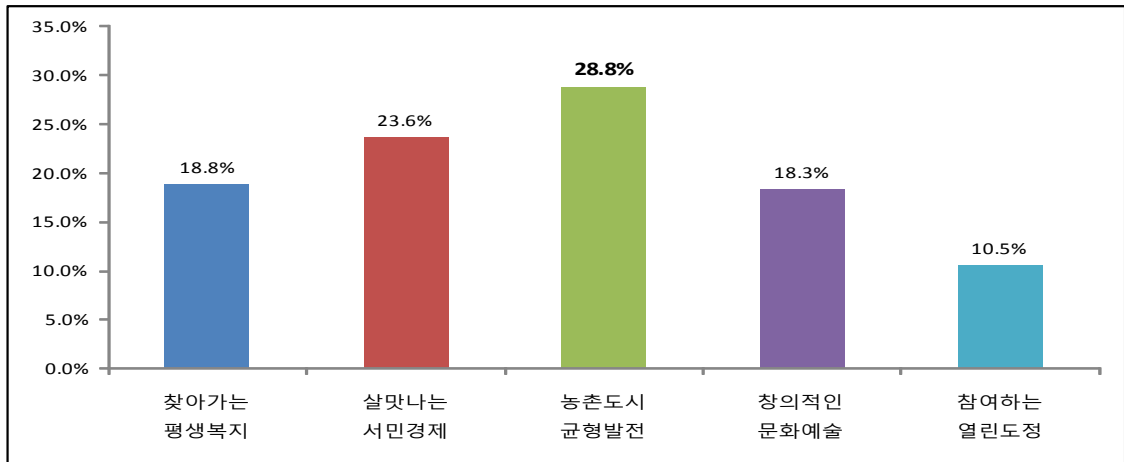
-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의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방침 중 장기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방침(1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살맛나는 서민경제” 50.4%, “찾아가는 평생복지” 20.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6> 충청북도 도정목표 우선방침(1순위)

-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살맛나는 서민경제”,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순, 40대와 50대는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순, 60대는 “살맛나는 서민경제”와 “찾아가는 평생복지”로 같은 비율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순, 민원인은 “살맛나는 서민경제”와, “찾아가는 평생복지”,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북부권은 “살맛나는 서민경제”,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순, 중부권과 남부권은 “살맛나는 서민경제”,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순으로 나타남
-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의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방침중 장기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방침(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농촌도시 균형발전” 28.8%,

“살맛나는 서민경제” 23.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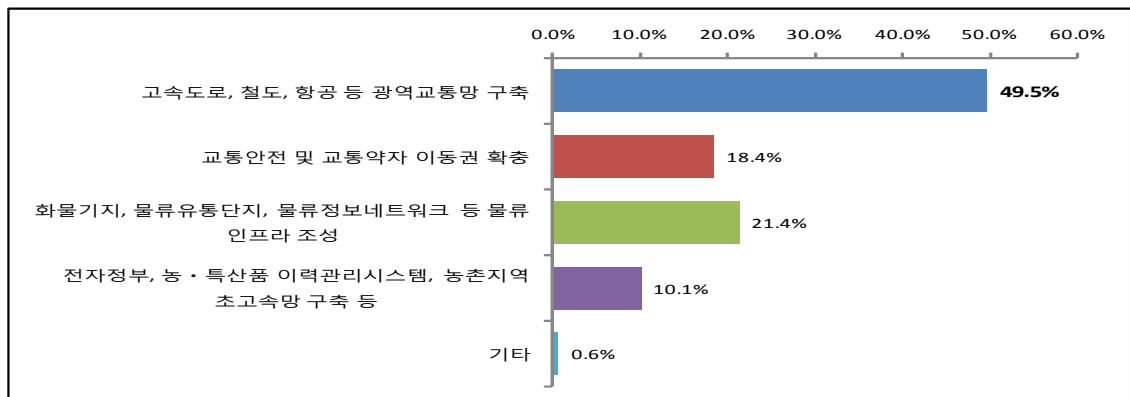


<그림 1-27> 충청북도 도정목표 우선방침(2순위)

- 연령별로 20대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순,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농촌도시 균형발전”,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농촌도시 균형발전”,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 북부권과 남부권은 “농촌도시 균형발전”,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순, 중부권은 “농촌도시 균형발전”,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순으로 나타남

□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49.5%,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 21.4%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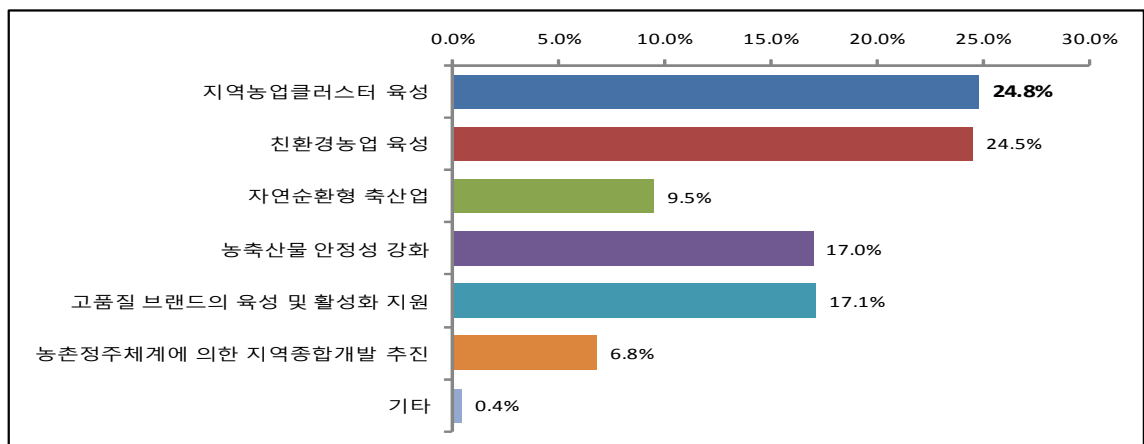


<그림 1-28>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연령별로 20대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의 순, 30대와 40대, 50대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의 순, 60대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과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의 순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중부권은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의 순, 북부권은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의 순, 남부권은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물류정보네트워크 등 물류 인프라 조성”,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의 순으로 나타남

□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농·축산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24.8%, “친환경농업 육성” 24.5%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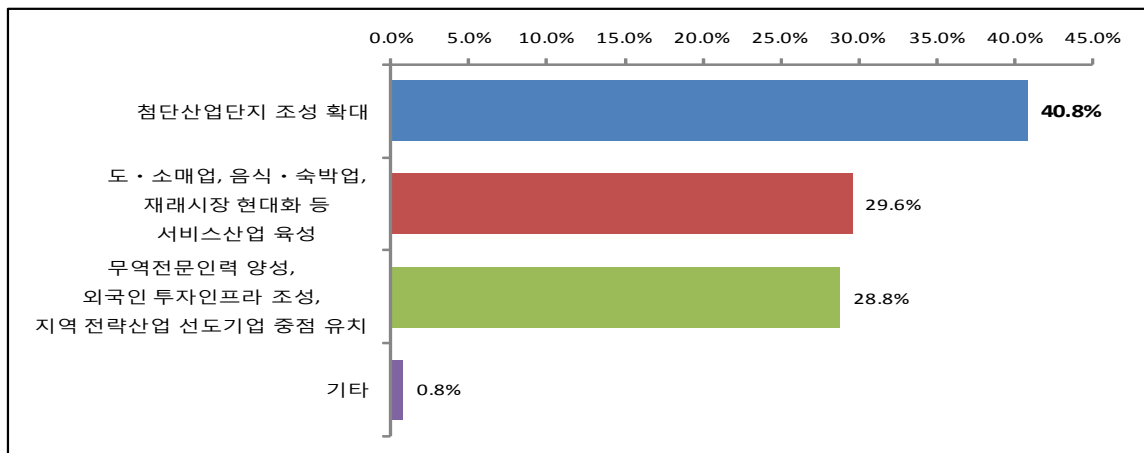
〈그림 1-29〉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연령별로 20대는 “고품질 브랜드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의 순, 30대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의 순, 40대와 50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의 순, 60대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과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의 순, 민원인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의 순, 북부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의 순, 중부권은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브랜드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순, 남부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산업경제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40.8%,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 29.6%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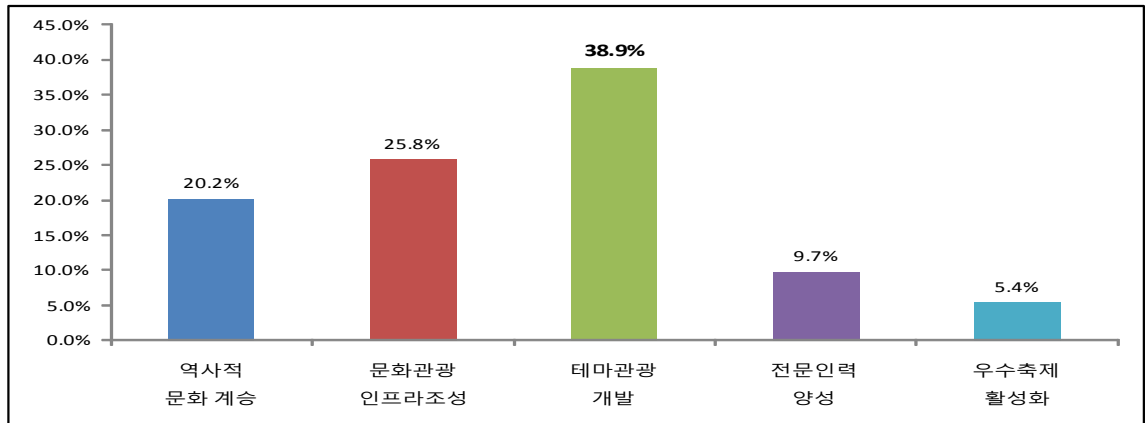


<그림 1-30> 산업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연령별로 20대와 60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의 순, 30대와 40대, 50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무역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중점 유치”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무역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중점 유치”의 순, 민원인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북부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무역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선도기업 중점 유치”의 순, 중부권과 남부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확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테마관광개발” 38.9%, “문화관광 인프라조성” 25.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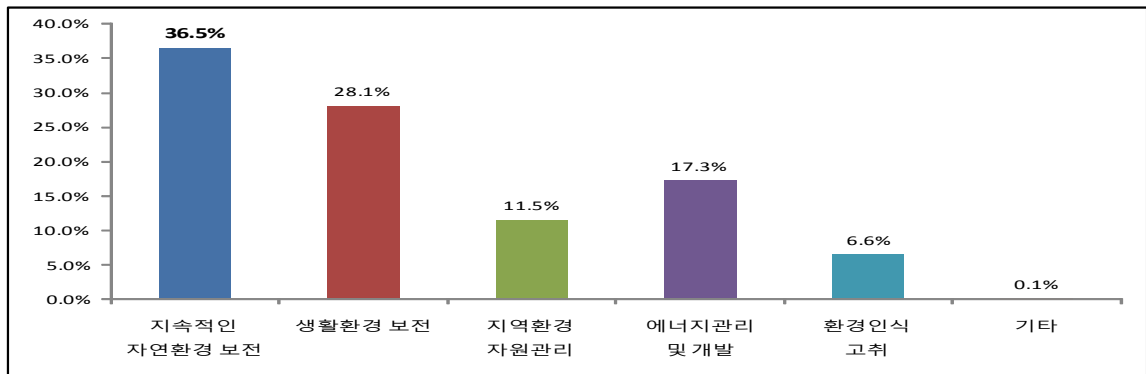


<그림 1-31>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분석

-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모두 “테마관광개발”,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는 “테마관광개발”, “역사적 문화관광 계승”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테마관광개발”,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테마관광개발” 공무원(45.6%)이 민원인(36.3%)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중부권, 남부권은 “테마관광개발”, “문화관광 인프라조성”의 순, 북부권은 “테마관광개발”, “역사적 문화관광 계승”의 순으로 나타남

□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36.5%, “생활환경 보전” 28.1%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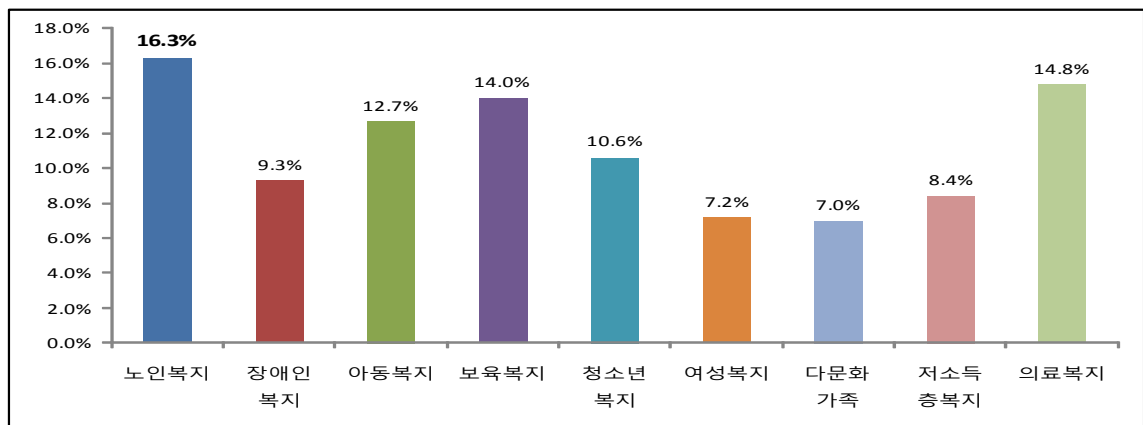


<그림 1-32>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전”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전”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 북부권, 남부권은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보전”의 순이지만, 중부권은 “지속적인 자연환경 보전”, “에너지 관리 및 개발”의 순으로 나타남

□ 복지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결과 “노인복지” 16.3%, “의료복지” 14.8%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3> 복지 분야에서 가장 미흡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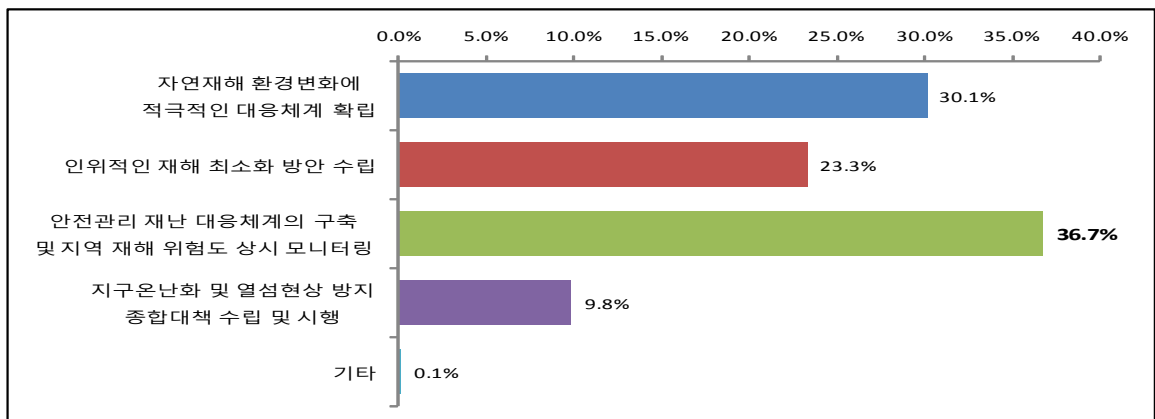
- 성별로 남자는 “노인복지”, “의료복지”의 순, 여자는 “보육복지”, “여성복지”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보육복지”, “저소득층복지”의 순, 30대는 “아동복지”, “보육복지”의 순, 40대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와 “의료복지”의 순, 50대는 “노인복지”, “의료복

지”의 순, 60대는 “노인복지”, “보육복지”와 “의료복지”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은 “의료복지”, “노인복지”의 순, 민원인은 “노인복지”, “보육복지”, “의료복지”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권역별로 청주권은 “노인복지”, “의료복지”의 순, 북부권은 “의료복지”, “노인복지”의 순, 중부권은 “보육복지”, “아동복지”의 순, 남부권은 “아동복지”와 “의료복지”, “보육복지”의 순으로 나타남

□ 소방·방재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해 소방·방재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36.7%,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 30.1%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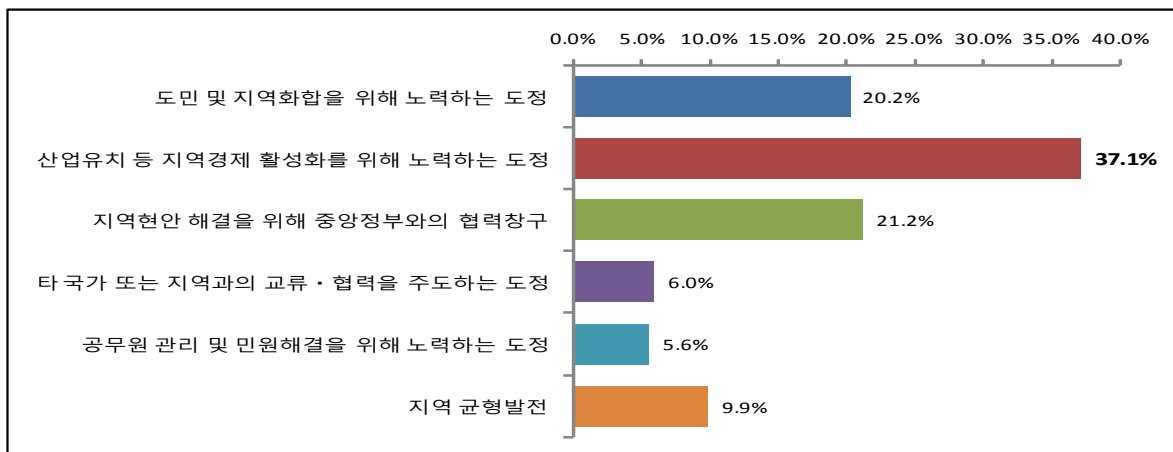


<그림 1-34> 소방·방재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

-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의 순이며 60대는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과 중부권은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의 순이며, 북부권은 2 순위에서 “인위적인 재해 최소화 방안 수립”이 추가되었음. 그러나, 남부권은 “자연재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확립”, “안전관리 재난 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 위험도 상시 모니터링”의 순으로 나타나 타 지역과의 1, 2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남

□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

-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도정에 대한 분석결과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37.1%,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창구” 21.2%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도민 및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정”의 순, 여자는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창구”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와 40대, 50대는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도민 및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정”의 순, 30대는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창구”의 순, 60대는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지역 균형발전”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5>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

- 직업별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창구”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청주권, 중부권, 남부권은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창구”의 순, 북부권은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도민 및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정”의 순으로 나타남

3. 시사점

1) 일반적 사항

- 충북도민 대부분이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분야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생활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충청북도에 대한 거주에 대한 자랑스러움 역시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현재 지역발전 정도는 대부분이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거점의 부족, 정부정책의 소외,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을 충청북도의 발전 장애요인으로 생각함
-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경제거점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함
-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책을 이끌어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분야별 만족도

-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으로 지역개발분야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로 나타났음
- 민선 5기 충북도민은 살맛나는 서민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 교통·물류·정보화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을 선택하고 있음
-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첨단산업단지조성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며, 성장의 과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전국적인 수준 이상의 발전을 원하고 있음
-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테마관광개발을 선택한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테마형 문화관광 개발 및 녹색농촌관광활성화 개발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 의료복지, 보육복지가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청주권은 노인복지, 북부권은 의료복지, 중부권은 보육복지, 남부권은 아동 복지에 대해 더 많은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소방·방재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재난대응체계의 구축 및 지역 재해위험도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음
-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도정의 모습으로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도민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도정전략의 수립과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분석 : SWOT분석 및 계획과제

1. SWOT분석

- 충청북도는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하는 “국토균형발전의 X축”에 위치하여 도로, 철도 등 국가 간선교통망의 결절지 기능을 수행하며, 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세종시로의 관문지역으로 그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
- 세종시건설로 국가적 행정관리 기능의 실질적인 분담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으며, 내륙첨단산업벨트 및 백두대간벨트 추진에 따른 발전여건이 성숙할 것임
- 전통산업의 근간으로부터 ‘BIGH-T산업’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술지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표 1-28> SWOT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 특성으로 입지적 우월성 ■ 고속철도 오송역 준공으로 전국 접근성 향상 ■ 청정환경 및 산악-호수 관광자원 풍부 ■ 민선 5기 농촌도시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화 ■ 청주공항 활성화로 관문지역 위상 증대 ■ 오송역세권 포함 청주청원권 통합 및 광역개발 여건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와 비교 제조업 기반 미흡 (특히, 북부, 남부권) ■ R&D를 포함한 인적자원 여건 열세 ■ 지형적 악조건 및 교통시설 미비로 인한 지역 간 물류환경 불리(특히, 동서 교통 및 연계 체계 부족) ■ 지역 간 불균형 개선성과 및 사회통합성 미흡 ■ 중앙정부 광역권 정책추진에 따른 수도권 경제예측 가능성 심화 ■ 국립공원 및 내륙호수 등 개발규제지역 산재에 따른 공간개발제약 상존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첨단산업벨트 및 백두대간벨트 추진에 따른 발전여건 성숙 ■ 세종시 건설 및 오송역세권 추진에 따른 청주 청원권 광역거점화 가능성 ■ 혁신·기업도시 추진 가속화 기대 ■ 공정사회 정책에 따른 분권화 정착 기대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가족형 주말형 관광 수요 증대 ■ 상향식, 시·군 연계형 기초생활권 정책추진에 따른 낙후권역 발전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트렌드 지속으로 국가 인적 자원 유입의 근원적 어려움 ■ 세종시의 본격적 건설에 따른 청원권 자원흡수 가능성 ■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에서 낙후지역이 소외 될 가능성 상존 ■ 국립공원 및 내륙호수 수변지역 개발규제 완화의 지연 ■ 4대강 사업 등 국가우선사업 추진으로 발전재원 확보의 어려움 가중

2. 계획과제 도출

1) 무한경쟁시대 지역생존전략 마련

- 기후변화시대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지식기반시대 혁신주도형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신동력산업 창출
-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자립발전기반 구축

2) 접경지역의 자원연계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내륙발전

-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을 위한 강원·충북·경북의 공조체제
- 세종시 건설 및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충남·대전·충북 공조체제
- 접경지역을 6개의 협력지구로 지정 상생발전기반 강화

3) 도민이 행복한 온정 넘치는 복지기반 구축

-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저출산 고령화시대 극복을 위한 지원시책 강구
-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기반 강화

4)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자연친화형 환경조성

- 산과 강을 잇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 청정충북 실현을 위한 수질, 대기질,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 및 어메니티 창출

[제 2 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절 계획지표의 설정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 지역 · 부문 · 계층 · 산업간 균형발전 -

- FTA 체결 등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경쟁형 전략인 개방형 국토를 견인하기 위한 생명·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의 내륙발전 실현
- 녹색성장시대 신 여가문화 및 정주패턴에 기반한 웰빙국토 중심지대로 육성
- 2018년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부문별 연계발전전략을 강구함으로서 웰빙국토중심 실현

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 지역 · 부문 · 계층 · 산업간 균형발전 -							
목표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찾아가는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생명이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추진전략	살기 좋은 농촌 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산업 과전통 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 가치산 업육성	함께하 는문화 충북 명품 테마 관광 실현	저탄소 녹색 성장 통류 정보 통신망 구축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 체계 구축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환경 보전 관리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지역의 안전과 재난 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그림 2-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계획의 목표

1)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 세종시 건설과 청주권(오송, 오창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효과가 중부권을 거쳐 내륙 북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륙지향 동진·東進(EAST-SHIFT) 전략을 구현
- 권역별 전략산업과 지연산업 육성을 통하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특화된 균형발전기반 구축
- 혁신주도형 경제발전기반을 확립하고 유무형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다이나믹한 산업경제 선도지역 충북 달성
- 지역의 산업입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해외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2) 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명품 개발 추진과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인 명품관광 프로젝트 개발
- 지역간 고유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계하여 충북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3)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 고품질의 농산물로 개방화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농촌도시 균형발전 실현
-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재창출과 이를 통한 농촌의 소득증대로 균형 있고 활력 넘치는 농촌도시 균형발전 달성

4)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양극화로 양산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여 공동이익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함께 만족하는 성숙한 사회 구현
-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빈곤의 구조적 악순환이 타파되는 기회균등사회를 실현

5)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복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과 상생하는 풍요롭고 건강한 자연환경 창출
- 기후변화시대 모든 도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제2절 계획지표의 설정

1. 인구

1) 인구지표 전망

□ 전제

- 인구지표는 각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요소이고 모든 도시개발사업과 도시행정체계의 방향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함
- 인구증가의 요인은 유동인구의 전입초과 현상에 의한 사회적인 인구증가와 그 누적 인구가 유발하는 자연증가로 구분되는 바, 일반적으로 도시인구의 추정은 과거의 인구증가를 근거로 하여 추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정치, 경제, 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인구의 감소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충청북도는 인구 및 산업의 수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틀이 짜인 지역으로서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남부지역(보은, 옥천, 영동)의 역할증대와 기업도시·혁신도시·산업 및 광역기간 교통망 구축 등의 기반조성이 완비되어 중부권의 경제·문화교류의 거점으로 부상되는 지역발전·성장에 대비하고 변화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토록 함
- 본 인구추계에서는 당초 계획인구(1,570천인)를 토대로 제반여건변화를 보완·수정하여 ①모형에 의한 인구추정, ②자연적 증가인구와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기업도시개발 등에 따른 사회증가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재설정토록 함

<표 2-1> 당초 및 관련계획 인구

(단위 : 천명)

구분	2000	2010	2015	2020
충북CHANGE21(1999)	-	1,770	-	1,85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1)	1,504	1,741	-	1,823
통계청 인구추계(2002)	1,494	1,562	1,580	1,584
통계청 인구추계(2005)	1,494	1,477	1,460	1,433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1,504	1,537	1,555	1,570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	1,573	1,660	1,730

주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02,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

2)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설정

-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모형(추세연장법)에 의한 장래인구추정법」의 평균값과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의 충청북도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집단생잔법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추정방법」의 산술평균값인 1,730,000명으로 설정함

<표 2-2> 인구추정 결과

(단위 : 명)

구 분		2010	2015	2020	비고
성장 한계 모형	수정된 지수곡선식	1,573,981	1,602,031	1,626,791	
	곰페르츠 곡선식		1,578,230	1,610,024	
성장 비한계 모형	선형식(등차급수식)		1,617,910	1,661,840	
	기하곡선식(등비급수식)		1,620,530	1,668,470	
	최소자승법		1,584,590	1,616,390	
모형평균			1,600,658	1,636,703	㉠
집단생잔법과 사회적 요인			1,723,000	1,814,000	㉢
평 균			1,660,000	1,730,000	㉠와 ㉢ 산술평균

2. 충북의 장기발전지표 전망

1) 충북의 2011~2020 지표

- 충북의 2020년 지표는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경제분야는 기업체유치와 수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체 GRDP가 1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인당 GRDP 또한 2010년(2,014만원)에서 2020년(4,009만원)으로 99%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도시화율이 급증하는 한편, 농어촌의 노령화 및 다문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요구되는 노인요양원, 다문화센터, u-Health센터 등과 관련된 수요도 상당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지역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각종 지표
 - 주택, 상하수도보급률, 도서관 및 박물관, CO2배출량, 1인당 공원수 등은 상당한 증가세를 나타냄
 -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매우 중요한 지수로 등장하고 있는 방재와 관련하여 소방관 1인당 도민 수 등의 지표는 상당한 감소추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인프라를 이용한 재택근무가 보편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스마트센터 등도

권역별로 설립(북부, 중부, 남부 3개소)하는 것으로 제시

○ 지역경쟁력 제고 관련 지표

- 투자유치, 기업체 유치, 농가소득 등 지역 경쟁력 관련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2-3> 충청북도 장기발전 지표

분 야	지 표		년 도		
			2010	2015	2020
경제	GRDP(10억원)		31,682	46,876	69,356
	1인당 GRDP(만원)		2,014	2,875	4,009
	공장용지(km ²)		57.78	69.01	80.22
	투자유치(조원)		2	22	37
	수출(억달러)		100	150	225
	기업체수		6,680	7,480	8,378
	대기업		47	62	83
	중소기업		6,633	7,464	8,295
	취업자수(천명)		735	792	854
농업	농가소득(만원)		3,293	3,876	4,562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개소)		5,641	6,500	8,000
국제통상	외국인투자업체(개사)		172	222	272
문화	문화 기반시설	도서관(수)	30	35	40
		박물관(수)	37	41	45
관광	숙박 시설수	관광호텔(개)	23	26	29
		콘도(수)	7	8	9
녹색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개소)		35	60	90
교통	자동차보유대수(만대)		62	71	79
	도로포장률(%)		77	78	80
정보통신	스마트 센터(개소)		1	2	3
	u-Health 시범사업(시군)		2	6	13
주택	주택보급률(%)		110	110	110
상하수도	상수도보급률(%)		85.0	86.5	88.0
	하수도보급률(%)		80.0	85.0	90.0
사회복지	노인요양원(개소)		76	80	90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개소)		12	12	13
교육 및 생활체육	평생교육프로그램보급(개)		219	259	289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생산량(toe)		451,876	700,000	800,000
	녹색기업인증(개소)		16	25	50
환경보전	CO2 배출량 (천톤CO2 eq/년)		32,303	28,980	25,761
	1인당 공원조성면적(m ²)		4.95	7.5	10
	1인당 1인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인/일)		1.08	1.04	1
	빗물이용시설용량(t/년)		180	250	500
방재	소방관 1인당 도민수(명)		1,367	1,200	1,000
	소방관서(안전센터)(개소)		8(35)	9(38)	11(42)

제2장 |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 발전축 구상

제2절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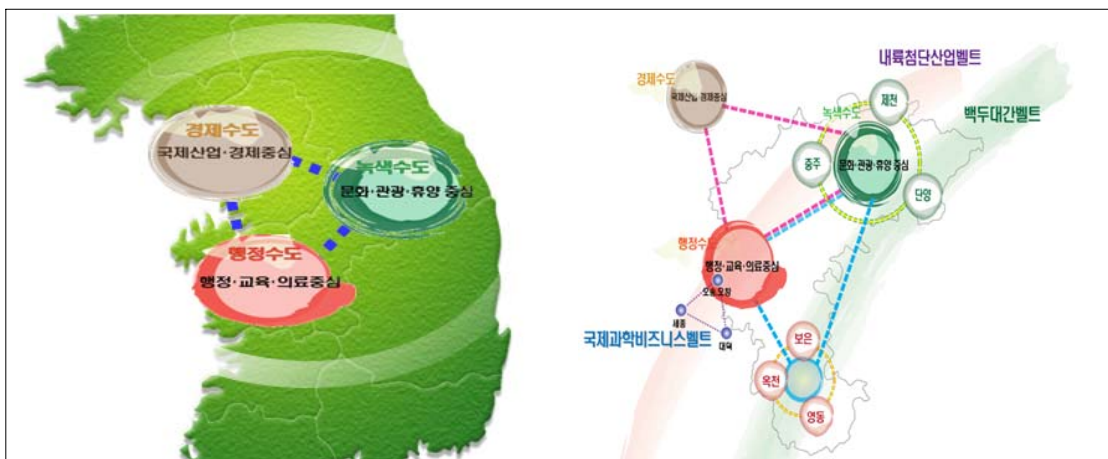
제3절 연계와 협력을 위한 지역생활권 형성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 발전축 구상

1. 발전축 설정을 위한 기본전제

- 과거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갈등구조를 탈피하고자 정부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연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대외개방형 국토전략은 해안중심형 개발의 축진을 통해 내륙의 발전 잠재력을 저하시킴에 따라 내륙권 발전을 위한 통합적 연계전략 마련이 요구됨
- 전 국토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내륙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대외개방형 국토전략을 견인하고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음
-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산업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대전, 청주(오송) 등은 행정수도, 녹색성장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호수 및 산림자원의 보고인 충주호와 백두대간(월악산, 소백산) 일대를 녹색수도로 육성하는 내륙삼각발전축을 설정하여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을 지원하고 견인할 수 있는 내륙권 발전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



<그림 2-2>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삼각 발전축 구상도

- 이러한 수도권~충청권 연계 삼각축 구상의 실현을 통해 수도권 및 세종시권 발전축과 대응하는 내륙발전축 형성이 가능함

2. 발전축 설정

☐ 신성장동력발전축(솔라밸리육성축)

- 초광역 개발축인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연계된 신성장동력발전축을 육성
 - 청주(오송·오창·청주공항)-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솔라밸리 개발축
 - 경제자유구역 6개지구(오송역세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 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의 조속한 지정운영 필요

☐ 균형발전축(녹색생태보안축)

-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축
- 내륙관광 휴양지대의 특화발전을 위한 관광여가 발전축
 - 중원문화의 역사성과 백두대간의 생태성을 융합하는 생태역사 벨트축

☐ BIO 웰빙발전축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근교농업 배후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BIO 웰빙발전축 육성
 - 옥천의 의료기기단지, 보은의 대도시 근교형 농업특화지구, 영동의 문화와 과일산업이 융합된 특화지구로 육성

☐ 동서연계발전축

- 내륙삼각발전축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이 서측의 해양지향형 개발축에서 동쪽의 내륙지향형으로 이동 필요
 - 서·동해안 초광역벨트와 연계한 내륙발전 육성축
 - 도내 균형발전축과 신성장동력발전축을 연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



〈그림 2-3〉 발전축 설정

3. 권역별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 추진

〈표 2-4〉 권역별 발전 프로젝트

3대 국토연계 벨트(3 BE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내륙첨단산업벨트 ○ 백두대간벨트
5대 거점사업(5 P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권) ○ 솔라밸리 (중부권)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 (북부권)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종합발전계획 (남부권) ○ 충북경제자유구역 (권역별 연계)
4대 핵심사업(4 C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청주권) ○ 중부신도시 개발사업 (중부권)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사업 (북부권) ○ 근교형 바이오웰빙사업 (남부권)
3대 권역 network 구축 사업 (3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MRO산업 육성) ○ 청풍명월 700리, 중원문화역사로 조성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
- 대전 거점지구와 청원(오송·오창), 세종시의 기능지구를 연구클러스터로 조성
-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간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성 강화 방안
 - 거점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BIGH-T분야 개발연구, 산업화 및 사업화 촉진
 - 거점지구의 지원기능 수행에 따른 기술혁신, 문화혁신, 교육혁신 도모

□ 내륙첨단산업벨트

-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인력, IT기술, 광역 인프라의 강점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이 가진 자연자원, 제조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내륙거점도시의 산업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IT·BT클러스터 조성
- 대전·강원·충청·전라지역이 동반성장네트워크 공간을 공동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동·서·남해안·접경벨트와의 연계축으로써 기능 수행
 - 7개 시군 :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

□ 백두대간벨트

- 한반도의 척추이자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를 보호·보전
- 동시에 무공해·저탄소 관광·산업·스포츠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산업지대로 구축
- 백두대간 내에서 재배되는 청정 농식품과 약초 등의 특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생명의 중심지로 특화
 - 5개 시군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오송바이오 밸리

-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KTX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
 - 성공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중부권 랜드마크 바이오 신도시 건설

□ 솔라밸리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주변(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에 태양광특화단지, 태양전지융합기술지원센터, 솔라카운티 조성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최고 솔라밸리 육성
 - 태양광산업 인프라 구축
 - 솔라 네트워크 구축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 통합 지향형 중원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으로 중원역사문화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정체성 및 지역발전 도모
- 관광수요변화에 대응한 관광서비스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지역자원의 보전적 활용 도모
 - 통합지향적 중원역사문화 이미지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중원역사문화와 연계된 관광테마시설의 적극적 개발
 - 내륙과 수변을 연계한 복합·벨트형 관광개발과 지역발전 가속화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종합발전계획

-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신발전지역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기존 발전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 지역내 만성적인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남부권과 중부권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 지정구역 : 남부3군 + 괴산·증평(1조 6,904억원)
 - ※ 향후 선천적, 후천적 조건불리요인으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북부권까지 확대하여 균형발전 도모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 충북을 경제규제 완화의 새로운 Test Bed 지역으로 활용하여 공항중심형 내륙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을 도모해 나가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해 낙후된 생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디지털 경제시스템의 하이테크 코스모폴리탄 개발, 경제자유도 제고를 통한 국가 및 신지역발전 촉진
 - 청주, 청원, 증평, 충주 등 6개 지구

□ 오송역세권 개발

- 오송역을 배후 대도시에 대한 여객수송중심의 관문역 기능은 물론 새로운 발전축 형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지식과 가치, 문화컨텐츠가 거대규모로 이합 집산하는 국토의 교환시스템을 조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타개할 수 있는 균형 국토구현의 선도거점 기능 수행
-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각 기능간 연계도모 및 권역구분을 통한 기능 및 시설 재배치

□ 중부신도시

- 중부신도시는 세종시와 함께 수도권 일극중심의 왜곡된 국토공간구조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사업으로 중부신도시에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내륙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함
- 도시컨셉 : 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기업도시는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이 함께 개발되어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발의 주체가 되며, 조성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있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중부신도시와 함께 내륙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유치업종 : 첨단 R&D시설, 전자·정보 부품소재산업, 환경산업

□ 근교형 바이오웰빙지구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6대 국책연구기관의 바이오(BIO)임상 테스트 베드(Test Bed) 기능을 하는 집적단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대전, 청주 등 광역도시권의 근교형 바이오 웰빙특화권역으로 육성
- 남부권 청정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집적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식품관광산업으로 확대
- 오송의료산업과 연계한 남부권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대청호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실버휴양형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
- 수도권과의 인접, 인근의 의료산업, 대청호 등 자연자원 등 실버휴양의 최적지인 남부권에 복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남부권 발전의 전기 마련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도내 권역간 연계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개발의 확산효과 미흡 현상의 해소와 청주권의 성장효과가 중·북부권 및 남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내 권역을 연결하는 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며,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영호남을 연계한 올림픽로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
- 제1구간 :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원주)~단양
- 제2구간 : 영동~보은~미원~증평(초정)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MRO산업 육성)

- 국내시장은 항공기 제조산업 발전 및 보유대수 대비 MRO산업 미약
- 항공기 대수('07년→'27년) : 세계(17,660대→34,400대), 국내(196대→527대)
- 국내 항공사 엔진정비(75%)·기체중정비(53%), 해외 아웃소싱
- 우수한 기술력과 중저가 정비료로 세계시장 변화 주도 필요
- 국내 민수분야 MRO 지출액 451억불('08년), 연평균 4.3% 성장예상
- MRO산업 정착시 6조6천억원 파급효과, 17,500명 고용창출 전망
- 항공정비(MRO)단지 및 항공복합단지 조성
- 틈새 전략의 일환으로 화물특화형 국제공항으로 육성

□ 청풍명월 700리, 중원문화역사로 조성사업 추진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통해 남부권과 북부권의 호수와 산악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 적극 활성화
- 금강수계(2건) : 금강 8-1(옥천, 영동)·10(청주, 청원)공구
- 한강수계(3건) : 한강 8(충주)·15(제천)·16(단양)공구
- 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자원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원문화역사로 조성사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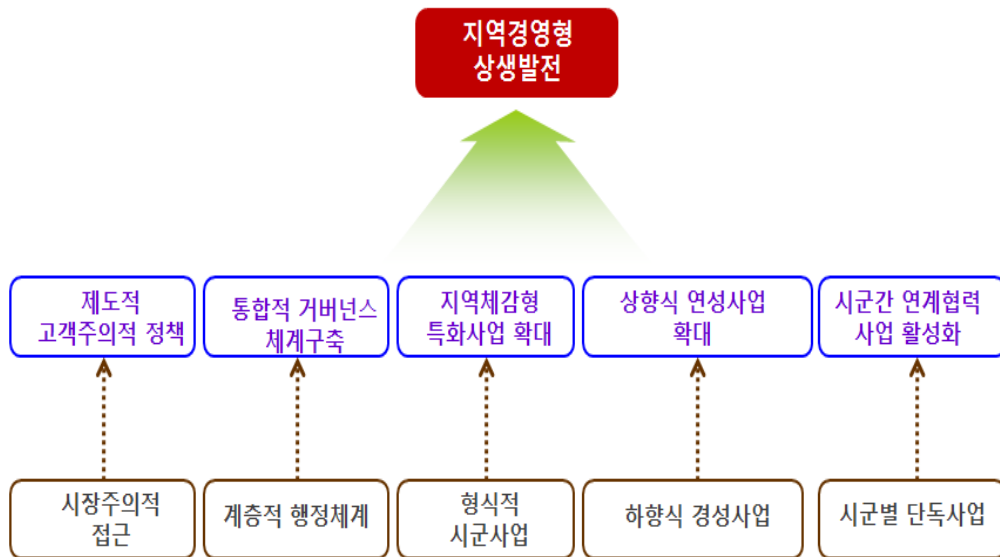


〈그림 2-4〉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동력 프로젝트

제2절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구상

1.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은 농촌-도시간, 권역간 격차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 동시에 충북 메가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기초생활권 차원의 토대를 제공
- 이러한 토대구축을 위한 균형발전은 시·군간 협력과 주변 광역경제권에 의한 지역 경영형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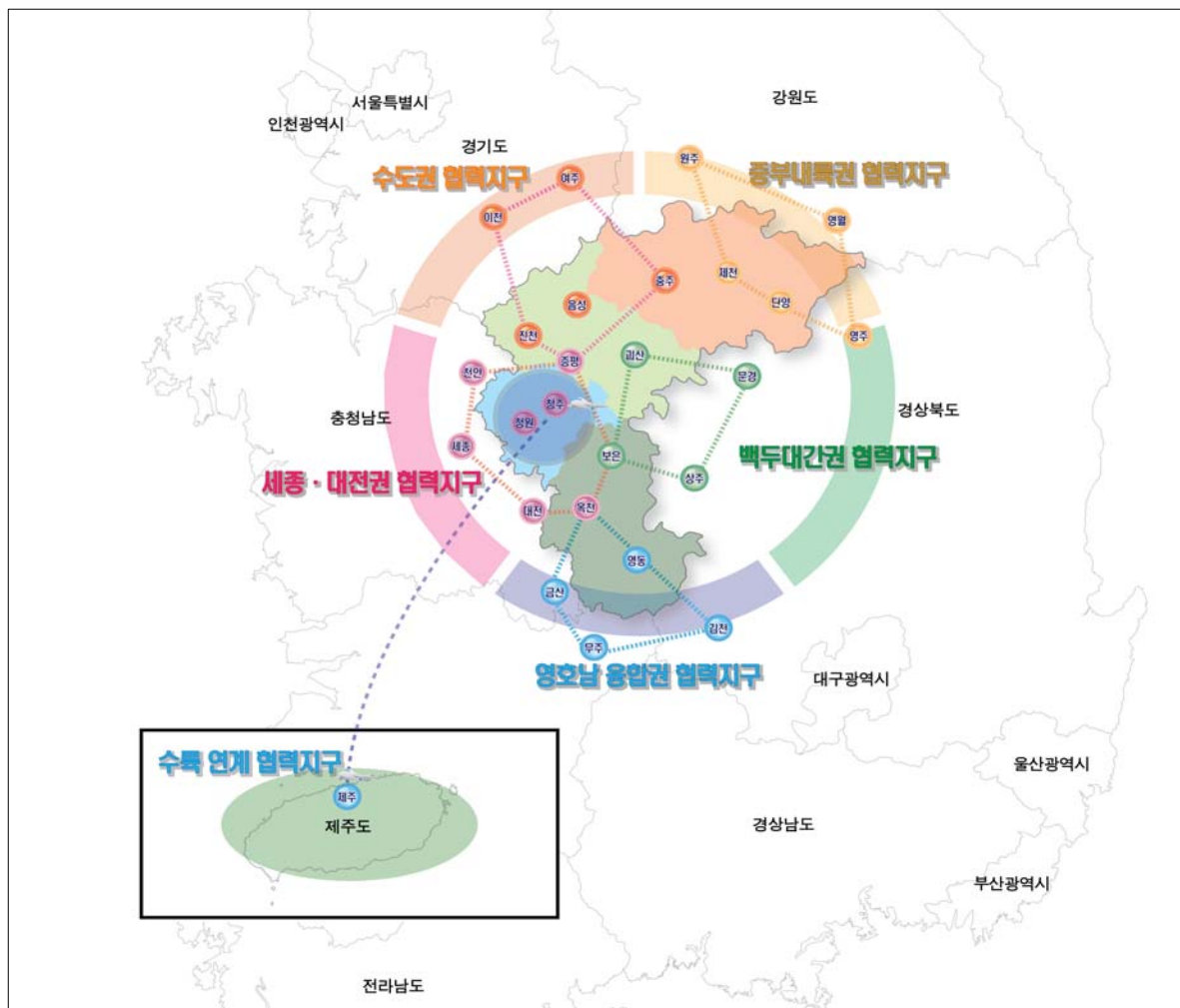
<그림 2-5>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쟁원리의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주민위주의 제도적, 고객주의적 정책(Customer-oriented Policy)이 마련되어야 함
- 전통적 계층적 행정구조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군-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Synthesized Governance)를 구축
-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영역적 특화(territorial specialization)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 수법의 도입과 시·군별 형평성보다는 사업별 차별성, 타당성(사업실현성)을 중시하는 지역체감형 특화사업을 정착시킴
- 낙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 지식, 기술, 감성, 창의 등 소프트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시·군 주

체의 상향식 소프트 사업(Bottom-up Soft Project)사업을 확대

- 정부의 광역적 입체적 공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접 지역간의 자발적 사업발굴 노력에 중점을 두는 광역차원 연계협력사업(City-county Cooperation Project)의 활성화에 초점
- 기존의 농촌산업, 체험, 관광 등과 차별화되는 6차 산업화, 융복합화를 위한 특화전략의 도출 및 확산(Rural Project Convergence)

2.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그림 2-6>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 수도권 협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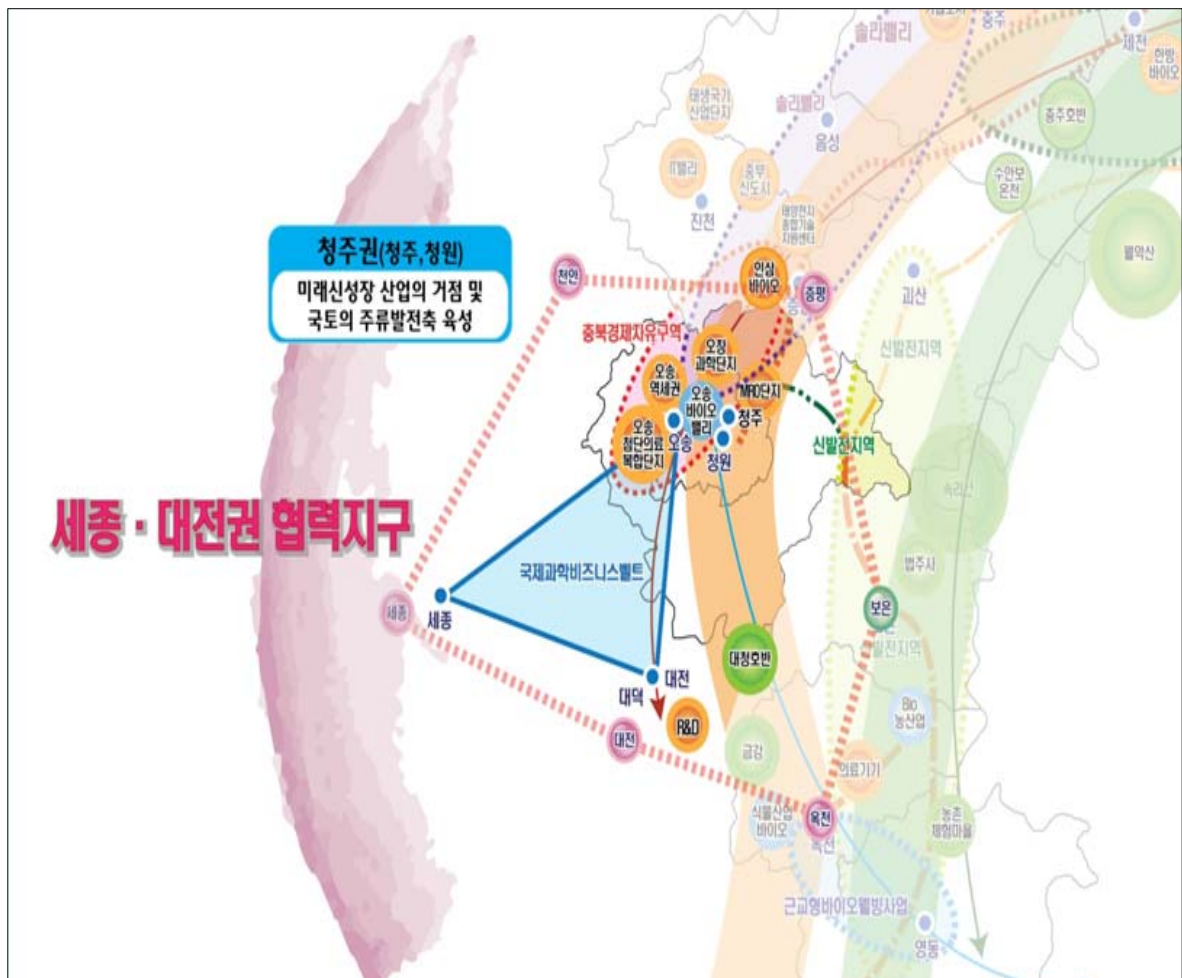
-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신 지역발전축을 형성하고 수도권의 개발효과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충북의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와 연계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의 연결지대로서 지역간의 연계성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공항을 중심으로 다종(多種)·다층적(多層的)인 교통·물류 기반 조성
- 도시간의 광역적 교류를 추구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재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측면과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을 동시 검토



<그림 2-7> 수도권 협력지구

□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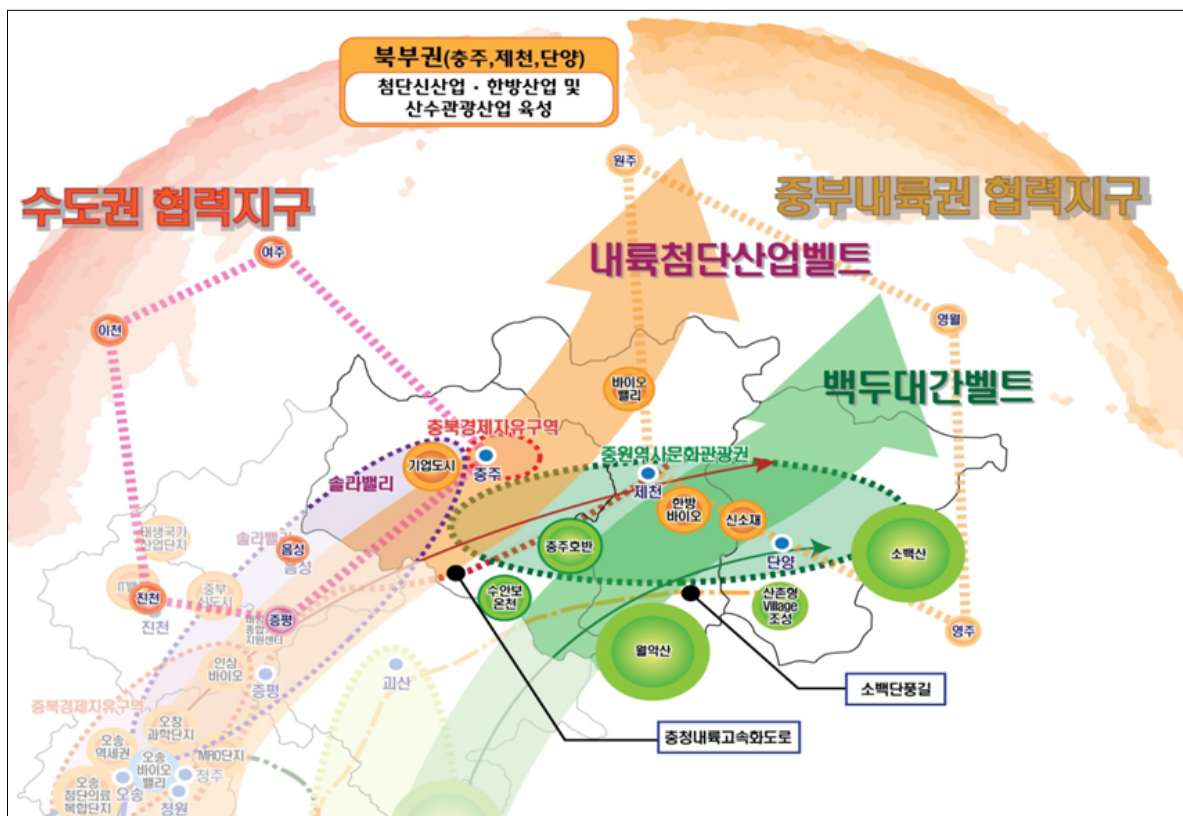
- 세종시와 충북의 관문기능을 하게 될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간 공동협력지구 구축을 통해 내륙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지역에 입지한 특성화 대학, 토지자원,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활용한 청정·첨단산업의 기반 조성
- 전국 및 도 차원의 산업입지계획을 감안하고, 첨단화·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에 중점을 둔 입지전략 수립
-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에 생산·연구·주거·문화 및 유통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복합단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림 2-8>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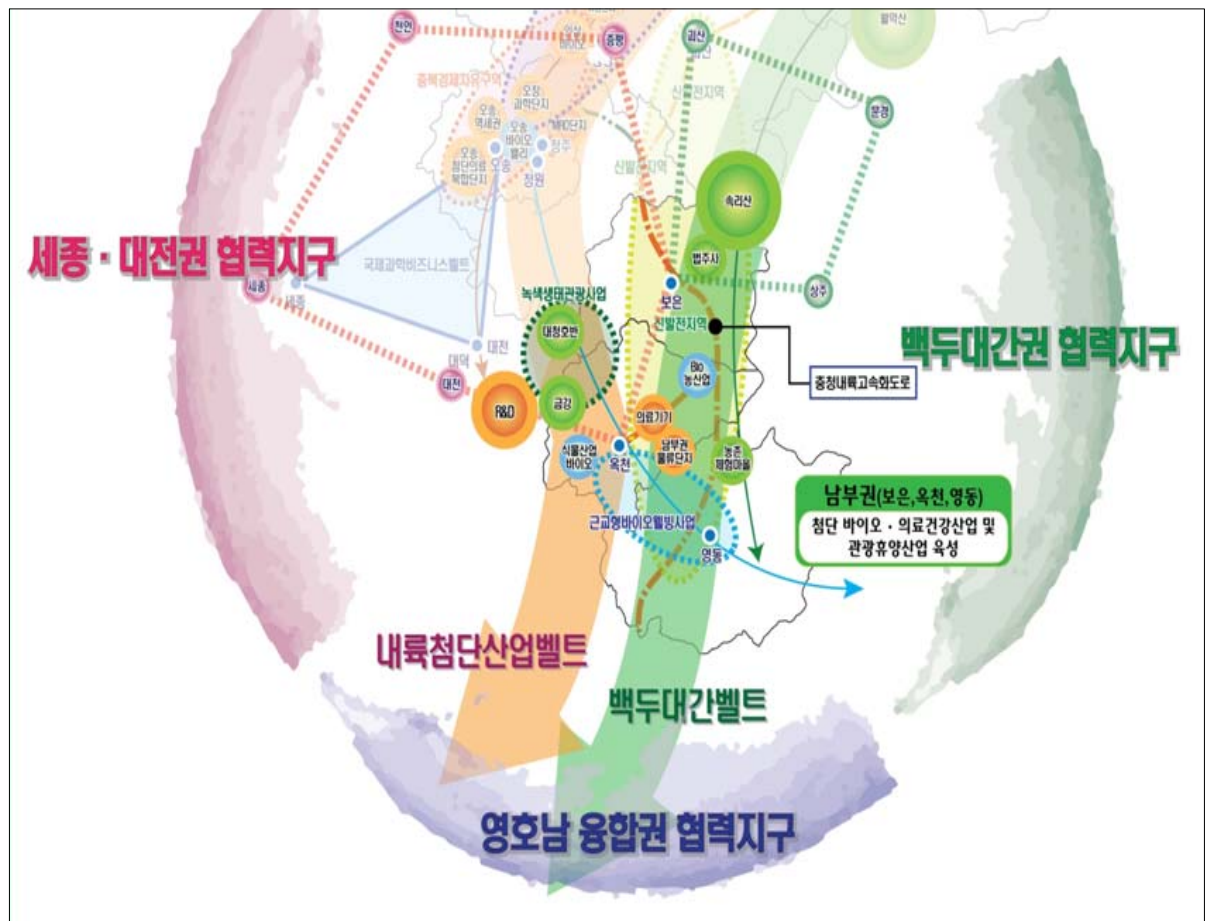
- 국제적 산악·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구축
 - 중부내륙권의 울창한 산림, 수려한 경관과 수변자원,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온천자원, 고유의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 거점육성
 - 국가 및 도 차원의 관련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감안하고, 개발목표의 단계적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적 관광개발사업의 전개
 - 국제적인 산악·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악과 역사문화, 수변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육성
 -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특정지역, 지방광역권 지정·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21세기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함



<그림 2-9>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 갈등의 양상으로만 나타난 영호남과 충청권이 통합할 수 있는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구축을 통해 백두대간 허리축의 낙후된 내륙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지형, 역사, 산업,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지역별 개성화를 추구하고, 지역의 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간 연대축이 형성되도록 개발방향 설정
 - 지역간 연계 관광코스 개발, 지역축제의 공동개최 및 상호협조, 특산물의 공동 판매, 관광홍보수단의 공동제작, 인적·문화 교류의 확대
 - 관광 배후도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를 거점화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고 및 특화개발 유도



<그림 2-10> 영호남융합권 협력지구

□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 백두대간권 협력지구는 과거 경부축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연계협력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내륙산악 발전을 위한 협력지구 구축
- 중부권과 경북 중·북부권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지역간 교류의 모범사례 지역으로 발전
- 백두대간 생태회랑길 복원 사업 추가
- 국내 최초의 경부축이었던 조선시대 과거길 재현 및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조성중인 생태길을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



<그림 2-11>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 수륙연계 협력지구

- “내륙의 섬 충북”과 “바다의 섬 제주”간 유대강화를 통한 상호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내륙과 해양의 상호교류를 통한 블루오션 창출 기대와 섬과 바다를 꿈꾸는 도민의 소망 수용
- 제주도와 문화, 관광, 농·특산물 등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및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륙지역의 경제 기반 마련
- 산악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체험 교류사업을 추진



<그림 2-12> 수륙연계 협력지구

제3절 연계와 협력을 위한 지역생활권 형성

1. 지역생활권 설정

- 충북의 지역생활권은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세종시와 중부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토록 함
- 지역 생활권은 기존 생활권 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망, 생활권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대 지역생활권과 세종시 연계생활권, 대전연계생활권 등 2대 연계생활권으로 구분
- 청주생활권은 도농통합을 전제로 청주·청원권 전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충청북도의 최상위 도시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면서 천안·아산권, 세종시권 등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도시권의 중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일 대생활권으로 구분
- 남부생활권은 역사적으로 지리적 입지특성에 의해 대전권과의 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청주권보다 대전권과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바, 정서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보은, 옥천, 영동을 동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
- 중부생활권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내륙 이동축 선상에 있는 생활권으로 청주권의 성장효과가 북부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생활권으로 혁신도시 연계 소생활권과 지리적 동질성이 약한 괴산을 포함하는 중부 대생활권으로 구분
- 북부생활권은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에 대응하는 신 발전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축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녹색성장시대의 도래와 4대강 유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에 의해 국토내륙의 발전을 견인하는 백두대간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지역 대생활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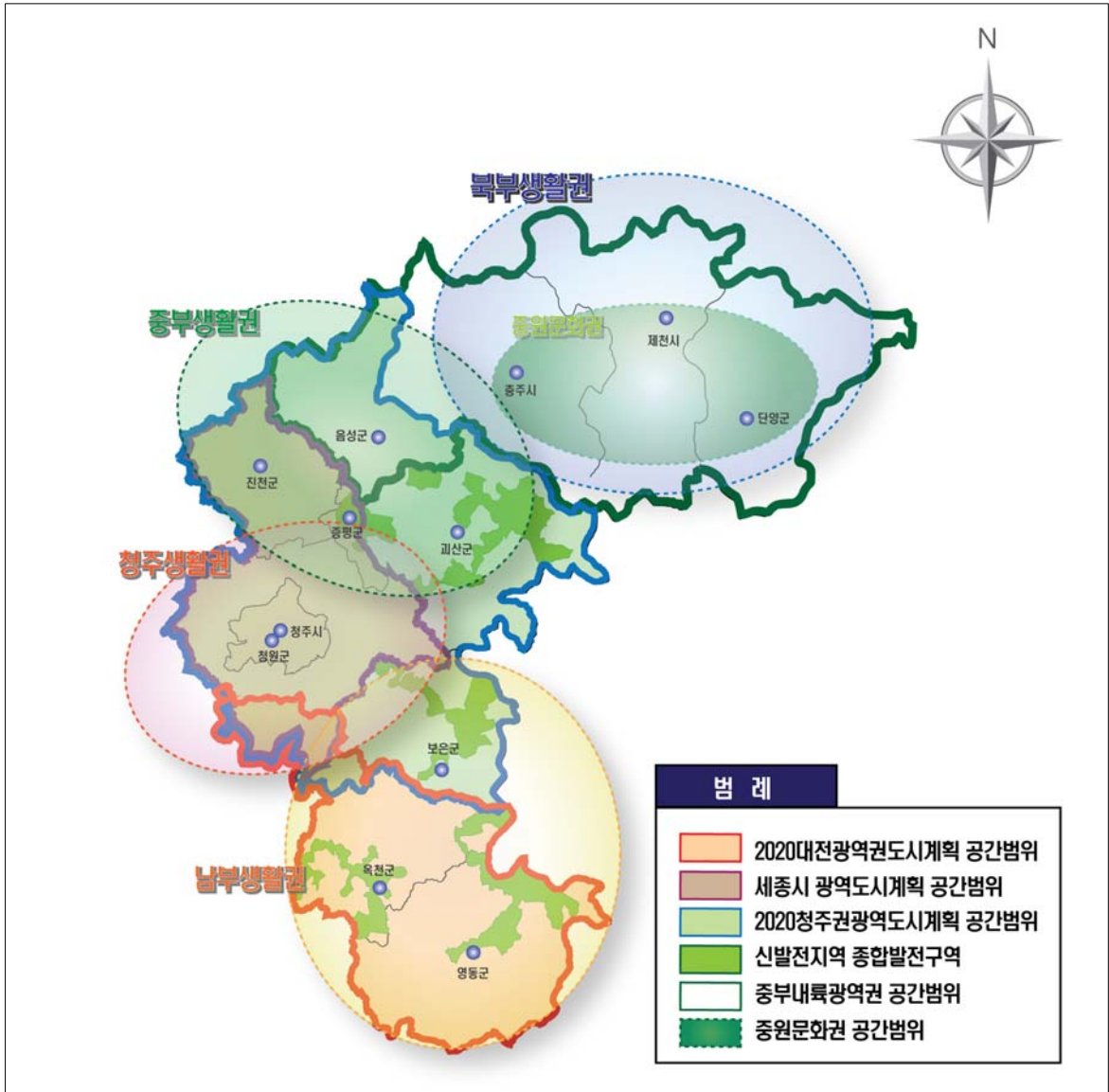
2. 지역생활권내외 도농간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광역중심지는 권역내 생활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중심지와 배후지역간 교통·정보통신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 시·군 중심지 및 기초 중심지는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전원 도시화를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농촌 중심형, 대도시 주변형, 특수 기능형으로 발전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
-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시·군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공동이용체계 구축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 충주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세력권내에 있기 때문에 청주권 및 수도권의 개발수도가 북부권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촉진지구 기능부여
 - 보은군의 회인·내북지역은 연계발전을 위해 청주 대생활권 계획과 연계필요

- 괴산군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기능 부여

<표 2-5>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 체계

생활권	중심지 체계		대상지역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읍)	
청주권	청주, 청원	오창, 내수	청주, 청원
중부권	진천, 음성, 괴산, 증평	금왕, 진천, 광혜원, 증평, 괴산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제천, 단양, 매포, 주덕	충주, 제천, 단양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옥천, 영동, 보은	보은, 옥천, 영동



<그림 2-13>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체계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2장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3장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제5장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제6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7장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제8장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설정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1절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1장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1절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왜곡된 불균형적 도시성장

- 청주권의 성장과 남부권 및 북부권의 침체로 시군간 불균형 심화
 -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청주권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주와 청원군의 오창, 오송 등이 급속히 성장
 - 2010년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지역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어 지역간 인구격차 심화되고 있음
- 교통망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구조 고착
 - 수도권 지향의 교통망 발달로 인한 남·북부권의 저발전에 따른 정주·생활 여건 낙후

□ 중소규모 도시의 중심지 기능 약화

- 교통·정보통신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생활권의 광역화와 지역주민의 대도시 지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중심기능의 상향 이동(Upward Shift)으로 중소도시 중심지 기능이 약화됨
- 청주권을 제외한 충주·제천 및 읍급 도시들의 중심지 기능과 역할 쇠퇴
 - 대다수 시·군청소재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읍·면급 도시 또한 본래의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중견도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역할 미흡
 -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권,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지역에서는 중견도시의 발전을 위한 거점역할이 쇠퇴함

□ 지역 재래 상권의 위축

- 대형마트 입점(SSM)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리공간상 왜곡된 상권구조를 형성
 - 최근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중소도시

의 재래상권이 파괴되는 양상 초래

□ 특화된 도시 기능 미흡

- 특색 있고, 다양한 지역자산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개성 있는 도시기능 창출 미흡
 - 도시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화네트워크 체계 미약
- 확실적인 건축 및 도시개발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도시매력창출 미흡

□ 비계획적 난개발에 의한 기형적 도시 구조

- 대부분의 도시가 지역간 간선도로 및 철도역 중심의 비정형적 도시형태를 보임
 - 교통결절점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교통혼잡과 시가지의 인위적 단절에 의한 불균형적인 발전 초래
- 저밀도의 외연적 개발에 따른 기존시가지의 노후화와 공동화 진행
 -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주거환경 악화 및 지역 재래상권의 침체 가속

2. 여건 변화와 전망

□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도시체계 변화

- 세종시,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풍선효과로 주변도시 특히, 구시가지의 침체·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병존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 청주·청원 통합시와 세종시, 대전광역시 등이 새로운 형태의 초광역도시권 형성 가능
 - 청주·청원군이 통합될 경우 현재의 개발추세의 지속으로 100만에 육박하는 광역도시권(Mega City Region)으로 변모될 전망
 - 중부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들이 연합하는 새로운 도시권 형성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정에서 개발압력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광역도시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

- 광역교통망의 정비로 지역간 구분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도시간의 관계는 과거 수직적, 계층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체계로 전환 예상
- 세종시,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계기로 신도시와 주변도시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 구축 필요

□ 생산기반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

- 주 5일제, 4+3 다차형 여가시대 도래에 따라 도농공생형·도농교류형 생활 방식으로 전환
 - 물리적 기반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환경 중심의 소프트 도시정책으로 변화
- 세계화·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개성 및 문화·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도시경쟁요소로 부각

3. 계획의 기본방향

□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연합도시체계 강화

- 시군 통합이 가시화되는 청주권과 대전권, 세종시권의 연합틀 속에서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성장관리 유도
 - 성장관리정책은 스마트 성장의 원칙과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통합된 토지이용계획과 친환경성 및 미래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핵도시, 중소도시간의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지역(City-Region System) 형성을 유도
 - 중핵도시는 광역 및 지역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며, 인접한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 기능적으로 특화하여, 충북 전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로 형성
 - 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중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

□ 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 세종시,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형성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 신도시 육성정책에 의해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

시는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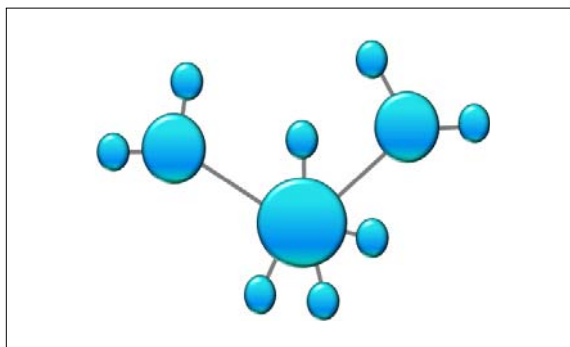
- 지역개발사업의 발굴·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지리적·공간적 장점을 적극 육성
- 교통결절점인 IC연접부 등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체계 구축

□ 지역특화형 전문기능도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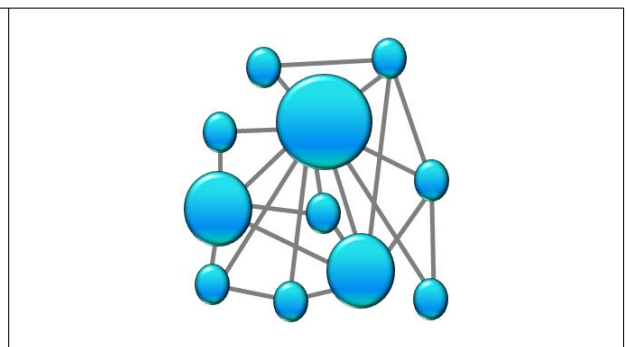
- 충북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고, 권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거점도시와 주변지역을 특화형으로 연계개발
 - 지역혁신 거점과 지역의 전략산업 및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문도시 육성
- 중소도시는 역사·문화, 입지적 특성 등 지역자산을 살려 전문특화도시로 육성하고, 주변도시와 상호협력관계를 강화
 - 동북아시아의 도래, 접근성 강화, 문화·관광의 중요성 부각 등의 변화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
 - 고속도로 IC와 연계된 지역이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국도 주변지역을 물류·유통,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기능공간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개발압력을 흡수하는 특화공간으로 육성

□ 지역특성 반영의 차별화된 중소도시 활성화와 인본적 도시환경 정비

- 도시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중소도시를 활성화하고, 살고 싶은 인본적 도시환경으로 정비
 -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와 주변지역을 기능적으로 특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인간중심의 도시 구축
 - 수직적, 계층적 도시간 모형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상생의 네트워크형 도시권 구축



<그림 3-1> 계층적 도시결합



<그림 3-2> 네트워크형 도시결합

- 지역특성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도심재생,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읍면소재지 정비 등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등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이미지 창출
- 특히, 중심시가지는 친인간성, 독창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 촉진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형 도시계획체제 구축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체제 구축
-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행정분야에 반영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
-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부응하여 도 및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조례, 시책·사업을 개발



<그림 3-3> 거버넌스 구축성공을 위한 8가지 원칙

4.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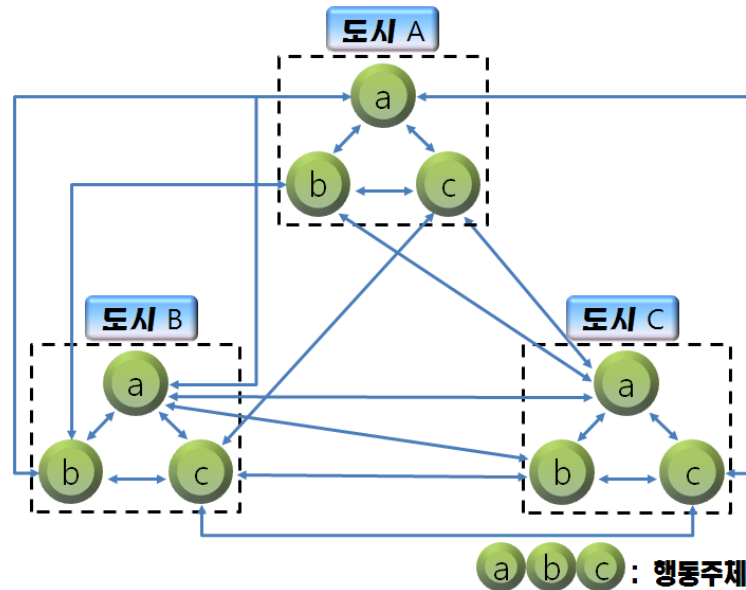
1)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초광역 연계형 도시권 관리

- 수도권 및 대전권, 청주권의 광역적 확산에 따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도시권과 중부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 연합도시권의 체계적인 관리
 - 최근 빠른 성장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주권은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
 - 오송역세권과 중부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에 확산
- 광역도시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효율적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을 강화
 - 스마트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차원의 토지이용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 및 공원 등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체계 구축

□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체계 구축

- 대도시와 주변도시, 중소도시간, 도시와 주변 농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협력 네트워크체계 구축
- 세종시,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광역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
 - 세종시 광역도시권내의 지역들은 행정도시의 주요 기능인 행정·연구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첨단지식기반·교육기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설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오송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배후 정주 및 상업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조성
 - 보은은 역사·문화·관광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주변 레저형 지원기능 부여
 - 옥천은 대전권과 오송권의 의료기기의 테스트 베드(Test Bed) 기능을 부여
 - 영동은 수요자 근접형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강화



<그림 3-4> 도시간 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

- 중부신도시와 주변도시는 중소도시 연계 네트워크체계 구축
 - 중부신도시와 주변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별 기능을 특화·분담
 - 중부신도시와 세종시 및 기업도시, 주변 도시간 교통·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2) 거점 도시 및 지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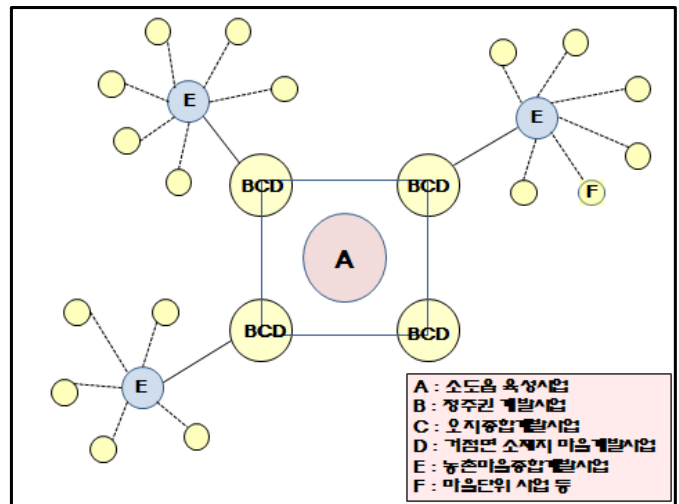
□ 내륙 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통한 거점 육성

- 세종시 등 신도시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세종시 건설이 충북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
 - 세종시 인접 지역은 세종시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부가기능을 발굴·육성하며, 세종시와 경쟁환경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정비
- 중부신도시, 기업도시는 청주권의 개발효과가 중부권, 북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북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
 - 중부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내륙발전을 위한 거점도시권을 형성
 -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

□ 지역 활성화 거점 육성

-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개발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 지역 주도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 거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내에 있는 IC연접부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 농어촌 및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

-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복합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패키지형 테마단지로 개발하여 수도권 및 중부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중심지로 육성



〈그림 3-5〉 도시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

- 복합단지형: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이나, 수도권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아울렛(Outlet), 쇼핑파크(Shopping Park), 물류·유통단지 등이 복합된 특화공간으로 개발
- 산업단지형: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적 산업단지로 개발
- 관광단지형: 충북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종시, 대전권, 청주권 및 수도권 전원주택 수요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관광단지를 개발하며, 도내 2개의 담과 3개의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 제1, 2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및 새롭게 건설 예정인 고속화 도로의 결절지 등 IC 연접부를 적극 활용하는 개발 추진

3) 기존도시 활성화

□ 중소도시 활성화

-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중심시가지)의 균형발전, 기성시가지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중소도시 특성에 맞게 적극 활용
 -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주거지 정비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한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

- 기반시설 설치, 건축규제 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유도
-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주변지역을 일체화하여 정비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 교육·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정비 등 환경정비를 통해 인본주의적 도시로 육성
 -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도로혼잡, 주차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강화
 - 중심시가지 활성화 과정에 주민, 상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관리자(Town Management) 육성사업 추진
- 중심시가지내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도시 숲 조성, 녹지활용 계약제 등과 연계한 그린파크(Green Park) 네트워크를 조성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기존 중소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사업효과를 극대화

□ 역사·문화자산 활용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지리적 장점 등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 재활성화
 - 기존 도시 내에 분포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정비하여 중소도시의 어메니티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도시의 총체적 경쟁력 강화
-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고도보존사업 등에 근거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련지역 정비
 - 고도옛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비·복원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는 신개발 사업의 주택지 공급과 연계

제 2 장 |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1절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제2절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제3절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

제2장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제1절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북도 경제 현황

○ 충청북도의 경제지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 3-1〉 충청북도 경제지표 총괄

년도	구분			충북(전국비중)	전국
2009년 기준 (잠정)	국민 계정	GRDP		31조 6,826억원(3.0%)	1,066조 837억원
		1인당 GRDP		21,398천원(전국 7위)	21,870천원
		인구(장래인구추계)		148만명(3.0%)	4,875만명
	산업 구조	GRDP (%)	농림어업	5.3%	2.7%
			광업, 제조업	38.1%	27.9%
			서비스업 및 기타	56.6%	69.4%
2010년 기준	취업	종사자 수(%)	농림어업	10.1%	5.2%
			광업, 제조업	21.5%	17.7%
			서비스업 및 기타	68.4%	77.1%
	고용	실업률		2.2%	3.7%
	물가 금융 재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3.0%	2.9%
		어음부도율(%)		0.43%	0.15%
		재정자립도(%)		33.7%	52.2%
	무역	수출액(US 백만달러)		10,330(2.2%)	466,384
		수입액(US 백만달러)		6,120(1.4%)	425,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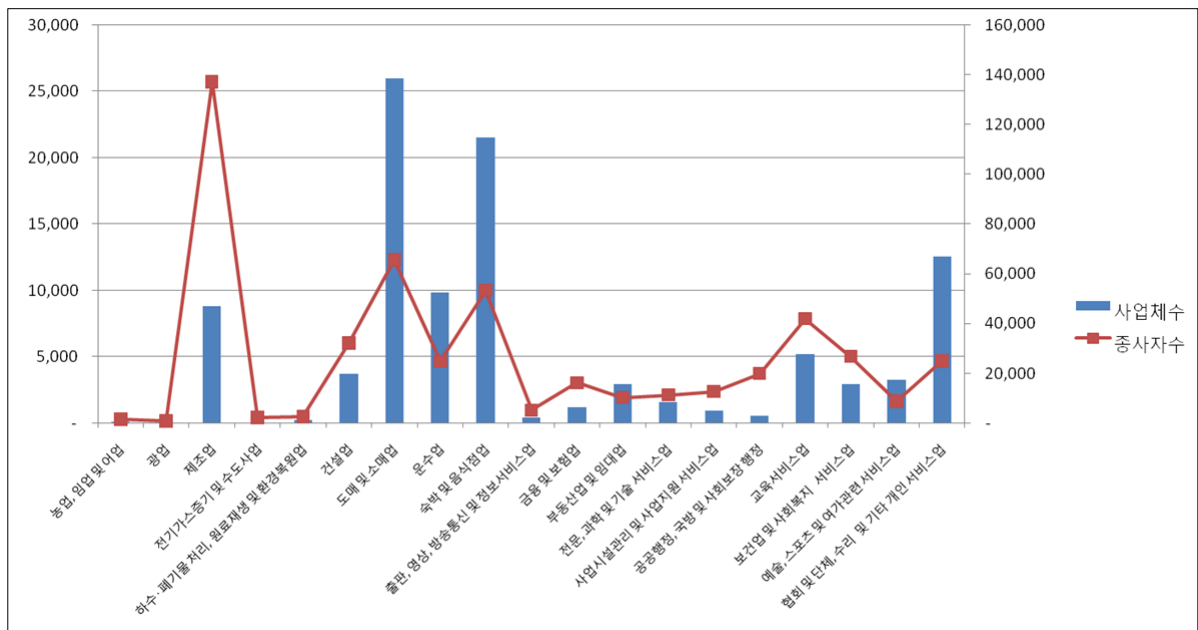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충북통계연보』 2010.

○ 산업구조

- 충북의 산업구조는 3차(서비스업)산업(56.6%), 2차(제조업)산업(38.1%), 1차(농림수산업)산업(5.3%)의 순으로 충북은 1,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체 현황

- 2010년 현재 도내 사업체수의 구성비는 도매 및 소매업이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2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3%, 운수업 9.6%, 교육 서비스업 5.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로는 제조업이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3.2%, 숙박 및 음식점업 10.7%, 교육 서비스업 8.4%, 건설업 6.4%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그림 3-6> 산업분류별 사업체 구성비

- 2010년 기준, 전사업체의 84.0%가 1~4인 규모의 사업체로 종사자의 30.0%가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개 업체당 평균 1.70인을 고용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대규모 사업체는 적은 편임

<표 3-2> 규모별 사업체 현황

(단위 : %, 명)

구 분		충북			전국		
		사업체수	종사자수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개업체당 종사자수
사 업 체 규 모	1- 4명	86,419	151,421	1.7	2,712,483	4,864,888	1.8
	5- 9명	8,762	56,178	6.4	309,810	1,969,754	6.4
	10- 19명	3,915	52,859	13.5	131,797	1,745,360	13.2
	20- 49명	2,512	75,086	29.9	72,807	2,178,097	29.9
	50- 99명	877	60,186	68.6	24,208	1,647,499	68.1
	100- 299명	392	61,009	155.6	10,748	1,703,462	158.5
	300- 499명	51	19,303	378.5	1,613	608,249	377.1
	500- 999명	34	22,529	662.6	873	598,807	685.9
	1,000명이상	7	14,605	2,086.4	443	972,164	2,194.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충청북도 제조업·업종별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는 기계금속이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화학의료가 19%의 순으로 나타남
- 종업원수로는 전기전자가 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화학의료가 21%로 나타남

<표 3-3> 충청북도 제조업·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기계 금속	화학 의료	음식료	전기 전자	비금속	목재 펄프	섬유 가죽	인쇄 복제	기 타
사업 체수	6,680	1,698	1,291	1,198	815	567	519	270	56	266
	100	25	19	18	12	8	9	4	1	4
종업 원수	170,288	28,437	24,084	24,084	46,806	10,921	7,996	6,204	663	9,079
	100	17	21	14	27	6	5	4	1	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산업·농공단지 현황

- 충청북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1개소 2,199천㎡, 일반산업단지 15개소 10,924천㎡, 농공단지가 40개소 4,480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업체는 전체 1,067개소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산업단지 입주지역을 살펴보면 진천·음성군이 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원군이 7개소, 제천시가 6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농공단지는 진천군이 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천시, 옥천군에 5개소, 충주시에 4개소, 청원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에 3개소, 괴산군, 증평군에 각각 2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 산업단지 현황

구분	개소	총면적(천㎡)	입주업체수(개소)	종업원수(인)
합 계	56	17,603	1,067	56,917
국가단지	1	2,199	57	-
지방단지	15	10,924	614	41,555
농공단지	40	4,480	396	15,416
청주시	1	3,019	267	22,513
충주시	7(4)	1,559(524)	113(49)	3,131(1,422)
제천시	6(5)	1,253(522)	103(56)	2,000(1,058)
청원군	7(3)	6,625(354)	214(5)	14,702(591)
보은군	3(3)	399(399)	55(55)	809(809)
옥천군	5(5)	692(692)	74(74)	2,232(2,232)
영동군	3(3)	392(392)	17(17)	1,060(1,060)
진천군	8(7)	935(755)	50(49)	4,737(4,686)
괴산군	2(2)	138(138)	18(18)	874(874)
음성군	8(3)	1,692(322)	117(40)	3,357(1,319)
단양군	3(3)	222(222)	24(24)	445(445)
증평군	3(2)	676(169)	25(7)	1,111(920)

주 : ()는 농공단지분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 통계연보』, 2010.

□ 신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WTO와 FTA에 의한 글로벌 경쟁체제 확립
 - 전세계가 단일 질서가 지배하는 단일 시장으로 변모(Global is one market, one rule)
 -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신경제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신경제체제가 기존의 경제체제와 달리 가상공간과 결합하여 융합형의 새로운 경제 시장을 형성할 전망 : Long tail economics, Webnomics, Web 3.0
 - 글로벌 기업에 의한 세계시장의 과점체제 대두
 -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전세계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이 대두. 이 시장에서의 승리는 글로벌 승자가 될 수 있으나 패배자는 자국시장까지 빼앗김
- ⇒ 이러한 현상에 의해 경쟁구도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방의 정부 및 기업체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안 수립이 추상적이며 소극적인 실정

2.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 경제의 주요한 흐름 : 융합과 녹색성장

- 세계경제의 중심축은 기존 IT중심에서 BT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융합산업군을 중심으로 각종 신수종산업의 발굴·육성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 이른바 “Oil Peak”으로 지칭되는 화석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치열함
- 특히,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규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현재 탄소배출감축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
 - Oil Peak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채굴되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정점을 지나 저감한다는 논리로 유가 폭등의 전조로 전망하나, 최근까지 새로운 유정의 개발 및 시추기술의 진화(sand oil 등)로 oil peak은 당초 예상보다 미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IT을 기반으로 ‘BIGH-T’로 지칭되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들 가운데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우수하며,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칭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음

〈표 3-5〉 국가신성장동력산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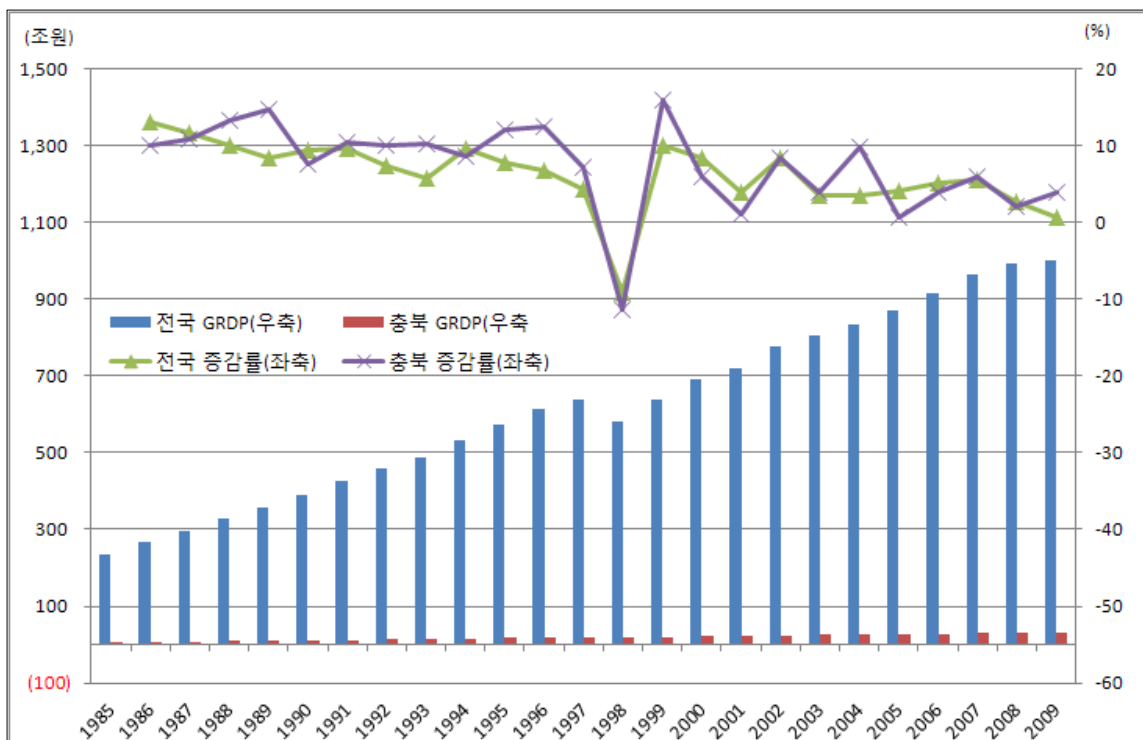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⑩신소재·나노 융합 ⑪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⑫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⑬글로벌 헬스케어 ⑭글로벌 교육서비스 ⑮녹색 금융 ⑯콘텐츠·소프트웨어 ⑰MICE·관광

자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금융위원회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09.

-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민선 5기 들어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을 도정기조로 설정하고 기존의 반도체 중심의 IT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충북의 경제성장을 담보상태

- 전국 대비 충북의 GRDP 비중은 1989년 2.8%에서 1999년 3.2%까지 증가했으나, 2009년 3.0%로 담보상태임
- 전국 증감률과 비교시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기복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정 대기업(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등)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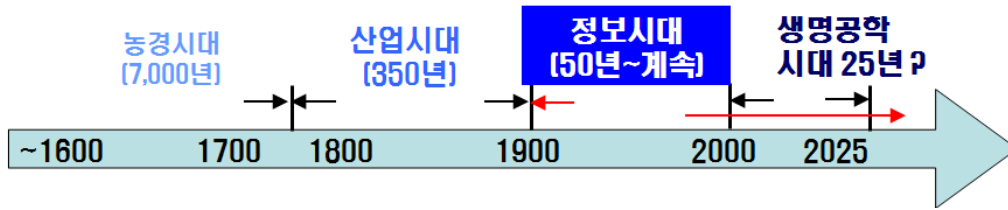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www.kosis.kr

<그림 3-7> 전국과 충북 GRDP 및 GRDP 증감률 비교 : 1985-2009

□ IT와 BT를 주축으로 첨단산업의 융합화 동향 가속화

- 제2차 IT혁명기 : 기존 IT기반인 유선(Wireline)에서 무선(Wireless)과 융합된 유비쿼터스(ubiquitous) 정보화 환경으로 진화
 - 유비쿼터스(Ubiquitous) :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여러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으로써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전제로 구현됨

- BT산업의 대두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IT에서 BT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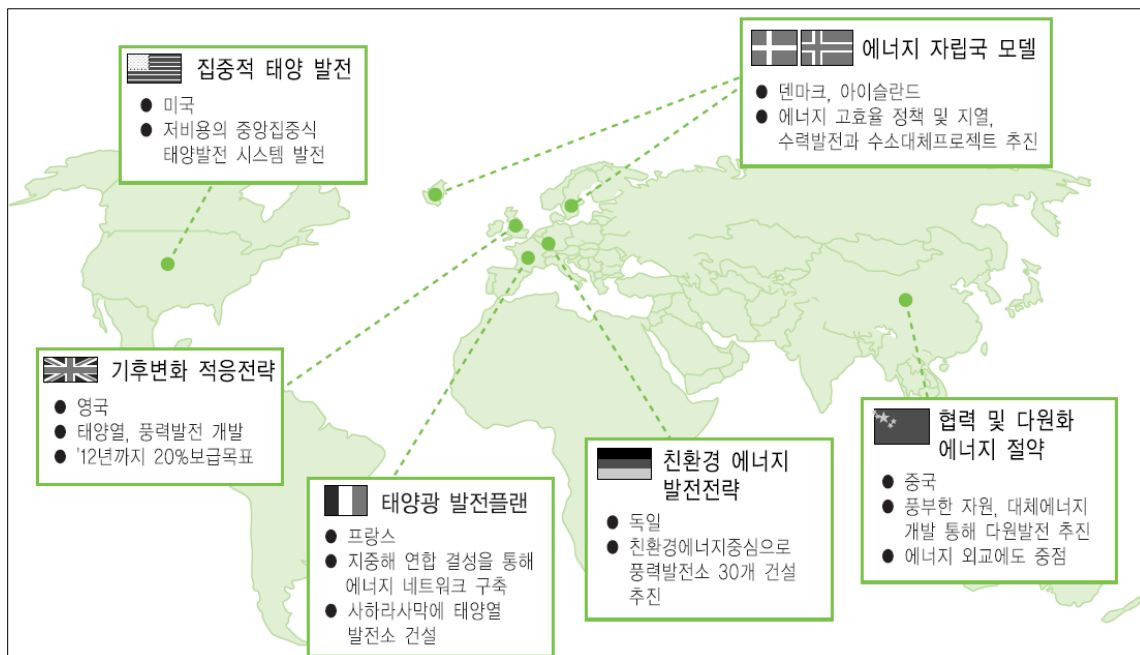


<그림 3-8> 바이오 경제의 대두

- BINT 융합화 : IT와 BT를 기반으로 소위 신성장의 NT, ST, ET, CT 등과 융합된 소위 'BINT'형 신산업 창출 가속화
- *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환경공학기술(ET)·우주항공기술(ST)·문화콘텐츠기술(CT)

□ 녹색산업의 급성장

-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녹색산업의 탄생 및 급성장 :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풍력, 조력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
- 녹색산업의 2차 파생산업(탄소펀드, 탄소배출권시장 등)의 급성장



<그림 3-9>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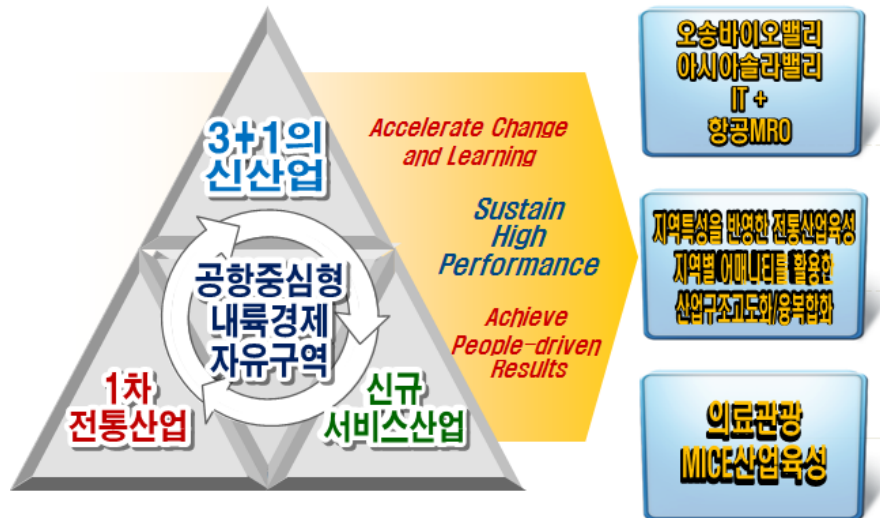
- 5+2 광역권계획(충청권) : 충청의 특화산업은 ‘뉴 IT’와 ‘의약바이오’로 선정하고 관련 산업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2조 5,000억원의 매출과 4,000여명의 고용창출, 20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됨
- 뉴 IT(1,086억) :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과 IT 기반의 그린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사업
- 의약·바이오(915억) :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연계 사업과 첨단 신약 및 소재 실용화지원 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추진 : 대덕(기초연구)을 기반으로 세종시와 오송(BT), 오창(BIT), 증평·진천·음성(태양광 부품)의 BIGH-T 클러스터 구현
- 바이오메디컬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 의료기기, 신약, 휴양관광, 한방 등의 융합형 클러스터 조성
- 북부권(한방)과 남부권(의료기기 및 바이오농산업), 충북 전역의 의료관광이 융합된 ‘융합형 바이오메디컬 투어리즘’ 클러스터 조성
 - * 의료관광(Medical Tourism) : 전통적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비즈니스 모형(Business Model)으로 충북의 경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 메카로의 육성을 추진 중에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 + 관광’이 융합된 신조어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과 의료를 융합하는 모형임.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관광중심 저렴한 의료비), 태국(관광 + 휴양), 헝가리(임플란트치료-소프론시) 등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와 선진국 못지 않을 기술을 융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음. 대표적인 분야로는 성형관광, 피부미용, 각종 암치료 등이 주요 특화 분야로 지칭됨
- 충북 4대 전략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의 지속적 육성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와 BT 분야의 신수종 산업의 글로벌 기업군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 ■ 육상(도로, 철도, KTX), 항공(청주국제공항)과 해상(평택·당진항) 등을 통한 국내 최단 최적의 접근성 확보(전국 2시간 이내) ■ 비교적 풍부하고 차별화된 첨단산업분야 교육 인프라 확보 ■ 태양광 모듈 중심 부품산업의 클러스터화(전국 인프라의 40% 결집) ■ 이차전지(LG화학, 새한에너지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역내 배출 교육인프라의 역외 유출(전국 최상위 순위)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중심의 역내 산업구조 지속 ■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고급인력의 유치·확보 미흡 ■ 수도권 및 대도심 권역 대비 충북 경제의 특화발전 역량 미흡 ■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및 중부권(괴산) 등 일부 시군의 특화산업 성장 미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건복지부 산하 6대 국책기관, 제2오송산업단지) 및 오창(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천(한방)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화 기회 확보 ■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북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전망 ■ KTX 오송역 개통을 계기로 의료 관광산업 등 신규 성장산업 육성 기회 포착 ■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추진 기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전망 ■ 태양광 부품 모듈산업의 집적화를 계기로 태양광 클러스터 특구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가용 인적 자원의 만성적 부족현상 지속 ■ 세종시 건설 본격화 및 천안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인접 지역의 관련 자원 유출 및 흡수 가능성 우려 ■ 주변 경쟁권의 첨단산업(BT, 태양광 등) 육성 추진으로 충북 육성전략 차질 우려 ■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5 + 2)에서 인재 양성대학부문에서 충북권역 대학의 탈락으로 지역 특화인력 양성기회 상실 ■ 지역 특화산업 관련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 지난 ■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고급 R&D 전문인력의 지속적 흡수로 역내 기 확보 고급 전문인력의 역외 유출 가능성 존속

3. 계획의 기본방향

□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권역별로 차별화된 중복 건설

- 3차원의 산업 육성 :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BT, IT, MRO, 태양광)과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규서비스산업(MRO, SoftWare, MICE)의 병행 육성 추진



<그림 3-10> 충북의 3차원 산업 육성 전략

- ‘충북발전 3 + 1 프로젝트’¹⁾ 중심의 신산업 육성 : 오송바이오밸리, 태양광 중심 솔라밸리, IT 등 3개 역점사업에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와 항공정비(MRO)산업이 더해진 미래 성장 추진 전략임
-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오송바이오밸리 :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과 58개 주요 제약업체가 입주할 오송생명과학단지, BT융합대학원 등 바이오 교육관련 시설이 들어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KTX의 중심축인 오송역세권을 연계해 대단위 바이오클러스터 구현
- 36번 국도를 축으로 한 솔라밸리 : 36번 국도 변을 중심으로 한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충주 등 7개 시·군에 걸친 국내 최초의 ‘벨트형 광역 태양광 특구’를 지정·육성
- 지역 균형발전·충청내륙화 고속도로와 신발전 지역이 융합된 균형발전 구현 : 남부, 북부의 성장기회 마련
- 청주공항활성화와 MRO산업 : 국제노선 6개로 확대(기존 4개),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로 개설, 화물청사 증축, 수도권 전철 공항 연장 등 인프라 확충 및 함께 항공정비(MRO)산업을 집중 육성

1) 충청북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2011. 2.

□ 히든챔피언 30개 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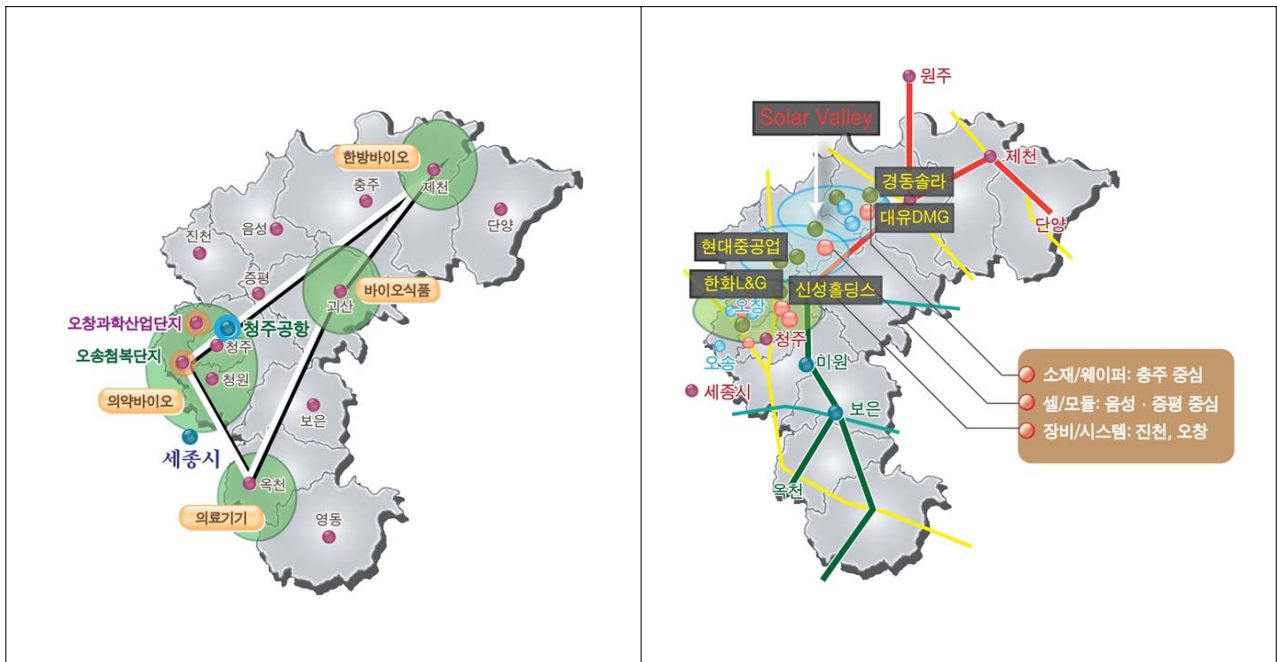
- 충북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시킴
 -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 잘알려져 있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세계 4위 이내 혹은 대륙별 1위를 차지하는 제품을 말함. 우리나라의 홍진크라운 헬멧 등이 포함됨. 독일의 헤르만 지몬박사가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기업을 지칭한데서 유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착안하여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입은행이 주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 30개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 분야
 -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에 부합하는 업종·태양광, 바이오(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 5 + 2 광역경제권 부합업종 : 뉴 IT, 의약 바이오
 - 충북의 4대 전략산업 : 바이오, 이차전지, 차세대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 기타 충북의 특화 업종 : 항공정비 MRO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군별 특화 전통산업 육성

- 중부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시군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 인프라 및 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
 - 지역 특화 인프라 : 청주·청원(IT, BT), 충주(사과), 제천(한방), 단양(석회석), 음성·괴산(고추), 진천(쌀), 증평(태양광), 보은(황토 대추), 옥천(의료기기), 영동(와인) 등
 - 지역 보유자원 및 어매니티 : 2댐(충주댐-충주·제천, 대청댐-청주·청원·옥천), 3국립공원(소백산국립공원-단양, 월악산국립공원-충주·제천, 속리산국립공원-보은) 등

□ 4대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와 태양광 산업 중심의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

-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 수도권과 상생하는 중부권 최대 생활경제권의 핵심(메가로 폴리스)
 - 바이오산업 발전축 : 제천한방바이오(한방바이오 R&D 기반 구축, 한방바이오 고기능 제품개발 지원) ⇔ 옥천의료기기(의료기기업체 클러스터 구축, 오송바이오밸리와 네트워크) ⇔ 오송의약바이오(세계적 연구타운 조성, 바이오 문화·관광·교육도시 조성) ⇔ 괴산 바이오식품(유기식품 및 발효식품단지 조성)
 - 솔라밸리 발전축 :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충주(소재/웨이퍼) ⇔ 음성·증평(셀/모듈) ⇔ 진천·오창(장비/시스템)



<그림 3-11> 오송바이오밸리와 아시아슬라밸리 개념도

□ 지역의 어메니티와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현 및 기발굴 광역 연계사업의 지속적 추진

- 시군별로 특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2·3차 산업과 융합된 특화 성장모형 구현
 - 예 : 영동의 포도, 단양 석회석단지, 과산 발효산업단지 등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기초자치단체간 혹은 도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추진함
 - 예 : 김치 체험학교의 경우 군의 특화 특작물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의 계승을 구현시키려는 사업으로 단양(마늘), 괴산(절임배추), 음성(고추)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학생들에게 김치학교 운영을 통한 수익모델 확보와 전통성 계승을 병행하고 있음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 모형(New Business Model) 확보 및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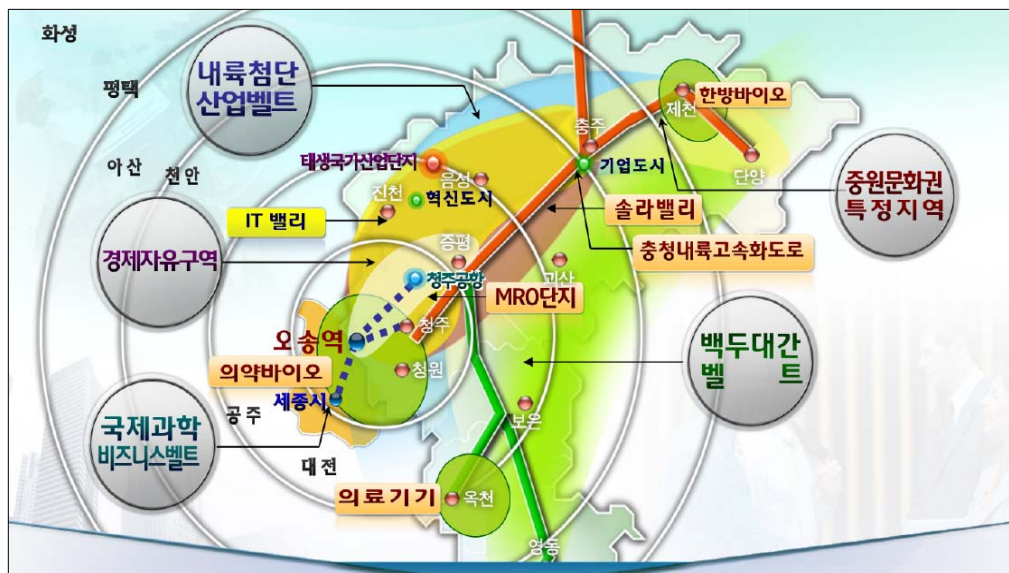
- 충북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특정 대기업 중심의 하청 구조에서 탈피하여 세부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함
 - 특히, 시군별 농공단지의 개선사업과 함께 개별 입지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산업단지로 집적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추진함

5. 세부 추진과제

1) 3 + 1 프로젝트

□ 오송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첨단 IT밸리(3) 육성 및 항공MRO(1)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산업 선점

- 기 추진하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Hub & Spoke 모형을 추진함
-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국제공항(항공정비복합지구)을 중심으로 오송바이오밸리, 솔라밸리(증평그린IT전문단지), IT밸리(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BIT융복합지구)와 충주의 친환경 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2> 충북의 산업 발전축 및 공간 구상

-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거점 육성
-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거점을 육성
-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바이오 등을 오송바이오밸리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육성
- 아시아 솔라밸리는 36번 국도변에 태양광 기업 집적화 및 생산증대로 국내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거점지역의 발전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MRO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토록 함
- 충북4대 전략산업 중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여 System 반도체, Green 부품소재, 에너지절감형 반도체 등 인접 미래신산업으로 고도화
- 신성장 거점으로서 오송바이오밸리와 아시아솔라밸리, 첨단 IT 밸리 구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최근 선호되고 있는 고급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권역별로 특화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북부권 한방기업, 중부권(첨복단지 중심 신약 및 의료기기), 남부권 의료기기 업체 유치를 추진함
- 유치 업체 수준은 일정 수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너지 효과 획득을 목표로 추진함
- 오창과학산업단지 중심의 BIT산업 거점 조성
 -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구타운 내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한 u-센터 등의 IT 전략산업 집중 육성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조성,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설연구소 건립 등을 통하여 BIT 및 BINT 관련 R&D 기반을 구축함
 - 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전후방의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함
-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의 동북아 BT산업 메카 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신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오송 바이오 국제회의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 중심 단지로 육성함
 - 생명·의약품류권역(청주, 청원), 한방·바이오농업권역(보은, 옥천, 영동), 화훼기능성식품권역(진천, 음성), 청정·웰빙식품권역(증평, 괴산) 등 바이오 5개 개발권역을 설정하여 경쟁력 우위 분야를 집중 육성함
-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거점지역간 연계강화(hub & spoke)
 - 오창, 오송, 진천 등 전략산업육성의 권역별 허브(hub)와 산업적 전후방 연계를 갖는 스포크(spoke)간의 역할 재정립
 - 충북 전략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점 클러스터 및 이와 전후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 클러스터의 실질적 연계성 형성
 - 혁신거점내/외 산학연 주체 역량강화 및 보유역량의 전략적 통합·활용체제 확립
 - 전략산업육성 주체간 역량연계를 위한 공동기획 및 기능별 통합조정체계 정비
 - 지역내 입주예정인 공공기관 연계활용으로 중앙부처와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 6대 국책기관, 15개 연구기관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BT전문대학원, 생명의과학연구소, BT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 오창과학산업단지 : 4대 국책기관, 2개 지원기관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분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총괄본부(2부 9센터 : 바이오의약품 연구소-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면역제어, 분자암, 화학생물연구센터, 인프라사업부-국가영장류, 바이오평가, 의생명마우스, 바이오산업화공정개발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3연구부 : 자기공명, 질량분석, 환경과학연구부), 한국석유품질검사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2단 3센터 :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반도체센터, 전자정보센터, 전통의약품산업센터, 보건의료산업센터, 임베디드센터, 인력양성실, 행정지원실, 지역산업평가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중부혁신도시 : 첨단 R&D 이노밸리내 9개 기관
- ▷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 전통산업 고도화

□ 지역별 특화된 전통산업 기반 고도화 산업 기반 구현

-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업체와 식품업체 등의 설비 현대화를 통하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2개 이상씩 특화업체를 발굴·육성함
- 지역 전통산업에 기반한 청주, 청원 지역을 제외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 업체를 기초자치단체당 1개 이상 유치 또는 신설을 추진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이나 신규장비 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미흡
- QWL 개념을 접목시킨 산업단지 개선
- * QWL(Quality of Working Life) : 기존의 노후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 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임.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중임
- 지역전통산업은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별 특화분야 내지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되, 구체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과 기초자치단체의 해당 실과가 함께 각 사안별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

□ 지역 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2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으로 지칭되는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를 토대로 기초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지역어매니티를 활용한 산업 즉, 전통적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업)과 3차 산업(관광)을 융합화하는 모형임

- 지역별 어매니티 지원의 발굴 및 육성은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국·도립공원 및 문화유산과 함께 지역에 기 조성된 산업단지를 융합하는 모형을 적극 검토
- 주요 지구별 특화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6〉 충북의 8개 클러스터 중심의 권역별 특성화 계획

구분	거점	영향권역	주요기술분야	핵심주체
바이오	청원	청주, 진천, 음성, 제천, 괴산	바이오신약, 바이오기반 의료기기	식약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반도체	청주/ 청원/ 진천	청원, 진천, 음성	반도체, 자동차용 2차 전지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충북테크노파크, 지식산업진흥원 등
에듀테인먼트	음성	청원	에듀테인먼트, 게임	첨단문화산업단지, 디자인 센터 등
석회석 신소재	단양	제천	광촉매콘크리트, 지능형 시멘트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전통의약	제천	청원, 진천, 음성	한방신약, 생태치료(에코테라피)	전통의약산업센터, 세명대학교
문화관광	보은/ 충주/ 증평	단양, 옥천, 영동	수상레포츠(무술축제, 조정대회 등)	도내 전지역
환경	충주	음성, 진천, 청원, 괴산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보양관광	충주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원대학교
의료기기	영동/ 옥천	옥천, 보은, 청원	의료기기	영동대학교, 충북테크노파크

3)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함

- 오송에 기 조성되고 있는 특화 의료인프라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임상실험시험센터 등)와 6대 국책기관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및 MICE산업 육성을 추진함
- 의료산업 중심의 MICE 산업 육성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서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하면서 21세기에 들어서며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음. 미국의 라스베이거스가 그 대표적 사례로서 기존 관광인프라를 토대로 전시회와 컨벤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형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서울의 COEX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음
 - 현재 오송은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2013 화장품&뷰티박람회” 등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 인허가기관과 R&D가 집적되어 있고, 향후 세종시와 중부혁신도시 등의 단계적 활성화에 따라 향후 전시산업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한편, 접근성 측면에서도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할 경우 전국 2시간 이내 접근성과 동북아 4시간대의 접근성이 확보된 지역임
- 의료관광
 - 국내의 의료관광은 수도권(각종 암, 심장병 등)과 부산권(성형)을 중심으로 특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들 산업 육성에 다양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음
 - 충북은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기반 의료기기로 특화되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 치료제 관련 의료관광지구로의 육성을 추진함
 - 향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Test Bed로의 구현을 추진함

□ 시군별 특성화 방향

- 충청북도내 시군별 산업 특성화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시군별 특성화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청주시	· 첨단문화산업 관련 기업유치, 환경친화형 기업유치를 통한 생태산업단지 조성, 아파트형 공장 설립, 반도체 중심 IT업체 유치
충주시	· 충주기업도시 육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중부내륙권 성장거점공간으로 육성 · 남한강 친수공간을 활용한 ‘물’ 관련 산업 유치 및 육성
제천시	· 한방관련업종 유치, 틈새시장공락이 가능한 유치업종 공략, 생태자원과 한방자원의 접목을 통한 신개념 단지 조성, 건강·테마·관광 등의 종합단지로 구상
청원군	·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BT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 ·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BIT 융복합 및 자동차용 이차전지 산업 육성
보은군	· 바이오농업종합지원센터, 시험재배단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생산·연구·유통·주거단지 조성
옥천군	· 의료기기분야로 특성화된 전문농공단지 조성 · 묘목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영동군	· 생물건강산업 및 기능성 식품 클러스터 구축 · 남부권 핵심 전략사업으로 벤처농업의 거점 확보
증평군	· 태양광종합기술센터 유치를 통한 ‘아시아 솔라밸리’ 거점지구 육성 · 태양광 관련 부품 및 모듈산업 유치 및 관련 벤처기업 육성
진천군	· 전략산업 관련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 중심 기업 유치 · 정주형태가 복합된 첨단산업 도시체계로 구성된 신개념 도시 건설
괴산군	· BT 산업(발효산업 등) 중심의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 중원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ET 산업 육성 추진
음성군	· 첨단산업 유치 및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 · 공해유발업종 제한, 청정기술형 첨단산업 유치
단양군	·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 석회석 신소재 관련 산업 유치 및 신소재 개발

제2절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내 총생산과 농업생산구조

- '09년 현재 충북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1조 6,826억원 규모로 전국의 3.0%를 차지,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4.0% 성장
- 농림어업의 비중은 '08년 5.5%에서 '09년 6.0%로 확대되었으며, 농림어업은 10.3% 성장하였음
- '09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는 당해년 가격으로 28조 7,747억원이며 이중 농림어업은 1조 5,328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음
- '09년 충북 산업별 구성비(당해년 가격)중 농림어업 구성비는 5.3%이며 '08년 4.8%와 비교하면 0.5%가 증가한 것임

2) 농가인구와 경지 면적

- 농가인구는 '09년 223,580명(남자 110,434명이고 여자 113,146명)으로 '98년 299,791명(남자 148,685명, 여자 151,106명)에 비해 25.4%인 76,211명이 감소하였음
- '09년 충청북도내 성별 농가인구는 남자 110,434명(49.4%), 여자 113,146명(50.6%)로 구성되어 있으며 '98년에 비해 남자는 25.7%, 여자는 25.1% 감소하였음

<표 3-8> 충북의 농가인구 추이

(단위 : 가구, 명)

구분	농가			농가인구		
	계	전업	겸업	합계		
				남	여	계
1998	95,070	60,816	34,254	148,685	151,106	299,791
2000	92,132	60,416	31,716	137,815	139,719	277,534
2002	85,228	56,242	28,986	123,093	124,513	247,606
2004	83,890	52,481	31,409	117,431	118,080	235,511
2005	85,723	55,479	30,244	118,516	120,094	238,610
2006	86,984	54,140	32,844	117,481	119,851	237,333
2008	85,388	49,487	35,901	112,508	116,024	228,531
2009	84,257	48,496	35,761	110,434	113,146	223,58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내부자료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충북의 총 경지면적은 2001년 133,515ha로 논이 64,484ha, 밭이 69,031ha였으나, 2009년의 총 경지면적은 118,919ha로 14,596ha가 감소하였음
- 경지 규모별 농가수는 '01년 90,499호이며, '09년은 84,257호로 6,242호가 감소하였음
- 작물별 경지이용면적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잡곡과 두류, 특용작물, 과실이 높은 편이며, 미곡, 맥류, 서류, 채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 '09년 경지이용면적은 125,149ha이며, 경지이용률은 102.7%로 '08년 경지이용면적 124,748ha, 경지이용률 100.6%보다 다소 증가하였음

<표 3-9> 충북의 총 경지 면적과 가구당 경지면적

(단위 : ha)

구분	합계	논	밭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밭
2001	133,515	64,484	69,031	1.47	0.71	0.76
2002	132,187	64,084	68,103	1.55	0.75	0.80
2003	130,680	63,264	67,416	1.55	0.75	0.80
2004	129,184	62,128	67,056	1.54	0.74	0.80
2005	128,162	60,916	67,246	1.53	0.73	0.80
2006	125,844	58,498	67,346	1.45	0.67	0.77
2007	124,063	57,098	66,965	1.45	0.67	0.78
2008	121,865	54,871	66,994	1.43	0.64	0.78
2009	118,919	52,994	65,925	1.41	0.63	0.7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표 3-10> 충북 시군별 경지면적(2009)

(단위 : ha)

순위	시군	논	밭	합계
1	청원군	11,202	6,791	17,993
2	충주시	6,340	8,933	15,273
3	음성군	6,601	7,277	13,878
4	괴산군	4,762	7,869	12,631
5	제천시	2,921	7,843	10,764
6	보은군	5,537	4,281	9,818
7	영동군	2,434	7,235	9,669
8	진천군	5,705	3,058	8,763
9	옥천군	2,904	5,211	8,115
10	단양군	570	5,287	5,857
11	청주시	2,738	1,267	4,005
12	증평군	1,280	873	2,153
	충북	52,994	65,925	118,919
	전국	1,010,287	726,511	1,736,79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3) 재배면적과 생산량 비중

☐ 식량작물

- 식량작물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수수, 옥수수, 대두, 팥 등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수수, 옥수수, 메밀, 대두, 팥, 고구마, 감자 등임

☐ 채소류

- 과채류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수박, 오이, 호박 등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수박, 오이, 호박 등임
- 엽채류 중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작물은 배추이며, 특화계수가 1 이상인 작물은 배추임
- 근채류와 조미채소류는 전국과 비교하여 재배면적과 특화계수가 모두 낮으나, 고추는 재배면적 비중이 높고 특화계수도 1 이상임

☐ 특용작물

- 전국 대비 들깨의 재배 비중이 높고 특화계수도 1보다 높음

☐ 과일류

- 전국 대비 사과, 복숭아 포도의 재배면적이 높고 특화계수도 1보다 높음

☐ 축산

- 전국 대비 사육 비중이 대부분 낮으나, 한·육우와 닭은 특화계수가 1보다 높음

☐ 임산물

- 임산물의 생산량은 종실과 약용, 그리고 산나물의 수량은 증가한 반면, 버섯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충청북도 전체 임산물 총 생산액을 비교하여 볼 때, 2009년 충청북도의 임산물 총 생산액은 300,371,956천원으로 2000년에 비하여 119,871,452천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3-11> 충북 특화계수(2009년)

품목	특화계수	품목	특화계수
미곡(백미)	0.883	생강	0.066
겉보리	0.484	마늘	0.428
조	0.598	참깨	0.738
수수	7.001	들깨	1.412
옥수수	3.507	땅콩	0.617
메밀	1.009	유채	0.000
콩	2.171	사과	1.164
팥	1.850	배	0.386
녹두	0.852	복숭아	2.286
고구마	1.091	포도	1.295
감자	1.042	감	0.457
수박	1.812	한육우	1.221
참외	0.025	젓소	1.138
딸기	0.227	돼지	0.996
오이	1.213	닭	1.406
호박	1.146	마필	0.607
토마토	0.479	산양	1.683
배추	1.252	면양	0.770
시금치	0.249	사슴	2.437
상추	0.268	토끼	3.528
양배추	0.470	개	0.846
무	0.922	오리	1.852
당근	0.282	칠면조	2.628
고추	1.821	거위	2.286
파	0.682	꿀벌	1.355
양파	0.05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4) 농가경제 현황

□ 농가소득과 가계지출은 전국보다 높음

- '09년 기준 농가소득은 31,876천원으로 전국 30,814천원보다 높으며 가계지출은 28,108천원으로 전국 26,574천원보다 높음

□ 자산과 부채는 전국보다 낮음

- 자산은 285,208천원으로 전국 358,029천원보다 낮고 부채는 20,553천원으로 전국 26,268천원보다 낮음

<표 3-12> 농가경제 현황

(단위 : 원)

구 분	평 균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농가소득	30,814	34,262	34,126	31,876	32,864	30,641	25,216	31,296	28,173	35,037
○경상소득	27,306	31,397	30,880	29,234	28,725	26,424	21,529	27,990	25,023	31,524
－ 농가순소득	21,826	25,379	24,512	23,407	24,145	21,054	15,906	22,701	18,962	25,604
·농업소득	9,698	7,107	11,342	10,237	10,038	11,122	8,304	12,498	9,204	10,427
총수입	26,621	24,785	27,834	23,309	31,583	26,044	23,404	28,690	28,478	29,606
경영비	16,924	17,679	16,492	13,072	21,545	14,922	15,099	16,192	19,274	19,179
·농업외소득	12,128	18,272	13,171	13,170	14,107	9,933	7,601	10,203	9,758	15,178
겸업소득	3,296	3,745	3,258	3,271	4,102	2,919	2,510	3,890	2,641	2,096
사업외소득	8,832	14,527	9,913	9,900	10,005	7,014	5,091	6,313	7,117	13,081
·이전소득	5,481	6,018	6,368	5,826	4,581	5,369	5,623	5,289	6,061	5,920
○비경상소득	3,507	2,865	3,246	2,642	4,139	4,217	3,687	3,305	3,150	3,512
가계지출	26,574	35,919	26,159	28,108	27,401	24,009	22,794	22,513	25,362	30,798
○소비지출	20,017	27,657	20,634	19,365	19,617	19,246	17,257	17,068	19,096	22,458
○비소비지출	6,557	8,261	5,526	8,744	7,783	4,763	5,537	5,445	6,266	8,340
처분가능소득	24,257	26,001	28,601	23,133	25,081	25,878	19,679	25,851	21,907	26,696
농가경제 잉여금	4,240	-1,657	7,967	3,768	5,463	6,632	2,422	8,783	2,810	4,239
농 가 자 산	358,029	701,109	341,817	285,208	380,488	278,085	217,668	278,923	286,915	421,702
농 가 부 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부 채 비 율 (농가부채/농가자산)	7.3	5.9	7.7	7.2	7.1	7.0	9.2	7.3	11.3	9.5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 2009.

2. 여건 변화와 전망

1) 여건 변화

□ 농업·농촌의 메가트렌드와 영향

- 인구 구조의 변화와 고령사회로의 이행
 - 2000년 고령인구는 7.2%로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으며 200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7%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농업분야는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현재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에 18.6%로써 고령사회에 해당함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나, 고령친화적인 실버농업의 등장과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을 형성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 심화

-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세계경제의 공조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FTA 추진이 확대되고 DDA협상의 진전으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세계화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성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시장대응력의 격차로 국가, 지역, 기업, 소득 등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나,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품목, 경영체, 조지계)으로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여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환경의 중요성

- 지구온난화로 1970~2000년 대비 평균기온은 2030년에 1.0~1.5℃, 2050년에 2.0~2.5℃ 상승할 전망이다
 - 강수량은 2030년에 4~5%, 2050년에 8~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의 경우, 석유는 향후 40년, 천연가스는 58년, 석탄은 130~200년 정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신재생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수력, 원자력 등이 부상할 것임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하여 식생이 변하면서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가 재편될 것임
-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해지고, 기존 과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며, 곡물의 생산감소와 채소류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새로운 성장작목으로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이나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이용이 확산될 것임
- 지구 환경의 악화에 따른 대응으로 미래 농업은 자연순환 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관리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임

□ 기술발전에 의한 융복합기술의 농업 활용

- DNA발견, 전자공학, 정보과학의 발전 등이 21세기형 농업기술혁신을 가져왔으며, 생명공학기술은 향후 50년간 농업 발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과학기술과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고령농업인들은 농촌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게 될 것임
-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 발전하고 우주농업(space agriculture)이 가능해 질것임
- 농업상품화 기술과 유통체계의 혁신, U헬스 시스템 등으로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도 향상될 것임

□ 새로운 가치 지향으로 농업과 농촌의 기능 강화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물질적 풍요가 적정선을 넘게 되면서 양적 풍요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촌 어메니티가 더욱 부가되면서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휴양공간이나 전원생활 수요 증가 등은 미래 농업·농촌의 변모를 가져올 것임

<표 3-13> 농업·농촌 메가트렌트와 파급영향

메가트렌드	전망과 특징	농업·농촌의 파급 영향
고령화사회 (장수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인구증가율 둔화, 평균수명 연장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건강, 장수에 대한 니즈 · 노인복지 수요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력의 증가세 둔화 · 농촌사회의 활력저하 및 지역경제 위축 · 고령친화 실버농업의 부상 · 청장년 전업농이 주력 형성
글로벌경제 (무한경쟁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진전, DDA협상 진행 · 미국중심의 세계화 탈피, 전지구적 시장경제 출현 · 2030년경부터 경제국경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질서의 국제규범 재편 ·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농업으로 구조조정 · 농업·농촌의 양극화 확대 · 농산물 수입증가, 수출시장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중시 (녹색산업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로 2050년 기온 2℃ 상승, 강수량 8% 가량 증가 ·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한 식생변화, 열대과일 재배 · 농산물 생산 감소와 품질 저하 · 대체에너지용 유지작물 등 확산 · 지속가능한 환경농업 발전
과학기술발전 (융복합기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BEC기술의 보편화 융합화 · 유비쿼터스시대 도래 · 로봇 상용화로 2025년 노동시장 50% 대체 · 우주시대 본격화, 원격탐사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수용의 격차 확대 · 기계화·자동화의 정밀농업 발전, 우주농업, 원격탐사기술 등 · 농산물 상품화, 유통체계 발전 · U헬스시스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새로운 가치 지향 (문화창조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에서 탈피, 삶의 질 중시 · 개성, 집단지성 · 지식창조사회 · 여가 및 문화 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성, 맛과 영양 중시 ·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농촌관광산업화 · 귀농·귀촌 인구 증가 · 휴양공간, 전원생활 수요 증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정책연구보고 P133』, 2010.

2) 전망

□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추이

-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 농가인구는 173만명 정도가 될 것이며, 고령화의 가속화로 농가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0년에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됨
- 2030년경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적 전업농가는 20만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경지면적 감소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172만 ha에서 2030년 149만 ha로 감소하고 벼 재배면적도 91만ha에서 80만ha로 감소가 예상됨

□ 농업부가가치와 농가소득

- 2010년 21조원(불변가격) 수준에서 2030년에는 시장개방 가속화의 영향으로 19조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함
- 전통적인 경종작물이 쇠퇴하고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지역별로 다양한 소득작목이 개발되어 농업생산의 감소 추세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
- 농가소득의 경우, 농업소득은 정체되나 농외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호당 농가소득은 2010년 3,300만원(불변가격) 수준에서 2030년에는 5,70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소비량의 추이와 전망

- 쌀 소비량은 2010년 1인당 72.8kg이며, 2030년에는 47kg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과일소비는 1970년 대비 사과 2배, 배는 7배나 증가하였으나, 사과 소비량은 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배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채소류도 소비가 크게 늘었으나 앞으로는 약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30년경에는 현재 소비량의 9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육류소비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3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쇠고기가 13kg, 돼지고기가 25kg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농촌공간과 지역사회

-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30년 농촌인구는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농가비중이 줄어들면서 농촌지역의 혼주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농촌인구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6%에서 2030년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촌은 생산공간에서 국민의 산업·생활공간으로 변모하는 추세로 도시민의 귀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농촌인구의 총 인구 비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 농업농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대체 유기영농의 일반화, 영농의 자동화, 인공식품의 보편화 등에 의한 새로운 농업기

술의 패러다임이 창출됨

- 농촌은 전통적·획일적 특성에서 다문화 수용지역으로 변화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동이 일어나게 됨
 - 농업 생산과 관련 분야, 농촌관광 분야 등에서의 활동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농촌에서 거주하게 될 것임
- 농산물 생산시장, 농산물 유통시장과 농산물 판매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체제가 형성될 것임
 - 농산물 생산시장에서는 전통적 농산물 재배방법, 소규모 관광농업 재배방법, 대규모 유기영농 재배방법, 인공식품 제조공장으로 나누어져 하나의 경쟁체제가 형성됨
 -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들이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국내 생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자연재배 농산물과 인공농작물 간의 경쟁에 의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농업·농촌의 역할과 변화

- 농업은 산업규모면에서나 경제활동인구면에서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국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정화의 기능을 하며,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농업의 외부경제효과가 매우 큼
-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은 농업과 농촌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안정된 식량공급 기능
 - 화석원료의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공급원
 - 국토환경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적 이용과 지역경제 및 전통문화의 유지,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억제
- 환경 친화 및 자원절약형 농업이 확대되면서 녹색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친환경적인 생산방식이 강조되고 특히, 지역의 자원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순환형 농업으로 전환될 것임
-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농기업이 출현하여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가 각광을 받을 것임
 - 농업생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 문화, 농촌 생활 등 다양한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여 서비스부문까지 영역이 확대될 것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이미지 ■ 풍부한 수자원 ■ 수도권 인접성 ■ 국토의 중심입지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제약 ■ 시설설치 제한 ■ 기계화 제약 ■ 전문인력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농산물 생산 ■ 풍부한 관광자원 ■ 수도권 인접성 ■ 관광수요 증가 ■ 다면적 기능 ■ 수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및 노령화 ■ 도농격차 및 부채증가 ■ 복지시설 낙후 ■ 시장개방 ■ 농지잠식

3. 계획의 기본 방향

□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 DDA 협상과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시장의 개방과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농축산물이 국내 농축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농축산물시장을 지키고 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품질 경쟁력,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 등이 필수적임
- 농축산물이 식품산업과 의약산업, 에너지 산업 등과 융복합화하면서 농축산물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식품과 서비스업을 접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함

□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 도시보다 농촌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고 현재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와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를 저지할 수 있는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 도시 출신 귀농자 및 청년 취농자들을 농업 인력으로 전환하고 농촌에 거주시킬 수 있는 유인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농업·농촌의 지도자 또는 주력 인력으로 양성해야 함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을 이끄는 농축산업 육성

-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의 농산물 주산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저에너지 투입 기반의 농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이용되는 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게 대비하여야 함
- 지구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 지역자원 관리와 생물의 다양성 유지 등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환경을 갖추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환경보전농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함

☐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 완성

- 사회 양극화 심화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반감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농업이 지니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어메니티를 더욱 가치 있게 보전하고 이를 활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농촌어메니티의 발굴과 가치화, 농촌관광산업화, 휴양 공간 기능, 전원생활 수요에 맞춘 국민 산업·생활공간 등으로 농촌을 새롭게 재구성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여유와 풍요를 갖춘 농촌복지 실현

-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토지 비축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노령인구 부양 등의 사회적 복지 기능으로 농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 다문화 확대와 양극화사회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와 전통문화의 유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도시와 동등하게 갖추어야 함

4. 세부 추진과제

☐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농업경영주체 육성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와 법인이 한국 농업을 선도
 - 농업생산의 목적이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닌 상업적 판매를 통한 이윤창출에 있는 농

업경영체가 생산·경영의 중심적인 주체가 됨

- 농업소득, 경영규모, 영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업농의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주업농을 한국농업의 성장을 견인한 경쟁력 강화정책의 주대상으로 삼음
- 전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성과가 미약한 농업법인을 규모화·전문화하여 농업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개성 있는 농업인력 육성
 - 농업생산, 농촌관광, 애그리비즈니스 등 다양한 농업 인력 양성
 - 지역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를 조직화
 - 산·학·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

□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기반 구축

- 자원순환형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저투입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역량을 강화
 - 재배적지 조성,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 재해대응 강화 등으로 생산방식을 개편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어업을 확대해 나감
-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확대와 관련 실용화 기술로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기술, 토양내 유기탄소 저장기술,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기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바이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의 에너지 절감 녹색기술의 실용화
 - 바이오매스 자원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매스 자원 품종개발 및 생산 확대, 지역별 에너지·자원화 시설 조성과 활용

□ 신성장 녹색친환경 농업 육성

- 농업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에너지 고투입 농법을 저탄소 농법으로 전환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시스템 구축
- 에너지 사용 저감, 대체농자재 사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과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고 천적농법이나 경종축산복합농업 등의 정착
 - 수직형 식물공장, 기후변화 대응 및 정밀농업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 바이오농업 지향 미래농업 기술 개발
 - 품질이 높고 수확량이 많으며 불량 환경 저항성을 지닌 품종, 수입사료를 대체하기 위한 초다수성 곡물 등의 육성·보급 등과 개인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농작물 생산
- 녹색성장 선도 원예기술 개발
 - 에너지 저감형 고효율 원예작물 생산기술, 식물 병해충 발생 예측, 억제 및 방제기술, 기능성 및 환경내성 형질전환 품종 육성 등

□ 첨단기술과 시설을 갖춘 맞춤형 농산업 육성

-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감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을 식품소재 생산업(농림수산업), 가공업, 유통업(도·소매업), 외식산업을 거쳐서 소비자의 식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함
- 환경을 생산하는 농업 생산방식의 도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물질순환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여 농업과 환경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

□ 세계 최고의 안전과 품질을 갖춘 농식품 육성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킴
 - 식품소비가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면서 식품의 건강기능성, 편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농식품을 생산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함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요건의 완비로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사슬 전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제도와 생산이력추적제를 강화함

□ 생활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춘 녹색농촌 조성

- 자연과 농촌주민, 도시민이 어우러진 공생의 풍요로운 농촌건설

- 어메니티 자원과 농촌다움, 다양한 역사유적지 및 자연관광, 문화예술축제를 연계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한데 어울리는 장을 마련함
- 도농교류가 활성화되어 농촌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면서 전통을 배우고 유지하는 학습의 장이 되면서 농촌이 정신적 고향으로 자리잡게 됨
- 농어촌지역의 소득,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하는 환경 마련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일터, 삶터, 쉼터인 농어촌지역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
- 탄소 흡수원 확충의 일환으로 탄소 순환림을 조성하고 목재펠릿 활용촉진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이산화탄소 감축
- 지속적인 산림휴양 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산림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급

제3절 글로벌시대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1) 국제교류분야

□ 국제교류분야 현황

- 충북은 1986년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현재 12개국 21개 지역과 국제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자매결연지역 7, 우호교류 9, 기타 5)
- 국가별로는 중국이 7개 지역, 미국이 3개 지역, 베트남 2개 지역이고, 그 외 국가는 각 1개 지역임

<표 3-14> 충청북도 국제교류 현황(2010년 12월 기준)

단체명	국 제 교 류 기 관			비고
	국가명	자치단체명	교류일자	
충청북도	미국	아이다호주 (Idaho)	1986. 07. 01	자매결연
		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	2004. 05. 03	바이오산업교류
		매릴랜드주(Mariland)	2007. 05. 14	과학기술교류
	일본	야마나시현 (山梨縣)	1992. 03. 27	자매결연
	중국	흑룡강성 (黑龍江省)	1996. 09. 18	자매결연
		내몽고 자치구(內蒙古 自治區)	1999. 01. 27	경제문화교류
		요령성 대련시(遼寧省 大連市)	1999. 01. 29	투자 경제통상교류
		광서장족 자치구(廣西壯族 自治區)	2001. 06. 07	우호협력교류
		산둥성((山東省)	2002. 01. 30	우호교류협력
		호북성(湖北省)	2006. 09. 15	우호협력교류
		길림성(吉林省)	2008. 04. 11	우호교류
	멕시코	콜리마주 (Colima)	1999. 11. 15	자매결연
	아르헨티나	추붓주 (Chubut)	2000. 09. 18	자매결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Central Java)	2005. 09. 30	자매결연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Steiermark Province)	2000. 05. 05	교류각서(MOU)
	헝가리	바란야주(Baranya County)	2000. 05. 09	자매결연
	이태리	피아몬트주(Piemonte Region)	2000. 11. 15	경제문화교류
	베트남	푸옌성(PhuYen Province)	2007. 09. 06	우호교류
		빈푹성(Vinh Phuc Province)	2008. 10. 21	우호교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2008. 05. 13	우호교류
	필리핀	벵겟주(Benguet State)	2009. 05. 31	우호교류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도내 시군의 교류지역은 미국 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13개 지역, 대만 및 몽고 각 1개 지역으로 미국을 제외한 22개 지역이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음(자매결연지역 12, 우호 교류 12, 직원파견 1)

<표 3-15> 각 시·군별 국제 교류 현황

단체명	국 제 교 류 기 관			비고
	국가명	자치단체명	교류일자	
청 주 시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시(鳥取縣 鳥取市)	1990. 08. 30	자매결연
		야마나시현 고후시(山梨縣 甲府市)	2002. 09. 26	우호교류
	중국	호북성 무한시(湖北省 武漢市)	2000. 10. 29	자매결연
		절강성 호주시(浙江省 湖州市)	2006. 05. 15	우호교류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시(Washington Bellingham)	2005. 10. 01	우호교류
충 주 시	대만	타이중시(臺中市)	1969. 11. 27	자매결연
	일본	가나자와현 유가와라마치(神奈川縣 湯河原町)	1994. 11. 28	자매결연
		도쿄도 무사시노시(東京都 武蔵野市)	1997. 07. 15	직원파견협정
	중국	흑룡강성 대경시(黑龍江省 大慶市)	2001. 10. 10	교류협력
제 천 시	미국	워싱턴주 스포칸시(Washington Spokane)	1999. 05. 11	자매결연
	중국	강서성 장수시(江西省 樟樹市)	2006. 10. 17	자매결연
		사천성 성도시(四川省 成都市)	2007. 05. 24	우호교류
청 원 군	중국	하북성 창주시(河北省 滄州市)	2004. 11. 03	우호교류
	일본	구마모토현 키쿠치시(熊本 菊池市)	2007. 03. 07	우호협력
보 은 군	일본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초(宮崎縣 高岡町)	1993. 08. 06	자매결연
	중국	안휘성 소호시(安徽省 巢湖市)	2008. 06. 01	우호협력
옥 천 군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靑森縣 五戸町)	1997. 08. 28	자매결연
	몽고	울란바타르시 수크바타르그(UlanBator Sukhubaatar)	2008. 06. 05	교류협력
영 동 군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방성항시(廣西壯族自治區 防城港市)	2007. 09. 12	자매결연
증 평 군	중국	강소성 관남현(江蘇省 灌南縣)	2005. 10. 05	우호교류
진 천 군	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레오시(California Vallejo)	2002. 04. 09	자매결연
괴 산 군	중국	길림성 집안시(吉林省 集安市)	2006. 10. 20	자매결연
음 성 군	중국	강소성 태주시(江蘇省 泰州市)	2000. 09. 27	자매결연
단 양 군	중국	강소성 단양시(江蘇省 丹陽市)	2005. 06. 28	우호교류
		길림성 안도현(吉林省 安圖縣)	2005. 10. 24	교류협약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국제교류 특징

- 충북의 국제교류 특징은 지리적 요건, 이질적 문화, 교류아이템 부족, 민간교류 부진,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의 사유로 국제교류가 대체로 활성화 되지 못한 실정임
- 국제교류지역을 교류정도에 따라 세분하면 활성화지역 3개 지역, 간헐적 교류 6개 지역, 교류부진 12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류 활성화 지역(3개)의 특징은 지리적 근거리, 동일 동양 문화권, 자매결연 체결 15년 경과 등으로 상호 성숙된 관계가 정립되어 있음

<표 3-16> 교류 활성화 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구 분	지 역	주요 교류사업	비고
교류 활성화 지 역 (3개소)	중국 흑룡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파견 각1명 ■ 하얼빈 경제박람회 참가 ■ 스포츠·청소년교류, 정부·의회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15회 교류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 ■ 정부·의회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5회 교류 	
	일본 야마나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및 유학생 상호파견 각 1명 ■ 정부대표단 교환방문 등 연 4회 교류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간헐적 교류지역(6개)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는 IT·BT 등 선진산업과 농업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여 상호 국제교류 명맥만 유지함
- 부진 교류지역(12개)의 특징은 지리적요건, 이질적 서양문화, 교류아이템 부족, 대부분 도지사 해외출장을 위한 일회성 교류협정 체결, 민간부문의 교류사업 부재, 경제적 실리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냄

<표 3-17> 부진 교류지역의 주요 교류사업

구 분	지 역	주요 교류사업	비고
간헐적 교류 지 역 (6개소)	멕시코 콜리마주	■ 콜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연1회)	
	베트남 빈푹성	■ 농촌마을 자매결연, 농업기계화 지원 등	
	중국 길림성	■ 길림·동북아 투자박람회 참가	
	필리핀 뱅갯주	■ 소방장비기증('10. 3월, 19종 1,084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 BT요원 1명 파견근무, 인큐베이터 사업	
	러시아 상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트시 대표단 방문('09. 12월) ■ Early Music 페스티벌 참가(9월) 	
교류부진 지 역 (12개소)	미주지역	■ 아이다호주, 메릴랜드주	
	중국지역	■ 호북성, 대련시, 산둥성, 내몽고자치구	
	유럽권	■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 헝거리 바란야주, 이탈리아 피아몬테주	
	기 타	■ 아르헨티나 추부트주, 베트남 푸옌성, 인도네시아 중부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시·군의 국제교류 특징은 미국(3개 지역) 외 전 지역이 일본, 중국, 대만, 몽고 등 아시아(22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미국 3개 지역, 일본 7개 지역, 중국 13개 지역, 대만 1개 지역, 몽고 1개 지역

□ 국제교류 문제점

-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기능과의 연계성 미흡
- 교류지역 신규 개척 시 도내기업의 수출전략지역으로 선정 필요

- 교류지역과 수출 대상지역의 시장수요 상이
- 국제교류의 산발적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 도 부서별 국제교류관련 협의·조정 기능 미흡
 - 도와 시·군과 국제교류관련 공조체제 전무
- 예산과 인력의 부족
 -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력 10위(정원 17명, 전국평균 22.5명), 예산액 12위(국제통상과 총예산 38억원, 국제교류 8억원, 시도평균 116.8억원)

2) 수출지원분야

□ 수출현황

- 2010년 12월 말 기준, 충북 수출은 10,330백만불, 수입은 6,120백만불, 무역수지는 4,210백만불을 기록
 - 충북 최초 100억불을 달성(12.22) 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가장 많은 흑자를 실현
 - 수출실적 기업은 1,336개사, 총수출국가는 168개국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평균 수출 성장률은 11.3%를 기록함
 - 4년 주기별('01년, '05년, '09년)로 감소세 기록
 - '01년에는 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27.3% 감소, '05년에는 LG전자통신사업부의 평택이전으로 24.9% 감소하였으며, '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12.3%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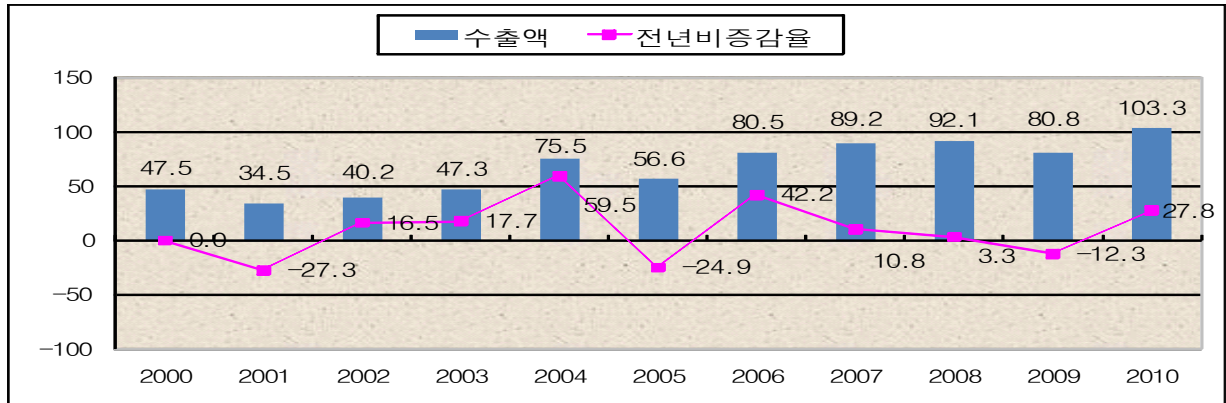
<표 3-18>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충 북				전 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증가율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0	4,748	3,314	1,434	-	172,268	160,481	11,786
2001	3,450	2,677	773	△27.3	150,439	141,098	9,341
2002	4,019	3,253	766	16.5	162,471	152,126	10,344
2003	4,732	3,589	1,143	17.7	193,817	178,827	14,991
2004	7,546	5,252	2,294	59.5	253,845	224,463	29,382
2005	5,664	5,495	169	△24.9	284,419	261,238	23,180
2006	8,054	6,890	1,164	42.2	325,465	309,383	16,082
2007	8,920	7,543	1,376	10.8	371,489	356,846	14,643
2008	9,213	8,299	914	3.3	422,007	435,275	▽13,267
2009	8,080	4,969	3,111	△12.3	363,534	323,085	40,449
2010	10,330	6,120	4,210	27.8	466,384	425,212	41,172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각 년도.

(단위 : 백만불, %)



〈그림 3-13〉 충북의 최근 10년간 수출 동향

○ 충북의 10대 수출국

- 수출금액 기준으로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태국 순임
- 10개국이 총수출의 82.6% 점유,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이 총수출의 50.3%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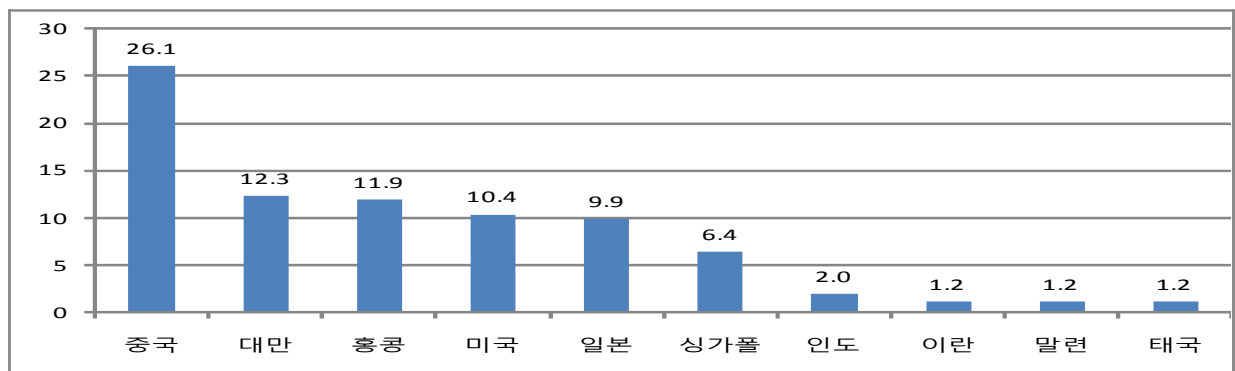
〈표 3-19〉 충북 10대 수출국

(단위 : 백만불, %)

국가(순위)	0	1	2	3	4	5	6	7	8	9	10
금액 및 비중	합계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란	말련	태국
금 액	8,536	2,700	1,268	1,235	1,077	1,020	660	210	123	122	121
비 중	82.6	26.1	12.3	11.9	10.4	9.9	6.4	2.0	1.2	1.2	1.2
전년대비 증가율	-	32.8	46.6	31.2	△2.1	36.0	47.5	24.8	22.3	84.2	39.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단위 : %)



〈그림 3-14〉 충북 10대 수출국 비중

- 10대 수출국의 주요 수출품은 광학기기,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선, 인쇄회로 등이 주종을 이룸

〈표 3-20〉 충북 10대 수출국 주요 수출품

순위	중 국	대 만	홍 콩	미 국	일 본
1	광학기기	반도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2	반도체	광학기기	컴퓨터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3	건전지및축전지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광학기기	건전지및축전지	유선통신기기
4	기구부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	농산가공품
5	플라스틱제품	유리제품	정밀화학제품	반도체	전선
순위	싱가포르	인 도	이 란	말레이시아	태 국
1	반도체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반도체	반도체
2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종이제품	계측제어분석기	정밀화학제품	기구부품 (인쇄회로등)
3	전선	전선	플라스틱제품	정전(정지)기기	정밀화학제품
4	고무제품	알루미늄	철강관및철광석	플라스틱제품	종이제품
5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기구부품	동제품	전선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 충북 10대 수출품목

- 반도체,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전선, 유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순위
- 10대 품목이 총수출의 70.7% 점유
-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와 엘지화학 2개 업체 비중은 37.0%를 점유

〈표 3-21〉 충북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구분	합 계	반도체	광학 기기	플라스 틱제품	건전지 축전지	기구부품 (PCB등)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 기기	전선	유선 통신 기기	합성 수지
금 액	7,287	3,147	1,187	550	532	513	426	358	266	157	151
비 중	70.7	30.5	11.5	5.3	5.2	5.0	4.1	3.5	2.6	1.5	1.5
전년대비 증가율	-	58.2	26.1	22.9	25.0	33.8	68.9	△52.6	16.3	72.3	23.5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2010.

○ 충북 10대 수출기업(2010년 기준)

- 충북 10대 수출기업은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엘지화학, 엘지전자(주), 매그나칩반도체(유), (주)심텍, (주)일진글로벌, 한국다우코닝(주), (주)파워로직스, 엘에스산전(주), 미래나노텍(주) 임
- 10개 기업의 수출금액은 5,553백만불로 총수출 비중의 53.8%를 점유

<표 3-22> 충북 10대 수출기업

(단위 : %)

순위	기업명	주요 수출품목	비중
1	(주)하이닉스반도체	반도체	23.5
2	(주)엘지화학	광학기기	13.5
3	엘지전자(주)	무선통신기기	5.3
4	매그나칩반도체(유)	반도체	2.4
5	(주)심텍	기구부품	2.4
6	(주)일진글로벌	자동차부품	1.8
7	한국다우코닝(주)	기타정밀화학제품	1.6
8	(주)파워로직스	반도체	1.3
9	엘에스산전(주)	정전(static electric)기기	1.2
10	미래나노텍(주)	광학기기	1.2

자료 :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내부자료

□ 충북수출의 특징 및 문제점

○ 특정국 및 수출편중현상 지속

- 중국, 대만 등 10대 국가가 수출의 82.6% 점유하는 등 주요국에 수출편중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반도체 등 10대 품목이 수출의 70.7%를 점유하여 주요품목의 수출비중 과다함

○ 중소기업 수출비중 미미

- (주)하이닉스 등 10대 기업이 수출의 53.8% 점유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비교해 대기업 수출비중이 매우 높음

3) 외자유치분야

□ 외자유치현황

- 충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1974년 7월 24일 최초 투자일부터 2011년 2월 말 현재 172개 기업으로 나타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대별 분포는 '70년대 1개 기업, '80년대 15개 기업, '90년대 30개 기업, '00년대 107개 기업, '10년대 19개 기업으로 '0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음

<표 3-23>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대별 분포

(단위 : 개, %)

구 분	총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업수	172	1	15	30	107	19
비 중	100	0.6	8.7	17.5	62.2	11.0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전기전자 39개 기업(22.7%), 도소매(유통) 32개 기업(18.6%), 화공 22개 기업(12.8%), 식품 17개 기업(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분포는 공공서비스, 도소매(유통),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 음식숙박업의 44개 기업(25.6%)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 128개 기업(74.4%)이 투자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3-24> 충북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

(단위 : 개, %)

구분	총계	공공 서비스	광업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농축 임업	도소매 (유통)	문화 오락	부동산 임대	비금속 광물
기업수	172	2	2	10	9	1	3	32	3	2	4
비 중	100	1.2	1.2	5.8	5.2	0.6	1.7	18.6	1.7	1.2	2.3
구분	총계	비즈니스 서비스	섬유 직물	식품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의약	전기 전자	제지 목재	화공	-
기업수	172	4	1	17	10	6	1	39	4	22	-
비 중	100	2.3	0.6	9.9	5.8	3.5	0.6	22.7	2.3	12.8	-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정보』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별 분포는 총 33개국으로 나타남
- 일본 58개 기업, 미국 22개 기업, 중국 19개 기업, 독일 8개 기업, 프랑스 4개 기업, 네덜란드 4개 기업, 캐나다 4개기업, 스위스 3개 기업, 이탈리아 2개 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자국 대부분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것은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투자기업의 기술향상을 통한 충북의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외자유치분야의 문제점

- 국가, 업종, 지역의 편중성 지속
 - 충북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주변 주요 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가 IT, BT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청주, 청원 등 중부권에 집중되는 현상 지속
- 경제자유구역 미지정으로 인한 외자유치 체계의 상대적 열세
 - 현재 충북의 외자유치는 도의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지자체(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대구, 경북 등)와 비교 시 전체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충북의 특징점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시급
- 연차별 편차가 매우 큼
 - 충북의 연차별 외국인 투자실적은 일정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연차별 편차 매우 큰 실정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성장세 구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함

2. 여건변화와 전망

1) 세계 경제의 다극화

□ 세계경제 중심축이 G7(선진 10억 시장)에서 G20(선진+신흥 40억 시장)으로 이동

- G7을 제외한 여타 G20국가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년 24.8%(14.3조불)에서 '15년 31.8%(26.1조불)로 증가 예상
 - (G7) 인구 7.3억명, GDP 30.8조불 → (G20) 인구 44.3억명, GDP 50.8조불
 - G7의 세계 GDP 비중: ('09년) 53.3% → ('15년) 46.7% (6.6%p 감소)

□ 신흥국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 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4억의 중산층이 새로 형성될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약 12억명 증가
 - 2020년까지 연평균 5.3% 증가(OECD) : ('09) 18.45억명 → ('20) 32.49억명

□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신흥개도국이 선진국을 압도

- '11년에도 美·日 등 선진국 경제 성장률(2.4%)보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6.4%)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IMF)
-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1.3%↑), 일본(1.8%↑)의 약세가 지속되고,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9.6%↑)과 인도(8.4%↑)가 성장을 주도

2) 세계화의 확대 및 동북아 경쟁 심화

□ 세계화 확대로 중소기업에 포함한 경제 전반에 글로벌 압력 증대

-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감에 따라, 우리 기업은 새로운 위기(내수경쟁 격화)와 기회(글로벌 시장)에 직면
 - 국경을 초월한 최적 입지에서 생산·판매 등의 기업 활동을 영위
 - 역외 및 아웃소싱(outsourcing) 등을 통해 최적의 업체로부터 원자재·부품을 조달
 -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은 자산의 57%, 매출의 62%, 고용의 58%를 해외 의존
-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단일 기업이 모든 것을 혼자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네트워크 경쟁력은 필수

□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중국 등 동북아 시장에도 충격적인 大경쟁시대가 도래

- 선진시장을 최종 수요처로 '일본(소재)→한국(부품)→중국(완제품)'으로 대변되던 분업구조가 상호 경쟁구도로 변화
 - 중국은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완제품 및 부품·소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
 - 일본은 자신의 강점인 환경기술·첨단기술 등의 우위를 바탕으로 기존 선진시장 공략과 아시아 중산층 시장까지 집중 공략
- 동북아 大경쟁시대는 우리 기업에게 보다 높은 생산성과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며, 기존 시장 안주가 아닌 시장개척을 요구

3) FTA 확산 등 무역패러다임의 변화

□ FTA확산, 비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형태와 규범의 다양화로 무역거래가 점점 더 복잡화·전문화

- FTA시대 개막 : DDA 협상의 난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FTA 추진 가속화
 - 체결국별로 세분화·차별화된 FTA 확산에 따라, 표준화된 WTO체제와는 달리 필요정보가 급증하고, 거래비용이 증가
 - FTA 체결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 통관규정, 표준, 안전규제 등에 따라 기업이 수출에 있어 투입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FTA 추진효과가 반감
- 무역장벽 증가 : 신규 무역제한조치 도입,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규제가 복잡·다양화
 - '08년 11월 1차 G20정상회의 이후 '10년 2분기까지 645건의 신규무역제한조치 도입
 - 기술규제(WTO에 통보된 건수)는 '04년 이후 연평균 18.5% 증가

□ 전자무역 확산, 결제방식의 변화 등 무역거래형태도 기술발전예 따라 계속 진화

- 전자무역 확산 :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수출 및 무역업무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무역 및 전자문서 활용 증가
- 결제방식 변화 : 신용장 방식이 감소하고,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무역금융·보험 환경이 변화
 - '00~'10년 중 신용장 방식은 전체 수출액 중 27.6%에서 15.6%로 크게 감소한 반면, 송금결제방식 비중은 43.0%에서 60.2%로 증가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 오송, 오창 산업단지의 첨단 및 신산업 발전 ■ 청주공항 및 오송전철역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 ■ 세계무역 8대국 진입 및 G20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로 인한 우리나라 브랜드 파워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및 투자 부진 ■ 국제교류지역의 산발적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 ■ 수출 대상지역 및 수출품목 편중 ■ 투자기업 편향적 유치활동 및 국내 지역간 경쟁심화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국가이미지활용을 통한 국제교류 및 통상의 선진화 가능 ■ 세종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외교 및 역량의 제한 ■ 선진시장 위축 및 신흥국 부상 ■ 전면적인 글로벌 경쟁 심화

3. 계획의 기본방향

□ 국제교류분야

- 신흥수출 유망국가와의 교류사업 확대
- 국제교류업무의 낭비와 비효율성 제거 및 생산성 제고
- 외교적 활동은 『도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수출지원분야

- 수출상위 10대 수출국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점유율 확대
- 신흥 수출유망 10대국에 공세적, 도전적 해외마케팅 전개
- 높아진 국가이미지 및 FTA 활용, 수출기반 인프라 확충
-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는 선택과 집중전략 추진

□ 투자유치분야

-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
 -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홍보강화
- 충북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활동 지속 전개
 - 의약·바이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차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기업 투자기업 발굴 유치 전력
 - 일자리 창출 극대화,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성장 동력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분야 확대
- 소규모 투자유치단 중심의 실속있는 유치활동 필요

4. 세부 추진과제

□ 국제교류분야

- 교류와 통상의 일체화
 - 기존 자매·우호교류지역 : 도민이익을 창출하는 교류로 전환
 - 자매·우호교류지역 대표단 초청 충북우수상품전 개최 등
 - 교류지역별 강점을 도내 도시, 농촌마을 연계 자매결연 추진
 - 신규 교류지역 개척 : 도내 기업의 수출촉진 전략지역으로 선정
 - 자매·우호지역 박람회, 국제행사 등에 기업체 참여 기회 확대
 - 국제교류는 반드시 자매결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도민이익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국제교류 추진
 - 상생발전 아이템 발굴
 - 국제 교류 아이템 발굴 :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분기별)
 - 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강화 : 바이오·에너지 분야 등
- 도, 시·군, 부서간 협력 시스템 구축
 - 국제교류계획 수립 시, 부서간 협조
 - 도 국제교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출장 배제 등 효율성 극대화
 - 도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계획 수립, 서민경제 활성화
 - 도 ↔ 시·군간 국제업무 협력 강화
 - 시·군의 국제화 사업은 상호 정보교류로 낭비요인 제거 : 시·군별 통상·문화 사절단 파견, 국제행사 등 기획단계 부터 상호 협조하여 국제교류 성과 극대화
 - 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적극 활용 : 풍부한 해외근무경력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고위 외교관 출신, 시·군에서 국제교류, 투자유치 등 업무지원 요청 시 적극지원
- 지구촌 휴먼네트워크 강화
 - 수출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
 - 수출 전문기업협의회 구성·운영 : 30개 기관·기업체
 - 세계적 인사와 인적네트워크 확충
 -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정 설명회, 산업시설 시찰, 문화 유적지 관람 등
 - 해외 전문가 그룹 DB화 관리 : 도정소식지 제공 등
 - 청소년 세계화 마인드 제고
 - 자매·우호교류지역과의 청소년 교류확대 : 충청향우회와 홈스테이
 - 탁구, 바둑, 태권도 대회 등 청소년 상호방문 확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계 정보 교류
 - 국제자문관+충청향우회+KOTRA+해외전문가 그룹+대기업 해외지사(네트워킹)

□ 수출지원분야

-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시장점유율 확대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 중국 : 친환경인테리어, 영유아제품, 고급의류,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정보기술, 생물 의약,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 대만 :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방직기계, 수송장비, 부품소재 등
 - 홍콩 : 수출의 60% 이상 중국 재수출로 중국 내수소비 및 관련 생산품
- 동남아(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 싱가포르 : 친환경 건축자재, LED 조명기구 등
 - 말레이시아 : 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동제품 등
 - 태국 : 기구제품(인쇄회로기판), 화학제품, 종이제품, 전선 등
- 서남아 및 중동(인도, 이란)
 - 인도 : 산업용원부자재, 종이제품, 전선, 알루미늄, 플라스틱제품 등
 - 이란 : 의료기기 및 의약품, 플라스틱제품, 건설장비 및 부품 등
- 미국 : 철도차량부품, 솔라패널, 반도체제조장비부품, 미용의료기기 등
- 일본 : 로봇용관련센서, 터치패널, 애완용품, 농산가공품 등
- 신흥 수출유망 10대국에 공격적 해외마케팅 전개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터키,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공
 - ※ 시장규모, FTA 체결 및 협상국, G20 국가, 국제교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표 3-25〉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및 특징

지역별	국가명	유망품목	인구수 (백만명)	총북 수출국 순위	FTA	G20 국가	비 고 (교류관계)
아시아	베트남	합성수지, 정전기, 전선, 가죽, 농약 및 의약품, 기구부품 등	89	13	발효	-	우호교류 (빈푹, 푸엔성)
	필리핀	동제품, 반도체, 플라스틱, 무선 통신기기, 종이제품 등	98	18	발효	-	우호교류 (벵겟주)
	인도네 시아	알루미늄, 플라스틱, 화학공업제 품, 철강관 및 철강선, 반도체 등	240	16	발효	○	자매결연 (중부자바주)
유럽	폴란드	광학기기,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연마제품, 가죽제품 등	38	15	타결	-	-
	터 키	원동기 및 펌프, 기구부품, 조명기 구, 자동차부품, 인조섬유제품 등	77	23	협상 중	○	-
	러시아	플라스틱, 전선, 철강관 및 철강 선, 기호식품, 화학제품, 축산가 공품 등	140	12	-	○	우호교류 (상트페테르 부르크)
남미	브라질	농약 및 의약품, 플라스틱, 기구부 품, 반도체, 건전지 및 축전지, 정 전기 등	198	19	-	○	-
	멕시코	광학기기,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화전기, 주단조품 등	111	22	협상 중	○	자매결연 (콜리마주)
대양주	호주	전선, 플라스틱제품, 동조가공품, 커피류,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21	11	협상 중	○	-
아프 리카	남아공	기호식품, 유선통신기기, 철강관, 플라스틱제품, 염료 및 안료 등	49	33	-	○	-

- 중소기업 맞춤형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및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중소기업 수출보험 및 유망기업 글로벌촉진 지원
 -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및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충북통상 CEO 전문가 과정운영 : 충북대 등
 - 수출기업의 무역역량 강화 지원
 - 온라인 타겟마케팅 및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및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경제외교 및 수출인프라 확충
 - 자매·우호지역과의 실리외교
 - 중국 하얼빈, 차이나-아세안, 산토스 무역박람회 참가
 -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내실추진
 - 양 지역 우수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등
 - 수출 국제인적 네트워크 강화
 - 유능한 국제자문관 위촉 확대 : 21명 (79명 → 100명)
 - 젊고 참신한 해외인사를 수출촉진 후원자로 활용
 - 친 충북 외국인사(주지사급 및 CEO)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일본의 외교관, 기업가 등 초청 간담회 개최

□ 인자유치분야

- 既 관리중인 잠재 외투기업 실질투자 유도
 - MOU 체결, 투자계약 및 착공 유도
 - 주요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담당자를 PM으로 지정
 - 바이오 및 의약·의료기기, 태양광, 공항관련 분야
 - 외투기업(잠재투자가) 홍보 이메일링 서비스 제공
 - 바이오 동향지, 투자 관련 동향을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E-Mailing 서비스로 발송
-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해외 IR추진
 - 지역별, 유치대상별 체계적 IR 추진방향
 - 바이오·의약, 태양광, MRO 등 산업별 맞춤형 투자사절단 파견
 - 스토리가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전개
 - 투자환경설명회, 개별 기업상담 및 전문전시회 등 추진

- 해외무역관 및 민간전문가와 공동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 고용, 기술이전 파급효과가 큰 해외기업유치
- 국내·외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내재적 기반 구축
 -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 외투기업 임원과의 간담회 및 실무위원회 워크숍 개최
 - 미국내 상설 투자유치 활동 시스템 구축
 - 미국은 바이오 강국으로 투자유치 대상기업 대다수 소재
 -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파견 직원의 효율적 활용도모
 - 바이오포럼, 네트워킹 행사참석, 잠재투자기업과 상담 등
 - 상시 실시간 현지 활동을 위한 투자유치 센터화
 - 미주지역 내 MRO업체 동향 및 홍보
 - 국내외 IR활동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 Invest KOREA합동 투자유치 활동
 - 해외 투자협약기관 정기적 정보교류 활성화
 -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등 추가 협약체결 검토
 - 외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 외자유치 전문교육을 통한 투자유치 전문가 육성
 - 외자유치 공무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외국인 투자기업 방문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 既 입주 외투기업 및 MOU체결기업
 - 업체별 PM지정 후 행정지원을 통한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 투자기업 커뮤니티 블러그 제작·운영
 - 도내 소재 외국인 기업 대상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활동 강화
 - 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 한국 바이오산업동향 제작, 잠재투자기업 및 유관기관 배포
 -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외투지역, 항공정비복합단지 등
 - 지경부(IK) 홍보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효율성 도모
 - IK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충북사이트 운영 활성화
 - 아리랑TV Invest KOREA 프로그램 등 공동 홍보활동 추진
 - IK Journal, Focus 등 국내외 해외잡지 홍보 추진
- 국내·외 IR활동으로 MRO 및 항공복합단지 조성추진
 - 추진방향

- 기체 중정비, 엔진, 보기 등 분야별 · 업종별 유치
- 국내업체와 국외업체의 타깃을 정하여 추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기반 사전 구축

제 3 장 |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제1절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제2절 생명력이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충북 실현

제3절 활력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제3장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제1절 함께 누리는 행복문화

1.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 진흥법』상 문예회관 등이 있음
- 2009년 12월 기준, 충북의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 30개, 박물관 37개, 미술관 6개, 문예회관 12개, 문화원 12개, 문화의 집 8개 등 총 10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청주·충주·제천시 및 청원군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표 3-26> 도내 주요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

시·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30	15	15		37	23	9	5	6	2	4		12	12	8
청주시	8	5	3		7	4	1	2	3	1	2		1	1	3
충주시	3	2	1		6	5	1						2	1	
제천시	6	5	1		3	2	1						1	1	1
청원군	2	1	1		6	2	2	2	2	1	1			1	
보은군	1		1		2	2							1	1	
옥천군	1		1		2	1	1						2	1	
영동군	1		1		4	2	2						1	1	1
증평군	1		1		1	1							1	1	1
진천군	1		1		1	1							2	1	1
괴산군	1		1		2	1		1						1	
음성군	3	1	2		2	1	1						1	1	
단양군	2	1	1		1	1			1		1			1	1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0.

- 충북의 문화기반시설수를 다른 도와 비교해보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수치상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27> 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계	박 물 관				미 술 관						
		계	지 자 체	교 육 청	사 립		소 계	공 공	사 립	대 학	소 계	공 공	사 립	대 학			
전국	2,030	703	457	229	17	771	630	311	234	85	141	33	102	6	182	227	147
도계	1,453	494	322	163	9	548	459	262	154	43	89	23	65	1	137	159	115
경기	349	143	126	11	6	134	106	46	52	8	28	5	22	1	26	31	15
강원	163	50	27	22	1	70	60	42	13	5	10	3	7	0	14	18	11
충북	105	30	15	15	0	43	37	23	9	5	6	2	4	0	12	12	8
충남	136	50	30	20	0	44	39	23	14	2	5	0	5	0	15	17	10
전북	119	43	25	17	1	33	30	20	6	4	3	2	1	0	17	14	12
전남	144	52	31	21	0	46	34	24	8	2	12	2	10	0	14	22	10
경북	174	55	27	27	1	66	60	39	10	11	6	2	4	0	20	23	10
경남	162	50	26	24	0	55	50	32	13	5	5	3	2	0	17	20	20
제주	101	21	15	6	0	57	43	13	29	1	14	4	10	0	2	2	19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0.

- 도별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충북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주요문화기반시설의 1관 당 인구수가 도서관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적거나 중간에 해당함

<표 3-28> 도별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

(단위 : 명)

지 역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경 기	80,144	108,119	409,308	440,793	369,697	764,041
강 원	30,257	25,215	151,287	108,062	84,048	137,534
충 북	(3) 50,916	(7) 41,283	(6) 254,580	(7) 127,290	(5) 127,290	(5) 190,935
충 남	40,752	52,246	407,516	135,839	119,858	203,758
전 북	43,128	61,817	618,169	109,089	132,465	154,542
전 남	36,789	56,265	159,417	136,643	86,955	191,300
경 북	48,543	44,498	444,979	133,494	116,082	266,988
경 남	65,004	65,004	650,035	191,187	162,509	162,509
제 주	26,793	13,085	40,190	281,332	281,332	29,614

주 :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속은 순위를 나타냄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재구성, 2010.

□ 공연시설 현황

- 공연예술은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에 공연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2009년 12월 기준, 도별 공연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29> 도별 공연장 현황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공 공	96	27	11	30	17	16	24	17	6	244
민 간	19	3	0	6	1	1	2	1	10	43
계	115	30	11	36	18	17	26	18	16	287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정책백서』, 2010.

2)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계 현황

□ 문화예술단체 현황

- 2009년 기준 충북에 소재하는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2개, 국악단 3개, 무용단과 합창단 각 1개로, 총 7개의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이 중 4개의 단체가 청주에 소재하고 있음

<표 3-30> 충북 소재 예술단 현황

구분	소재지	창단일	단원수		
			계	상임	비상임
교향악단(2)	충북도	2009.06.11	27	16	11
	청주	1977.07.07	56	56	—
국악단(3)	청주	1985.08.07	27	26	1
	충주	1988.08.26	29	20	9
	영동	1991.05.18	29	24	5
무용단(1)	청주	1995.08.01	26	25	1
합창단(1)	청주	1979.03.01	42	41	1

- 대표적인 문화예술협회로는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충북예총)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회(충북민예총) 등이 있음
 - 충북예총은 1962년 1월 27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지부로 결성된 이후 현재 11개 시·군 예총과 10개의 회원협회가 있음
 - 충북민예총은 1994년 3월 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지회로 창립한 이후 현재 6개 시·군 민예총과 12개의 장르 위원회가 있음

<표 3-31> 충북의 문화예술협회 현황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시·군 예총	회원협회	시·군 민예총	장르위원회
청주예총	건축가협회	청주민예총	작가회의
충주예총	국악협회	제천민예총	민미협
제천예총	무용협회	충주민예총	연극위원회
영동예총	문인협회	옥천민예총	풍물위원회
음성예총	미술협회	보은민예총	음악위원회
옥천예총	사진작가협회	청원민예총	춤위원회
청원예총	연극협회		영화위원회
증평예총	연예협회		무예위원회
괴산예총	영화인협회		사진위원회
진천예총	음악협회		서예위원회
단양예총			전통음악
			전통미술

자료 : 충북예총 및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 문화예술활동 현황

- 2010 『문예연감』을 통해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행해진 시각예술, 공연예술 활동은 총 57,246건으로 집계되었음
- 그 중 서울이 35,077건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1,123, 경기의 4,786건을 합할 경우 전체 문화예술 활동의 71.1%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됨
-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건수는 532건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장르별로는 시각예술 115건, 양악 52건, 국악 24건, 무용 28건, 연극 313건으로 연극 부문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르 간 편차가 현격함

<표 3-32> 지역별·장르별 문화예술활동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시각예술	양 악	국 악	무 용	연 극	합 계	구성비
서울	6,459	2,948	1,541	1,126	23,003	35,077	61.3
부산	597	301	128	139	2,552	3,717	6.5
광주	228	191	59	36	244	758	1.3
대구	790	558	158	138	1,530	3,174	5.5
대전	368	266	42	53	303	1,032	1.8
인천	177	312	51	70	513	1,123	2.0
울산	47	248	46	38	579	958	1.7
경기	793	929	168	189	2,707	4,786	8.4
강원	174	217	41	17	375	824	1.4
충북	115	52	24	28	313	532	0.9
충남	70	80	30	7	137	324	0.6
경북	111	187	54	27	332	711	1.2
경남	196	336	70	97	732	1,431	2.5
전북	193	218	139	42	241	833	1.5
전남	52	223	102	30	244	651	1.1
제주	126	143	31	10	196	506	0.9
합 계	11,305*	7,209	2,684	2,047	34,001	57,246	100.0

주 : * 해외미술 국내전 809건(1.4%) 포함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0.

3) 문화재 현황

- 2009년 12월 기준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보호·관리되고 있는 충북의 지정문화재는 644건임

-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3건, 보물 71건, 사적 19건, 명승 9건, 천연기념물 22건, 중요무형문화재 3건, 중요민속문화재 22건 등 총 159건으로 전체 국가 지정문화재 3,237건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67건, 무형문화재 17건, 기념물 116건, 민속문화재 16건 등 416건으로 전체 시·도지정문화재 4,736건의 8.8%에 해당하고 있음
- 이외 국가 혹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인 문화재자료를 69건 보유하고 있음

<표 3-33> 전국 및 충북지역 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구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국보	보물	1)	2)	3)	4)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전국	3237	313	1,588	557	404	261	114	4,726	2,528	1,513	321	364	2,238
충북	159	13	71	28	22	22	3	416	267	116	16	17	69

주 : 1) 사적·명승 2) 천연기념물 3) 중요민속문화재 4) 중요무형문화재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2010

- 등록문화재는 21건으로 전체 등록문화재의 4.6%를 점유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 것으로,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재의 무분별한 멸실을 방지하고자 2001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시행되었음
- 등록문화재의 특징은 기존 지정제도와 달리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에 의존하는 신고위주의 제도로써 등록문화재의 외관보존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3-34> 충북의 등록문화재 현황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등록일자
6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61	1동 1,566.3㎡	2002.3.28
7	옥천 삼양리 옥천 천주교회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8-2	1동 749.3㎡	2002.3.28
8	진천 읍내리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29-1	1동 205㎡	2002.3.28
9	문화동 우리예능원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7-3	1동 143.6㎡	2002.3.28
47	추풍령역 급수탑	영동군 추풍령면	탑1기(높이15.5m)	2003.1.28

등록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등록 일자
		추풍령리 336-1	우물1개소(용량40톤)	
55	충북도청 본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1동 연면적 3,365㎡	2003.6.30
56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제천시 화산동 238-9 외 2필지	1동 연면적 201.65㎡	2003.6.30
57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	1동 연면적 264.46㎡	2003.6.30
58	진천 덕산양조장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72-16	1동 연면적 347.1㎡	2003.6.30
59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교량 1기 (길이 24.5m, 폭 6.75m, 높이 12.25m)	2003.6.30
65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 구 사옥	제천시 명동 151-1	1동 건축면적 112.99㎡	2003.9.27
144	괴산군수 관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1	3동, 1층 연면적 : 173㎡ 안채(85㎡), 사랑채(39㎡) 행랑채 및 부속채(49㎡)	2004.12.31
273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제천시 명동 151	1동(1층) 연면적 1,044.26㎡	2006.9.19
297	영동 심천역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18-43, 195-1외	역사 1동 및 일곽 역사건축면적 : 148.86㎡ 부지면적 : 10,268㎡ 철로길이 : 역사 좌우측 각각 150m	2006.12.4
350	주성교육박물관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시 상당구 영동 48-1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400㎡	2007.9.21
351	대성여자중학교 (구 청주대학교) 강당	청주시 상당구 수동 396-1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454.21㎡	2007.9.21
352	구 충북산업장려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4	1동 2층 연면적 429.77㎡ 건축면적 218.18㎡	2007.9.21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청주시 상당구 수동 36-3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341.82㎡	2007.9.21
354	괴산중학교 구 본관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165	1동 1층 건축면적/연면적 725.06㎡	2007.9.21
355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50	1동 1층 현황측량면적 20.9㎡	2007.9.21
411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136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기장6,600, 기폭12,700 기고3,050, 중량380kg 엔진O-200, 85마력(4기통)	2008.10.0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한편 문화재의 내부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표 3-35〉 전국의 등록문화재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수	88	10	8	5	10	17	5	26	33	21	33	45	67	27	36	21	452
비중	19.5	2.2	1.8	1.1	2.2	3.8	1.1	5.8	7.3	4.6	7.3	10.0	14.8	6.0	8.0	4.6	100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2010.

2. 여건변화 및 전망

-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블록화 및 FTA 확산으로 인해 정치·경제 분야뿐 아니라 자본과 인력의 교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
-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는 문화선진국들의 문화확산에 따른 종속의 심화라는 측면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 우리의 한류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양면적인 측면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임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문화관광분야에서 새로운 소비주체 및 최대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의 Chindia(중국, 인도)의 경우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BRICs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 21세기는 기술혁신(Innovation)과 이에 따른 콘텐츠의 활용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라 할 수 있는 바, 문화는 예술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부각
- 이 경우 국가핵심역량으로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에서의 3C(Creativity, Culture, Contents)를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분야의 정책의제화 및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실정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문화강국(C-KOREA) 2010>을 통해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문화를 기반으로 창출한 고부가가치를 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성(Creativity)’ 개발인 바,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와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는 것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

-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과 고용효과가 높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수립이 시급
- 해방 이후 문화예술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는 대략 다음의 4단계 시기로 구분해서 그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표 3-36> 문화정책의 진화과정

起의 단계 (1945-1970)	承의 단계 (1970-1990)	轉의 단계 (1990-2010)	結의 단계 (201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제 유지, 홍보의 문화 -통일, 질서, 국민 계몽 -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시설 마련 -문화 기본법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성장의 뒤편에서 최소한의 문화 정책 -향후 발전을 위한 준비 작업 -중앙과 지방의 문화 기반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문화 욕구 증폭 -문화 영역의 다양화 -‘시설’에서 ‘이용’으로 문화의 국제 교류 활발 ‘이용’ -지원, 조성의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 만족의 삶과 문화 -문화 예술 영역의 세분화·복합화 -정부 간여의 최소화 -예외 사항에 대한 대처

자료 : 이대희,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쟁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10.

- 2011년도 비전은 도민의 창의적인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질 "함께 누리는 행복 문화"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전략목표로는 특색있는 전통·건전문화 육성에서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권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부각 ■ 통합적 퓨전 성격의 문화충북 ■ 자연자원과 사람에 대한 청정 이미지 ■ 사통팔달의 국가 기간교통망 결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문화에 대한 적응력 취약 ■ 중원문화권 위상과 전망 약화 ■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 ■ 문화행정의 연속성·창의성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발전 동력으로서의 ‘문화’ 급부상 ■ C-Korea 2010의 비전 제시 ■ ‘감성’과 ‘이미지’의 문화경제체제 진입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전통문화 변질 ■ 대량생산적 문화의 무차별적 확산 ■ 문화인프라 환경의 시너지 결핍

3. 계획의 기본방향

1) 문화정체성의 확립

☐ 충북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확립

- 중원문화권의 위상 재정립
- 양반문화, 선비문화의 정체성 확립
- 역사문화인물을 통한 충북의 정신사 확립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유·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방안 마련
-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남한강 유역의 문화자원 발굴
- 6대 사지(史誌) 및 충북의 문화총서 발간

☐ 지역특한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 운명공동체로서의 충북문화권 정립
- 직지·나제문화권 특정지역 추진
- 중원문화권 활성화 및 홍보 전략

2)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 문화향수 기반 구축

- 가칭 충청북도문화정보센터 운영
- 문화의 거리 재정비 및 확대 조성
-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 문화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고양

- 문화향수를 통한 행복지수의 향상
- 다문화활동 지원체계 구축

3)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창작스튜디오 조성
- 문화예술인의 창작 지원 및 보상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 예술주체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역내 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4)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 콘텐츠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 콘텐츠 발굴 및 육성체계 구축
- 충청북도 디지털문화대전 편찬 사업

□ 특성화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업 추진

- 김수현문화관(드라마센터) 건립 추진
- 대청호 문화콘텐츠타운 조성
- 전통 선비마을 조성

4. 세부 추진과제

1) 문화정체성 확립

□ 충북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확립

- 중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보존·전승하여 도민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중원문화의 위상정립을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함
 - 충북학연구소와 충북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발굴과 전승 및 활용을 통한 중원문화유산의 고부가가치 실현
 - 중원문화권과 연계한 지역박물관의 홍보 및 특성화 전략을 추진함(단양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보은 비림박물관, 음성 세연철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청원 잠사문화박물관, 제천 지적박물관 등)
- 영남사림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양대축을 이루는 기호사림의 중심지로서 보은, 괴산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교관련 유적을 연계한 유교문화벨트를 구상
 - 괴산군 : 송시열의 화양서원, 연풍향교와 김홍도, 김시민의 충민사 등
 - 보은군 : 대곡 성운의 모현암, 충암 장암선생의 유허지, 2번째 사액서원인 상현서원, 고봉정사와 풍림정사 등
 - 이들 지역을 중부권의 청학동으로서의 전통적 방식의 예절교육을 담당할 전통선비마을로 조성함
- 지역내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을 통해 충북의 정신사 확립
 - 청원 신채호, 괴산 홍명희, 송시열 등 생가 복원 및 문학마을 건립
 - 괴산 연풍의 김홍도와 관련된 역사유적지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김홍도의 마을로 특화함
 - 영동 난계국악의 특성화 : 영동대학교의 국악교육학과 개설, 학산 정보고등학교의 국악고등학교로의 전환, 난계국악기체험 전수관 건립, 국악타운 조성 등
 - 충주의 우륵, 영동의 박연, 옥천의 김덕수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본고장임을 기반으로 현재 서울, 전북, 전남 등 3개소에만 있는 국립국악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도내 시군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지역민의 생활에 밀착한 보존 및 전승방안 마련이 시급함
 - 도내 유형문화재의 콘텍스트 수집 및 정리, 유형문화재군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지역민의 정서에 밀착한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재탄생 시킴
-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산성 및 남한강유역의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함
 - 우선적으로는 국가 사적 및 시·도 지정 기념물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등록대상이 되는 잠정목록을 설정함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자문단,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홈페이지 운영, 언론홍보, 산성관련 문화축제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발굴 및 정비를 포함하는 삼년산성사적공원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남한강유역권에는 온달산성, 온달동굴, 태장이묘, 미륵사지 공기돌, 고구려비, 장락탑 등 유형의 고구려 문화유산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접목하여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역사 관련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작업 및 미디어콘텐츠 창출방안을 강구함
- 충북의 6대 사지(史誌) 및 충북의 문화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역민의 충북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감
 - 80년대 발간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지, 전설지, 문화재지, 사지, 민속지, 지명지 등 6대 사지(史誌)를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출간함
 -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역사문화인물, 구비문학, 팔경과 구곡문화, 전통 생활방식 등을 대상으로 한 충북의 문화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역민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지역특화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 일반적으로 '충북문화'라는 것은 문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행정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역사·지리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충북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의 기반 확립이 가능
 - 충북문화, 중원문화, 서원문화, 한강유역문화, 금강유역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충북 전체의 문화권역의 관계를 재설정함
 - 이를 통해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나 지역 전체를 균등하게 구분하는 문화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되며, 향후 각 지역의 문화권 개발에 따른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중원문화권과 차별화되는 충북의 중부권에 직지문화권, 남부권에 나제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한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함
- 청주, 청원은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어낸 고대 문화발전의 중심지이며 이는 충북 북부지역의 중원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차별화되는 직지문화권의 설정을 통해 청주, 청원일대의 새로운 문화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직지문화권의 개발계획의 수립이 시급함
- 충북 남부지역은 나제문화권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개념적 기반 구축이 필요함
- 하지만 나제문화는 충북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북 남부지역’이라는 지리적 구체성을 결합하여 문화지역을 분명하게 하고 실제 문화지역은 나제문화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경우 충북문화라는 행정적 용어의 한계점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 중원문화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충북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개념적 한계가 있음
- 1980년대 전국을 5대 문화권으로 구분할 당시 충북의 중원문화는 다른 문화권역(백제, 신라, 가야, 탐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미약한 상태로 지정된 결과 타 문화권역에 배해 상대적으로 특징적 개념을 획득하지 못함
- 따라서 충북의 중부와 남부와 구분되는 중원문화권만의 활성화 및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함

2)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 문화향수 기반 구축

- 정보화시대에 부응, 충북지역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충북 문화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충북의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가칭) 충청북도문화정보센터를 설립
- 타지역과 구분되는 충북지역만의 특색있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거리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아직 문화의 거리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에 대한 조례제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민과 교감을 이루는 문화공간 구축의 단초를 마련함
- 생활예술공동체 활동은 문화향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
- 생활예술공동체의 주요한 근거지점은 생활영역이며 구체적으로는 “작은 단위로 지역

화 된 공동체”임

- 즉 골목문화, 동네문화,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운명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사회’의 의미를 지니며 종적, 횡적으로 네트워크 된 형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흥겨운 충북문화 구축을 위한 생활예술공동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활동 및 전문인 지원체계 방안을 포함하는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종합대책수립이 절실함

□ 문화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고양

-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문화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충청북도 시군별 문화행복지수 산정 및 공표가 필요함
- 분야별로 충청북도 시군별 문화행복지수를 산정,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문화향수를 통한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최근의 추세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근거하여 이질성, 다양성, 혼종성에 개방된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로 충북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다문화 시대에 대응한 도내 전역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결혼이주민, 새터민 등의 효율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함
- 다문화활동 지원체계 구축은 원 거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문화적 다양성 체험에도 크게 기여함

3)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 최근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에 따른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창작스튜디오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유희 시설, 폐교 등을 활용한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예술인 마을, 창작스튜디오 등 기존 창작 공간 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며, 시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예술창작 복합센터 확보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이는 폐교, 유희 시설 등의 방치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파급효과가 지역민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작 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

로써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지역민의 문화향수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 현대예술은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충북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음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

- 예술주체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 전문 예술인들이 지역 예술계의 중추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신진 문화예술 인력과 신장르, 예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함
- 현장 진입 후 빠르게 이탈하는 신진 문화예술 인력에게 창작 동기 등을 부여할 재교육이 절실하며, 한편 기존 전업 예술가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모티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전문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예술단체별 균등 재정분배 방식에서 벗어난 선의의 경쟁에 기초한 차등지원 방식을 추진함
- 이를 위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평가할 체계 및 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단체지원을 전담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 콘텐츠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 체계화된 콘텐츠 산업 발굴 및 육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 공공기관 내 콘텐츠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콘텐츠 발굴 및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관련 민간기업(단체)과 공공기관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함
- 효율적으로 콘텐츠 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산업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콘텐츠 산업 관련 민간기업(단체)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충북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변천사와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디지털 문화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충북의 문화정보에 기초한 콘텐츠 발굴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시·군별 콘텐츠 공모 및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통합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대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문화매개체의 역할을 도모함

□ 특성화된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사업 추진

- 최근 영화나 드라마의 매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주출신의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의 브랜드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화관 또는 드라마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함
- 충청북도의 영화·드라마 관련 콘텐츠산업의 전국 대비 현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뉴미디어 콘텐츠 마켓 선도를 위한 토대 마련
- 드라마센터 설립을 통해 영화·드라마 작가를 발굴, 양성하는 장을 마련하고 취약한 지역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기반을 향후 뉴미디어 콘텐츠 마켓의 중심으로 이끌 토대를 마련함
- 대청호변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와 물문화관, 벌맞한지마을, 마동창작마을, 장계관광지 등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청호 문화콘텐츠타운 조성을 추진함
- 대청호변 다양한 문화 정보를 종합하고 콘텐츠화하여 방문객과 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함
- 향후 충청권 문화의 중요한 축중 하나인 금강변 문화권역의 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 충북은 선비의 고장, 충효의 지역으로서 정신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특히 괴산군을 호서사림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문수양과 심신단련이 가능한 전통선비마을을 조성함

제2절 생명력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충북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1) 자연관광자원 현황

□ 자연공원

- 2009년 기준 전국에는 20개의 국립공원과 31개의 도립공원, 27개의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에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없이 3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함

<표 3-37> 국립공원 현황

(단위 : km²)

국립공원	위 치	전체면적	지정시기	지정순위
속리산	충북(보은군·괴산군), 경북	274.5	70/03/24	6
월악산	충북(충주시·제천시·단양군), 경북	288.0	84/12/31	17
소백산	충북(단양군), 경북	322.4	87/12/14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재구성)』, 2010.

-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방문객 수가 감소하나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백산국립공원은 방문객 수의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임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에 있어서는 3개소 모두 4~5%의 증가율을 나타냄

<표 3-38> 국립공원 방문객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속리산	1,149	1,098	1,165	1,339	1,403	5.1
월악산	620	538	622	627	722	3.9
소백산	392	356	460	426	463	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산림관광자원

- 2009년 기준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33개소가 운영 중이며, 삼림욕장은 14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충북에는 3개의 국립자연휴양림과 13개의 지자체 자연휴양림이 구성되어 있어, 전국대비 개소 수 및 면적 비중은 각각 9.8%, 2.5%로 나타남

〈표 3-39〉 자연휴양림 현황

(단위 : km²)

구 분	휴양림	위 치	면 적
국립 자연휴양림	3개소		829
	속리산 말티재	보은 장안 장재	375
	황정산	단양 대강 올산	275
	상당산성	청원 내수 덕암	179
충북 자연휴양림	13개소		2,377
	박달재	제천 백운 평동	170
	장령산	옥천 군서 금산	156
	조령산	괴산 연풍 원풍	766
	봉황	충주 가금 봉황	174
	계명산	충주 종민	363
	옥화	청원 미원 운암	136
	민주지산	영동 용화 조동	180
	소선암	단양 단성 가산	67
	수래의산	음성 생극 차곡	89
	문성	충주 노은 문성	56
	충북 알프스	보은 산외 장갑	72
	좌구산	증평 증편 율리	73
	백야	음성 금왕 백야	75
합 계	16개소		3,2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 산림청은 2013년까지 기존의 산림휴양 개념에 생태·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보강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각 시도별로 2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임
- 충북은 2010년에서 2014년 동안 국비 140억을 지원받아 증평군에 면적 402ha 규모의 좌구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안보관광지 및 온천관광지

- 안보관광지는 6·25 전적지 같은 전적관광자원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관광지로서 충북에는 음성의 무극전적지가 지정관광지로 지정되

어 있으며, 청원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함

- 2009년 기준 전국에는 432개의 온천이 지정되어 연간 54,383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은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19개의 온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2,970천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객 비중이 온천 개수의 비중보다 높은 5.5%로 나타남

2) 관광산업 현황

□ 여행업

- 2009년 기준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행업체는 총 287개로, 국내여행업(148개)이 국외여행업(128개)보다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청주에 157개의 업체가 편중되어 있으며(54.7%), 뒤를 이어 충주에 44업체(15.3%), 청원에 32업체(11.1%)로 나타남
- 제천의 경우 2008년도에는 18개의 여행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9년에는 전무하며, 괴산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관련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여행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여행업	일 반	11	6	1	-	2	1	-	-	-	-	-	1	-
	국 외	128	76	20	-	12	1	3	4	-	6	-	3	3
	국 내	148	75	23	-	18	1	3	5	1	7	-	8	7
	합 계	287	157	44	0	32	3	6	9	1	13	0	12	1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관광숙박업

- 『2009년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에서 조사된 2009년의 전국 관광숙박업체는 838개이며, 이를 기준으로 충북의 관광숙박업을 비교할 때 3.7% 수준에 해당함
- 시·군별로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의 경우, 청주에 8개 업체, 충주 6개 업체, 제천에 3개 업체 순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체 23개 중 73.9%에 해당하는 17개 업체가 시 단위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어 있음
- 가족호텔업은 충주에 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7개소)은 충주(5개소)·제천(1개소)·단양(1개소)의 북부권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표 3-41> 관광숙박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23	8	6	3	1	1	1	-	-	1	-	1	1
		수상관광호텔업	-	-	-	-	-	-	-	-	-	-	-	-	-
		한국전통 호텔업	-	-	-	-	-	-	-	-	-	-	-	-	-
		가족호텔업	1	-	1	-	-	-	-	-	-	-	-	-	-
	휴양콘도, 미니업업	7	-	5	1	-	-	-	-	-	-	-	-	-	1
합 계			31	8	12	4	1	1	1	0	0	1	0	1	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업

- 2009년 충북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련하여 청원의 1종 종합휴양업 1개소와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1개소만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음
- 2008년의 등록 현황과 비교해 보면 단양을 근거로 한 관광유람선업 3개 업체의 부재가 두드러짐
- 관광객편의시설업은 총 25개 업체가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종에 등록되어 있으며, 진천의 관광식당업(1개소), 단양의 관광펜션업(6개소)을 제외하고 청주, 충주, 제천, 청원에 분포함

<표 3-42>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	-	-	-	-	-	-	-	-	-	-	-	-
	종합휴양업	1종	1	-	-	-	1	-	-	-	-	-	-	-	-
		2종	-	-	-	-	-	-	-	-	-	-	-	-	-
	자동차야영장업		-	-	-	-	-	-	-	-	-	-	-	-	-
	관광유람선업		-	-	-	-	-	-	-	-	-	-	-	-	-
	관광공연장업		-	-	-	-	-	-	-	-	-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	-	-	1	-	-	-	-	-	-	-	-
계			2	0	0	0	2	0	0	0	0	0	0	0	0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7	5	1	1	-	-	-	-	-	-	-	-	-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	-	-	-	-	-	-	-	-	-	-	-	-
	관광식당업		6	-	3	-	2	-	-	-	-	1	-	-	-
	시내순환관광업		-	-	-	-	-	-	-	-	-	-	-	-	-
	관광사진업		-	-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	-	-	-	-	-	-	-	-
	관광토속주판매업		-	-	-	-	-	-	-	-	-	-	-	-	-
	관광펜션업		12	-	-	6	-	-	-	-	-	-	-	-	6
계			25	5	4	7	2	0	0	0	0	1	0	0	6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국제회의 및 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되며, 충북에는 국제회의기획업체만 청주시에 2개소 등록되어 있음
- 충북의 유원시설업 15개소 가운데,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유원시설업은 2개소,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은 7개소,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6개소로 나타남

〈표 3-43〉 유원시설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2	1	-	-	-	-	1	-	-	-	-	-	-
	일반유원시설업	7	1	1	2	1	-	-	-	-	-	-	-	2
	기타유원시설업	6	1	-	3	-	-	-	-	-	-	-	2	-
합 계		15	3	1	5	1	0	1	0	0	0	0	2	2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3) 관광객 및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 2009년 기준 충북의 주요관광지 방문객수는 43,598,15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의 6.0%에 해당함
- 2005년 이후 최근 4년간 충북도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율은 약 6.2%로 전국 2.3%의 2.7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기준 충북의 전체 관광객 가운데 제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8,749,250명으로 집계되어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8,500,162명의 단양이 19.5%, 6,018,065명의 충주가 13.8%로 나타나 북부권의 3개 시·군이 나란히 최상위에 위치함
- 그러나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영동이 65.5%의 증가율로 타 지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괴산 22.3%, 증평 22.0%, 옥천 9.1%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비중 면에서 상위에 위치한 북부권 3개 시·군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제천 8.7%, 단양 3.8%, 충주 -3.6%) 충주호반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행태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음

<표 3-44> 충북의 시군별 주요관광지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충북 대비	연평균 증가율
청주시	2,293,491	1,558,897	1,577,293	1,333,324	1,481,270	3.4	-10.4
충주시	6,981,906	5,478,573	6,306,071	6,062,078	6,018,065	13.8	-3.6
제천시	6,259,360	6,436,954	6,596,815	7,557,797	8,749,250	20.1	8.7
청원군	3,609,321	3,413,541	3,761,475	4,139,127	4,769,993	10.9	7.2
보은군	1,473,560	1,602,540	1,571,022	1,644,057	1,667,607	3.8	3.1
옥천군	2,171,192	2,780,538	2,723,186	2,856,471	3,080,793	7.1	9.1
영동군	424,340	465,949	2,301,978	2,914,030	3,180,778	7.3	65.5
증평군	491,218	930,074	952,499	1,014,951	1,088,744	2.5	22.0
진천군	1,014,353	1,059,288	1,186,777	1,368,091	1,369,016	3.1	7.8
괴산군	1,185,820	1,457,919	1,747,225	2,139,627	2,656,099	6.1	22.3
음성군	987,720	1,360,230	1,377,724	1,350,050	1,036,378	2.4	1.2
단양군	7,317,946	6,578,654	7,254,716	8,289,039	8,500,162	19.5	3.8
충 북	34,210,227	33,123,157	37,356,781	40,668,642	43,598,155	100	6.2
전 국	668,616,520	679,277,185	686,583,017	738,534,182	733,241,929	-	2.3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재구성)

- 한편, 전문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육성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2011년 2월 기준 162명이 충북의 12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관광 허브 사이트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예약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4) 관광개발 현황

□ 지정관광지

- 2009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지정관광지는 230개소이며, 충북에는 23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어 전국대비 10%를 차지함
- 충북의 관광지는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음성·단양 등 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제천시가 7개소로 가장 많은 지정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충주시 5개소, 단양군 3개소, 보은·영동·괴산군 각 2개소, 옥천·음성군 각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상위 3개 시·군이 모두 속하는 북부권에 15개소의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어 65%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 청주·청원의 중부권에는 지정관광지가 전무함

〈표 3-45〉 지정관광지 현황

(단위 : m²)

구분	관광지명	위치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승인		지정면적	
			최초일	변경일	최초일	변경일	최초면적	변경면적
충청북도			23개소		6,454,898㎡			
충주 (5)	세계무술공원	충주시 칠금동	89/11/25	08/01/28	89/11/25	08/01/28	171,000	262,000
	충온온천	양성면 돈산리	89/12/14	08/10/01	90/06/11	08/10/01	291,470	224,825
	능암온천	양성면 능암리	89/12/14	99/04/09	90/06/08	10/06/11	199,210	199,210
	돈산온천	양성면 돈산리	95/07/28	－	96/05/06	03/05/27	876,556	876,556
	충추호체험	가금면 탑평리	04/08/13	10/03/29	04/08/13	10/03/29	31,943	223,134
제천 (7)	교리	청풍면 교리	89/12/28	04/12/24	89/12/28	08/10/24	332,118	333,519
	능강	수산면 능강리	97/06/27	03/04/11	98/06/05	08/12/19	137,239	136,818
	금월봉	금성면 월굴리	98/05/29	－	98/12/04	08/08/14	88,119	88,119
	계산	청풍면 계산리	98/07/24	－	05/01/13	08/12/26	135,806	135,806
	제천온천	수산면 내리	02/01/16	－	06/05/09	－	296,700	296,700
	만남의광장	청풍면 교리	04/08/13	－	04/08/13	10/08/20	147,440	147,440
	KBS제천촬영장	금성면 성내리	04/08/13	－	04/08/13	08/10/24	111,060	111,060
보은 (2)	속리산레저	속리산면 상·중판리	96/10/04	97/05/09	07/06/22	－	135,254	130,191
	구병산	마로면 적암리	07/08/31		08/09/19		149,256	149,256
옥천 (1)	장계	안내면 장계리	86/06/07	－	86/10/22	10/05/04	198,705	198,705
영동 (2)	송호	양산면 송호리	77/10/31	99/09/17	87/07/08	98/06/05	355,000	292,231
	늘머니과일랜드	영동읍 매천리	09/05/22	－	10/10/08	－	1,784,827	1,790,835
괴산 (2)	수옥정	연풍면 원풍리	95/12/08	00/03/07	96/07/19	07/10/04	230,000	229,469
	괴강	괴산읍 검승리	00/12/29	－	04/03/05	07/08/03	238,132	238,132
음성 (1)	무극전적	음성읍 소여리	85/06/08	－	85/09/13	94/01/18	18,481	18,499
단양 (3)	천동	단양읍 천동리	69/01/21	99/09/17	85/12/02	09/09/14	120,982	120,982
	다리안	단양읍 천동리	69/01/21	99/09/17	85/12/02	09/09/14	153,835	153,835
	온달	영춘면 하리	94/09/06	－	95/04/28	08/12/26	97,011	97,576

주 : 2010년 11월 기준

자료 : 각 지자체 내부자료, 2010

□ 관광특구

- 2009년 기준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에 2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에서는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등 3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음

<표 3-46> 관광특구 현황

(단위 : km²)

구 분	관광특구명	지정지역	면 적	지정시기
충 주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일원	9.22	97/01/18
보 은	속 리 산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일원	43.75	97/01/18
단 양	단 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05/12/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표 3-47> 관광특구 관광자원 현황

관광특구	구 분	내 용	개소수
수안보온천	자연관광자원	온천(1)	1
	시설관광자원	관광숙박업(6), 관광객이용시설업(6), 관광객편의시설업(114)	126
		공공편의시설(38), 관광안내시설(15), 숙박시설(31), 휴양·오락시설(31), 접객시설(115), 상가시설(7)	237
속리산	자연관광자원	국립공원(1), 천연기념물(2)	3
	인문관광자원	도지정문화재(16), 사적 및 명승(1)	17
	시설관광자원	관광숙박업(1)	1
		공공편의시설(17), 관광안내시설(23), 숙박시설(3), 접객시설(160), 상가시설(42)	245
단양	자연관광자원	자연공원(2), 자연동굴(3), 유람선(1)	6
	인문관광자원	문화재(58), 문화관광축제(2)	60
	시설관광자원	여행업(8), 관광숙박업(2), 관광객편의시설업(6)	16
		공공편의시설(11), 관광안내시설(33), 숙박시설(2), 휴양·오락시설(10), 접객시설(18), 상가시설(4)	78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 2010.

<표 3-48> 관광특구 방문객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수안보 온천	내국인	2,369,767	2,439,597	3,310,509	2,756,644	2,052,002	-3.5
	외국인	45,231	22,142	10,336	11,126	14,912	-24.2
	합 계	2,414,998	2,461,739	3,320,845	2,767,770	2,066,914	-3.8
속리산	내국인	1,461,409	1,592,977	1,558,983	1,559,865	1,670,305	3.4
	외국인	12,151	9,563	12,039	14,192	15,229	5.8
	소 계	1,473,560	1,602,540	1,571,022	1,574,057	1,685,534	3.4
단양	내국인	6,920,808	6,229,794	6,898,515	7,921,489	8,054,127	3.9
	외국인	314,658	348,860	356,201	367,550	446,045	9.1
	소 계	7,235,467	6,578,654	7,254,716	8,289,039	8,500,172	4.1

자료 : 각 시·군 내부자료, 2010.

□ 축제

가.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선정해 온 문화관광축제에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57개의 축제가 선정되었으며, 충북은 우수축제로 영동난계국악축제와 유망축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정됨
- 전체 57개의 문화관광축제 가운데 충남이 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강원도 7개, 전남·경남 6개, 경기·경북 5개, 전북 4개, 제주 3개, 충북 2개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9> 충북의 문화관광축제 결과

(단위: 명, 백만원)

축 제	지정 구분	기간	관광객수			경제효과
			계	내국인	외국인	
영동난계국악축제	우수	09/4-8	403,075	401,670	1,405	12,935
충주세계무술축제	유망	신종플루로 인한 축제 취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나. 지역축제

- 2010년 3월,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총 51건으로, 전국 823건의 6.2%에 해당함

-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2~4건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충주시와 보은군이 각각 7건으로 13.7%를 차지함
 - 옥천군·영동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각 4건(7.8%)
 - 제천시·청주시·청원군 각 3건(5.9%)
 - 진천군·증평군이 각 2건(3.9%)을 개최함
- 시기적으로 충북의 지역축제는 8~10월에 집중 분포(30건, 58.8%)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10월에만 14건(27.5%)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겨울철인 12~2월에는 3건의 축제로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계절 축제화를 위한 개최시기의 조절과 차별화가 필요함

〈표 3-50〉 전국 지역별 축제수 및 비중

(단위 : 건·%)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합계
축제수	69	44	24	23	13	16	21	93	
비중	8.4	5.3	2.9	2.8	1.6	1.9	2.6	11.3	823
지역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축제수	93	51	76	62	34	51	122	31	100.0
비중	11.3	6.2	9.2	7.5	4.1	6.2	14.8	3.8	

주 : 2010/3/5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한 것임

자료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관광의 대략적인 미래 트렌드의 특징으로는 아시아(중국 및 인도)의 부상, 저비용항공의 활성화, 국가간 관광협력 및 경쟁, 노년관광층 증가, 녹색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화 및 지역화의 공존, 관광소비지출의 규모 확대, 고유성(이벤트, 음식 등)의 중시, 관광시장의 세분화, 온라인 관광활성화 등으로 요약됨
- 한편 통상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규모와 소비력 측면에서 마케팅전략 수립의 기준이 되는 바,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2010년은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체감도가 급상승하는 기점임
- 조기퇴직으로 인해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고령인구는 점차 활동성이 높은 시니어와 최고령의 핸디캡 단계의 고령인구로 분화되고 있음
- 특히 활동적인 시니어의 경우 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제와 복지 성장에 기여하고, 자율적인 삶과 자기실현의 욕구가 매우 강한 특징을 지님
- 충북의 경우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백두대간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삼국의 접경지

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산성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관광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특히, 충북의 대표 관광지였던 보은속리산권은 북부의 충주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해 있는 실정임

- 한편 주5일 근무제의 확대에 의한 여가시간의 증대,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테마관광, 녹색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수도권의 '가족단위 체험형 문화관광객'의 유입을 겨냥한 관광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의 접근성 양호 ■ 자연자원과 사람에 대한 청정 이미지 ■ 사통팔달의 국가 기간교통망 결절지로서 접근성 양호 ■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청주국제공항의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대표 문화권인 중원문화권의 위상과 전망 약화 ■ 관광개발의 권역별 편중 현상 ■ 지역 내 관광인프라 시설 낙후 및 규모의 영세성 ■ 관광행정의 연속성·창의성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 기조 변화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고조 ■ 2010대충청방문의해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 강화 ■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건설로 새로운 배후시장 확보 ■ 중부신도시 조성 가속화로 청장년층과 가족단위 인구유입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콘텐츠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한 독창성 결여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국내·외 경쟁 및 견제 심화 ■ 환경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인한 관광개발 제약 ■ 주변 지자체의 대규모의 하드웨어 관광개발 사업계획 추진

3. 계획의 기본방향

- 21C 신개념 관광개발방향 정립
 -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 충북형 생태녹색관광, 테라피관광, 문화관광 개발방향 정립
-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특구 활성화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관광 추진
-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상품화
 -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 웰빙·체험·가족형 관광상품 개발
 - 지역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관광매력도 제고
- 관광지원체계 확립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관광 전문인력 양성화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관광홍보 방안 마련

4. 세부 추진과제

1) 21세기 신개념 관광개발방향 정립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관광체계 구축

- 최근의 관광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물량 위주의 대량공급 형태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나 점차 문화의 다양성을 접목한 다품종 소량생산적 관광이 경험적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관광패턴에 적응하여야 함
 - 즉 관광시장에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용이한 보다 유연한 형태의 시장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관광시장의 형태변화에 따라 도보여행, 마음치유여행, 자연 및 동물생태체험, 역사탐험, 종교여행 등 체험하는 관광소비 형태와 함께 그린슈머(Greensumer),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 친환경적 관광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 뉴 시니어(new senior)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의 부상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관광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경제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은퇴한 노령인구를 지칭하는 뉴 시니어 층이 관광소비의 핵심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여가관광복지적 측면에서 새롭게 실버관광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함
 - 웰빙,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세대로 의료관광, 헬스관광에 대한 폭넓은 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며, 단순히 은퇴한 노년계층을 위한 기존의 관광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사회복지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중복형 생태녹색관광, 테라피관광 등 중장기 관광개발방향 정립

- 소백산에서 속리산을 거쳐 영동의 민주지산, 삼도봉을 잇는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
 - 백두대간을 주축으로 하여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특히 충북내방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및 영남권의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함
- 충북을 대표할만한 웰빙관광 자원인 제천한방~괴산산막이옛길~증평인삼~조정약수로 이어지는 테라피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함
 -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로 전통의약의 메카로서 제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전통 한방과 에코세라피를 결합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함
 - 중부권 최대의 인삼재배지인 증평지역을 금산 인삼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증평 발효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홍보를 위한 산학간 연계, 기존 인삼축제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세계 3대 광천수인 조정약수지구의 귀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하수보존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2011 세종대왕과 조정약수축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전략의 기초가 될 조정지구관광단지의 조성을 추진함
 - 이러한 천혜의 웰빙 자원을 IT산업과 BT산업에 접목, 과학화함으로써 중장년층만이 아닌 가족단위 관광객의 유치에도 힘써야 함
 -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주국제공항 및 오송의료과학단지를 활용한 의료관광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2)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 권역별 특화전략 수립

- 충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3개의 권역별로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은 수변·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중부권(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바이오·웰빙관광의 중심지,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은 녹색·생태관광의 중심지로 특화시킴

<표 3-51> 권역별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권역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수변·문화 관광의 중심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수상·레저(레포츠) 휴양타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수상레포츠타운(수중보 중심) 개발, 중원종합 휴양 레저타운 조성 - 2013 조정선수권 대회 및 세계무술축제의 성공적 추진
	중원문화유산을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조성 - 이야기 책자 발간, 드라마 유치, 사찰음식 개발 등
	충주호와 온천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안보 관광특구 활성화 · 불거리·즐길거리 : 박물관·주차장·스파로드 조성, 온천제 개최 등 · 연계상품개발 : 미륵사지, 하늘재, 인근마을(봉화, 곤충, 약재) 등 - 양성, 돈산, 문장 온천 특성화 : 관광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충주호 주변 관광 활성화 : 수변자원과 온천을 연계한 상품 개발
중부권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바이오·웰빙관 광의 중심지	오송, 오창, 조정약수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약수 재정비, 신규시설(노화방지센터) 설치 등 - 대규모 바이오시설 조성 및 유치 · 괴산 자연치유휴양복합단지, 증평 웰빙공원 조성 등
	중부권 거점 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남대 관광활성화 : 대통령 테마공원, 야간개장, 이벤트 등 - 무심천 수변관광시설 : 생태하천, 야경, 꽃길, 다리조형물 등 - 상징물(랜드마크)조성, 가로수길 공원화(광장, 포토존) - 밀레니엄타운 관광시설 집적화 ·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스포츠시설 등
	가족형 휴양·휴식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공원 조성 및 명품길 조성 · 대청호 둘레길, 200리 선유길, 청주옛길(산성길) 등 - 유명 인물 마케팅으로 관광명소화 · 윤보의 집, 음성 반기문 생가 마을, 신채호 사당 등
	스포츠·드라마(한류)· 산업·바이오(의료)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선수촌 연계로 세계 대회, 전국대회 유치 -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의 후속 드라마 유치 - 산업·바이오·의료 관광(바이오밸리, 솔라밸리 연계) 개발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녹색·생태 관광의 중심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치유·휴양관광지 개발 · 보은 바이오메디컬 휴양지 : 클리닉센터, 종합스파시설, 노천탕 등 · 신정지구 개발 : 리조트,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 휴양·레저 및 스포츠사업 발굴 및 조성 ·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 소나무 전시관 주변 개발(도깨비 축제 확대, 도깨비공원) · 구명산 관광시설 개발(케이블카 등) · 도깨비 축제 특화사업 추진(축제 세계화) · 삼년산성 고분군 개발 등(나제 문화 유적 개발)
	산촌·생태 체험 여행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한옥 체험(선병국, 춘추민속관 / 전통문화 및 음식체험) - 농촌생활(보은), 포도따기, 포도주 체험(옥천, 영동) - 영동 늘머리과일랜드 조성, 향수30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
	문화예술·스포츠 관광의 매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인 정지용·오장환과 연계한 사업 추진 · 박물관, 생가, 향수와 바람길(대청호) 조성, 상품개발 - 국악체험여행 및 대중교통수단 활용한 와인테마여행 - 불교·동학문화 개발(사찰음식, 불교문화페스티벌, 동학유적지 등) - WK리그 전지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관광 추진

□ 관광인프라 확충

-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표 3-52〉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계	공공	민자	
계	35개 사업	5,202,334	889,736	4,312,598	
청주시 (3개)	소 계	271,260	271,260	-	
	청주 수상 레저타운 조성	60,000	60,000	-	‘14 ~
	밀레니엄타운내 볼거리 조성 · 해양수산물문화체험관 건립	160,000	160,000	-	‘12~’ 14
	청주 상징조형물 설치	51,260	51,260	-	‘11~’ 15
충주시 (4개)	소 계	569,580	142,480	427,100	
	증원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	200,000	10,000	190,000	‘12~’ 19
	충주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조성	348,080	115,580	232,500	‘10~’ 19
	고구려 테마파크 조성	15,400	10,800	4,600	‘13~’ 20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6,100	6,100	-	‘11~’ 13
제천시 (2개)	소 계	172,557	92,257	80,300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28,252	24,952	3,300	‘12~’ 15
	청풍호중심 관광지 조성 · 수상항공 및 수상레저 사업 ·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 조성 · 녹색관광마을 및 그린케이블카	144,305	67,305	77,000	‘10~’ 15
청원군 (3개)	소 계	45,000	45,000	-	
	청남대 관광활성화	25,000	25,000	-	‘11 ~
	초정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15,500	15,500	-	‘09~’ 17
	청석굴 관광명소화	4,500	4,500	-	‘11~’ 13
보은군 (3개)	소 계	445,315	16,715	428,600	
	바이오메디컬 휴양지 조성	73,445	16,045	57,400	‘10~’ 14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	371,200	-	371,200	‘11~’ 15
	삼년산성 고분군 체험장 조성	670	670	-	‘12~’ 13

시군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계	공공	민자	
옥천군 (3개)	소 계	18,984	18,984		
	육영수기념관 건립	13,000	13,000	—	‘11~’ 14
	향수 테마·문학공원 조성 · 지용문학공원 및 테마공원 조성	4,000	4,000	—	‘13~’ 1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984	1,984	—	‘10~’ 14
영동군 (3개)	소 계	518,980	139,380	379,600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285,000	67,000	218,000	‘03~’ 14
	국악과 와인이 융합된 단지 조성 · 국악체험촌 및 와인테마타운 조성 · 비단물길 와인테마마을 조성	72,680	49,680	23,000	‘09~’ 17
	백화산 관광지 조성	161,300	22,700	138,600	‘15~’ 17
증평군 (2개)	소 계	165,558	21,100	144,458	
	증평 에듀팍특구 조성	157,558	13,100	144,458	‘09~’ 13
	율리 웰빙공원 조성	8,000	8,000	—	‘11~’ 13
진천군 (4개)	소 계	1,513,400	43,100	1,470,300	
	진천 백곡-초평호 네트워킹 구축	12,200	12,200	—	‘10~’ 13
	도농복합휴양단지 조성	1,462,800	—	1,462,800	‘10~’ 15
	종교유적지 관광자원화(진천,음성)	29,400	21,900	7,500	‘12~’ 15
	진천 종마을 조성	9,000	9,000	—	‘12~’ 14
괴산군 (3개)	소 계	217,350	57,350	160,000	
	괴산 웰빙·휴양타운 조성 · 산행유정마을 조성 · 자연치유 휴양복합단지 조성	193,150	33,150	160,000	‘12~’ 16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5,000	5,000	—	‘11~’ 14
	신흥 레포츠타운 조성	19,200	19,200	—	‘12~’
음성군 (2개)	소 계	950,000	32,200	917,800	
	음성 반기문 테마관광지 조성	50,000	32,200	17,800	‘11~’ 16
	맹동저수지 관광단지 조성	900,000	—	900,000	‘11~’ 20
단양군 (3개)	소 계	314,350	9,910	304,440	
	단양 종합리조트 조성	212,840	—	212,840	‘09~’ 13
	단양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	92,010	410	91,600	‘09~’ 15
	소백산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	9,500	9,500	—	‘12~’ 15

- 권역별 신개념 숙박시설 조성계획을 추진

<표 3-53> 권역별 숙박시설 조성계획

권역별	숙박시설 조성계획
북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주 : 세계무술공원 콘도, 호텔(32만㎡, '10~' 19) 중원휴양레저파크 펜션, 콘도(100만㎡, '12~' 19) 단양 : 단양종합리조트(21동 252실, '09~' 13)
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 : 상당산성 주변 한옥마을 조성(50동, '12~' 17) 증평 : 남하리 민속체험박물관 주변(5,267㎡) 도안면 「에듀팜특구」 가족호텔 괴산 : 칠성 송동리일원 리조트시설(50만㎡) 음성 : 맹동저수지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 청원 : 청남대 인근 리조트 조성 등 타당성 검토
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 : 신정지구(390만㎡, '07' ~ '13) 알프스 자연휴양림(14동, '06~' 13) 옥천 : 오토캠핑장(3만㎡, '14~' 16) 영동 : 늘머니과일랜드 펜션, 콘도(170만, '03~' 14)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표 3-54>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및 내용

구 분	사업명	세부내용
수 안 보 관광특구	“왕의 온천” 으로 이미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욕실 등 왕의 온천장 설치 - 온천제를 “왕의 온천” 이미지에 맞도록 추진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주변 관광상품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키키 리모델링 및 테마파크 조성 - 유희온천(낙천장, 대림호텔, 크라운호텔, 사이판호텔) 연계 개발 - 인근 농촌·산촌마을(봉화, 곤충, 약재) 연계 상품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박물관, 온천 막걸리타워 조성 - 테마 족욕체험공간 설치 - 석문동천 고향의 강 조성 및 평 상징조형물 설치
	인근 관광지 연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오개지구, 문강·돈산·양성온천 체험코스, 하늘재·월악산·조령산 등 등산코스와 연계 추진
속 리 산 관광특구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주사 템플스테이 추진(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 중·장기적으로 불교문화엑스포 개최 추진 검토
	신규 관광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 - 솔향공원 주변 스카이라이프 설치(특구 활성화사업) - 상판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속리산 도깨비활용 관광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아시아도깨비 조각 비엔날레 개최 - 속리산 도깨비 페스티벌 개최 - 콘텐츠 개발(도깨비영화, 관광상품, CI개발 등)
	인근 관광자원 연계 관광상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티재 휴양단지, 삼년산성 고분군 체험장 등 - 종합레저타운 시설인 신정지구 - 구병산관광지,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산외면 장갑리) 등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관광 추진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관광산업 부문의 선도사업을 권역별로 추진함으로써 관광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함
- 북부권에는 매포읍 현대시멘트공장 부지내에 '단양 카르스트 산업관광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단양팔경과의 연계방안을 도모함
 - 단양지역이 중부내륙권 최고의 카르스트 지대라는 특성, 현대시멘트 워크아웃후 폐 채석장부지를 친환경 골프장으로 조성사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특화시설, 녹색레포츠 및 휴양체험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테마임
- 중부권에는 오송 또는 밀레니엄타운내 '충북 바이오 테마전시관' 설립을 검토함
 - 바이오 전시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KTX 오송역개통, 바이오밸리(오송-음성-옥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산업관광 상품이 될 것임
- 남부권에는 송호리 송호관광지 주변 '영동 샤또마니 와인박물관'을 건립함
 - 영동의 대표산업인 포도, 와인산업을 금강변의 송호관광지, 난계국악타운, 양산팔경등과 연계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산업관광지로 개발함
 - 와인만들기 체험 및 시음이 가능한 와인아카데미 설치, 와인관련 용품 및 공예품 전시

3)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 도내 관광자원조사 및 발굴자원의 관광상품화
 -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 주변의 이야기 소재를 간직한 전통시설, 대물림 명인, 명소, 기관·단체별 보유한 볼거리, 자랑거리 등을 포함한 콘텐츠 중심의 관광자원 일제조사 실시
 - 발굴된 자원의 지역별 관광상품화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통합관광사이트 구축
- 관광자원별 스토리텔링화 사업 추진
 - 지역·소재별, 테마·분야별 스토리텔링 소재발굴 및 정리
 -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개최
 - 발굴된 스토리텔링의 DB화 및 시스템 구축

□ 웰빙·체험·가족형 관광상품 개발

<표 3-55> 웰빙 체험 가족형 관광상품 및 세부내용

상품명	세부내용
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 종합 산림치유·휴양·관광 밸리 조성 - 바이오치유센터, 숲속요양시설, 산림레포츠단지 등
리모밸리(Rimovalley) 조성	· 수변과 산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 수집품 박물관, 폭포(수력발전), 수상레저관광단지 등
AM7 충북투어	· 휴일 오전7시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여행하는 상품 운영 - 주관여행사 선정, 모객 및 예약, 관광상품 운영
놀토에 떠나는 체험여행	· 교과서속 내용을 주제로 학생·학부모의 체험상품 운영 - 교과서속에 등장하는 내용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학습지(논술)와 연계 체험 홍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충북문화 나들이	·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식 : 주말에 자가용을 이용한 투어 - 프로그램 : 농촌체험, 문화유적지 탐방 등
국악과 와인으로 가는 열차여행	· 흥겨운 국악과 와인을 테마로 오감만족체험상품 운영 - 국악체험전수 : 국악연주 및 국악기 제작 체험 - 와인열차 : 나만의 와인 만들기, 와인족욕 등 웰빙체험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명품길 조성	· 청주옛길, 충주호 명품길, 남별 둘레길, 증원문화길, 청풍물길 100리 탐방로, 청풍호자드락길, 대청호 둘레길, 대통령길(둘레길) 운영, 향수바람길, 향수자전거길, 과거길(패방령), 거북이별보러가는길, 천년의 신비길, 200리 선유길, 남한강 녹색길(느림보 강물길), 대청호 오백리길 등

□ 지역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관광매력도 제고

- 속리산 지역에 전승하고 있는 도깨비 관련 설화는 시대를 뛰어넘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울고 웃는 희로애락이 스며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자원이 될 수 있음
 - 도깨비 설화의 발굴 및 콘텐츠 작업, 도깨비 브랜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초기단계의 속리산 도깨비축제에 대한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장기적으로 도깨비 박물관과 민속촌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충북은 경상도와 구분지어 주는 백두대간 중심의 고갯마루 명소화 사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충북만의 친근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제공함
 -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인 한편 동남쪽으로 소백산맥, 북서로는 차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박달재와 추풍령, 말티재와 같은 여러 고갯마루가 잘 발달되어 있음
 - 고갯마루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콘텐츠화 함으로써 충북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영남사림과 대비되는 호서사림의 전통을 전승한 선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북의 고유한 정체성에 근간을 둔 교육 및 체험관광의 장을 마련함
- 충북은 선비의 고장, 충효의 지역으로서 정신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현대적 관점에서 선비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정신문화 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정신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
- 호서사림의 전통을 계승한 학문수양과 심신단련이 가능한 전통선비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성과 전통성을 살리는 한편으로 미래세대에게 바람직한 인성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대표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우수 지역축제 개발 및 중점지원
 - 현재 충북은 충주의 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만이 최우수축제와 우수축제에 지정되어 매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대표축제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무술축제에서의 택견이 차지하는 위상 미약, 난계축제에서 국악만의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현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역의 독창성에 근간을 둔 새로운 형태의 축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4) 관광지원체계 확립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 중국, 일본, 방콕으로 한정된 정기노선을 동남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국제노선의 다변화 확대방안 추진
 - 부정기노선의 적극적인 도입 및 저비용 항공사(LCC)의 동남아 국제선 모항기지로 육성
-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세기 취항 유치여행사 및 전세기 취항 모객 광고비 지원 등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노선운항지역 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의 팸투어 등을 통한 여행상품의 소개
-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확대, 항공복합산업단지내 쇼핑센터 건립 및 대규모 쇼핑몰 유치 추진 등 쇼핑시설 확충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 관광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기반이 되는 유능한 관광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트렌드에 맞는 지역관광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동체계를 활용한

‘관광개발전문가’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선에서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종사자들을 관광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와 관광, 역사와 관광, 과학기술과 관광 등의 복합적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종합적 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확대 양성되어야 함

□ 효율적인 관광홍보 방안 마련

- 지역별 문화관광테마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지역명품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개발의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콘텐츠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 도시권 주변 농촌지역은 5도 2촌의 여가문화 트렌드에 맞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명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기능과 여가로서의 기능이 복합된 관광개발 형태로 추진함

<표 3-56> 지역별 문화관광 테마

권역별	시·군별	지역별 문화관광 테마	광역권
제 천 단양권	제천시	· 의병과 선비의 고장 ·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의 월악산, 용하9곡	영주권 영월권
	단양군	· 두향과 퇴계 그리고 평강과 온달	
		· 단양8경과 충주호, 소백산과 금수산(구인사, 김삿갓)	
		· 남한강변의 역사와 문화 (불교문화, 철불 / 충주사고)	
충 주 음성권	충주시	· 탄금대와 신립 미륵리사지와 하늘재	여주권 이천권 원주권
	음성군	· 미타사, 가섭사, 화암사 (음성의 지명과 비구니사찰)	
		· 고추와 복숭아 그리고 호수와 자린고비의 고장	
		· 직지심체요절 (철당간, 진천 석장리 철기유적 연계)	
청 주 진천권	청주시	· 청주성전투 (상당산성, 부모산성, 청주읍성)	조치원권 천안권 안성권
	청원군	· 청원의 선사유적 (두루봉동굴, 소로리, 아득이유적 등)	
		· 한봉수와 손병희 그리고 단재 신채호(초정약수, 운보)	
		· 송강 정철과 김유신 (또는 농다리와 임연)	
	진천군	· 생겨진천의 보련산 보탑사 (법주사 팔상전 연계)	
		· 장내리 동학전적지 (동학전쟁 2차봉기)	
보 은 괴산권	보은군	· 대곡 성운(종곡리)과 천하8경 속리산, 삼년산성	문경권 상주권
	괴산군	· 벽초 홍명희와 단원 김홍도, 우암 송시열	
		· 화양9곡과 35명산, 선유9곡, 산막이옛길	
		· 장뜰두레놀이와 전통대장간, 인삼 주산지	
	증평군	· 전통축제(장뜰난장축제, 밀때기·콩때기축제 등) 재현	
		· 나제전쟁에서 임진란까지 (구진벼루 / 조현과 영규)	
옥 천 영동권	옥천군	· 구읍의 정지용과 옥영수생가 (보은 오장환 연계)	금산권 무주권
	영동군	· 반야사와 영국사 (세조와 공민왕)	
		· 양산팔경과 백두대간, 문향의 숲	

- 미래지향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확대
 - 소셜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되는 제3세대 미디어 환경에 맞는 다양한 SNS 관광정보의 개발이 요구되며, 관광정보 콘텐츠에 대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바일 환경변화에 따른 소비자 트렌드 및 관광형태 변화에 따라 관광마케팅 방식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에 접목하여야 함
 - 온라인상의 불완전한 관광정보에 대한 신뢰도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관광정보 인증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여행작가 및 파워블로거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관광홍보단 운영

제3절 활력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관광 현황

- 2001년 5월 농림부의 “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에서 농촌관광이 정부정책으로 제안된 이후 농촌관광은 많은 발전을 하여 초창기 도입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 농촌관광 활동이 마을단위로 농사나 전통놀이 체험, 주말농원 등에서의 농사체험이나 취미 농업 활동, 지역축제에서 향토음식물을 체험하고 농산물을 구매, 관광농원·농가민박·펜션 등에서의 숙박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농촌관광 경영형태도 마을주민의 공동경영, 관련자들이 조직한 법인 경영, 농가의 개별 경영, 외지인의 개별 경영 등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음
- 정부정책은 농촌관광의 기반이 되는 농촌 어메니티 증대 노력, 마을단위 농촌관광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 도시민에 대한 농촌관광 홍보, 농가 숙박업 지정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 관광시장의 성장률보다 농촌관광 성장률이 높아 국내 관광시장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관광 경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형 방문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2년부터 녹색관광(Green Tourism)이 정책화 되면서 도입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 우수사례사업 등 각 부처마다 다양하게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대표적인

<표 3-57> 시·군별 농촌관광관련 마을개발사업 선정 현황

시·군	아름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 을조성사업	계
충주시		· 하니마을	· 상대촌마을 · 탄방마을 · 인다락마을	· 달두루권역	· 소태북탄 · 수안보화천 · 소태덕은 · 살미재오개,	9
제천시	· 학현아름마을	· 산야초마을	· 화당마을	· 용두산권역 · 백운산권역	· 봉양옥전 · 백운덕동 · 봉양명암 · 송학오미 · 금성중전 · 한수탄지 · 덕산선고 · 백운운학 · 덕산월악 · 한수덕곡 · 금성활산	16
청원군		· 별랏한지마을	· 고드미마을 · 연꽃마을 · 말미장터마을 · 운교마을 · 오박사마을 · 미원사과마을		· 미원금관 · 남성호정 · 미원운교	10
보은군	· 구병아름마을		· 분저실마을 · 두피마을 · 신개울마을 · 하안민들레마을 · 북실마을	· 서원권역 · 하안민들레 권역 · 북실권역	· 산외신정 · 회인건천 · 산외대원	12
옥천군		· 장수테마마을	· 신촌마을 · 안터마을	· 한두레권역 · 산수화권역	· 군서금산 · 안내현리	7
영동군		· 금강모치마을	· 비단강숲마을 · 시항골마을 · 주곡마을 · 원촌마을	· 지내권역 · 가곡권역	· 봉화조동	8
증평군			· 장안마을	· 상그린권역		2
진천군		· 생거진천화 랑촌마을	· 명심마을 · 하목마을	· 백곡권역	· 백곡명암	5
괴산군		· 올갱이마을	· 원풍마을 · 사기막마을 · 세평마을	· 갈은권역 · 청천권역 · 방곡권역	· 청천상신 · 연풍신혜 · 청정사기막	10
음성군		· 어울소담마을, · 체리마을	· 당골마을	· 감곡권역		4
단양군		· 가리점마을	· 한드미마을 · 금수산감골마을 · 방곡마을	· 한드미권역 · 샘양지권역 · 삼동지권역 · 영춘권역 · 현여울권역	· 가곡어의곡 · 영춘오사	11
계	2	10	31	21	30	94

□ 문제점

- 다양한 농촌관광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관광사업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현실임

- 다양한 생태자원을 마을과 서로 연계하여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함
-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휴양 및 숙박, 이벤트 체험 등 판매상품과 연결시킨 농촌지역 특유의 특화 상품과 마케팅 방법이 부족
- 도시민의 농촌 방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함

2. 여건변화와 전망

□ 농촌관광시장 규모의 증대

- 농촌관광시장 규모는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157,500명에서 2005년 1,037,700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전통테마마을과 팜스테이마을에서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자연휴양림의 성장 동향을 통해 농촌관광의 성장 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수는 1995년 2,079,148명, 2001년 3,817,519명, 2005년 5,023,178명으로 연평균 14.2%의 높은 성장을 하고 있음

□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변화²⁾

- 전반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관광의 주된 목적이 전원감상과 자연학습 및 체험쪽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추세임
- 농촌관광이 점차 체류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 1995년에는 당일코스가 45.5%였으나 2006년에는 29.5%로 줄었고, 1박 2일은 37.4%에서 44.8%, 2박 3일은 13.5%에서 20.6%, 3박 4일 이상은 3.6%에서 5.1%로 증가하였음
- 농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형태는 호텔, 모텔, 여관 등에서 펜션 등을 포함한 민박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 1995년 호텔·모텔·여관 49.9%였으나 2005년에는 민박이 더욱 늘어나 63.5%를 차지하였음

□ 농촌관광에 관한 인식 확대

- 1996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서는 도시민들의 51.1%가 농촌관광을 인식하였으나 2006년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89.3%로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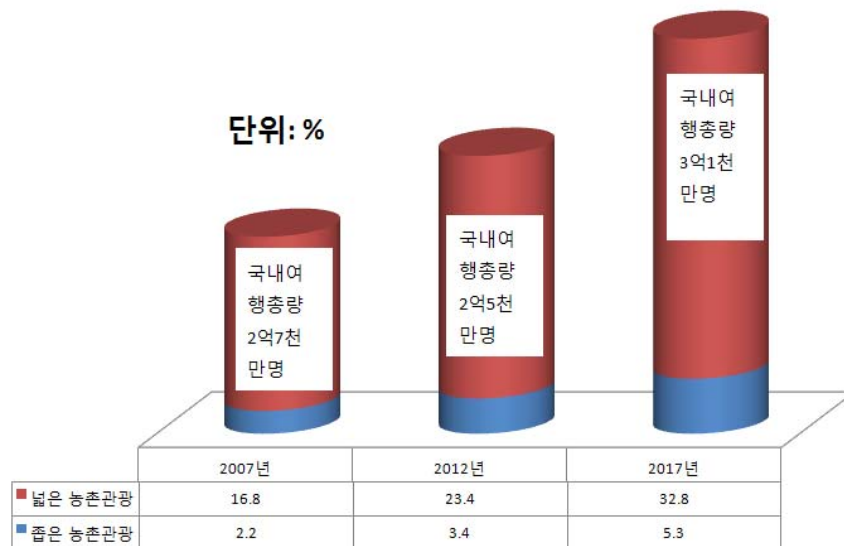
2)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71~293쪽의 내용 요약, 2007.

□ 농촌관광으로 인한 소득 증대

- 마을 공동으로 숙박 및 음식물 판매수익, 농산물판매수익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농가 단위에서도 숙박, 음식물판매, 농산물 판매 등 농외 부수입을 얻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06년 10월)를 보면 관광마을당 평균 방문객 수는 5,117명/년, 총매출액은 67,868천원/년이며 농가민박(펜션 포함)의 평균 방문객 수는 275명/년, 총매출액은 5,507천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 구성비
 - 관광마을은 농산물 판매, 민박수입, 음식물 판매 순이고, 농가민박에서는 민박수입, 농산물 판매, 음식물 판매 순임

□ 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

-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농촌 관광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림 3-15> 농촌관광 시장규모의 변화 전망

□ 농촌관광 수요의 지속적 확대

-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45,187천명으로 국내 관광 총량에서

16.8%, 2012년에는 66,702천명으로 증가해 전체에서 23.4%, 2017년에는 98,461천명으로 증가하여 국내 관광 총량에서 32.8%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좁은 의미의 농촌관광은 2007년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해당하는 5,971천명에서 2012년에는 3.4%에 해당하는 9,749천명을 늘어나며, 2017년에는 5.3%에 해당하는 15,91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촌관광 공급의 질적 변화

- 농촌관광의 기반이 되는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특산음식 등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임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더욱 세련된 형태의 미적 감각을 갖춘 농가주택이 신축되고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농어가 민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체들이 증가할 것임
 - 초등학생 연령층 대상으로 공교육 교과과정에 제시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생 체험학습 전문 농촌관광 경영체의 출현
 - 문화유산 해설사나 숲 해설가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농촌관광 경영체도 등장할 것임
 - 농어가 민박 전문농가, 향토음식 제공 전문농가, 체험활동 제공 전문농가 등이 등장 일정 지역내에서 전문농가가 상호 협력하여 농촌관광연계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한 농촌관광자원풍부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 특화된 다양한 시·군 농산물 ■ 대도시권과 근접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농촌관광상품 부족 ■ 농촌관광 투자 미약 ■ 농촌관광의 시·군 연계 부족 ■ 농촌관광 전문인력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관광자원 ■ 수도권 인접성 ■ 청정(친환경)농산물 생산 ■ 농촌관광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강원도 등 다른 시도와 경쟁 심화 ■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훼손과 농지잠식 ■ 농촌관광관련시설 낙후 ■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 가속화

3. 계획의 기본방향

- 농촌관광자원 개발
 - 농촌지역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과 고유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
 - 농촌지역의 강점요인인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해 나가도록 함
- 주민참여형의 마을자원개발 사업 전개
 - 지역중심의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조직의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농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
 - 농촌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부자본 투자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함
- 지역밀착형의 친환경 관광사업과의 연계 발전 도모
 -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관광자원과 공간적 연계를 통한 농촌자원 활용과 관광지원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함
- 농촌관광자원의 상품화
 - 농촌관광산업과 농촌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그 당위성이 인식됨에 따라 각 지방의 역사성·문화성·향토성을 반영한 고유의 농촌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함
- 농촌관광의 만족도 제고와 욕구충족
 -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관광자원 이외의 쇼핑자원이 추가되어 농촌관광상품개발은 농촌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욕구 충족과 만족스러운 농촌관광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환경보전과 도시민의 휴양 장소 제공, 도·농 교류의 촉진,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임
 - 도시 잠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공략과 농촌관광에 대한 욕구를 환기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유한 농촌관광상품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토공간의 생산적 활용 및 향토문화의 전승
 - 농촌지역 공간이용의 확대와 관광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유상품의 개발은 농촌방문객들의 기대심리에 부응하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지역공간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농촌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됨
- 가공식품 개발
 - 향토 특색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극동아의 무한한 식품시장(중국, 러시아의 유사 식문화권 및 교포 활용)을 위한 세계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수출토록 함

- 농업인 및 시설농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직접 참여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가능함
- 재배와 생산, 가공을 연계하여 식품소비화하며, 새로운 식문화를 창달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려는 정책의지가 필요함
-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
 - 지역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작물 재배와 가격을 안정화하고 지역 소규모 관광상품으로 개발

4. 세부 추진과제

□ 농촌관광 경영자의 육성

-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자의 육성
 - 자기의 책임아래 자본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개발하며 산업을 조직하는 행동양식 배양
 - 농촌관광정책 대상자를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는 도시로부터의 은퇴자,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 이들로 구성된 조직체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에 의한 농촌관광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교육대상을 농가 또는 관광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농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하여야 함

□ 우수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 숙박 서비스, 음식물 제공 서비스, 체험프로그램처럼 수요대상이 명확하고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농촌관광상품의 최소한의 수준 유지 지침 제시
 -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샤워시설, 침구류,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 등의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갖추
 - 각종 체험시설에서의 안전장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처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
- 농촌관광 상품의 표준화 작업 추진
 - 숙박 및 조리시설에 대한 표준화, 서비스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며 농촌관광 등급화의 전제 조건임

□ 농촌관광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거래비용 절감

-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하며, 낮은 비용으로 농촌관광 상품이 거래될 수 있어야 함
- 정보의 전달은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농촌관광안내책자, 인터넷 상의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여행사의 여행상품 카탈로그, 언론 홍보, 경험자의 입소문 등 다양한 매체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급자 조직이 필요함
- 원활한 정보유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 결제방식, 예약 및 환불시스템 구축

□ 자발적 소비층의 형성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소비자 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함
- 정기적인 도시민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도시민이 농촌관광에서 원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 등을 농촌경영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게 하여 자발적인 소비자 층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농산촌체험마을 육성

-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농교류기반을 확대함
- 농촌의 문화, 자연경관과 생태적 특성, 농촌 특유의 따뜻함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함

제 4 장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제1절 내륙권 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체계 구축

제2절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 · 물류 · 정보통신망 구축

제1절 내륙권 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1) 도로부문

□ 등급별 도로현황

- 충북의 도로 총연장은 2009년말 현재 6,674km이며, 등급별로는 고속도로 6개 노선 315km, 일반국도 13개 노선 959km, 지방도 49개 노선(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포함) 1,458km, 시·군도 271개 노선 3,942km임

<표 3-58> 충청북도 등급별 도로현황 총괄(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연장	포 장 도					미 포 장 도	미 개 통 도	비율(%)		
		소계	2차로 이하	4차로	6차로	8차 로			포 장 도	미 포 장 도	미 개 통 도
합 계	6,674	5,100 (100.0)	3,875 (76.0)	1,011 (19.8)	197 (3.9)	17 (0.3)	714	860	76.4	10.7	12.9
고속국도	315	315 (100.0)	-	249 (78.8)	50 (15.7)	17 (5.4)	-	-	100.0	-	-
일반국도	959	959 (100.0)	491 (51.2)	451 (47.1)	17 (1.7)	-	-	-	100.0	-	-
지 방 도	소계	1,458	1,361 (100.0)	1,242 (91.2)	106 (7.8)	14 (1.0)	63	34	93.3	4.3	2.4
	국가지원지방도	268	242 (100.0)	189 (78.0)	46 (19.0)	7 (3.0)	-	26	90.4	-	9.6
	지방도	1,190	1,119 (100.0)	1,053 (94.1)	60 (5.3)	7 (0.6)	63	9	94.0	5.3	0.7
시 군 도	소계	3,942	2,465 (100.0)	2,142 (86.9)	206 (8.3)	117 (4.8)	651	825	62.5	16.5	20.9
	시도	1,521	1,107 (100.0)	800 (72.3)	190 (17.1)	117 (10.6)	7	407	72.8	0.5	26.7
	군도	2,421	1,358 (100.0)	1,342 (98.8)	16 (1.2)	-	644	419	56.1	26.6	17.3

자료 : 충청북도, 『도로현황조사』, 2010.

- 전체적으로 2차로와 4차로가 95%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6차로 이상

도로는 고속국도를 제외하고 극히 낮은 비율을 보여, 도로의 간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국도가 고속도로와 지방도에 비해 전국대비 비율이 낮은 수준인데 이로 인한 내부교통체계 미흡과 지역간 접근성 불량으로 인해 지역 연결성을 저해시키고 있음
- 지역을 관통하는 13개 국도 중 지역내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4차로의 국도 17, 19, 36호선이 충북지역의 주요한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들은 2차로가 많아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간선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움

□ 도로연장 증가추이

- 도로연장 추이를 보면 연평균 0.5%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1.28%보다 낮게 나타남
- 도로별로는 고속도로가 6.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군도가 0.39%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각각 0.11%, 0.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

<표 3-59> 충청북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 km)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 09)
충 청 북 도	합계	6,497	6,542	6,566	6,608	6,694	6,748	6,674	0.45%
	고속도로	220	256	257	257	301	315	315	6.17%
	국도	965	968	968	965	963	959	959	-0.11%
	지방도	1,460	1,460	1,460	1,459	1,459	1,457	1,458	-0.02%
	시·군·도	3,852	3,857	3,881	3,927	3,972	4,017	3,942	0.39%
전국		97,253	100,278	102,293	102,061	103,019	104,236	104,983	1.28%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현황조사』, 각 년도.

□ 자동차 보유대수

- 2009년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91.5천대로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17,325.2천대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자동차 증가추이는 2003년 477.5천대에서 2009년 591.5천대로 연평균 3.6%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승용차의 경우는 2003년에 313.0천대에서 2009년에 418.9천대로 연평균 5.0%의 증

가를 나타내어 승용차가 자동차의 증가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자가용의 증가율에 비해 도로연장의 증가는 0.45%에 불과하여 교통시설의 공급이 수요증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표 3-60> 자동차의 증가추이

(단위 : 천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 ~ '09)
합계	477.5	492.1	510.5	531.7	553.4	569.5	591.5	3.6%
충 청 북 도	승용차	313.0	325.6	344.7	363.7	382.2	418.9	5.0%
	승합차	41.8	41.0	38.2	37.9	38.4	38.5	-1.4%
	화물차	120.6	123.2	125.4	127.8	130.5	131.8	1.5%
	특수차	2.1	2.2	2.3	2.3	2.3	2.3	1.5%
전 국	합계	14,586.8	14,934.1	15,396.7	15,895.2	16,428.2	16,794.2	2.9%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 년도.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2) 철도부문

- 충북의 철도망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포함하여, 지역의 서부에 위치한 경부선과 북동부에 위치한 중앙선에 의해 타지역과 연결되고 있으며, 지역내 철도망으로는 충북선이 충북을 동서로 가로질러 경부선, 중앙선 및 태백선을 각각 연결하고 있음
- 충북선(조치원~봉양간) 115km의 기존 복선구간에 대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고속화를 추진할 계획임
- 경부선 부강역~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선 2.75km를 2010년 1월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2010년 11월 고속철도 오송역을 개통하여 경부선 40회, 호남선 8회 등 1일 총 48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오송역 접근교통체계 미비 및 충북선을 포함한 기존 철도와의 연계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표 3-61> 충북선 선로용량 및 운행현황(2009년)

구간	선로 용량	여객					화물			합계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소계	컨테이너	화물	소계	
조치원-오송	56	-	-	8	-	8	2	12	14	22
오송-음성	132	-	-	9	-	9	2	31	33	42
음성-봉양	135	-	-	9	-	9	2	32	34	43

자료 : 철도시설공단, 『철도통계연보』, 2010.

3) 공항부문

□ 운항노선

-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청주공항 1개소이며, 국내선은 청주~제주간 1일 12회, 국제선은 청주~북경간 주2회, 청주~상해간 주 9회, 청주~홍콩간 주 6회, 청주~심양간 주 1회임
- 공항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수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에는 크게 미약한 실정으로 향후 국제노선시설 및 국제규모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요구됨

□ 주요시설 현황

- 청주국제공항의 총 부지면적은 190.9만㎡(군부대 포함시 673.9만㎡)으로써 전국 16개 공항 중 4번째 규모이며, 활주로는 2개로 구성되어 있음

<표 3-62> 청주공항 시설현황 및 수용능력

구분		국내선	국제선
시설 현황	소재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산5-1	
	부지(㎡)	1,909,645(군부대포함시 6,739,778)	
	활주로(m)	2,744×60, 2,744×45	
	계류장(㎡)	91,173	
	여객터미널(㎡)	22,406	
		8,000	14,406
	주차장(㎡)	41,978	
	화물터미널(㎡)	2,257	
1,667		590	
항행안전시설		24R : ILS(CAT-I)	
수용 능력	운항횟수(회/년)	140,000	
	동시주기(대)	11	
	여 객(만명/년)	315	
		189	126
	동시주차(대)	1,298	
	화물(만톤/년)	3.8	
		3.3	0.5
	운항항공기	B737,Q400	
최저착륙시정	800m		

자료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수는 2003년 761천명에서 2009년 1,024천명으로 평균 5.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화물수송실적의 경우 국내선은 2003년 20,848톤, 2009년 10,217톤으로 연평균 11.4%의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2003년 2,172톤에서 2004년 3,075톤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389톤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주공항의 화물수송은 수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화물물동량은 거의 없는 실정임

〈표 3-63〉 청주공항 수송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03 ~ 09)
국 내 선	여객 (천명)	도착	345	376	381	434	439	463	498	6.3%
		출발	341	368	375	432	432	454	494	6.3%
		계	687	744	756	866	872	917	991	6.3%
	화물 (톤)	도착	10,101	9,109	6,673	6,462	6,188	5,889	6,134	-8.0%
		출발	10,747	9,111	5,479	5,679	5,607	4,792	4,083	-14.9%
		계	20,848	18,220	12,151	12,142	11,795	10,681	10,217	-11.2%
국 제 선	여객 (천명)	도착	37	37	49	67	80	63	16	-12.8%
		출발	37	40	52	67	81	63	16	-13.3%
		계	74	77	101	134	161	126	32	-13.0%
	화물 (톤)	도착	476	442	617	924	957	703	180	-15.0%
		출발	1,697	2,633	773	749	764	617	209	-29.4%
		계	2,172	3,075	1,390	1,673	1,721	1,320	389	-24.9%
합 계	여객 (천명)	도착	382	413	430	501	520	525	514	5.1%
		출발	379	408	427	499	513	517	509	5.1%
		계	761	821	857	1,000	1,032	1,043	1,024	5.1%
	화물 (톤)	도착	10,577	9,551	7,290	7,386	7,145	6,592	6,314	-8.2%
		출발	12,443	11,744	6,251	6,428	6,371	5,408	4,292	-16.3%
		계	23,020	21,295	13,542	13,814	13,516	12,001	10,606	-12.1%

자료 : 한국공항공사 내부자료

4) 물류부문

□ 충북물류산업

- 충북물류산업은 규모면에서 볼 때, 타지역이 GRDP 대비 물류산업 비중이 6~7% 정도임에 비해서 2~3%로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1/3정도(약 8천억원/년)가 타지역의 물류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임
- 충북의 경우 물류비가 지역총생산액(GRDP)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전체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인 15.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6%로 국가물류비의 수송비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물류경쟁력이 저하됨

□ 충북물류업체

- 현재 충북물류산업의 구성은 화물운송업과 창고업이 대부분이며, 제3자 물류업(3PL, 3rd Party Logistics)이나 물류정보시스템업, 물류컨설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는 전무한 실정임

□ 충북물류네트워크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09.10)에 따르면 충북을 청주권, 음성권, 충주권으로 구분하고, 청주권(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음성권(음성, 진천, 괴산, 증평)은 음성물류단지, 충주권(충주, 제천, 단양)은 제천물류단지로 구분하고 있음
- 충북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의 물류거점계획 부재에 따른 남부권과 청주권과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충북에는 고속철도 분기역, 청주공항 등 광역교통거점이 존재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의 거점인 청주·청원 지역과 음성·충주, 남부권을 연결할 수 있는 고속교통망 부재에 따른 물류거점간 연계성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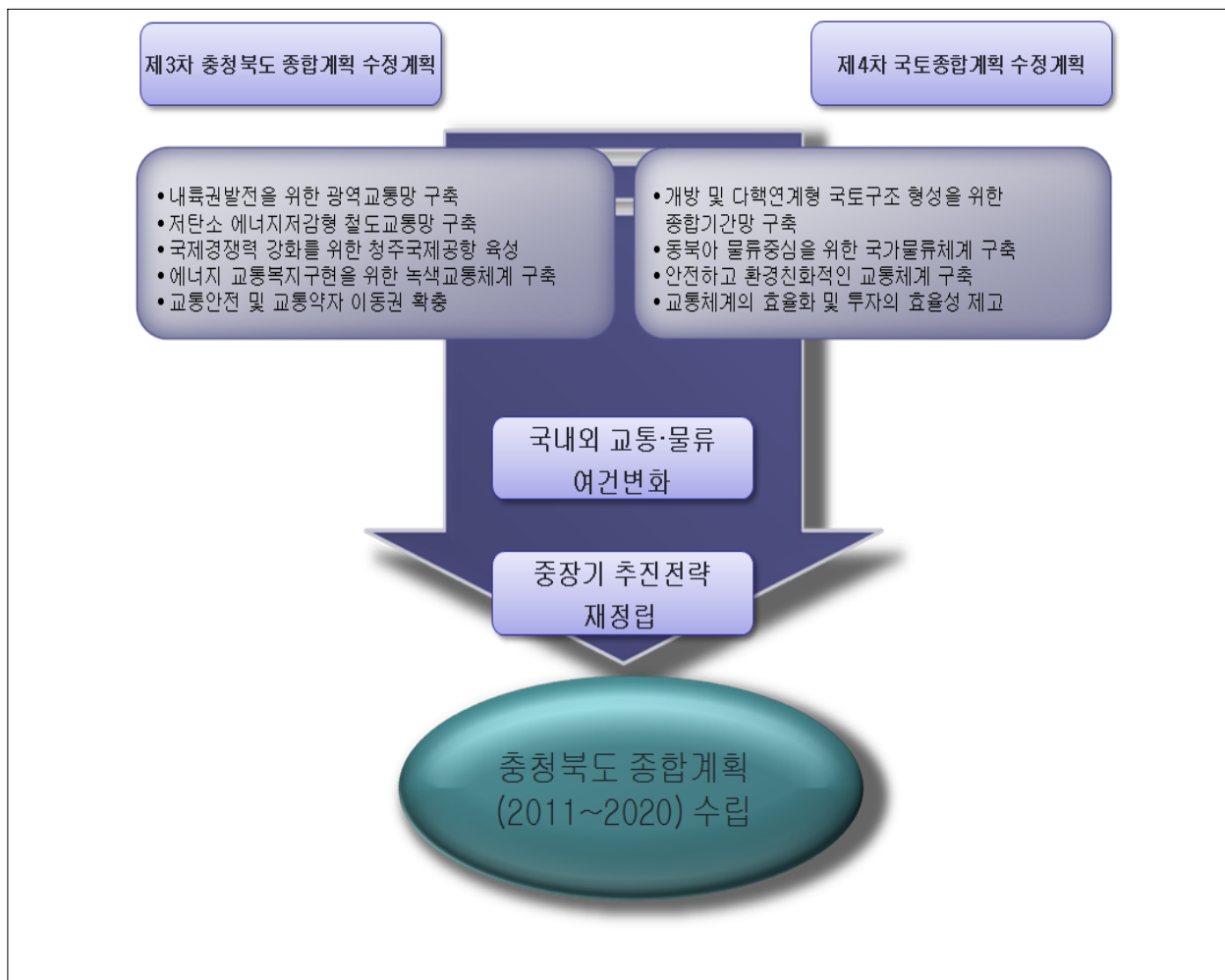
2. 여건변화와 전망

- 국민소득의 증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자동차 가격, 경제규모의 확대와 여가시간의 증대 및 자동차산업의 수요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설될 세종시 등의 영향과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이전하게 될 교통수요 등에 따라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가 교통수요 폭발의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충북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9”에서 제시한 장래 자동차 보유대수와 2010년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과의 오차를 보정하여 본 계획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장래인구는 본 계획에서 예측한 인구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도로포장률은 시·군도의 경우 장래 포장계획이 불분명하여 도로포장률 산정에서는 제외하였으며, 2010년 현재 지방도의 미포장도와 미개통도가 2020년에 100% 포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하였음
- 도로 등급별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및 국도의 경우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9”에서 제시한 도로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산정하였으며, 지방도의 경우 2009년 현재 미포장도와 미개통도를 포함한 전체 연장 1,458.4km를 2020년에 100% 포장율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수치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선교통망의 결절지 ■ 국·내외 교통접근성 용이 ■ 풍부한 물류인프라 조성 ■ 지자체의 지역산업 육성지지 높음 ■ 첨단산업분야 선점 정책추진 : BINT 충북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거점 기능의 취약 ■ 수위도시 부재에 따른 중추거점기능 미비 ■ 물류산업구조 극히 취약 ■ 관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 ■ 도시구조와 정보망간 부조화 ■ 상대적 도세의 열위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선용 지대로서의 충북 ■ 오송, 오창 신산업단지 조성 ■ 세종시 건설 ■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 정보화시대 도래로 인한 전자정부 구현 ■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요와 시설의 불일치 ■ 교통사고 다발지역 ■ 인접지자체와의 전략산업 중복 ■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심화 ■ 도농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의 잔존 ■ 인터넷 등 이용자 수준의 상대적 열위

3. 계획의 기본방향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8~2020)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정책기조에 근거하여 교통물류 부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국내외 교통물류부문 여건변화에 따른 추진전략을 재정립
 - 국가 교통정책기조 변화에 능동적 대처(도로중심 → 철도중심)
 - 녹색교통(철도, 자전거 등)에 부합하는 추진전략 수립
 - 교통물류 부문 추진실적 및 녹색교통 정책기조에 기초한 계획지표 재수정



<그림 3-16> 교통부문 기본방향

4. 세부 추진과제

1) 내륙권발전과 연계한 통합교통망 체계 구축

- 내륙권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저탄소 에너지저감형 철도교통망 구축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성
- 에너지 교통복지구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가. 내륙권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고속도로

- 세종시 건설로 인한 호남권과 청주·대전권 그리고 강원권 등 전국과의 연결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교통망을 구축함
-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시설의 기능 확대를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표 3-64> 고속도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기간 (년)	사업비 (억원)	주요 경유지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54,510	■ 청주~충주~원주(제천)~평창(삼척)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21,700	■ 증평~미원~보은~영동~무주
제3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0	13,800	■ 미원~괴산~단양
평택-제천간고속도로	2006~2020	9,623	■ 안성~(음성~충주~제천)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	2002~2020	8,000	■ 호법~남이
증평~회인간 고속도로	2020	8,500	■ 증평~내수~낭성~회인
동서5축 고속도로	2008~2012	67,246	■ 당진~(천안~오창)~문경~영주~울진
청원~공주간 고속도로	2008~2015	54,050	■ 청원~공주
동서6축 고속도로 지선 신설	2020	13,947	■ 세종시~(청원)~문경

□ 국도

- 충북의 주 개발축인 국도 36호선 및 국도 1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국도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추진으로 국도기능 회복 및 도내 권역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국가 주요시설의 기능확대를 위한 연계 교통망을 확충함
- 충북 내륙 관광활성화를 위한 내륙관광순환도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표 3-65> 국도 사업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고속도로 연결 지역도로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주~주덕(국도3호선), 7.3km, 6차로 - 음성~괴산(국도37호선), 8.5km, 4차로 - 용두~금가(국도21호선), 10.8km, 4차로 - 괴산~연풍1(국도34호선), 9.7km, 4차로 ■ 중앙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가곡(국도59호선), 6.8km, 4차로 - 단양IC~대강(국도5호선), 6.6km, 4차로 ■ 경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추풍령1(국도4호선), 10km, 4차로 - 영동~추풍령2(국도4호선), 9.2km, 4차로 - 진천~두교리(국도17호선), 9.4km, 4차로 - 마전~은행(국도37호선), 5.5km, 4차로 - 은행~옥천(국도37호선), 6.1km, 4차로 ■ 중부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IC~금왕1(국도21호선), 11km, 4차로 - 진천IC~금왕2(국도21호선), 9.9km, 4차로 - 진천~증평1(국도34호선), 7.14km, 4차로 - 진천~증평2(국도34호선), 11.2km, 4차로 - 북일~남일(1,2)(국도25호선), 12.6km, 4차로 - 북일~남일1-1(국도36호선), 1.4km, 4차로 - 오동~구성(국도36호선), 4km, 4차로 ■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 귀례~목계(국도19호선), 10km, 4차로
순환격자망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청산(국도19호선), 9.1km, 3차로 확포장 ■ 청원~괴산(국도19호선), 24.6km, 3차로 확포장 ■ 탄부~보은(국도25호선), 10.8km, 3차로 확포장 ■ 충주~단양(국도36호선), 40.4km, 3차로 확포장 ■ 학산~용산(국도19호선), 33.9km, 4차로 확포장 ■ 보은~청원(국도19호선), 19km, 4차로 확포장 ■ 괴산~충주(국도19호선), 20km, 4차로 확포장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청주 연결도로(국도36호선), 6.5km, 폭 21m ■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국도36호선), 3km, 폭 21m
국도대체 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북면(국도,17,25,36호선), 11.4km, 4차로 ■ 휴암~오동(국도17,25,36호선), 13.3km, 4차로

□ 지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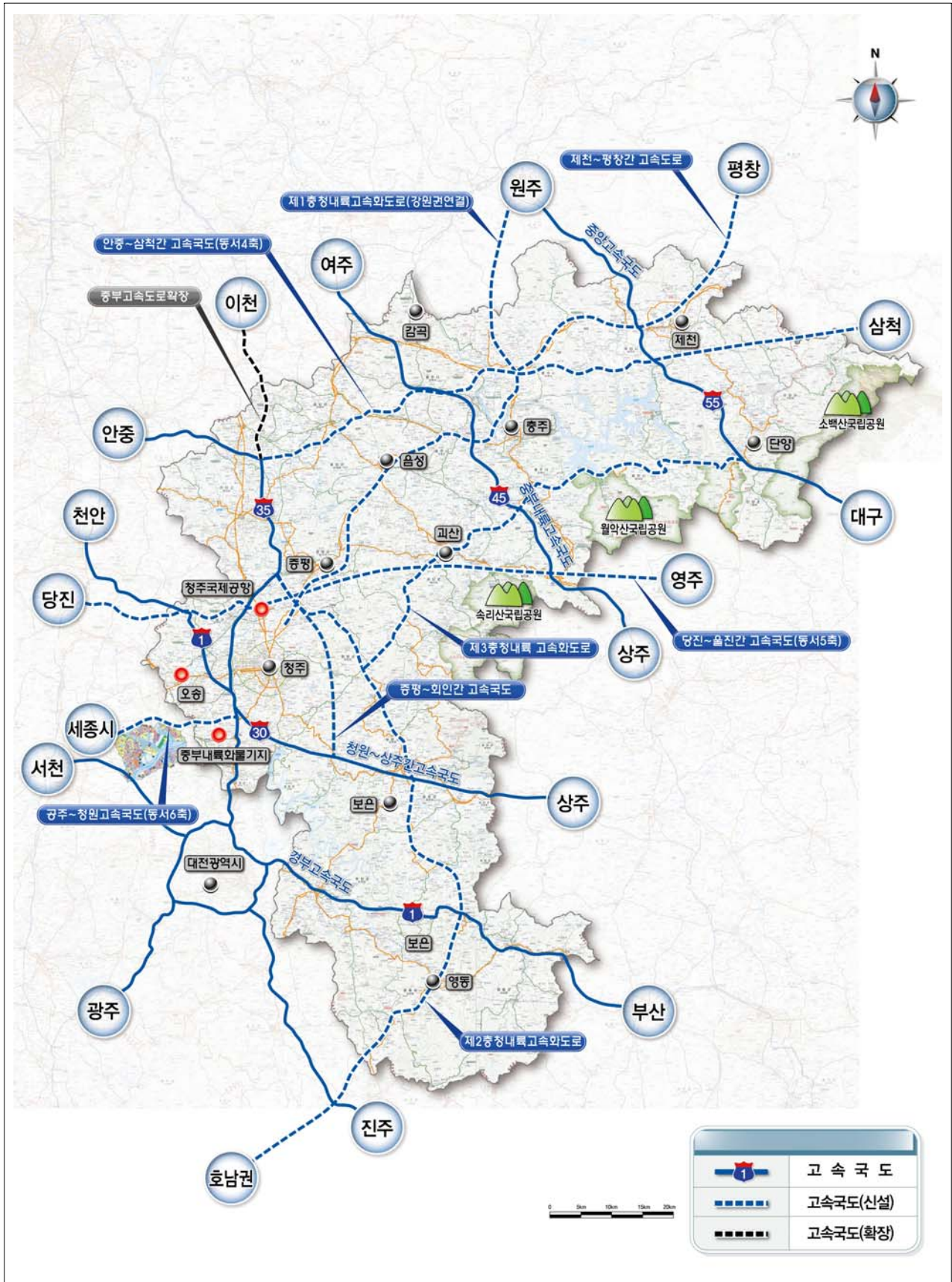
-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송역 등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도로 개선 및 오송·오창과학단지, 고속철도 오송역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함
- 도로 위계간 연계성 확충 및 주요 지방도 확포장 사업 추진으로 도로간 원활한 통행과 기존의 교통체증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표 3-66> 지방도 사업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세종시 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지방도506,596호선), 11.8km, 폭 14m ■ 청주 연결도로, 11.8km, 폭 14m
순환격자망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창~미원(지방도511호선), 26.5km, 4차로 확포장 ■ 청산~탄부(지방도505호선), 13.1km, 3차로 확포장
주요 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신니IC(지방도318호선), 8.8km, 4차로 ■ 장야~매화(지방도501호선), 1.7km, 4차로 ■ 속리산연계도로(지방도505호선), 1.0km, 4차로 ■ 탑연~다락(지방도507호선), 1.6km, 4차로 ■ 다락~태성(지방도507호선), 2.5km, 4차로 ■ 증평~도안(지방도510호선), 1.5km, 4차로 ■ 문강~수희(지방도510호선), 2.2km, 2차로 ■ 송정~평촌(지방도510호선), 1.3km, 2차로 ■ 영하~우산(지방도511호선), 1.0km, 4차로 ■ 석화~조정(지방도511호선), 1.3km, 4차로 ■ 산성~무성(지방도512호선), 2.5km, 4차로 ■ 관정~이목(지방도512호선), 2.6km, 4차로 ■ 장암~지경(지방도515호선), 2.3km, 2차로 ■ 대소~삼성(지방도515호선), 5.7km, 4차로 ■ 방곡~울산(지방도532호선), 4.8km, 2차로 ■ 양저~지수(지방도575호선), 4.7km, 2차로 ■ 금왕~내송(지방도583호선), 1.5km, 4차로 ■ 오송역사진입로(지방도591호선), 0.44km, 6차로 ■ 부강철도교(지방도591호선), 0.5km, 2~4차로 ■ 증평~용강(지방도592호선), 1.2km, 4차로 ■ 용강~청안(지방도510,596호선), 2.4km, 4차로 ■ 성산~두릉(지방도510,596호선), 6.3km, 4차로

<계속>

사업명	사업내용
주요 국가지원지방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일~문의(국지도32호선), 6.8km, 4차로 ■ 문의~대전(국지도32호선), 9.6km, 4차로 ■ 신니~화석(국지도49호선), 2.3km, 2차로 ■ 화석~문성(국지도50호선), 2.5km, 2차로 ■ 문성~노은(국지도51호선), 1.5km, 2차로 ■ 가금~칠금(국지도82호선), 6.9km, 2~4차로 ■ 연금리조트~청풍대교(국지도82호선), 1.9km, 4차로 ■ 북충주IC~가금(국지도82호선), 5.0km, 4차로 ■ 청풍대교(국지도82호선), 1.5km, 2차로
용량부족구간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동이(지방도501호선), 7.4km, 4차로 확포장 ■ 강외~옥산(지방도508호선), 7.7km, 4차로 확포장 ■ 성산~장대(지방도510호선), 4.7km, 4차로 확포장 ■ 낭성~이목(지방도512호선), 4.4km, 4차로 확포장 ■ 덕정~내곡(지방도515호선), 4.34km, 4차로 확포장 ■ 내수~증평(지방도540호선), 7.0km, 4차로 확포장 ■ 이월~덕산(지방도587호선), 5.8km, 4차로 확포장 ■ 현도~강외(지방도591호선), 10.2km, 4차로 확포장 ■ 강내~홍덕(지방도594호선), 7.9km, 4차로 확포장 ■ 홍덕~오창(지방도596호선), 11.9km, 4차로 확포장
미개통구간 정비대상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저~은운(지방도502호선), 5.7km, 2차로 확포장 ■ 소매~소암(지방도510호선), 2.6km, 2차로 확포장 ■ 설운~내사(지방도531호선), 1.4km, 2차로 확포장 ■ 목별~재오개(지방도531호선), 4.5km, 2차로 확포장 ■ 지동~부산(지방도532호선), 11.1km, 2차로 확포장 ■ 단성~덕산(지방도534호선), 3.5km, 2차로 확포장 ■ 미륵~포암(지방도597호선), 1.5km, 2차로 확포장



<그림 3-17> 2020년 충청북도 고속도로망 계획

나. 저탄소 에너지저감형 철도교통망 구축

□ 오송역을 거점으로 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중부내륙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서간의 연결성 강화와 세종시 접근성 제고를 위한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오송~충주~원주~강원영북권(춘천~북한연결철도~대륙횡단철도와 연계)
- 오송역 건설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서울기점 120km)
 - 충북선을 확장하여 신호장 신설, 목포 및 부산방면 환승계획, 향후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에서 분기하여 충북선과 직결 연결
- ※ 충청권에 건설중인 세종시 등 대·내외적인 상황변화 요인을 반영, 충북도 차원의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교통망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호남고속철도 건설(오송~목포)

<표 3-67> 호남고속철도 사업 및 내용

사업명	사업구간	총사업비(억원)	연장(km)	사업기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121,016	230.9	~2014
	광주~목포			~2017

- 제2 경부축 구상실현을 위한 철도망 신설
 - 경부고속선 2복선 전철화(평택~오송) : 47.5km

□ 중앙선과 태백선 전철화 추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화물수송증가에 대비하여 중앙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강원권 태백까지도 개발효과의 북부권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하여 태백선 복선전철화사업도 동기간내 추진

<표 3-68> 중앙선과 태백선 전철화 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연장(km)	사업기간
중앙선	■ 제천~도담(복선전철화)	17.4km	2001~2011
	■ 원주~제천(복선전철화)	37.7km	2003~2018
	■ 도담~영천(복선전철화)	150km	2010~2019
태백선	■ 제천~쌍용(복선전철화)	13.9km	2002~2011
	■ 쌍용~백산(복선전철화)	69.9km(충북:14.4km)	2011~2015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세종시 및 혁신도시 접근성 개선 연계교통망 확충

-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국가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철도망 개선을 통하여 ‘신국토중심성’ 강화

<표 3-69> 세종시 및 혁신도시 연계교통망 확충 사업

구분	사업명	연장(km)	주요 경유지
세종시 연계교통망 확충	■ 충청권철도	106.9km	■ 논산~청주공항
	■ 충북선 고속화	115.0km	■ 조치원~봉양
	■ 중부내륙관광철도	78.7km	■ 세종시~청원~보은~상주
	■ 조치원~보령철도 조기 연결	88.6km	■ 조치원~세종시~공주~보령
혁신도시 국가 철도망 구축	■ 중부선(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단선전철	88.3km	■ 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단선철도	56.7km	■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 철도망 계획중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내륙권발전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 낙후지역 철도건설을 통한 내륙권발전 촉진을 위해 중부내륙선 신설로 수도권과 경북권과의 연결성 강화, 수도권 및 충남권역의 국내외 관광객의 항공 접근성 개선

<표 3-70> 내륙권발전을 위한 교통망 사업

사업명	연장(km)	주요 경유지
■ 중부내륙선(천안~괴산~문경)	100.1km	■ 천안~괴산~문경
■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95.8km	■ 이천~충주~문경
■ 동서화합 산악철도	104.9km	■ 영동~무주~남원
■ 충북선과 중앙선 연결 철도	-	■ 충주~원주~춘천, 강릉

※ 철도망 계획중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 수도권과 충청 서해안권 주민들의 청주국제공항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철도 접근성 제고

<표 3-71>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연장(km)
천안~청주공항선	■ 천안~청주공항까지 수도권전철 연장	54.1km
본선역 수준의 공항역 확충	■ 충북선 고속화에 대비하고 국가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등과 연계하여 공항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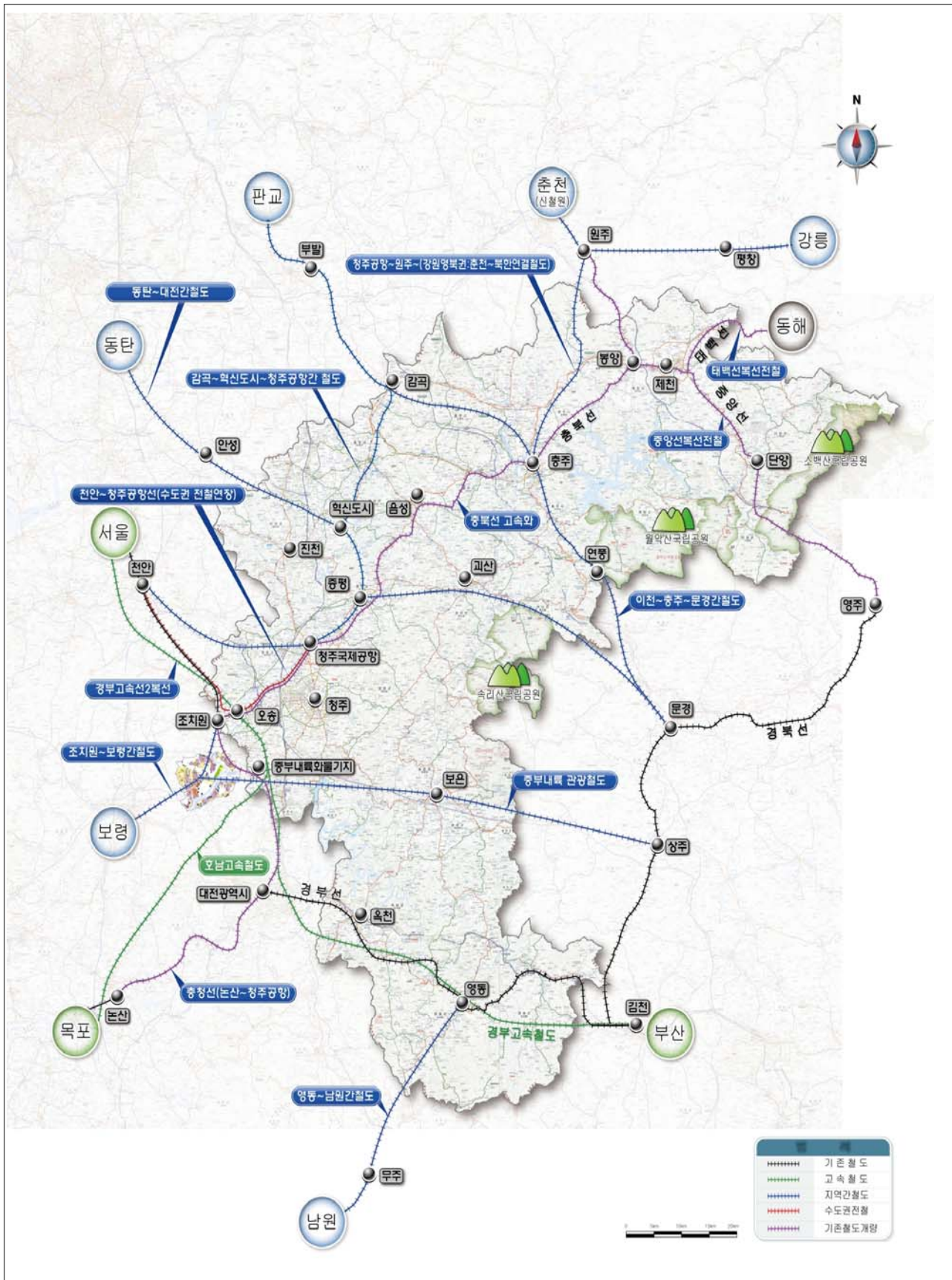
□ 고속철도 오송역 접근성제고를 위한 연계철도 건설

-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이후 접근교통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정시성을 갖춘 철도건설을 통한 오송역 활성화 기대

<표 3-72> 오송역 접근성을 위한 연계철도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운영시기
충북선~청주버스터미널	5.58km	2017년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그림 3-18> 2020년 충청북도 철도망 계획

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성

□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 세종시의 완공 등 2020년까지 중부권 거점공항 및 세종시 관문공항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 확충

<표 3-73>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사업

사업내용	현재	확장·신설	합계
유도로신설	—	2개소	2개소
화물청사 증축	2,257㎡	20,000㎡	22,257㎡
활주로확장	2,744m	3,600m	3,600m

※ 활주로 확장계획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

※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항공수요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 국제노선 확충

- 일본·동남아 등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정립
-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서 국제화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충청연합투어를 통해 다변화된 중국특화노선을 개발
- 충청권 3도 공동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노선개설

<표 3-74> 신규 국제노선 개설 사업

사업규모	사업내용
일본, 동남아 신규 노선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동남아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타킷 노선 선정 ■ 민관 합동 추진지원단과 함께 중앙정부, 국내외 항공사 등을 방문 유치활동

□ 청주국제공항 저가항공사(LCC) 허브화

- 세종시 국제화기능 수행, 동북아 물류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저가항공사(LCC)를 유치하여 저가항공사 베이스 공항으로 육성

<표 3-75> 청주국제공항 저가항공사 허브화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저비용 항공사 (LC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항공사의 홈베이스 청주 이전 또는 제2베이스 구축 유도 ■ 신생항공사 지원으로 청주 홈베이스 유치 ■ 외국항공사의 운항 자유화 : 청주 홈베이스시 운수권과 호혜적 교환 ■ 항공사별 마케팅(공항공사 청주시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추진)
화물운송 지원책 강화와 민간항공전용 공항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첨단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 수송에 따른 지원대책 모색 ■ 장기적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여 민간항공 전용공항으로 육성

□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 근동 항공노선 개설을 통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특송업체 유치를 통해 물류집산기능 역할 확대

<표 3-76> 특송업체 거점 기지화 대상업체

대상업체	지역별
「에어본」 등 20개 지역별 전문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시장 : 온라인카고서비스(OCS) ■ 중국시장 : 스카이킹, ACI 등

□ 국제항공화물 수요확보방안 강구

- 천안, 아산, 오송, 오창 등 경박단소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단지 및 중부권내륙화물기지 등과 연계 항공화물 수요창출
- 중부권 수출화물주선업체의 화물작업장 및 사무실의 공항내 또는 주변지역 마련

□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 활성화 및 홍보방안

-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추진협의회 및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활동 및 추진실적 제고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강화
- 충청권 3개 시·도 공조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 및 공동홍보 방안

<표 3-77> 청주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청주국제공항CI제작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품위 CI 제작
「아시아 문화존」 선언	■ 각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상해-청주-후쿠오카-방콕을 잇는 가칭 「아시아 문화존(Asia Cultural Zone : ACZ Line)」 선언
기타	■ 국내외 주요 지역에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대형 입간판 설치 ■ 취항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한국관광광사와 연계한 전세기 취항 공동 프로모션

라. 에너지 교통복지구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BRT(Bus Rapid Transit)건설

- 청주권내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BRT의 도입을 검토하고 고속철도 및 충북선과의 연계된 노선구상과 세종시, 증평 및 대전과의 연계성 모색
-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 전철노선(수도권~충주·문경 연장)의 장기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신교통수단의 도입계획을 마련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과 연계교통망 구축

<표 3-78> BRT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운영시기
세종시~오송역		11.2km	2012년
오송역~청주공항		11.8km	2020년
오송역~충주시	충북도청~청주버스터미널	5.2km	1단계
	청주버스터미널~제3순환도로	3.7km	2단계
	제3순환도로~오송역	7.5km	3단계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건설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청풍호 및 단양군 양방산 모노레일 건설을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표 3-79> 신교통수단 건설 사업

사업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청풍호 모노레일	12.0km	1,200
양방산 모노레일	2.5km	160

□ 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설

- 고속철도 오송역 등 연계환승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연결하여 Hub & Spokes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설
-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
- 1차적으로 KTX오송역은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여건성숙시 청주공항역을 추가 지정토록 함
-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충주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토록 함

<표 3-80> 복합환승센터 건설 권역 및 대상시설

권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대상시설
청주권	KTX 오송역, 충북선 청주공항역, 청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충주권	중부내륙선(여주~문경) 충주역

□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간 연계가 용이하도록 지원체제 확립
 - 버스, 전철 등에 자전거 동반승차를 위한 탑재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유도
-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
 - 도시내 자전거 급행도로 설치를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위하여 철도역 및 버스정류소 연계를 통한 자전거도로망 구축

<표 3-81>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오송~청주~오창~증평(전국10대 자전거 거점도시) ■ 2단계 : 증평~음성~충주 	2011~2014

□ 보행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적극 참여
 - 도시내 쇼핑물 등의 일정구역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의 네트워크화 추진
- 우측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개선
 - 철도·공항·여객터미널 등 공공시설의 시설개선
 - 우측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강화

마.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

- 세종시 건설 등 향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정보체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

<표 3-82> 종합적인 교통체계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 통행수요관리(TDM) 및 교통체계관리(TSM) 체계 도입 - 도로흐름 방해 요인 제거, 교통수단의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국가경쟁력위원회) 확대시행
교통정보체계 구축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 추진 -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교통관리(신호제어 등), 교통상황 정보제공 및 경로안내,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상용차량 운영관리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 전담반 구성	· 충청북도, 각 시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공단 청주지사, 충북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교통투자 및 안전사업을 위한 전담반 구성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 정비·확충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표 3-83>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까지 저상버스 104대, 특별교통수단 76대 도입계획 2010년 현재 저상버스 67대, 특별교통수단 61대 도입되어 운영 중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교통약자의 현황, 이동실태 등을 조사 저상버스 표준모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용 운전 장치 등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마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저상버스 도입) 등을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

□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표 3-84>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구분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도로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충주-원주(강원영북권)」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천-평창(강원영동권)」 간 고속도로 「증평-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미원-단양」 간 제3충청내륙고속화도로 「증평-회인」 간 고속도로 「천안-오창~울진」 간 동서5축 고속도로 「공주-청원」 간 동서6축 고속도로 「세종시-청원-문경」 간 동서6축 지선고속도로 「안중-(음성-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호법-남이」 간 고속도로 확장
	일반국도 정비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 연결 국도 확충(19개 구간) 순환격자망 내륙관광순환도로 조성(7개 구간) 세종시 연결도로 신설(2개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충(2개 구간)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연결도로(2개 구간) 순환격자망 정비(2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9개 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22개 구간) 용량부족구간 정비(10개 구간) 미개통구간 정비(7개 구간)
철도	고속철도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송-원주(강원영북권 : 춘천-북한연결철도) 경부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고속선 2복선 전철화(평택~오송) 동탄~대전간 철도건설(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구분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중앙선 및 태백선 전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3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도담(복선전철화) - 원주-제천(복선전철화) - 도담-영천(복선전철화) ■ 태백선(2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쌍용(복선전철화) - 쌍용-백산(복선전철화)
	주요 국가시설 연결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연결철도(4개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 철도, 충북선 고속화, 중부내륙관광철도 - 조치원-보령철도 조기 연결 ■ 혁신도시 연결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선(동탄-안성-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단선철도 - 중부선(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 단선철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철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선(천안-괴산-문경) ■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 동서화합 산악철도(영동-남원) ■ 충북선과 중앙선 연결 철도
	청주국제공항 연결철도망	■ 청주공항-천안간 수도권 전철연결
	오송역 연계철도	■ 충북선-청주버스터미널간 철도 연계
항공	공항시설 확충	■ 화물청사, 활주로 등
	국제노선 확충	■ 일본, 동남아 등 근동 항공노선 등
	저가항공사 허브화	■ 저운임 항공사 유치, 저가 항공사 활성화
	특송업체 거점 유치	■ 중소 특송업체 대상 유치
녹색 교통 체계	BRT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오송단지 ■ 오송단지-청주(공항) ■ 오송역~청주시
	모노레일 건설	■ 청풍호 모노레일, 양방산 모노레일
	복합환승센터 건설	■ 고속철도 오송역, 충북선 청주공항역, 청주시외 · 고속버스터미널, 충주역
	청풍명월 Bike-Network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오송~청주~오창~증평 ■ 2단계 : 증평~음성~충주
	보행중심의 생활 녹색교통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적극 참여 ■ 우측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안전 종합대책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DM 및 TSM 구축 ■ 교통정보체계 구축 ■ 종합교통체계 종합 전담반 구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확대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수요 등을 검토하여 사업구간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향후 국가기간 교통망계획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2)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가.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 동북아 물류전담 공항 육성

-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확장 및 항공기정비센터(MRO)를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주공항을 동북아의 물류전담공항으로 특화

□ 물류유통 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K자형 물류벨트 구축

- 충북지역 2010년 12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보은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2개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01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및 계획 중에 있음

<표 3-85> 충북지역 산업단지 운영 및 계획

구분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합계
조성완료	2	16	—	38	56
조 성 중	1	14	1	4	20
미 착 수	—	21	—	4	25
합 계	3	51	1	46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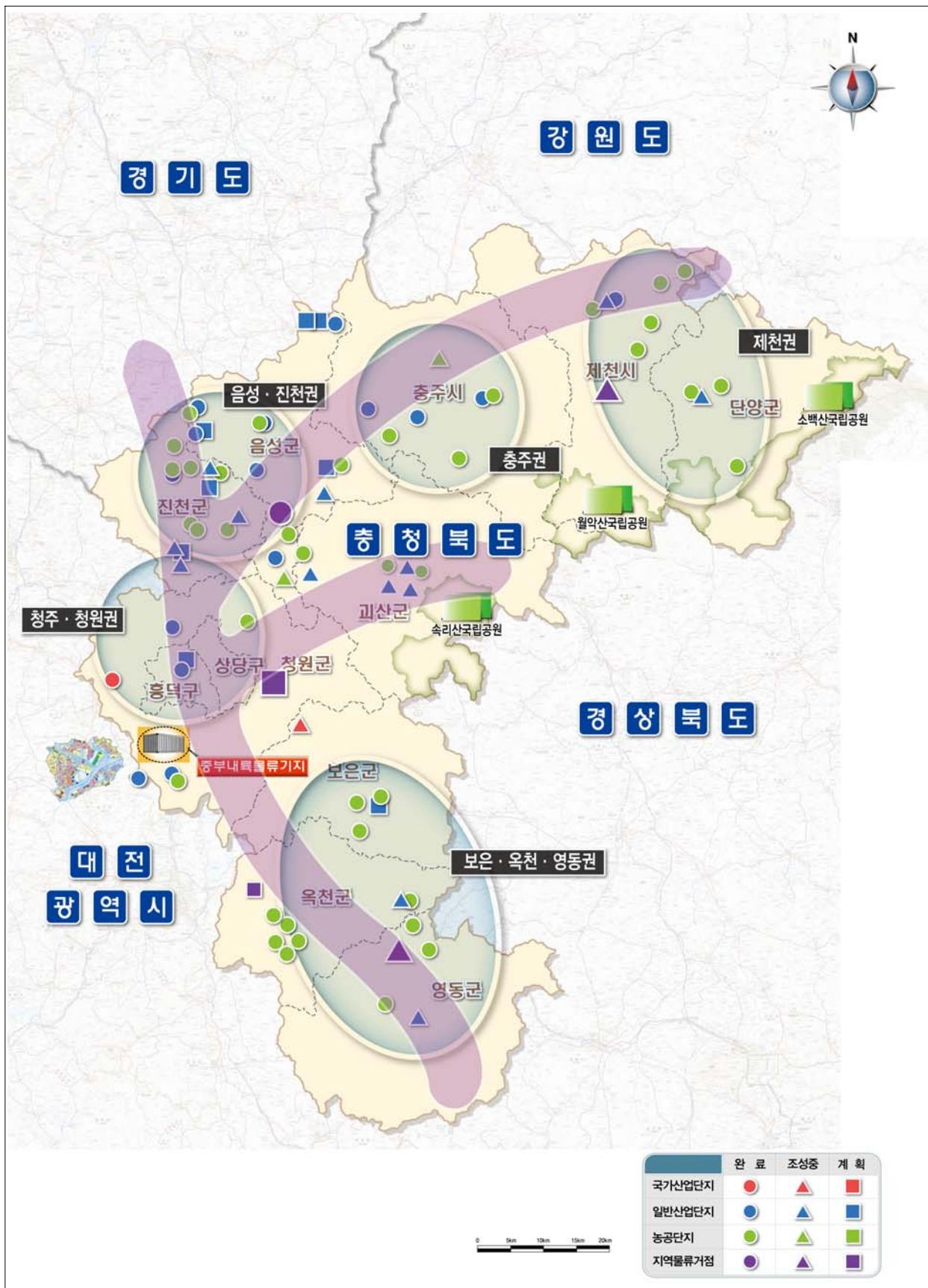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허브축으로 권역별 특성에 따른 중·소규모의 권역별 물류거점을 조성하여 K자형 물류벨트 구축
 - 청주권, 제천권, 음성권, 남부(옥천, 영동)권 4개의 권역별 물류단지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간에 Hub-and-Spoke 개념의 기능정립을 통한 K자형 물류벨트 구축

<표 3-86> 중부권 권역별 K자형 물류벨트 구축 사업

구분		면적(천 ㎡)	사업기간	조성지역	
물류 단지	청주권 물류단지	-	2020	청원군	
	제천 물류단지	162	2003~2011	제천시	
	음성 유통단지	284	1998~2007	음성군	
	영동 황간 물류단지	264	2009~2012	영동군	
	연풍 물류유통 특화단지	330	2015~2019	괴산군	
	옥천 명품 아울렛 물류단지	-	2020	옥천군	
산업 단지	조 성 중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51	2002~2011	청주시
		충주DH산업단지	78	2009~2011	충주시
		제천제2일반산업단지	1,299	2006~2011	제천시
		양화농공단지	148	2009~2011	제천시
		오창제2산업단지	1,389	2007~2012	청원군
		옥산산업단지	1,271	2008~2011	청원군
		신척산업단지	1,464	2007~2011	진천군
		태흥일반산업단지	36	2008~2011	진천군
		금성일반산업단지	116	2008~2012	진천군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123	2009~2011	진천군
		원남산업단지	1,084	2007~2011	음성군
		청산산업단지	351	2007~2011	옥천군
		영동산업단지	998	2007~2013	영동군
		주곡산업단지	149	2009~2011	영동군
		보은국가산업단지	4,178	1987~2011	보은군
		단양신소재산업단지	352	2004~2010	단양군
		괴산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855	2007~2011	괴산군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142	2007~2010	옥천군

구분			면적(천㎡)	사업기간	조성지역
산업단지	계획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3,263	2007~2015	청주시
		충주제4산업단지	156	2008~2012	충주시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294	2009~2011	충주시
		만정일반산업단지	50	2009~2011	충주시
		충주테크원시티산업단지	251	2009~2011	충주시
		양호농공단지	148	2009~2011	제천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3,332	2007~2015	청원군
		문백태락일반산업단지	42	2009~2011	진천군
		산수일반산업단지	1,310	2008~2012	진천군
		증평2일반산업단지	734	2009~2011	증평군
		감곡일반산업단지	1,045	2001~2010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936	2007~2012	음성군
		중부산업단지	148	2007~2012	음성군
		감곡상우산업단지	75	2008~2010	음성군
		육령일반산업단지	64	2009~2011	음성군
		음성임대산업단지	132	2009~2012	음성군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691	2007~2012	보은군
		보은첨단산업단지	1,484	2007~2013	보은군
		괴산첨단산업단지	936	2006~2010	괴산군
		감물가구산업단지	439	2008~2011	괴산군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324	2008~2013	괴산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6,000	2010~2012	괴산군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630	2010~2015	괴산군
		괴산청정 푸드밸리산업단지	410	2010~2013	괴산군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300	2011~2013	옥천군

※ 물류·유통적 측면은 국가계획의 성격이 시군 및 권역단위의 시설계획까지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도차원에서 조성이 필요한 권역, 시군단위의 물류/유통시설계획을 반영한 사항이며, 향후 충청북도 물류산업종합발전 계획 수립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반영, 계획적 측면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그림 3-19> 충청북도 물류/산업단지 계획

나.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 물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오송·오창단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청주국제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기반 구축
- 지역종합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를 활용한 인터넷서비스 기반 구축

〈표 3-87〉 주요 물류거점간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u-충북물류 지원단	· u-충북물류지원단 구성 - 역내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물류산업 활성화
소프트 물류지원사업	· 역내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지원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 오송, 오창 단지 지능형 u-Logistics 정보 솔루션 보급 지원 · 물류정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무상 제공 을 통한 업체의 참여 유도
충북물류인프라 EPC 네트워크 구축사업	· 도내 주요 물류거점 EPC 네트워크 건설 · 첨단 RFID 서비스 시스템 도입

□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표 3-88〉 추진시책 및 개발사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청주공항의 동북아 물류점담공항 육성	· 청주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확장 ·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
	K자형 물류벨트 구축	· 권역별 물류거점 조성 - 청주권, 제천권, 음성권, 남부권 · 주요 산업단지 조성계획 - 국가산업단지 : 2개소 - 일반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 : 53개소 - 농공단지 : 46개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고도화	u-충북물류 지원단	· u-충북물류지원단 구성 -역내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물류산업 활성화
	소프트 물류지원사업	· 역내 물류 표준화 및 정보화 지원 · 오송, 오창 단지 지능형 u-Logistics 정보 솔루션 보급 지원 · 물류정보 ASP 서비스 무상 제공
	충북물류인프라 EPC 네트워크 구축사업	· 도내 주요 물류거점 EPC 네트워크 건설 · 첨단 RFID 서비스 시스템 도입

제2절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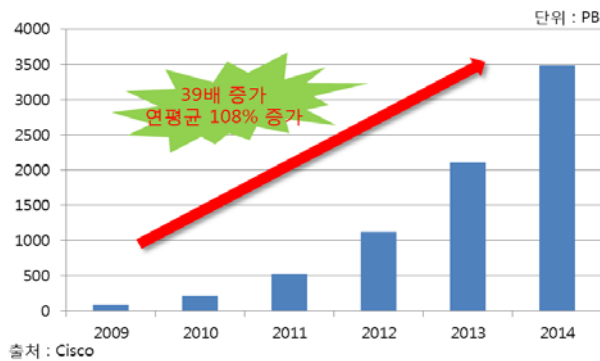
□ 현황

- 유무선 융합형의 이른바 ‘융합형 서비스’ 보편화
 -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유선(wireline)과 무선(wireless)으로 구분되었으나, 최근들어 전화, 컴퓨터(유선), 핸드폰, 노트북(무선) 등이 융합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 이에 따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존의 음성 및 문자서비스에서 확대되어 모바일 커머스, 위치기반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 러닝·스마트 호스피탈·스마트 유통을 비롯한 타산업 생산성 향상 솔루션 서비스, 뉴 미디어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 탄생 및 성장
- 무선서비스의 진화 : 3G에서 4G로 가는 과도기(현재는 3.5G)
 - 3G는 과거(1세대-아날로그 통신, 2세대-디지털 통신)에 이어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현행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임이며,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3.5G는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즉, 무선인터넷과 영상통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한 서비스로서 Wi-Fi망의 AP(Access Point)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활용이 가능함
 - 한편, 4G는 기존 3G에 비해 전송속도가 5-7배가량 빠른 서비스 제공 가능함. 국내 통신사들도 2011년 하반기부터 4G 서비스 제공 시작
 - Wi-Fi(와이파이) : 홈 네트워킹, 휴대전화, 비디오 게임 등에 쓰이는 유명한 무선 기술의 상표 이름이며, 무선랜으로 지칭함. 무선접속장치(AP : Attach Point)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PDA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모바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모바일산업은 무선망시스템, 모바일 기기 및 SW, 서비스 등으로 구성
 - 과거 정보통신 강국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역시, 4G의 모바일 환경에서 강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핸드폰에서 경쟁우위를 가졌던 우리나라 전자업체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모바일 SW(일명 앱-App-)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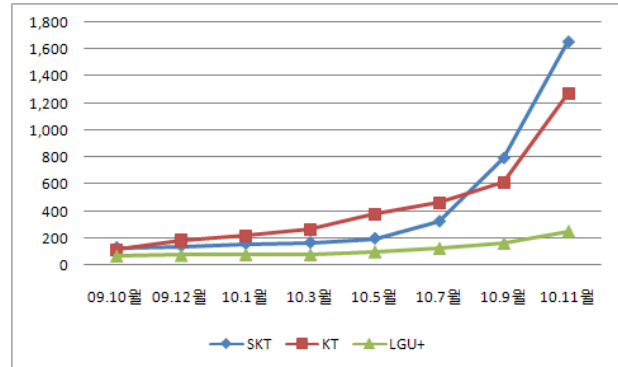
○ 데이터량 폭증

-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기존 컴퓨터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망(3.5G)의 수용용량이 포화상태에 직면함에 따라 4G로의 이전 요구



<그림 3-20>

세계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PB)



<그림 3-21>

국내 모바일데이터트래픽 증가(단위:TB)

- 이에 따라 4G 환경에 부응하는 초고속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시급
 - 4G 표준인 LTE-Adv.의 우리나라(삼상, LG, ETRI) 표준 점유율은 25% 미만으로 평가
- 정보통신 서비스와 보안
 - 정보통신서비스의 고도화(처리용량의 대용량화와 고속화)와 유무선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 함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해커들의 침입 역시 급속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피해증가와 보완솔루션 업계의 시장 증대
 - 향후 보안 솔루션 관련 시장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들 분야는 대부분 미국계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 업체(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함

2. 여건변화와 전망

□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 가속화

- 유비쿼터스 정보화 환경의 대두에 따른 관련 인프라 표준화 및 확보 노력 치열
 - 유비쿼터스에 대한 논쟁은 2006년을 정점으로 시장형성 본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선진국에서는 ubiquitous 인프라를 토대로 u-City, u-Health, u-Life 등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의 활용과 함께 이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 시장선점 및 관련 기술 표준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제5세대 차세대 통신망(NGBcN : Next Generatio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관련 표준화 급속 진행 및 시장형성 본격화 단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신망의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차세대 통신망 표준 확보 및 선점을 위한 노력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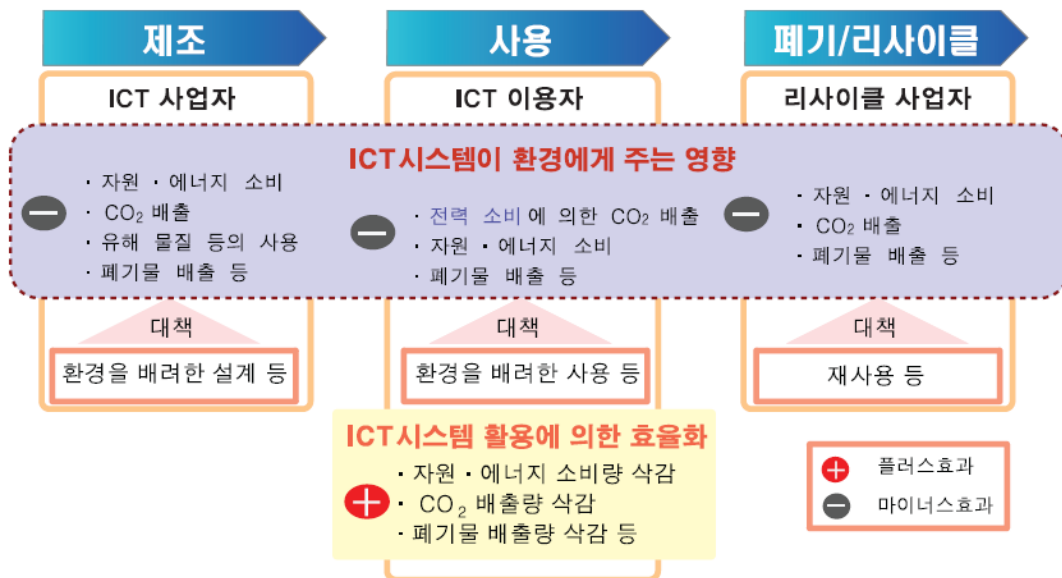
□ 유비쿼터스 환경 도래에 따른 기반 인프라 구축 경쟁 치열

- 유비쿼터스 활용을 위한 각종 표준화 경쟁 가속
 - RFID 표준 : 주파수 표준, RFID Tag, Antenna 표준 등
- USN의 서비스 구조, 필수 기술요소 등 관련 표준화 및 선점 경쟁 지속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환경, 물리계에서 센싱된 정보 또는 특정 이벤트가 인간 생활에 활용되도록 센서 노드(sensor node)들 간의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유무선 통신 기술 기반 네트워크
 - 사물 및 주변 환경정보 감지, 실시간 관리 등이 가능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환경감시, 폭발 및 화재감시, 교통량 관리,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 유비쿼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산업 활성화 단계
 - 관련 기술의 안정화 및 보편화, 가격인하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됨
 - 특히, 미국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국시장이 비교적 풍부한 미국은 완전경쟁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내수시장이 협소하거나 선진국 대비 기술력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

* 우리나라의 경우 완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료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실정

□ Green ICT 선점 위한 글로벌 경쟁 치열

- 녹색성장의 관심 증대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녹색화 및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 그린 ICT :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합성어로 “ICT 부문 녹색화(Green of ICT)”, “ICT 융합 경제·사회 저탄소화(Green by ICT)”를 포괄하는 의미임. 실효성 있는 ICT 기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 활용, 기반 구축 등 그린 ICT 전 범위를 연계한 표준화 전략 수립 필요



<그림 3-22> 그린 ICT 개념도

□ 충청지역 최근 여건

- 5+2 광역권계획(충청권) : 충청권의 특화산업은 뉴 IT와 의약바이오로 이 가운데 뉴 IT 분야의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이 포함됨
- IT 클러스터 조성 : 천안(Display), 대덕(자료기술), 세종(인허가), 오송(u-Health), 오창(Mobile Device) 등
- u-Health 시범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와 충북 등 4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범사업 실시

<표 3-89> u-Health 시범사업 내용

구성	지역	대상자/대상질환	참여병원
SKT 컨소시엄	경기(고양, 성남) 전남(여수) 충북	총 대상자수: 8천명 대상질환: 당뇨/고혈압, 암생존자, 만성폐질환 의원/요양원: 1차의원 100여처/요양원 30처	서울대, 서울아산, 강북삼성, 국립암센터, 삼성서울, 용인세브란스 및 개원의 100개소
LG전자 컨소시엄	대구광역시	총 대상자수: 4천명 대상질환: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의원: 1차의원 38개소	경북대, 영남대, 신촌· 강남세브란스, 서울대 및 개원의 38개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완비 ■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산업(반도체) 클러스터 기구축 ■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지역의 관심 ■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빠른 적응력 ■ 풍부한 이용자 환경 ■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적인 역내 배출 교육인프라의 역외 유출(전국 최상위 순위) ■ 정보통신분야(특히, SW분야) 대기업 부재 ■ 충북 신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고급인력의 유치·확보 미흡
기회(O) ⇒ 포착	위험(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신규산단 및 신도시 중심의 다양한 테스트 베드 구축 가능 ■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충북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전망 ■ 오송 KTX 분기역 개통을 계기로 신규 성장산업 육성 기회 포착 ■ 중부혁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추진 기반 시너지 효과 창출 구현 ■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약바이오, 뉴IT)와 연계하여 정보통신 산업 육성 기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산업의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과점현상 지속으로 역내 기업의 시장진입 난이 ■ 글로벌 대형업체의 국내시장 장악으로 역내 기업 진입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음 ■ 국내지자체간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경쟁 치열 ■ 산업특성상 요구되는 최고급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치 어려움

3. 세부 추진과제

□ u-거버넌스 구현 도시개발

- 안정적 구축에서 운영까지 u-거버넌스 구현 도시로의 개발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산업이 도시개발의 주요 요소가 되면서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을 효율적·유기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의 u-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함

□ 기구축 신도시에 유비쿼터스 기반 인프라 구현 추진

-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산업단지(오송, 오창, 태생국가산업단지 등) 등 신규도시에 타 지역에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화 특화 인프라 구현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 선진화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시킴

-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송, 오창 산업단지, 중부권 내륙화물기지(ICD), 청주국제공항, 오송 KTX분기역 등 주요 물류거점간 물류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강구함
 - 내륙화물기지(Inland Container Depot) : 우리나라의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시키고 녹색물류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70%가 만들어지는 수도권과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부산권에 각각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만들고 기존의 트럭 대신 심야의 철도를 이용하여 물류를 처리하려는 구상임. 수도권(동수원)과 부산권(양산)에 이어 중부권에 공컨테이너의 집하 및 재분류 등의 목적으로 2010년도 서비스를 개시함

□ 맞춤형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및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킴

□ 재난방제시스템 구현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지진, 해일,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과 화재 등의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난예방과 복구체계를 위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재난·재해관리 계획을 구현함

□ SMART-Gov³⁾

○ 목표

- 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다양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체계 마련

○ 추진전략

-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기반의 통합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스마트-열린행정 시스템 구축
- ② 도민소통 네트워크센터 구축
- ③ 그린 데이터 센터(GDC : Green Data Center) 구축
- ④ 스마트-Safe(정보보호)체계 강화
- ⑤ IT융복합담당관(CICO : Chief IT Convergence Officer) 제도 신설
- ⑥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종합서비스 제공

□ SMART-Safety

○ 목표

-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 도심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사전 사고 예방

○ 추진전략

-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안전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어린이 보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구축
-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기술 모바일 서비스 구현
- ③ USN(Ubiquitous Sensor Network)기반 도심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SMART-Life

3) 충청북도,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2010.

○ 목표

- 도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감서비스 제공
- 실버세대, 농촌주민, 도심 저소득층 등을 위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전략

- 저소득층, 노인층,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생활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M.cb21) 구축
- ② u-Silver 커뮤니티 서비스 구축
- ③ u-도서관 서비스 구축
- ④ TV 방송 디지털 전환 대비 수신환경 개선 지원
- ⑤ 농촌지역에 차세대 광대역 가입자망(NG BcN : Next Generatio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 ⑥ SMART 환경 조성을 위한 무선 인터넷 존 확대 구축
- ⑦ 생활 중심의 공간서비스(3차원 GIS) 제공

□ SMART-Biz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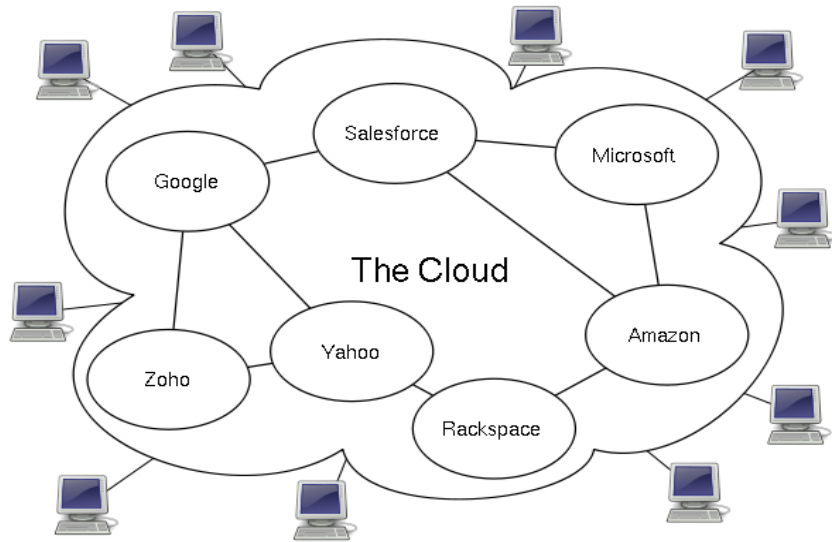
- SW 산업 육성 및 IT 컨버전스(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 중소기업, 전통시장, 관광상품 서비스 지원

○ 추진전략

- 신도시(오송, 오창, 중부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기업지원 환경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주기적 제공

○ 추진과제

- ① SW 및 콘텐츠 산업 육성
- ② BIGH-T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u-Health 사업 고도화
 - * 기 추진중인 u-Health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 ③ 산업단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체계 구축
 -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 기반(cloud)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을 의미. 인터넷 상의 유틸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상시적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서비스4)



<그림 3-23>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도

- ④ u-전통시장 상거래 활성화 지원
- ⑤ u-Tourpia(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 기존 충청북도 문화관광사이트(cbtour.net)과 연계 추진
- ⑥ 국제통상 서비스 제공 및 경제원동력의 공간정보서비스와 연동 추진
 - * 기존 충청북도 국제통상 사이트(ebiznjoy.com)과 연계 추진
 - *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3차원 GIS 서비스와 연계 추진

□ SMART-Eco

- 목표
 - 지속가능한 녹색 충청북도 건설
 - 충북의 청정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하는 서비스 구축
- 추진전략
 - 에너지 순환, 환경보전, 녹색관광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건설을 위한 녹색서비스 제공
- 추진과제
 - ①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② 녹색IT기반 탄소배출량 관리서비스
 - ③ u-Clean 서비스 구축

4) 위키디피아, <http://ko.wikipedia.org/wiki/>

제 5 장 |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제1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제2절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

제3절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제4절 창조교육 환경조성 및 평생 생활체육 구현

제5장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제1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주택보급률

- 충북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10.3%로 전국 평균 101.2%보다 높으며, 핵가족화 등의 가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5년 보다 17% 증가
- 그러나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낮은 실정이며, 특히 청주시의 경우 9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주택부족량은 청주시가 3%로 나머지 시·군부지역은 주택보급율은 모두 110% 상회하고 있음
- 도시지역의 주택은 부족하며, 농촌지역의 주택은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농촌의 빈집 방치로 인한 농촌경관 저해와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표 3-90> 주택보급 추이

(단위 : 개, 호, %)

구분		가구(가구)				주택(호)				주택보급률(%)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	'00	'05	'09
전 국		12,974,194	14,326,224	15,903,679	16,862,300	9,204,929	10,959,342	13,222,641	17,071,300	70.9	76.5	83.1	101.2
충청북도		408,321	462,145	506,052	524,634	339,194	395,945	456,237	578,441	83.1	85.7	90.2	110.3
시 부	전국	10,043,092	11,238,592	12,755,353	-	6,562,695	8,123,046	9,997,532	-	65.3	72.4	78.4	-
	청주시	151,338	179,294	217,307	243,761	108,220	138,804	168,246	236,739	71.5	77.4	77.4	97
	충주시	60,902	69,339	71,259	69,669	51,993	60,404	66,104	81,277	85.4	87.1	92.8	117
	제천시	40,029	46,199	47,183	45,903	34,262	40,030	43,846	52,673	85.6	86.6	92.9	115
군 부	전국	2,931,102	3,087,632	3,148,326	-	2,642,234	2,836,296	3,225,109	-	90.2	91.9	102.4	-
	청원군	31,386	35,620	37,665	37,636	29,505	34,018	39,102	56,060	94.0	95.5	103.8	149
	보은군	14,018	13,766	12,839	11,543	13,080	12,957	13,723	14,428	93.3	94.1	106.9	125
	옥천군	18,334	19,011	18,615	17,475	16,981	17,777	19,699	19,984	92.6	93.5	105.8	114
	영동군	19,005	19,452	18,756	17,344	17,507	17,723	19,211	20,960	92.1	91.1	102.4	121
	증평군	8,743	8,715	9,682	10,112	7,930	8,167	9,838	11,697	90.7	93.7	101.6	116
	진천군	15,614	18,468	20,485	21,286	14,260	17,225	20,625	23,565	91.3	93.3	100.7	111
	괴산군	14,247	14,088	13,218	11,955	13,628	13,603	14,503	14,801	95.7	96.6	109.7	124
	음성군	22,304	25,831	27,408	27,386	20,696	23,826	28,956	31,613	92.8	92.2	105.6	115
	단양군	12,401	12,362	11,635	10,564	11,132	11,411	12,384	14,644	89.8	92.3	106.4	139

주 : 주택보급률(%) = (주택/일반가구)×100

자료 :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5.

2)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기조의 두 가지 특징은 공급 지향적이고 계층 중립적이었음
-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재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급량의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고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목적이든 임대목적이든 상관하지 않고 많이 짓는 일에 치중하여 공급된 주택이 어떤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의 주택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토지규제완화, 양도소득세 인하, 토지공개념 폐지, 분양권 자율화 및 전매제한폐지와 같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책이 추진되었음
- 부동산시장의 과열, 주택가격의 급등이 다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 및 재건축 등 규제강화정책을 강도 높여 도입하였음
-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허용 등도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억제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주택시장의 냉각화가 확산되어 지자체의 주택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즉 현재까지의 주택시장 정책은 규제의 방법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규제를 통하여 모든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과 시장가격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의 양적 안정과 일정부분 주거의 질도 향상되었으나, 주택밀집 지역의 소득계층별 주거수준과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 및 노인가구 등의 증가가 두드러져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앞으로 주택정책은 공급에 있어 지역별, 주택유형별, 가구특성별 주택수요 파악을 통해 주택공급을 도모하여야 하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 상습침수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 취락 등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또한, 저소득층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등의 주거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균형적 공급 및 주거지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2) 주택수요 전망

□ 주택수요 산정기준

- 주택수요 산정은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정하며, 가구당 인구의 변화 등을 고려함(가구당 인구수는 통계청(2002)의 장래가구추계를 참고함)
- 주택보급률산정은 목표연도에 선진국수준(110%)에 도달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상가구를 산정함

〈표 3-91〉 주택수요 산정지표

구분	단위	2009	2020	비고
인구	인	1,550,126	1,730,000	
가구원수	인	2.9	2.7	각 년도별 계획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	524,634	641,000	
주택수	호	578,441	705,000	
주택보급률	%	110	110	
신규주택수요	호	-	127,000	연간 12,000호

□ 주택수요 추정

- 충북의 2020년도의 주택공급대상가구는 641,000가구로서 2009년에 비해 22.2%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도내 목표연도 주택재고는 705,000호로서 2009년 현재보다 21.9%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주택개발은 도내 노후주택의 산재에 따른 감실주택의 증가로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신규주택개발의 상당부분이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됨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제도 개편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 ■ 기성시가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빈곤층의 주택문제 발생 ■ 지리적 특성에 맞는 주거지 개발 미흡 ■ 공동주택과 주변주택지와의 공동체 의식 결여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 인식변화 ■ 미개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추구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미비 ■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보급 ■ 획일적인 고층고밀개발로 주거환경 불량

3. 계획의 기본방향

□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

- 기성시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
- 공동주택 유지관리 전문화 및 효율화 추진

□ 저소득·특수계층 주거복지 향상

- 공공임대주택재고 확대
-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

□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 주택 유형의 다양화
- 커뮤니티 단위의 환경개선
- 주택 및 주거정보 시스템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 및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

- 전원주택 공급 활성화
 - 농촌마을의 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민과 같이 교류하며 거주하는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함
 - 중심 시가지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일정 권역내의 근교형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함
- 환경친화적 네트워크 체계확립
 - 생물권과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를 하나로 묶는 환경축 개념을 주거지 개발에 도입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실버주택 및 실버주거단지 공급을 확대
- 1인 가구·장애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 충북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주택사업 시행
 - 캠핑단지(Camping Park) 및 레크레이션 차량(Recreation Vehicle) 단지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택단지를 개발함
 - 고유의 전통 한옥단지, 초가단지, 황토흙단지 등의 차별적인 주택사업을 전개함

□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최저주거 기준미달가구 감축

- 최저기준미달가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년차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소득수준, 기준미달가구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
 - 현행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지원체계를 재정비함
 -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 민간 비영리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을 강구함
-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급, 다가구주택 등 매입 임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 재정착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함

□ 농촌 정주생활환경 개선체계 확립

-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편익시설의 종합적인 정비·확충을 통한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균형개발 도모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 및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
- 귀농 및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빈집 정보 제공
- 농촌 취락에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이는 1995년부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락구조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등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사업들을 묶어 추진하고 있음
- 충북내 일부 도시지역 농촌취락은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도 가능한 실정임
- 한편, 노후화된 농촌취락에 대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기능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주거

용으로 개발하여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밀, 전원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가. 정비사업의 광역화와 종합화를 통한 구도시 인프라 개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통해서는 정비구역 안에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정비계획수립을 통해서는 광역적인 성격을 갖는 도로, 학교, 공원 등의 시설 확보가 어려우며, 타법을 배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광역화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
- 광역화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거나, 별도의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해야 함

나. 관리체계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의 질 개선

- 기성시가지의 사업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고 있음
- 하지만, 종상향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군의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승인이 가능함에 따라 중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고층, 고밀개발이 연접하여 이루어질 우려가 큼
- 따라서 시군에서 소규모 사업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가 요구됨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계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자금 지원 등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지원 시 주택구입이 가능한 소득 7분위 이상은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득 5, 6분위의 중산화 가능계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한 편임
- 5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무기간의 1/2이 지나도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득 5, 6분위의 중산화 가능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함

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성시가지에서는 대규모 택지확보가 어려우나, 사회적 혼합의 문제, 직주근접 등을 감안하여 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보함

다.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급

- 거주자가 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소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미분양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여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계층에 재임대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함
-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또는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거상향 이동시 발생하는 임대료 상승에 의한 임차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제2절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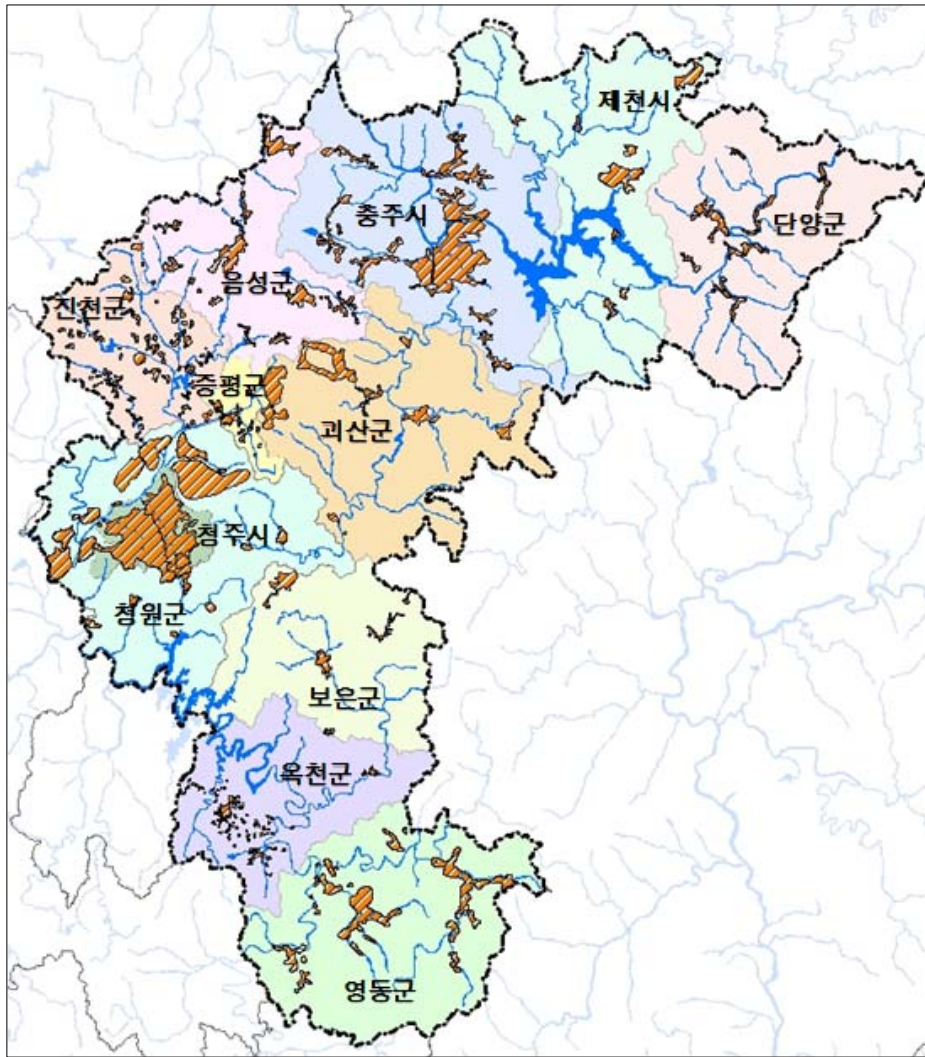
□ 상수도

-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88.0%에서 2009년 8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93.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인1일 급수량도 2005년 361L/인/일에서 2009년 361L/인/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표 3-92> 충북 시군의 상수도 보급현황(2009년)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 수 량 (㎥/일)	1일1인당 급수량(l)	급수율 (%)
총계	1,550,126	1,318,861	85.1	524,514	476,642	361	90.9
청주시	648,598	644,906	99.4	309,100	237,506	368	76.8
충주시	209,074	172,458	82.5	65,250	54,872	318	84.1
제천시	136,966	122,313	89.3	53,000	35,130	287	66.3
청원군	152,683	101,416	66.4	24,314	46,222	456	190.1
보은군	35,212	15,547	44.2	11,100	5,466	352	49.2
옥천군	54,788	43,999	80.3	21,000	11,846	269	56.4
영동군	50,918	37,577	73.8	16,150	13,890	372	86.0
증평군	33,511	29,532	88.1	—	10,999	372	—
진천군	64,397	47,526	73.8	700	16,221	341	2317.3
괴산군	37,273	17,188	46.1	1,000	5,650	329	565.0
음성군	94,580	66,068	69.9	—	27,456	416	—
단양군	32,126	20,331	63.3	22,900	11,294	556	49.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그림 3-24〉 충청북도 용수공급지역 현황

- 충북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장은 3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1,260,000 m^3 /일이며,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부지역에도 공급하고 있음

〈표 3-93〉 광역상수도 취수 현황

구 분	시설용량 (m^3 /일)	취수량 (m^3 /일)	급수구역
대청댐 I 단계 (청원군 가덕면)	250,000	272,849	청주시 · 청원군 · 충남 연기군
대청댐 II 단계 (청원군 현도면)	760,000	325,946	청주시 · 청원군 · 충남 아산시 · 연기군
충주댐 (충주시 용탄동)	250,000	83,363	충주시 · 음성군 · 진천군 · 괴산군 · 증평군 · 경기도 안성시 · 이천시의 일부 지역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연보』, 2010.

□ 하수도

- 충북의 하수도 보급현황은 2005년 73.0%의 보급률에서 2009년 말 현재 77.9%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89.4%)보다는 낮은 상황임
- 충북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2005년 541.7천톤/일 규모에서 2009년 말 현재 567.2천톤/일로 증가하였음

<표 3-94> 하수도 보급현황 추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인구(명)		1,501,674	1,511,885	1,527,339	1,542,287	1,550,126
처리구역 내 인구 (천명)	계	1,080,264	1,109,842	1,124,082	1,146,216	1,161,373
	1차	-	-	-	3,203	2,853
	2차	844,409	801,983	789,241	165,257	53,974
	3차	235,855	307,859	334,841	977,756	1,104,546
보급률(%)		73.0	75.5	76.9	77.0	77.9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2009년 말 현재 충청도내 시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 지역의 보급률이 높으며(평균 89.5%) 군 지역은 평균 53.2%로 낮은 상태임
- 시 지역에서는 청주시가 97.4%로 가장 높고, 군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 증평군이 78.4%로 유일하게 75%를 넘고 있으며 괴산군이 33.3%로 가장 낮음
- 고도처리(3차) 처리구역 내 인구는 청주시가 가장 많으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은 567,229톤/일이며 실제 처리량은 449,528톤/일로 용량대비 약 79.2%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3-95> 시군별 하수도 보급현황(2009년)

구 분	총인구 (명)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보급률 (%)
		계	1차	2차	3차	
계	1,550,126	1,161,373	2,853	53,974	1,104,546	77.9
청 주 시	648,598	631,969	-	-	631,969	97.4
충 주 시	209,074	175,904	-	2,922	172,982	84.1
제 천 시	136,966	119,301	-	78	119,223	87.1
청 원 군	152,683	24,200	2,853	4,519	16,828	41.0
보 은 군	35,212	20,199	-	-	20,199	57.4
옥 천 군	54,788	38,105	-	32,370	5,735	69.5
영 동 군	50,918	20,506	-	903	19,603	40.3
증 평 군	33,511	26,285	-	-	26,285	78.4
진 천 군	64,397	30,721	-	-	30,721	60.1
괴 산 군	37,273	12,411	-	7,882	4,529	33.3
음 성 군	94,580	46,266	-	4,995	41,271	48.9
단 양 군	32,126	15,506	-	305	15,201	48.3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표 3-96> 충북도내 시군별 하수처리장 운영현황(2009년)

구 분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처리방법	처리비 (백만원)	운영방식	소독방법	방류하천
계	567,229	449,528		693,039			
청주시	280,000	228,000	표준활성	93,917	자체	염소소독	미호천
충주시	97,765	66,983	회전원판외	127,651	자체	염소소독	달천
제천시	72,918	57,317	표준활성외	73,273	자체	염소소독	장평천
청원군	11,574	6,940	표준활성외	49,933	민간위탁 /자체	염소소독외	미호천
보은군	11,620	9,810	접촉산화외	33,794	민간위탁	자외선	보청천
옥천군	20,310	16,882	표준활성외	36,944	민간위탁	염소소독	서화천
영동군	10,540	9,384	접촉산화외	35,287	민간위탁	uv소독	영동천
증평군	17,060	16,402	고도처리외	46,962	민간위탁 /자체	염소소독외	보강천
진천군	10,398	12,854	접촉폭기외	55,902	민간위탁	염소소독외	미호천
괴산군	5,968	4,628	접촉산화외	36,628	민간위탁	자외선외	달천
음성군	17,740	15,147	접촉산화외	67,016	민간위탁 /자체	자외선외	미호천, 달천, 청미천
단양군	11,336	5,181	장기폭기외	35,732	자체	염소소독외	남한강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여 물의 증발량, 유량 및 강우 유출물의 변화를 유발해 수자원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증가 등 강우패턴의 변화는 가용한 수자원의 확보와 음용 가능한 양질의 수원확보를 어렵게 하여 국가적 가뭄사태를 초래할 것이며, 기온 상승으로 생활용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관리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수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유역단위의 관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도시/농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인(T-P) 처리시설 보완 등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계기로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이 점차 고취되고 있으며, 상수원 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충주댐에서 풍부한 수자원 확보 ■ 소백·월악·속리산 국립공원의 보존으로 수원 공급처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호천유역의 개발 집중으로 용수수요 급증 ■ 개발확산으로 불투수층 증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4대강사업 등으로 수자원에 대한 대국민의식의 고취 ■ 상수원 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빗물재이용, 중수도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강우패턴의 변화 심화 ■ 대형 댐을 제외하면 수자원이 거의 없음

3. 계획의 기본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충주댐, 대청댐의 적극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며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이 필요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습지의 적극적 개발과 보존, 하천의 건천화 방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습지의 적극적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충북내 습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존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특히, 개발이 완료, 진행, 계획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습지의 확보가 필요
- 기존 대형 댐 이외의 대체 수자원의 확보와 급격한 기후변화 및 재난에 대비하여 2개의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방안 수립 필요함
 - 대도시 인근의 자연 수자원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빗물 이용, 하수처리 방류수의 재이용, 중수도 도입이 의무화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상수도 보급계획
 - 2009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85.1%)을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88.0%까지 향상
 - 1인1일 급수량은 수요관리정책과 물 절약정책을 추진하여 2020년의 390L 유지

<표 3-97> 상수도 년도별 보급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보급률(%)	80.0	81.1	82.7	83.7	85.1	85.3	86.5	88.0
총인구(천인)	1,502	1,509	1,516	1,542	1,550	1,580	1,660	1,730
1인1일급수량(L)	361	360	358	371	375	380	385	390

- 하수도 보급계획
 - 2009년 현재 하수도 보급률(77.9%)을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전국 평균수준인 90.0%로 계획

<표 3-98> 하수도 년도별 보급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보급률(%)	73.0	76.0	76.9	77.0	77.9	80.0	85.0	90.0
총인구(천인)	1,502	1,509	1,516	1,542	1,550	1,580	1,660	1,730
처리인구(천인)	1,080	1,110	1,124	1,146	1,161	1,230	1,345	1,413

4. 세부 추진과제

☐ 수계기금 및 댐 용수판매대금 등에 의한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 양질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 상류지역의 개발규제에 대한 보상, 수질개선 사업추진, 친환경적 산업체제로 강화시킴
-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과 댐 용수판매대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청정산업지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등을 보다 확대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수자원 보전을 유도

☐ 수변지역 개발에 따른 적극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전략 수립

-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충북차원의 종합계획과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
-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용수용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 자연계의 선순환 구조를 보전
- ‘4대강 지류살리기’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방향 수립

☐ 충북도내 습지의 정밀조사 및 보존계획 수립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습지를 정밀 조사하고 습지별 특성을 분석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위한 수원 확보
- 도시하천 건천화의 원인인 불투수층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하천 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한 도시습지를 개발

☐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하천 및 지하수 취수대책 수립

- 급격한 기후변화, 재난사고에 따른 충주댐, 대청댐의 수자원 고갈, 상수원기능 상실 등의 상황에 대한 영향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즉,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긴급 용수공급 대책 마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6.8.)’ 제정에 따른 빗물이용, 하수처리 방류수 재활용, 중수도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도입방안,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수립

- 지하수 사용량 및 관리현황 정밀조사, 지하수 수질현황 조사, 안정적 지하수 유지·관리 방안 수립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한 절수체계 확립

- 상수도 관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현황을 조사하고 노후관 교체,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시 상수관로의 파손을 최소화
- 지역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물사용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 총량관리제 등 강화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 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합류식 하수관거의 분류식화 사업 추진
- 도시 비점오염원의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 도시습지 조성, 유공성포장 등으로 수자원의 함양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

□ 지방상수도 확충 및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면지역 지방상수도 신설·확장
 - 농촌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및 개인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수준을 도시지역 수준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
-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 지방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농촌지역의 수질 부적합 및 장기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무기) 초과시설 및 심미적 영향물질 초과시설 개량
 - 미생물,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초과시설은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개량
 - 25년 이상 노후시설 중 사용년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개량

- 계곡수·복류수·용천수 등을 사용하는 취수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암반 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대체
- 노후 및 부식된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 개량
- 소독시설은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노후된 수도관 교체
 - 수돗물 누수에 따른 손실액 감소로 상수도요금 주민부담 경감
 - 누수가 심하거나 노후(16년 이상 강관·아연도 강관, 30년 이상 주철관)된 상수도관 교체
- 블록시스템 구축
 - 수도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급수 구역별로 구분관리
 - 상시유량 계측에 따라 수질변화 등 이상발생 원인 및 누수파악 용이
 - 사고·재해시 수요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및 물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
 - 적정 유량 및 수압관리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 누수탐사
 -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블록별 누수탐사 실시
 - 장기 노후 및 누수 등 교체 불가피한 상수도관 교체
 - 누수율 저감사업 추진으로 현실화율 제고 및 재정 건전화 유도

□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촌지역 음용수 수질에 대한 욕구 증대
 - 화강암지대에서 불소, 망간, 알루미늄 등 검출
 - 공장폐수, 농약의 혼입, 호우, 강우, 사람과 가축분뇨 혼입
 - 유기물에 의한 질산성질소 토양 오염
 - 정기적으로 적정량의 소독 및 약품 미 투입으로 잔류염소 발생
 - 노후된 물탱크시설(콘크리트)의 관리 부적정으로 수질악화 가중
 - 계곡수 및 용천수의 경우 정수장치 없이 수원으로 사용(탁도, 색도)
- 2008년부터 도입된 전 항목 수질검사에 대비 수질오염원 사전제거
 - 년 1회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전 항목 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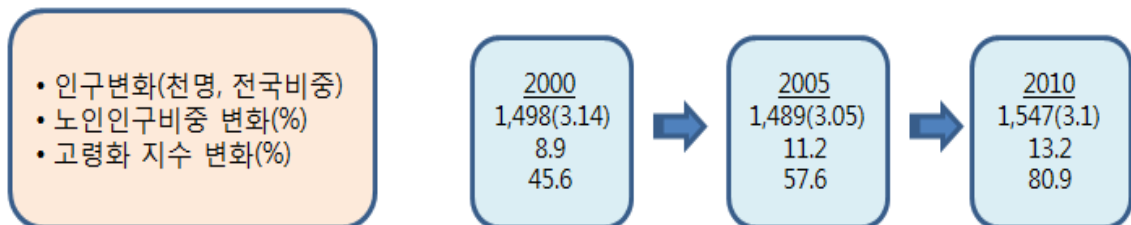
- 노후된 콘크리크 물탱크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악화
- 정수시설(장치)의 미설치 등 시설 내 수질관리 미흡
- 전문인력이 아닌 마을이장 등이 관리하기 때문에 소독약품 적정량 투입 어려움
- 형식적인 관리로 자동염소 투입기의 고장 방치사례
- 노후된 시설 교체 정비 및 정수·소독시설 설치로 수질개선 향상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콘크리트 배수지 전량 교체
 - 수질 부적합시설 또는 부적합 예상 시설에 대한 정수·소독시설 설치
 - 국비지원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제3절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 우리나라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충북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10년 충북의 고령화지수는 80.9%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탈농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인구의 비중이 높은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충북 출생아수의 전국대비 비중도 하락추세에 있음
- 도내 총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9%에서 2005년에 11.2%, 2010년 13.2%로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령화 지수(65세 이상인구/14세 이하 인구)는 2000년 8.9%에서 2005년 57.6%, 2010년 80.9%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3-25> 연도별 인구·노인인구비중·고령화 지수 변화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2000년 44개소(5,227명)에서 2005년 49개소(5,296명), 2009년에는 266개소(9,087명)로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은 약 34명으로 나타났음

<표 3-99>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분포(2009)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아동복지		노인복지1)		장애인복지 (생활)		여성복지		정신질환자 요양		부랑인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계	266	9,087	39	931	193	4,515	21	1,612	7	135	4	997	2	897
청 주 시	61	2,024	23	390	30	935	4	418	2	55	1	130	1	96
충 주 시	41	1,184	3	53	33	619	4	505	1	7	-	-	-	-
제 천 시	29	796	3	122	20	340	5	300	1	34	-	-	-	-
청 원 군	32	1,003	2	96	23	703	5	174	2	30	-	-	-	-
보 은 군	8	201	-	-	8	201	-	-	-	-	-	-	-	-
옥 천 군	18	760	3	82	12	230	1	171	-	-	2	367	-	-
영 동 군	20	417	-	-	20	417	-	-	-	-	-	-	-	-
증 평 군	6	113	1	1	5	112	-	-	-	-	-	-	-	-
진 천 군	13	213	1	1	11	203	-	-	1	9	-	-	-	-
괴 산 군	11	215	-	-	10	185	1	30	-	-	-	-	-	-
음 성 군	17	2,232	2	180	12	451	1	300	-	-	1	500	1	801
단 양 군	11	173	1	6	9	119	1	48	-	-	-	-	-	-

주 :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만 포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미포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아동복지시설

- 충북의 아동생활시설은 총 39개소로, 양육시설이 11개소(750명), 자립시설 1개소(14명), 보호치료시설 1개소(27명)가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인원 대비 복지시설수가 부족(2009년 기준)
- 아동이용시설은 아동학대예방센터 3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결연기관 1개소, 입양기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183개소, 공동생활가정 24개소 운영 중(2010년 기준)
- 2000년 1개 보육시설당 보육아동수는 47명에서 2005년 46명, 2010년 말 41명으로 나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육시설이 부족함

○ 노인복지시설

- 충북의 노인인구는 전국 평균의 8.9%보다 2.3%가 높은 11.2%인 168,670명이며, 특히 가족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매노인은 22,490명으로 추정(2010년 2월)되고 등록된 치매노인의 수는 1,680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2009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1개소로 노인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은 2009년 기준 21개소(2010년 22개소)
- 장애인 등록자수는 2005년 59,965명, 2008년 85,097명으로 25,132명 증가한 반면, 복지시설은 2005년 17개소에서 2008년 20개소로 불과 3개소만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시설 확충 등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필요

○ 사회복지관

- 2008년 기준 충북의 사회복지관은 10개소로서 전국 409개소의 2.4%를 차지함

□ 보건의료시설 현황

- 보건의료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주민수 대비 의료시설수, 병상수, 의사수로 2008년 현재 충북의 병(의)원수는 총 800개소로 전국의 약 3.5%를 차지하고, 병상 수는 10,534개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시설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음

<표 3-100> 충북의료현황(2009)

(단위 : 개소)

구 분	인 구 수 (천단위)	종합 병원	병원1)	의원	병상수	의 사 수			인구 십만명당	
						의사2)	치과 의사	한 의사	병의원수	병상수
전국 (2008)	50,394	313	1064	26,581	349,169	63,411	16,782	11,915	54.69	201.3
충북 (2009)	1,542	10	34	759	10,585	1,748	363	399	51.14 (2008)	228.1 (2008)

주 : 1) 군인병원 제외, 의료 종사자만 포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외국인 제외>, 2009.

- 의사 수는 1,748명이며, 치과의사는 363명, 한의사는 399명을 차지하여 전국 대비 인구수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 보건의료기관

- 충북 보건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 단위의 보건소 13개소,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94개소, 마을단위의 보건진료소 161개소로 총 268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국 3,448개소의 약 7.8%에 해당 됨

<표 3-10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2009)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보건소	보 건 지 소	보건 진료소	공중보건의			
						계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총 복		268	13	94	161	253	132	60	73
시 군 별	청주시	4	2	—	2	11	20	7	9
	충주시	30	1	13	16	29	17	5	7
	제천시	20	1	8	11	22	11	6	5
	청원군	39	1	15	23	28	17	6	5
	보은군	22	1	6	15	21	11	6	4
	옥천군	28	1	8	19	21	10	5	6
	영동군	29	1	10	18	25	12	7	6
	증평군	3	1	1	1	7	3	3	1
	진천군	14	1	6	7	19	8	5	6
	괴산군	30	1	12	17	30	14	14	2
	음성군	27	1	8	18	22	11	6	5
	단양군	22	1	7	14	18	9	4	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의 급증

-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증가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 대처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공동체가 복지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민·관의 연계지원 등이 요구

☐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전망

-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의 부족분은 지방정부의 부가적 서비스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

☐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수명의 향상에 따라 노인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하여 충북의 의료산업 선진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기업입지 및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병행과 함께 외국의 연구 중심 병의원을 유치해야 함

☐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보건정책 추구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 민선 5기 도농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화 ■ 수도권으로 부터의 의료접근성 용이 ■ 정부 보건기관의 예방기능 정책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애인의 증가 ■ 여성·보육·가족관련 시설 등 인프라 부족 ■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증가 ■ 지역내 보건·복지의 산발적이고 한정된 자원(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의료인력 부족) ■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 민간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미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증대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오송의료단지의 입주 ■ 노인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과 노령인구 증가 ■ 복지예산 비중 증가 ■ 노인인구의 증가 및 성인병, 만성질환환자 증가 ■ 보건의료시설 및 예산의 부족

3. 계획의 기본방향

- 함께하고 나누는 복지정책 추진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 예방중심의 복지서비스 정책
- 예방적 의료서비스 구현
- 보건의료의 공공성, 접근성 확보
- 보편적 복지 실현
-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의한 복지욕구 충족
- 취약계층 복지지원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적 계획 수립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보강
-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의 확충·보강, 현대화를 통한 첨단 의료서비스 확보와 접근성 제고
- 도민의 건강보장과 질병예방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보건의료 선진화 추구

4. 세부 추진과제

□ 보편적 복지 실현

- 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등생 대상으로 전면적 실시
- 0세부터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단계적 확대

□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의한 복지욕구 충족

-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생활기반 확충

□ 취약계층 복지기반 확충

- 기초생계비 및 의료급여, 긴급위기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 차상위계층의 진료권 확보를 통한 건강증진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체육관, 종합복지관, 재활지원센터) 확충

□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 주민의 복지수요와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 지역을 지형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생활권역의 특성에 따라 규모별 기능별로 시설체계를 합리적으로 배치
- 오창·오송 등의 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종합복지시설 확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0년 7월 현재 총 40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 55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담공무원 1인당 수급자 125명을 담당하게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사회복지인력 인프라 강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저소득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대상에 따른 복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청주가 25.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

로 충주, 제천 순임. 가장 낮은 지역은 증평 4.2%와 영동 4.7%로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종합적 계획 추진

-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계획 수립 및 기반 구축
 - 노인의 일자리 확충 및 사회참여 촉진
 - 지역 시니어클럽을 시·군별 1개소 이상 2015년까지 신축, 노인 일자리 인력 DB 구축 및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마련
 -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 확충(2009년 76개소 → 2020년 90개소로 확충)
 - 지역 생활과 밀착된 노인의 여가, 문화 복지시설 건립
 - 경로당의 리모델링 및 지역보건센터화
-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출산장려금 지급 및 보육,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고령친화 산업 육성

□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

- 민간자원 확충 및 자원봉사의 통합관리를 통한 민간복지 활성화를 유도
 - 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자원봉사자의 확대 도모
 -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망을 구축,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기획·관리·홍보 및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기본적인 업무는 자원봉사 센터기능, 자원봉사 행정조직, 자원봉사 교육센터, 포상제도의 관리처, 프로그램 개발처, 안내센터 등임
-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가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communitary care)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 도종합복지 정보망 구축
 - 도내에 산재된 복지정보의 통합으로 서비스 연계 강화 및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고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립지향형 일자리 제공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휠체어탑재설비장착) 도입 운영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 재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 실시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건전 육성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새롭게 개정된 국가정책의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복지 육구사업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취약 보육시설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 조성 및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확대
 - 아동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방과후 아동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여 방과후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 방과후 아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세미나 개최
 - 지역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욕구를 반영한 시설 확충 및 상담 서비스 확대
- 지역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
 - 유해환경감시단 설치·운영
 -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사 양성 및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

- 여성 인력개발과 취업환경조성을 통한 경제·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확대를 위해 북부권에 새일센터 신설

- 한부모 가정, 결혼이주민 가정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
- 폭력피해여성 보호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
 - 가정폭력피해여성, 성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시·군단위로 확대 설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010년(2개소) → 2020년(6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2005년(3개소) → 2020년(7개소)
-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및 인력개발사업 인프라 구축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확충 : 12개소(2009년) → 20개소(2015년) → 30개소(2020년)
 - 특수보육시설 확충 : 260개소(2009년) → 300개소(2015년) → 350개소(2020년)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 확대

- 농촌과 도시지역의 여성간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교류사업을 확산시키고 농촌 생활개선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한 농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 여성농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여성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함

□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 저소득층의 간병서비스 비용 부담 지원
- 보호자 없는 병원을 2011년~14까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3개소 지정 운영, 이후 3개소 이상 확대

□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확보 사업

- 지역간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보강
 - 거동불편환자, 낙후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
 - 특히 낙후지역인 남부권에 응급의료, 이동진료 체계망 구축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치의제 도입 검토

-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과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함
-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보건소 2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신축과 의료장비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함
- 도시지역에도 민간의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함
- 각종사고에 대비하여 광역응급의료시스템 운영 : 응급의료 지정병원 확대 및 구급장비 보강지원
-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건립
- 오송단지내 대형병원 유치
 - 개방형병원으로 운영
 - 장애인 재활 정신분야 등에 민간의료시설 유치
- 한방지역보건사업 지원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확대 운영

□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사업, 주민보건교육, 재가환자 방문간호 사업 등을 확충
 - 노인 및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예방보건사업을 강화
 -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노인 의료·특수 질환 등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
 - 영유아의 예방접종,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소외계층 이동진료 서비스 확대
- 산전·산후의 모성보건, 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에서부터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청장년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까지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군별 전문화·특화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함(방문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

□ 방역활동 강화 사업

- 방역소독 등 방제사업 강화
 - 해충 서식지 밀도조사 방역지도 작성 후 표적방제 실시

- 취약지 방역소독 및 장티푸스 등 보건자 찾기 사업 지속 전개
-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및 만성병 주민 검진 강화

□ 미래사회의 질병 대비체제 수립

- 농약이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 유전자조작, 전자기파, 신종병원균 등 미래사회의 질병을 대비하는 보건의료체제 대비체제 수립
- 공공보건의료시설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및 예방’ 대책 수립
-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등 신종전염병 대응체제 구축
 - 위험수준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대응전략 수립 추진
 - 유관기관 합동 방역대책반 편성
- 도내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규모의 「국제보건의료박람회」 행사를 개최

□ 지역의료시설 현대화 및 네트워크화

- 의료 서비스의 최첨단화
 -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최첨단 의료시설 및 의료복합단지 구축
 - 수요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센터를 생활권의 병원에 연계하여 지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진료체계를 구축
- 제천의 전통의약 산업 활성화 및 중부내륙 거점 한방특화도시를 건설
- 대덕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연계한 의료보건연구 네트워크 구축

제4절 창조교육 환경조성 및 평생 생활체육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1)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 2011년 총163,387명(초등학생 100,432, 중학생 61,678, 특수학교 1,277)에 대한 전면실시를 위한 총예산 740억원 가운데 지자체 분담액의 40%인 136억원을 도 재정으로 부담
 - ⇒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도내 우수 농산물 공급 및 위생관리 등 지속적 노력 경주
- 지역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2011년 현재 6개분야 867명, 1,362백만원), 인재양성을 위한 Dream 2011 및 글로벌 체험연수, 충북미래관·충북학사·명예연구소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도내 주소를 둔 도내대학생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이자지원

2) 교육 및 공공체육시설

- 충북의 학교수는 2009년 말 현재 1,107개소로 대학교는 49개소이고, 고등학교는 8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수는 499,025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의 32.6%이며, 교직원수는 25,772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02> 충북의 교육시설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 (과) 수	보통 교실 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계	교원						사무직원							
			본 교			분 교	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107	(20)	14,292	13,180	499,025	273,601	225,424	31,055	25,772	12,414	13,358	5,283	3,380	1,903	19.4
유치원		347	0	801	804	15,263	7,900	7,363	1,359	1,028	20	1,008	331	69	262	14.8
초등학교		258	(20)	4,204	4,240	110,757	57,778	52,979	7,182	5,943	1,692	4,251	1,239	740	499	18.6
중 학 교	소계	131	0	1,976	2,030	63,516	33,747	29,769	4,078	3,592	1,500	2,092	486	301	185	17.7
	국공립	112	0	1,718	1,778	55,108	29,367	25,741	3,561	3,138	1,193	1,945	423	251	172	17.6
	사립	19	0	258	252	8,408	4,380	4,028	517	454	307	147	63	50	13	18.5
일 반 고	소계	52	0	1,186	1,197	41,387	21,221	20,166	2,616	2,360	1,499	861	256	180	76	17.5
	국공립	37	0	823	834	28,283	12,929	15,354	1,850	1,664	950	714	186	118	68	17.0
	사립	15	0	363	363	13,104	8,292	4,812	766	696	549	147	70	62	8	18.8
전 문 고	소계	30	0	637	637	19,211	11,205	8,006	1,571	1,331	865	466	240	176	64	14.4
	국공립	24	0	492	492	14,540	9,959	4,581	1,271	1,055	674	381	216	156	60	13.8
	사립	6	0	145	145	4,671	1,246	3,425	300	276	191	85	24	20	4	16.9
특 수 학 교	소계	9	0	209	204	1,333	829	504	423	358	135	223	65	43	22	3.7
	국공립	2	0	53	49	361	222	139	116	94	18	76	22	16	6	3.8
	사립	7	0	156	155	972	607	365	307	264	117	147	43	27	16	3.7
전문대학		5	0	172	—	20,010	12,133	7,877	654	403	307	96	251	192	59	49.7
교육대학		1	0	1	—	1,795	536	1,259	120	68	49	19	52	31	21	26.4
대학(교)		11	0	373	—	88,577	55,698	32,879	3,869	2,638	2,171	467	1,231	892	339	33.6
대학원		32	0	516	—	10,396	4,723	5,673	72	52	42	10	20	13	7	199.9
기타학교		9	0	209	—	1,333	829	504	423	358	135	223	65	43	22	3.7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자료, 2009.

- 충북의 체육시설은 총 552개 시설이며, 이중 간이운동장이 376개 시설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이트볼장이 54개 시설, 체육관이 28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가 78개 시설로 전체의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충주시, 제천시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이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표 3-103> 충북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0년 말 기준)

시설항목	합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 계	552	78	64	48	42	34	43	50	16	43	18	39	33
육상경기장	13	1	1	2	1	1	1	1		1	1	2	1
축구장	13	1	3	2		2			1	1	3		
하키장	1			1									
야구장	3	1	1	1									
사이클경기장	1											1	
테니스장	21	2	3	3	1	1	2	1	1	1	1	3	2
씨름장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376	61	49	30	31	21	34	40	10	34	7	25	16
체육관	28	7	3	3	2	1	2	2	2	1	1	1	2
구기체육관	10	2	2	2	1		1		1			1	
투기체육관	3	3											
생활체육관	15	2	1	1	1	1	1	2	1	1	1	1	2
게이트볼장	54	1		7	6	9	2	5		1	3	9	9
수영장	7	1	2						1			2	1
롤러스케이팅장	7	1	2					1	1	1			1
사격장	2				1								1
국궁장	14	1	1	1	1	1	2	1	1	2	1	1	1
양궁장	3	1			1						1		
승마장													
골프연습장	1	1											
조정카누장	2		1							1			
요트장	1		1										
빙상장													
설상경기장													
기타시설	3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0.

3)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 2010년 현재 충북의 평생학습기관은 총 219개로 주민자치센터가 70.3%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시설 12.8%, 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9.1%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4> 충북의 유형별 평생교육기관 현황

구분	시설수(개소)	비중
계	219	100
전담기관	3	1.4
학교부설	11	5.0
문화시설	28	12.8
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20	9.1
직업교육기관	3	1.4
주민자치센터	154	70.3

자료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평생학습백서』, 2010.

-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문화 및 예술, 교양 및 여가 프로그램이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 및 스포츠 프로그램에 26.8%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 및 건강 분야에 도민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5> 충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강좌수	비중
계	2,517	100
자격증, 직업기술, 직무향상교육	438	17.4
성인 기초 및 문해교육	32	1.3
건강 및 스포츠	674	26.8
문화 및 예술, 교양 및 여가	961	38.2
자녀교육 및 지도, 상담	67	2.7
학점은행제 및 학력인증	20	0.8
외국어	161	6.4
컴퓨터 및 정보화	91	3.6
시민 및 공동체 교육	40	1.6
기타	33	1.3

자료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평생학습백서』, 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분석

-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유치원 1년 의무 교육실시 및 보육분야의 복지정책 추진을 계기로 다양한 복지정책의 확대 요구에 대한 지역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유입을 계기로 지역의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
- 지역전략산업분야의 전문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 u-Learning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등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 정비 및 평생학습 서비스의 발전 추진
-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유치 및 국내외 대규모 대회의 추진으로 인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 증대
- 도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여가·체육 인프라 확대 필요
- 어르신, 장애인, 직장동호회 참여 등 생활체육 수요 다원화 및 지역소득 창출원으로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필요성 확산

2) 전망

□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창의적 교육 활성화

- 사회의 다변화, 다극화, 복잡화 개별화로 인한 미래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교육 필요성 강조
- 정보와 지식을 창출·활용·확산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하는 학습사회(The Learning Age) 도래
-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도래
- 일과 교육의 통합필요에 따른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할 수 있고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정착 필요성 증대
-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교육여건을 창의·지식 교육에 적합한 교육인프라 개편
 - 고급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체제 및 기반구축으로 지역의 인적자원의 고급·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기로 활용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소셜 네트워킹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OSMU(One Source Multi-Us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교육시스템 및 유비쿼터스 학습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필요

□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다양한 고급 여가·스포츠 생활 관심 증대

- 프로 스포츠, 엑스트림 스포츠, 전통 스포츠 등에 대한 다양한 뉴패러다임 스포츠 욕구 증대
- 다양한 국제 경기 유치로 통한 스포츠 경제발전 전략 및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전략적 발전체제 구축
- 스포츠를 통한 평생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바이오밸리, 아시아솔라밸리, MRO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으로 부상 ■ 세종시 건설, 오송역 개통,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고급인력 및 전문가 등 유입 및 통행인구 증대 ■ 충북스포츠토트 여자축구팀 유치로 충북스포츠에 대한 전국적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NT 등 전문화된 특화분야에 지식기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훈련체계 미완성 ■ 인구 흡인력 제고를 위한 우수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조성 부족 ■ 기초적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공간 부족 ■ 국제규모의 스포츠 교류행사 경험부족 및 국제경기 시설 취약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종시 건설, 청주공항활성화 추진 등에 따른 세계적 석학의 지역유입 ■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교육시스템 및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 구축 추진 ■ 프로 구단 유치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학생 및 교원 유출 가능성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편중 증대 ■ 체육시설 증설에 따른 환경 손실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장학제도의 획기적 강화
- 글로벌 인재의 지역유인 기반체제 구축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체제의 확장
- 대학, 실업 및 프로구단의 창단 및 지역의 스포츠마케팅 체제 강화
- 국제규격 시설의 확보, 생활체육 시설의 집중보강

4. 세부 추진과제

□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확대

- 충북을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도(敎育道)’로 이미지 브랜드화
 - ‘선생님 존경 프로젝트’ 개발 및 인재양성체제 강화를 통한 ‘교육의 중심’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선생님과 함께하는 증강현실기반 세계여행 프로그램 운영
 - 인재양성기금 확대를 위한 도민운동 전개 및 인재육성 장학제도 다양화 추진
 -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체험교육의 확대
- 은퇴 교육자를 위한 정주타운을 건설하여 지식과 경험이 융합된 신지식의 창출
 - 고급인력을 보유한 은퇴자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일자리 제공
 - 융합신지식을 교육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 활용
 - 고령친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공
- 뉴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체제 구축
 -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한 다분야평생학습 정보망의 구축
 - 학습과 고용을 연계한 지역인재고용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과 연계하여 과학 클러스터 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전문평생학습체제 구축

□ 글로벌 수준의 지역성장계획에 따른 지역인적자원의 고급화기반 조성

- 글로벌 지역성장계획의 추진으로 인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자원의 활용구조 획기적 개선
 -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 제2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을 통한 바이오·생명과학산업 분야의 석학이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됨
 - 청주국제공항 일원에 MRO산업육성 및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하여 항공정비 분야의 전문가가 유입됨에 따라 바이오 산업 및 항공정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함
 - 신성장 동력 중심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아시아 솔라밸리’의 조성 등으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지역수요가 증대됨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진천·음성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건설,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종합계획’ 등의 추진으로 인한 문화관광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창출됨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체제 구축기반 조성

-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융·복합 기반의 『SMART 충북』 추진
- 스마트 정보화 발전 기반의 확충, 인터넷 서비스의 고도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보호를 위한 안정성 강화 등 추진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23개 마을)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교육·문화공간 거점으로 활용
- 정보화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 그린PC(650대)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180대)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 (1,800명) 실시
-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BcN)을 2011년 122개 마을·2013년 337마을로 확대 구축하고, 무선인터넷(WiFi)을 2010년 1,500개소·2013년까지 추가 1,500개소 확대하여 구축
-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60개소를 설치하여 정보화 낙후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
-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강화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
- 평생학습도시 추가조성(4개도시)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반강화 추진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2011년 20개 프로그램, 매년 5개씩 추가 개발)
-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등 교육지원사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의 지속적 추진

□ 지역인적자원의 고급·전문화와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확보

-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바이오·생명과학산업, 항공정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지역거점대학의 육성방안이 요구되며,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대학 등 전문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원 및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위한 인력양성 체제를 강화해야 함
- 『SMART 충북』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에 상응하는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학습지원체제의 양적 및 질적 향상 추진
- 평생학습 진흥계획 수립이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전환 및 2013년 학습계좌제 이양으

로 시·군 및 교육청 등 평생교육 총괄·조정 역할과 평생학습 인증체계 구축시급□
첨단 기술을 활용한 u-learning 시스템 확대 구축

- 교육보조시설 현대화 및 학교 시설의 첨단화
 - 학교내 각종 편의시설 확보, 각급 학교내 무선통신망 설치 및 인터넷 전용선 설치
 - 첨단과학기술 교육집적체제 및 정보화 교육기반 구축
 - 학교시설을 지역의 사회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
 - 학습 성취도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구축
 - 교육시설 관리, 교육정보 인프라, 방과후 학습, 창의학습동아리, 교육봉사단체 및 평생 학습 등의 네트워킹으로 종합교육체제 구축
-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교육체제 구축
 - 증강현실 원격어학교육체제 도입을 통한 2중 언어 소통방식 언어체험 교육 및 문화체험 교육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우리말을 다중언어로 사용하는 다문화·다언어 교육시스템 구축
 -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증강현실 기반 ‘친구나라 돌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증강현실기반 문화재 복원, 동화 구현 및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를 강화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첨단 기술지식기반산업의 성장주도 산업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개편

- 세종시 등 지역발전의 여건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
 - IT와 BT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기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녹색성장을 위한 첨단산업에 추진에 따라 지역내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특화 전문화 교육시스템 구축
 -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정보와 기술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체의 R&D 및 교육훈련에 협력함으로써 지역혁신의 기반 강화
 - 지방화와 세종시 건설로 인한 고급 인적자원의 유입과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문훈련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 세종시 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건설에 따른 유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유입 등으로 민간 수요가 증대되어 신규 인력수요 증대
 - 정보통신기술의 현격한 변화에 따른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교육으로부터 e-Learning(electronic learning)에서 m-Learning (mobile learning) 그리고 u-Learning(ubiquitous learning) 등으로 학습환경과 방법, 내용 측면에서 보다

확대되고 발전되어 첨단장비를 활용한 학습체제 구축

- 충북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대학교육체제 구축

□ 함께하는 평생체육 체제구축

- 민선5기 충북은 체육분야에서 ‘도민이 다함께 즐기는 평생체육’을 목표로 첫째, 도전과 공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 둘째,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셋째,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 넷째, 감동과 희망의 장애인체육 진흥, 다섯째,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
- ‘도전과 공지의 당당한 충북체육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체전 도약을 위한 경기력 향상,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대규모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력 향상 등을 추진
 - 전국체전 도약을 위해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강화훈련(1,450명)을 실시하고, 체육회·대학·실업·재경 우수선수 발굴·육성(23종목 132명)하며, 전략종목 육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축구, 검도)을 추진
 -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청 운동경기부를 5팀 육성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참가 30회, 전지훈련 10회 등을 실시
 - 체육진흥기금은 2011년부터 2019년 까지 9년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충북체육 발전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기반을 구축
 - 전국체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4개 대회 및 연중 개별종목의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력 향상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15개소 시설의 건립 및 정비, 11개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의 2단계 확대사업을 유치
 - 전문체육 기반시설 가운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종목별 경기장 건립 9개소, 전문체육 시설 개·보수 4개소, 도민체전 시설 정비 2개소 등을 추진
 -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 생활체육시설 설치 3개소 등 도민 생활체육시설을 추가 설치
-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추진
 - 지역생활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체육 바우처사업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육성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등을 지원
 -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 지원,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 ‘감동과 희망의 장애인 체육’ 달성을 위해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유지,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등을 추진
 - 전국장애인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전략종목 선수 육성 및 우수지도자를 9종목에 14명을 확보 배치하고 도지사배 4종목에 대해 전국단위대회의 개최를 지원
 - 생활체육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5회 충북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도, 시·군 전일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및 어울림활동’ 20개 교실에 대한 운영을 지원
- ‘레저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을 유지하고 국제대회 및 스포츠 교류를 추진
 - 유도(청주), 조정(충주), 산악자전거(제천), 축구리그(보은), 마라톤(음성) 등 각종 국내대회를 120회 개최하며, 각종 전지훈련을 12팀 유치계획 추진
 - 경기장 조성 및 국내외 대회참여 홍보 활동 등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일본과 중국의 국제 자매도시와 스포츠 교류를 다방면에서 추진하여 스포츠교류를 확대

□ 스포츠를 통한 충북위상 강화

- 충북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유치를 통해 국내 여자축구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여자축구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
 - 유소년, 초중고, 대학 및 여자축구팀 지속적 창단으로 우리나라 여자축구의 활성화에 기여
 - 충북연고 축구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확산하여 도민의 통합과 일체감 형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인 전통스포츠·게임(TSG)진흥센터의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활 체육시설의 확장과 생활체육 대회 개최를 위한 관련기반 여건을 조성

□ 여자축구의 세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추진

- 충북스포츠토토 여자축구팀 유치를 통한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구축
 - 도내 유소년, 초중고와 대학,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에서의 여자축구팀 창단 및 활성화 지원

- 충북이 여자축구의 중심지로서 여자축구의 붐을 형성하여 여자축구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 추진

□ 아시아 체육의 핵심으로서의 역량 강화

- 대학팀, 실업팀 및 프로 구단 등 다양한 전문스포츠팀 창단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 스포츠 활성화 추진
-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TSG) 유치, 2013년 충주세계조정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세계 무술대회 개최 추진으로 스포츠의 국제교류의 확대
- 세계 최고분야의 육성·훈련체제 구축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시스템 구축
 - 세계 최고수준의 양궁, 수영, 마라톤, 테니스, 축구 등 미래발전 스포츠에 대한 전문 훈련장 설치를 통해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하는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 국제규격의 경기장 건설 및 분야별 세계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관광 활성화
-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올림픽대회 등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강화

□ 평생건강 구현을 위한 평생 생활체육 구현

- 엘리트 및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충북 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적 실행계획 수립
 -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마케팅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 기지화 구현
- 스포츠의학과 운동처방 등 다양한 스포츠건강의학 관련 시설로 ‘스포츠건강의학센터’ 건립
 - 우리지역의 한방, 약수 등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생활체육 교류의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대
 - 전국 및 세계대회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장 규격을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경기장 현대화 내지 국제규격화를 추진함
 - 스포츠형 테마파크 건설로 대규모 스포츠 시설을 테마파크 형식으로 건설하여 각종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확보
 - 스포츠관광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레저스포츠와 X-게임 등 다양한 뉴-스포츠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체육문화 창출의 모델 제시

-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충족시키고 생활체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지공간내에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며 종합레포츠단지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및 건강증진 도모
- 학교체육과 평생체육을 연결하는 스포츠 클럽의 육성
 - 유아기부터 청소년시기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체육과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 증진 및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평생체육을 이어주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육성
 -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학교 체육시설의 선진화, 학교운동부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어르신 건강 증진과 문화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실버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을 위한 전용체육시설으로 활용하고 노인대학과 연계 운영

□ 체육시설의 전면적 보강

-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여가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전면적 확충이 요구
 - 시군 지역에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및 야구장 등 기본적인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적 스포츠 활동기반 마련
 - 충북 도민체전 개최시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인프라 우선적 지원
 - 지역내외의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 중앙부처의 이전 및 지역개발로 인해 고급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의 확대 및 개선, 그리고 스포츠 시설의 다양화 추진
 - 스포츠 활동 주민층의 변화에 고급여가 수요의 확대에 적합한 시설의 확보 요구
- 학교체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이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각계각층의 스포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전용 스포츠 시설을 확보해야 함.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전문 스포츠 시설 및 장비의 개발을 통한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도모

제 6 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1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관리

제2절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제3절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자원개발

제6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1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관리

1. 현황과 문제점

1) 도시계획현황

- 2009년말 현재 충북의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7,433.18km²로 용도지역별 지정면적은 도시지역 704.70km²(9.5%), 관리지역 1,945.20km²(26.2%), 농림지역 3,740.75km²(50.3%), 자연환경보전지역 834.65km²(11.2%)임
- 토지관련법제의 개편으로 관리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은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세분화 중에 있으며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은 13.76km²(0.7%)임
- 행정구역별 도시계획구역면적 지정현황을 보면 시급도시 396.2km²(3개 도시), 읍급도시 122.8km²(14개 도시), 면급도시 135.8km²(29개 도시)로 지정됨
- 용도별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주거지역 82.4km²(11.7%), 상업지역 11.4km²(1.6%), 공업지역 44.5km²(6.3%), 녹지지역 565.6km²(80.2%), 미지정지역 1.5km²(0.2%)로 지정됨
- 2007년 개발제한구역 내 33개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2009년 현재 청원군(24.94km²), 옥천군(29.7km²) 일부지역이 잔여 개발제한구역임
-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07.5km²로 이중 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은 12.4km²,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95.1km²임.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1.3km²로 매수청구면적은 87,715m², 매수실적은 30,508m²임
- 개발촉진지구는 5개 지역에 690.0km²가 지정되어 있는데 낙후지역형이 5개 지구(보은, 영동, 단양, 괴산, 증평군), 도농통합형이 1개 지구(제천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표 3-106> 토지이용 현황

구 분	현 황	비 고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 704.704 km ² (9.5%)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세분화 중
	•주거지역 82.407km ² 11.7%	
	•상업지역 11.422km ² 1.6%	
	•공업지역 44.527km ² 6.3%	
	•녹지지역 565.590km ² 80.2%	
	•미지정지역 1.490km ² 0.2%	
	•비도시지역 : 6,720.603km ² (90.5%)	
	•계획관리지역 801.966km ² 10.8%	
	•생산관리지역 427.007km ² 5.8%	
	•보전관리지역 702.467km ² 9.5%	
도시계획구역 (행 정 단 위)	•시급 : 396.2km ² (3개 도시) •읍급 : 122.8km ² (14개 도시) •면급 : 135.8km ² (29개 도시)	도시계획구역 중 9.2%
	•청원지역 : 24.94 km ² (56호) •옥천지역 : 29.70 km ² (20호)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면적 : 107.456km ² •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 : 12.359km ² (11%) •미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 : 95.097km ² (8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면적 : 1.3km ² - 매수청구 면적 : 87,715m ² , 매수실적 : 30,508m ²	2007년 33개 취락 해제
시 설 면 적	「낙후지역형개발촉진지구」 •보은지구(1996) : 135.0 km ² •영동지구(1998) : 128.3 km ² •단양지구(2005) : 144.0 km ² •괴산지구(2007) : 128.0km ² •증평지구(2010) : 8.8km ² 「도농통합형개발촉진지구」 •제천지구(2004) : 145.9 km 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면적은 결정후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개발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 총면적 : 690.0km ²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충청북도 내부자료.

<표 3-107>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도시계획구역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1996	644.2	66.2	8.4	21.1	548.5	0.52
2000	654.7	66.5	8.8	19.3	559.6	0.52
2005	686.5	80.2	10.4	34.5	560.9	0.52
2009	704.7	82.4	11.4	44.5	565.3	1.1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 2009년 현재 충북의 도시계획구역면적은 704.70km²로 충북면적(7,433.2km²)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주거 82.4km²(11.7%), 상업 11.4km²(1.6%), 공업 44.5km²(6.3%)를 차지함
- 1996년~2009년 기간 동안 용도지역별 면적증가율은 주거용도 24.5%(연평균 1.7%), 상업용도 35.7%(연평균 2.4%)에 불과하였으나 공업용도는 110.9%(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2009년은 전년대비 17.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는 공업용지 수요가 높은 청주, 청원, 음성, 진천, 충주, 제천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과 개별입지 공장수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3-108>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km²)

	행정구 역면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도시	준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미세분		
1995	7,434.30	66.91	2,083.11	-	-	-	-	3,833.33	791.56
2000	7,432.56	80.57	2,078.14					3,771.63	789.65
2005	7,431.00	2,186.93						3768.11	789.76
2009	7,433.18			801.97	427.01	702.47	13.76	3,940.75	834.65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각 년도.

- 2009년 현재 충북의 비도시지역면적은 6,720.60km²로 충북면적(7,433.18km²)의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801.97km²(11.9%), 생산관리지역 427.01km²(6.4%), 보전관리지역 702.47km²(10.5%), 농림지역 3,940.75km²(58.6%), 자연환경보전지역 834.65km²(12.4%)를 차지함
- 1996년~2009년 기간 동안 용도지역별 면적변화를 보면 관리지역 -10.5%(연평균 -0.8%) 감소, 농림지역 2.8%(연평균 0.2%) 증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4%(연평균 0.4%)가 증가함

2)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및 변화

- 2009년 충북지역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 67.5%, 농업용 토지 19.1%, 도시용 토지 6.1%로 임야의 비중이 높음

<표 3-109>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²)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타
청 주 시	47.89	44.30	44.90	18.13
충 주 시	61.23	194.85	637.69	90.28
제 천 시	42.21	122.06	649.61	69.45
청 원 군	75.73	204.77	455.69	80.50
보 은 군	24.13	116.79	401.85	41.30
옥 천 군	27.76	107.32	348.11	53.85
영 동 군	30.36	118.60	655.01	41.64
증 평 군	9.23	25.29	40.81	6.62
진 천 군	30.89	103.56	235.28	37.51
괴 산 군	32.44	144.11	627.26	38.29
음 성 군	46.52	156.88	280.87	36.46
단 양 군	23.63	79.16	642.41	35.47
계	452.01	1417.70	5019.48	543.9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도시용 토지비율이 높은 지역은 청주시 30.9%, 증평군 11.3%, 청원군 9.3%, 음성군 8.9%로 나타났으며 임야비율이 높은 지역은 단양군 82.3%, 영동군 77.5%, 괴산군 74.5%, 제천시 73.5임
- 한편, 농업용 토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증평군 30.9%, 음성군 30.1%, 청주시 28.5% 내외를 차지함

<표 3-110>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단위 : km²)

구분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타	계
1996	321.12	1512.22	5,076.19	523.54	7,433.07
2000	348.80	1487.44	5,064.14	182.51	7,082.89
2005	402.14	1451.46	5040.87	536.97	7,431.44
2009	452.01	1417.70	5019.48	543.98	7,433.1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각 년도.

- 1996년~2009년 기간 동안 충북지역 지목별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용 토지면적은 40.9% 증가하였으며(연평균 2.7% 증가), 반면에 농업용 토지는 6.3% 감소(연평균 0.5% 감소), 임야는 1.1%가 감소(연평균 0.1%) 하였음
- 도시용 토지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별입지공장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도시용 토지 공급을 위해 농업용 토지 및 임야의 용도 전용이 많았음

3) 토지이용특징

- 충주, 음성, 진천 등 충북 중·북부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제조업체의 개별 입지와 더불어 기존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비도시지역은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진행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 도내 경부고속국도, 중부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청원~상주간 고속국도 등 고속국도 IC와 KTX오송역에 연결한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활발한 상태임
- 기타 농촌지역은 부처별 다양한 농촌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년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 여건변화와 전망

- 청주 율랑지구(396만 m^2 : 120만평), 월오지구(231만 m^2 : 70만평), 충주 호암지구(99만 m^2 : 30만평)를 포함하여 청주와 충주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될 예정
- 충북의 도시계획구역내 1.3km 2 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가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도시적 용도로 전환됨
- KTX 오송역에 따른 편리해진 교통여건은 지역내 기초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산업단지, 제천지방산업단지 등 약 15.1km 2 의 공업용지 토지분양에 기여
- 동북아 바이오 중심도시로 조성계획인 오송신도시개발사업은 1,320만 m^2 (400만평)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공급될 예정
- 세종시 건설로 3,306.6만 m^2 (1,002만평) 규모의 토지가 충북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또한 지원 및 배후도시 역할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와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2005년 6월 선정된 충주시의 기업도시는 산업용지 132만 m^2 (40만평)과 주거용지 59.4만 m^2 (18만평) 등을 포함하여 총 660만 m^2 (200만평)의 토지를 북부권에 공급할 예정
- 2005년 12월 선정된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는 907.5만 m^2 (275만평 : 진천 124, 음성151)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
- 충북지역의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등 공공용지와 관광휴양지, 체육시설용지, 묘지 등 기타용지는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소도읍육성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내에 균형있게 공급될 전망

□ 가구당 소요면적에 의한 주거용지 수요추정

- 주거용지내 수용인구는 목표 연도인 2020년 계획인구의 90%인 1,557천명으로 설정하였고 주거용지의 소유면적은 주택 1호당 평균 소요면적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
- 수요추계는 인구 및 주택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하였으며, 도내의 주택은 2020년까지 705천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주택 1호당 원단위(173.35)㎡/호를 적용한 결과 추정된 충북의 신규주택용지 소요량은 계획기간 내 약 122.2km²의 주택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2020년 주거지역 소요면적은 122.2km²로서 기 조성된 면적인 82.4km²와 현재 개발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4.6km²를 제외한 35.2km²의 신규 주거용지가 요구

□ 이용인구 1인당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 상업용지는 이용인구 분담률, 1인당 상면적, 용적률, 타용도혼합률, 공공용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text{상업용지면적} = \frac{\text{이용인구} \times \text{1인당상면적}}{\text{용적률} \times (1 - \text{타용도혼합률})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표 3-111> 이용인구 1인당 점유면적에 의한 상업용지 수요추정

이용인구	1인당상면적	용적률	타용도혼합률	공공용지율	소요면적
1,384,000	12㎡	200%	10%	30%	13.2km ²

- 목표연도의 계획인구 중 80%인 138.4만 명을 상업용지 이용인구로 설정하고 1인당 상면적 12㎡, 평균용적률 200%, 타용도혼합률 10%, 공공용지율 30%를 가정
- 산정결과 총 소요면적은 13.2km²로서 기 계획된 면적인 11.4km²를 제외한 1.8km²를 신규 상업용지 수요로 산정

□ 제조업체 평균종업원 밀도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 공업용지는 2차 산업종사자수와 2차 산업의 공업용지내 입지율, 공공용지율과 종사자 1

인당 면적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토지이용상 평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밀도지표는 고려하지 않음

$$\text{공업용지면적} = \frac{2\text{차산업종사자수} \times \text{공업용지입지율}}{\text{단위면적당 종업원수} \times (1 - \text{타용도혼합률}) \times (1 - \text{공공용지율})}$$

<표 3-112> 제조업체 평균종업원 밀도에 의한 공업용지 수요추정

2차산업 종사자수 ⁶⁾	공업용지 입지율	단위면적당 종업원수	타용도 혼합률	공공 용지율	소요 면적
230,000인	70%	4,500인/km ²	30	40	85.2km ²

- 공업용지내 2차 산업종사자 비율 70%, 타용도혼합률은 30%, 공공용지율은 40%, 천 m² 당 종사자수는 4.5인으로 설정
- 2020년까지의 공업용지 총 소요면적은 85.2km²로 기 지정된 공업용지 면적 44.5km²를 제외한 40.7km²의 신규 공업용지가 필요

<표 3-113> 2020년 용도별 소요면적

(단위 : km², %)

구분	2009	구성비	2020	구성비
인구	1,550,126명	—	1,730,000명	—
소요면적	계	138.3	220.6	100.0
	주거용지	82.4	122.2	55.4
	상업용지	11.4	13.2	6.0
	공업용지	44.5	85.2	38.6

□ 용도별 입지배분 원칙

- 공간구조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신규개발지역의 토지이용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함
- 계획중이거나 기결정된 단위개발사업들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유도
- 일 단지의 주거 및 공업용지를 지원·보완하는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에 반영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확보

6)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 61.9%, 2차산업 종사자수는 21.5%로 가정

□ 주거용지

- 지정 도계획의 주거용지는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용도전환
- 고밀주거지는 도시지역의 도심과 재개발지를 중심으로 배치

□ 상업용지

- 지정 도계획의 상업용지는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용도전환
- 도시지역의 기존 도심 및 부도심지역은 평면적인 상업용지의 확대지정을 지양하여 입체적인 관리를 유도
- 오송역세권개발에 필요한 상업용지 지정
- 여건변화로 인하여 지정 계획상의 상업용지의 위치가 불합리한 경우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

□ 공업용지

- 지정 도계획과 관련계획상의 공업용지는 대부분 수용하고 일부 용도전환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의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한 토지이용규제(담주변, 국립공원) ■ 민간업자의 도시개발건의권 부여에 따른 난개발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건설 ■ KTX 오송역의 개통 ■ 저렴한 지가, 낮은 인구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거점(growth pole)도시의 부재 ■ 지방자치단체간 개발경쟁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개발능력 미성숙으로 무계획적 토지이용 우려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광역차원의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주거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 잠재적 가용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일관성 있는 난개발 방지시스템 구축

- 신규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직주 균형개발, 도심재개발 등 토지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 추진
- 중·장기적인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수단 강구

□ 토지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시스템과 전산망을 구축 양질의 행정서비스 지원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와 농지 및 산지에 관한 기초정보 구축
- 토지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와 부동산정보체계를 정비

□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및 시스템 구축

-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난개발 억제장치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검토
- 획일적인 규제나 개발허용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제약이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보완적 제도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 토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 토지대장에 이어 지적도면까지 전산화를 완료하여 토지(임야)대장의 온라인 서비스를 지적(임야)도면까지 확대·운영
- 토지, 건축, 주택 및 도시정보까지 연계하여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토지개발수법을 이용한 시범도시 및 시범지구계획

-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 및 산업단지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
- 토지개발계획과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시설을 연계한 정보화 신도시를 건설하고, 다양한 도시개발 수법을 이용한 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계획

4. 세부 추진과제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정립

- 토지적성평가와 개발허가제를 토대로 관리지역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환경·교통·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조직 구성

□ 세종시 개발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외곽지역인 청주, 청원지역과 진천, 증평지역이 세종시의 광역권역으로 지정된 바 이에 따른 토지이용체계의 개편과 계획수립
- 특히, 인근지역인 청주, 청원지역 중 청주국제공항, 오송신도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을 세종시 광역계획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 친환경적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충주에 확정된 기업도시는 기존의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연계체계를 구축
- 혁신도시가 선정되는 시·군 지역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현상공모를 통한 최적의 혁신도시모델을 창출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는 환경과 경제와 지역적 균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계획적 여건을 조성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음성과 진천은 수도권 기능분담지역으로서 개별입지공장이 다수 입지하여 농촌경관 훼손 및 난개발로 심각한 토지이용 왜곡현상이 발생

-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을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미 입지한 개별공장들이 일정한 군집을 이룬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가칭)산업환경개선지구」 등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단지화를 유도
- 중부·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교통의 결절지로서 접근성이 유리한 점을 고려한 산업 입지계획을 수립
- 도 전체에 대한 지적, 도시계획, 임야 등 토지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 개발과 보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전권 도시계획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충북의 옥천 및 청원 일부지역 그린벨트에 대하여 취락밀집지구를 중심으로 단계별 해제방안을 강구
- 도내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되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제방안을 검토

제2절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수자원

- 도내 수자원은 주로 3개의 국립공원(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을 수원으로 하고 2개의 대형 댐(대청, 충주)에 풍부한 수자원을 저장하고 있음
- 댐 저수량은 총 저수량 4,255백만 m^3 , 용수공급량 5,029백만 m^3 규모이며, 괴산댐은 용수공급이 곤란한 소규모의 발전용 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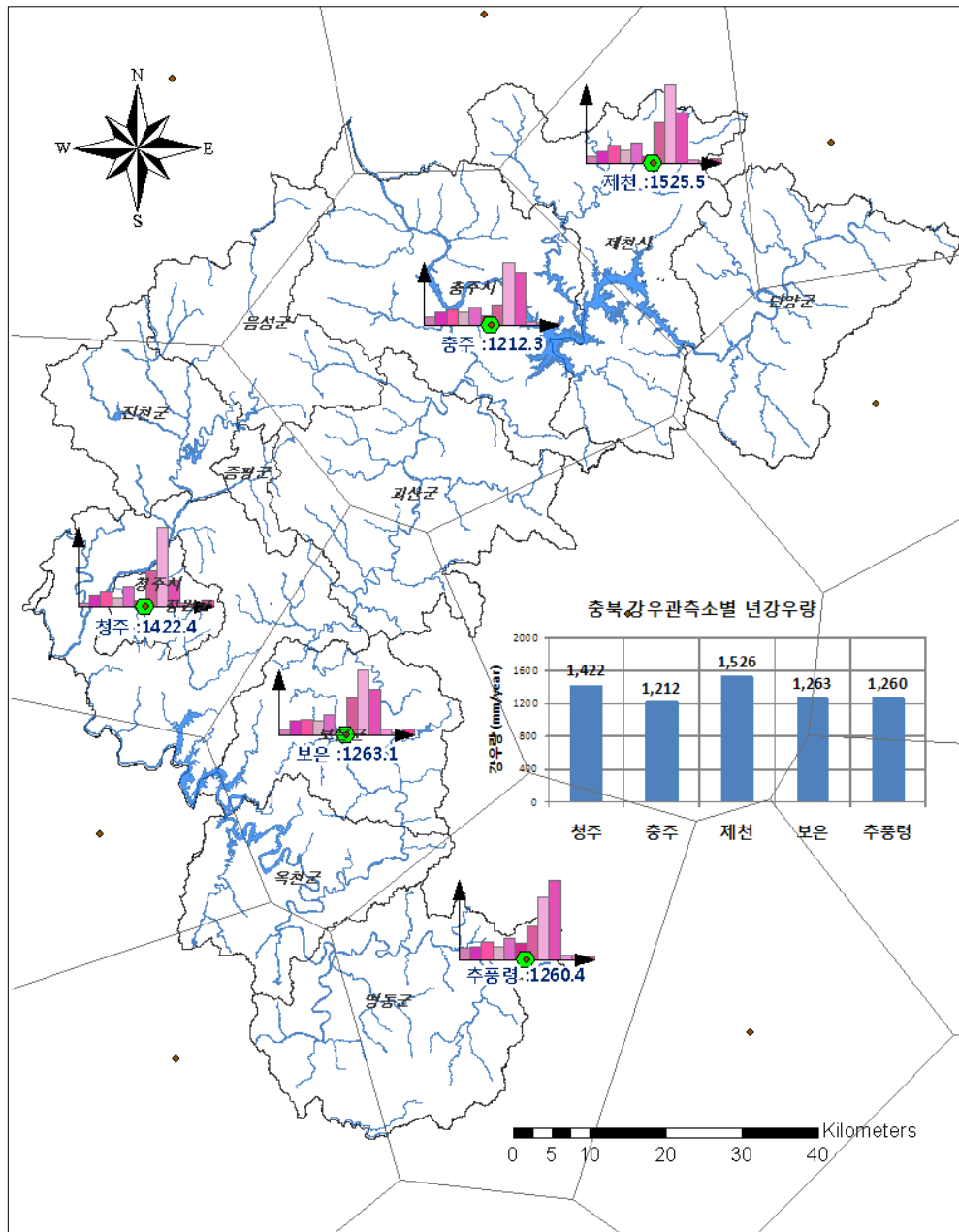
<표 3-114> 충청북도 댐 현황

구 분	댐 명	준공년도	총저수량 (백만톤)	용수공급량 (백만톤/년)	유역면적 (km ²)
합 계			4,255	5,029	10,791
다목적	충주댐	1985	2,750	3,380	6,648
	대청댐	1980	1,490	1,649	4,134
발전전용	괴산댐	1957	15	—	



<그림 3-26> 충청북도 수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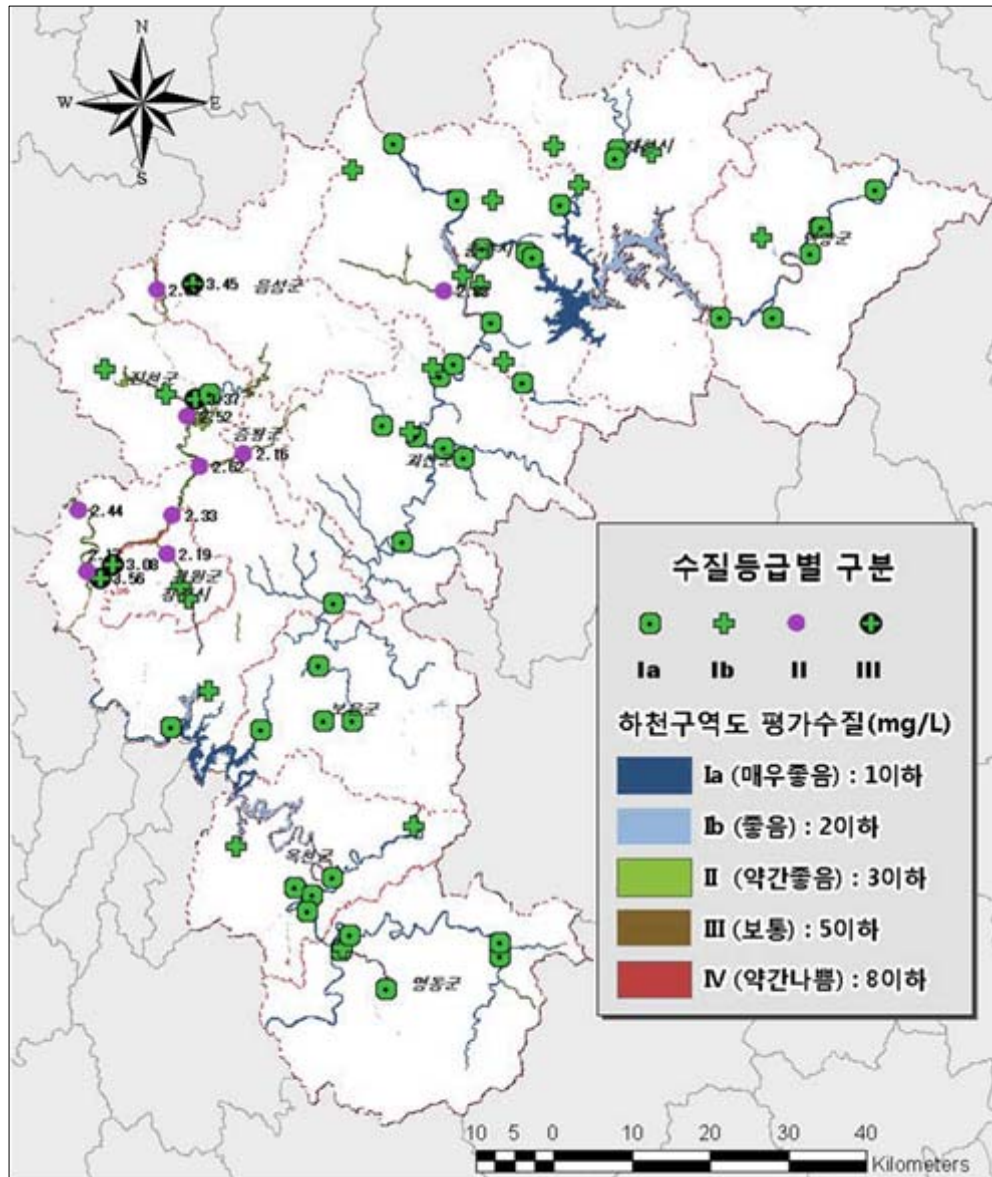
- 지표수의 수원별 수자원 총량은 약 390만 m^3 /일, 총 하천연장은 6,278km 규모이며, 주로 국가하천과 지방Ⅱ급 하천이 많고 금강수계 보다는 한강수계의 유량이 많음
- 충북도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로 양분되어 있으며, 한강수계의 주요 수자원 유입은 강원도이고 금강수계의 주요 수자원 유입은 전라북도(용담댐)에서 비롯되고 있음



<그림 3-27> 충청북도 주요 강우관측소별 강우량 현황

□ 수질현황

- 충청북도의 주요 수질관리 지점은 충주댐, 대청댐과 미호천이며, 미호천을 제외한 지역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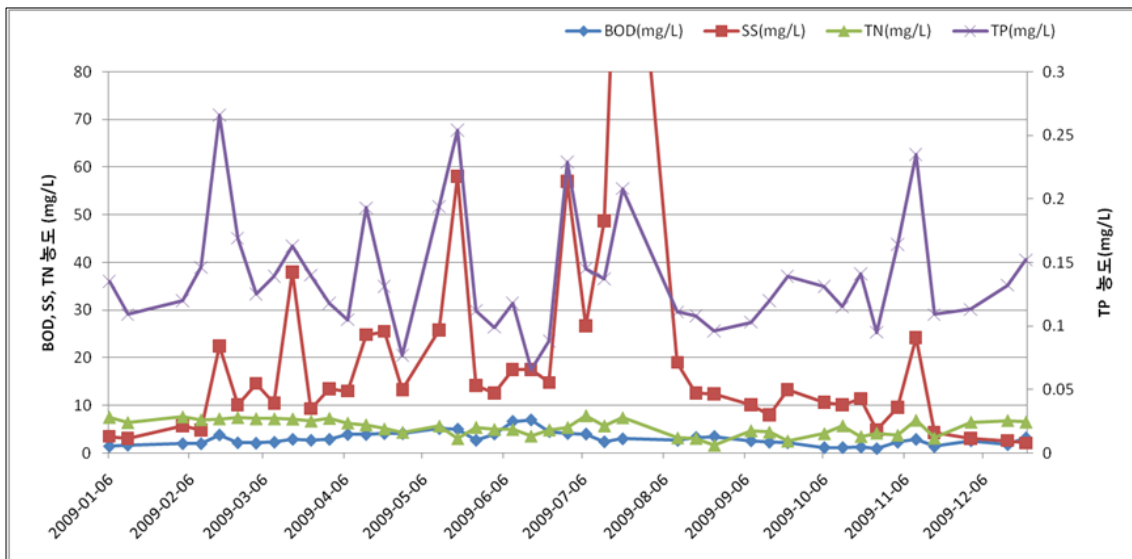
<그림 3-28> 충청북도 수계별 수질현황

<표 3-115> 충주댐 수질현황(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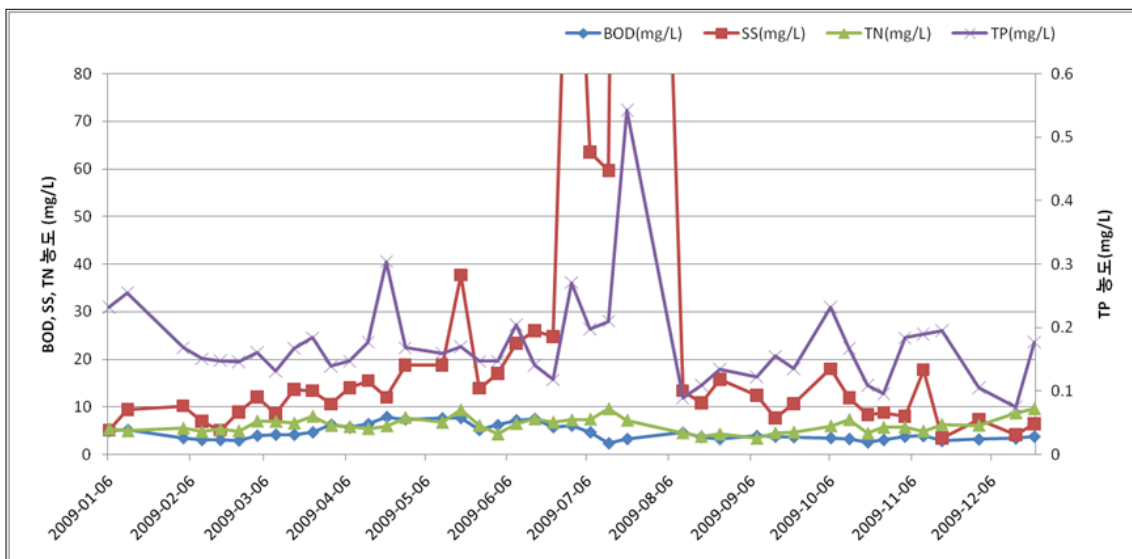
	온도 (℃)	Ph	DO (mg/l)	BOD (mg/l)	COD (mg/l)	SS (mg/l)	총질소 (mg/l)	총 인 (mg/l)
연평균	12.3	8.3	8.0	0.6	2.2	2.6	2.099	0.021
1월	8.0	7.8	8.6	0.7	2.0	1.8	2.270	0.018
2월	5.0	7.9	9.7	0.7	1.6	1.0	2.204	0.016
3월	5.0	8.4	12.2	0.6	2.2	2.3	2.071	0.013
4월	8.0	8.1	10.6	0.6	2.1	3.0	2.624	0.025
5월	9.0	8.2	9.6	0.4	2.1	1.2	2.186	0.010
6월	13.0	8.3	8.1	0.4	2.1	1.6	2.119	0.005
7월	16.0	8.4	6.6	0.4	2.1	5.6	2.004	0.028
8월	19.0	8.8	6.5	0.9	2.7	5.4	2.000	0.062
9월	20.0	9.0	6.4	0.4	2.5	2.4	1.505	0.007
10월	18.0	8.1	5.8	0.4	2.5	2.1	2.414	0.022
11월	16.0	8.0	4.6	0.5	2.6	1.5	1.934	0.026
12월	11.0	8.1	7.1	0.8	2.2	3.2	1.851	0.021

<표 3-116> 대청댐 수질현황(2008년)

	온도 (℃)	Ph	DO (mg/l)	BOD (mg/l)	COD (mg/l)	SS (mg/l)	총질소 (mg/l)	총 인 (mg/l)
연평균	11.7	7.4	8.1	1.0	2.7	1.5	1.536	0.010
1월	8.0	7.7	6.9	0.9	3.0	4.1	1.385	0.010
2월	6.0	7.5	10.6	1.1	2.7	0.6	1.704	0.010
3월	5.0	7.4	11.9	1.1	2.5	1.1	1.482	0.009
4월	6.0	7.4	11.8	1.1	2.4	0.7	1.515	0.009
5월	10.0	7.1	10.7	0.9	2.6	1.7	1.548	0.007
6월	12.0	7.4	10.4	1.1	2.7	1.1	1.612	0.008
7월	13.0	7.6	9.5	0.9	2.6	0.4	1.694	0.008
8월	17.0	7.3	6.5	1.0	2.7	0.6	1.512	0.009
9월	18.0	7.7	4.5	0.9	2.5	1.0	1.623	0.014
10월	18.0	7.3	3.2	0.8	2.6	2.7	1.619	0.018
11월	15.0	7.4	5.7	0.8	2.7	2.5	1.428	0.011
12월	12.0	7.4	5.6	0.8	2.8	1.5	1.307	0.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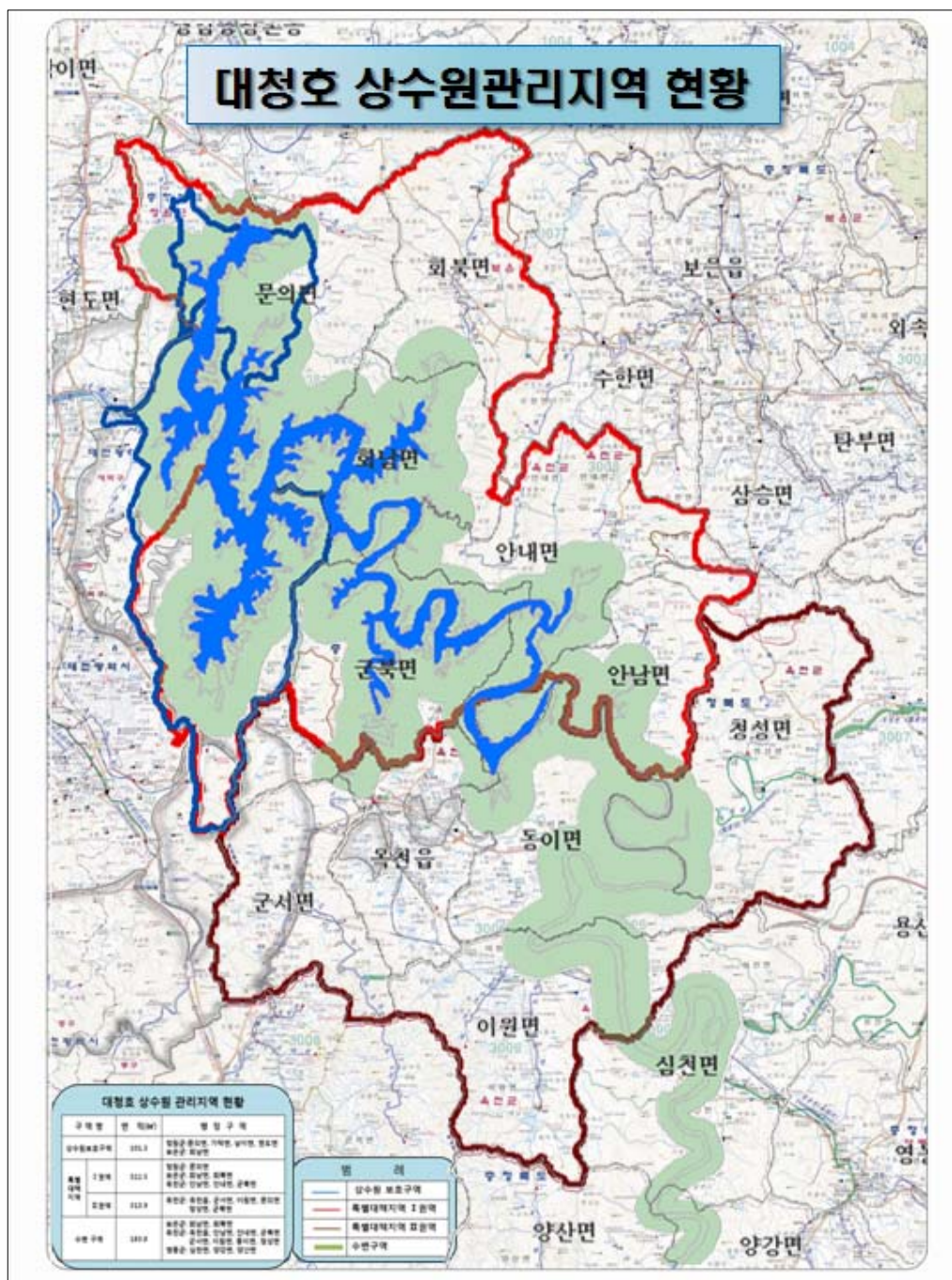
<그림 3-29> 미호천 상류의 수질현황(2009년)



<그림 3-30> 미호천 하류의 수질현황(2009년)

- 충주댐은 2009년도 연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0.6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2mg/L, SS 2.6mg/L, T-N 2.1mg/L, T-P 0.021mg/L로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대청댐은 BOD 1.0mg/L, COD 2.7mg/L, SS 1.5mg/L, T-N 1.5mg/L, T-P 0.01mg/L로 매우 양호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음
- 미호천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충청북도로서는 집중되는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관심지역임.

- 미호천 상류(미호A)의 2009년 연평균 수질은 BOD 3.0mg/L, SS 19.3mg/L, T-N 5.5mg/L, T-P 0.139mg/L이며, 총량관리 목표수질(BOD 3.0mg/L)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 미호천 하류(미호B)의 2009년 연평균 수질은 BOD 4.6mg/L, SS 27.2mg/L, T-N 6.2mg/L, T-P 0.173mg/L이며, 총량관리 목표수질(BOD 4.3mg/L)을 초과하고 있음



〈그림 3-31〉 대청댐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2.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은 수자원의 양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음용 가능한 질적인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수자원을 함유할 수 있는 산림지역의 훼손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개발증가, 축산농가 증가 및 가축분뇨 자원화로 하천수질이 악화되고, 상류지역의 토사유출 등으로 안정적인 수자원확보가 점점 어려워짐
- 환경기초시설 등 점오염원에 대한 처리기술의 발전으로 수질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도시화지역의 확대로 비점오염원 증가, 축산분뇨 증가,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등 오염증가요인으로 수질악화 예상
- 우리나라는 물관리종합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 증대 등으로 수질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충북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향후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미호천유역의 수질이 법정 목표수질을 초과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청미천, 달천 하류의 수질이 II등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 세종시 건설로 인한 미호천 수질개선 요구의 증대,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시행 등으로 오염원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한 압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대형 댐 등 수자원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 및 친환경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댐 유역의 수질오염저감 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함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충주댐의 양호한 수질자원 ■ 금강수계 총량관리 시행과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로 오염원관리 및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의식이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에 대한 비중이 높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응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함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의무제 시행 예정이어서 체계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4대강사업 등으로 환경기준의 강화, 오염저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환경기초시설설치, 청정산업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질이 초과하고 있는 미호천유역의 무분별한 개발계획 난립 ■ 4대강사업, 친수법 등으로 하천의 수리적 여건 및 하천별 개발사업 집중 ■ 한강수계의 엄격한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수질관리 기준 미달성 확률 증가

3. 계획의 기본방향

□ 수질오염원의 정확한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수질 및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
- 공공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체의 처리시설, 도시 비점오염원, 하천변 농경지, 축산분뇨 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수립

□ 축산분뇨처리 및 활용방안 수립

-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따라서 축산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가능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확충

- 도시지역의 불량 하수관거 정비, 합류식관거의 분류식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
- 관련법의 개정 등에 따른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강우시 배제되거나 월류되는 무처리 방류를 최소화,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 계획을 수립

□ 수질오염총량관리 적극적 대응

- 금강수계의 총량관리 시행성과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3단계 총량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
- 한강수계 총량관리 시행에 대비하여 목표수질 설정, 오염원조사, 수질/유량 조사, 개발/삭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4. 세부 추진과제

☐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오염원 정밀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하천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의 영향 분석
-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 축산분뇨처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2012년부터 금지된 해양투기에 대비한 축산분뇨 처리방안 마련
- 1차처리 후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방안 수립(바이오 연료, 퇴비 등)
- 축산오염원,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수립

☐ 적극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강 및 한강수계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 충청북도 총량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전문기구 활성화(수계기금 및 도 보조금 지원)

☐ 다목적 댐 상류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

- 안정적인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댐 상류지역에 대한 관련법에서의 주민지원 사업 확대방안,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연구
- 댐 상류지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청정산업 지원제도 활용)

☐ 물 부족에 대비한 절수 및 빗물이용체계 확립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의 의무화에 대응
- 관련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여 적극적인 물 부족 사태에 대비

제3절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자원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1) 에너지 관리 현황

□ 전력사용량

- 충북도의 전력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으나,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6%와 9%의 증가세를 보임. 2009년에 다시 1%로 감소하고 있음
- 전력사용량의 전반적인 비중으로 보아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1·2차 산업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3-117> 분야별 전력사용량

(단위 : MWh)

구분	합 계 (점유율, %)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1·2차 산업	전체전력 전년대비 증감율
2004	13,865,563 (100%)	1,371,398 (9.9%)	436,120 (3.1%)	3,101,457 (22.4%)	8,956,588 (64.6%)	6%
2005	14,463,024 (100%)	1,464,322 (10.1%)	505,952 (3.5%)	3,382,156 (23.4%)	9,110,594 (63.0%)	4%
2006	15,358,992 (100%)	1,528,357 (10.0%)	555,687 (3.6%)	3,662,009 (23.8%)	9,612,939 (62.6%)	6%
2007	16,685,666 (100%)	1,600,311 (9.6%)	601,857 (3.6%)	3,892,887 (23.3%)	10,590,611 (63.5%)	9%
2008	17,381,482 (100%)	1,666,440 (9.6%)	654,998 (3.8%)	4,100,926 (23.6%)	10,959,118 (63.1%)	4%
2009	17,600,049 (100%)	1,711,588 (9.7%)	757,298 (4.3%)	4,196,078 (23.8%)	10,935,085 (62.1%)	1%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산업부문에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광업의 경우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표 3-118> 1·2차 산업의 전력사용량

(단위 : MWh)

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2004	283,157	82,886	8,590,545
2005	309,990	88,369	8,712,235
2006	328,939	85,296	9,198,704
2007	356,858	88,648	10,145,105
2008	397,283	83,709	10,478,126
2009	438,985	81,781	10,414,318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가스 및 석유류 사용량

- 충북의 가스공급량은 도시가스의 경우 지난 6년간 계속 증가하였으며, 프로판가스는 2004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9년에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부탄가스는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과 2009년에 사용량 급증함 (2009년 전년 대비 89% 증가)

<표 3-119> 가스 사용량

구분	도시가스 (LNG, 1000m ³)	프로판 (LPG, 톤)	부탄가스(톤)
2004	243,333	123,944	103,025
2005	261,981	123,104	91,493
2006	347,042	113,994	85,295
2007	361,475	121,597	170,070
2008	430,921	92,804	132,774
2009	463,511	203,274	251,296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석유류 소비량은 2004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함. 휘발유 소비량은 2006년 주춤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2009년에 전년대비 10% 증가)
- 석유류 소비는 경기변동, 또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120> 석유류 소비량

(단위 : MWh)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2004	1,678,355	305,866	378,999	921,896	71,594
2005	1,897,014	369,710	389,918	1,066,740	70,646
2006	1,990,879	341,053	306,923	1,013,459	329,444
2007	1,983,764	359,954	265,150	1,037,413	321,246
2008	1,907,584	364,391	275,630	976,321	291,242
2009	2,477,288	400,958	269,955	1,020,360	256,281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2) 신·재생에너지 현황

-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7개 에너지원(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지력)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표 3-121> 신·재생에너지 분류

에너지원	세부분류	통계작성대상
태양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또는 검사, 대상 보일러 중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매립지가스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디젤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숯, 왕겨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산림청의 임산물 통계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풍력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양수발전 제외)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폐기물에너지	폐가스 산업폐기물 폐목재 생활폐기물 대형도시 쓰레기 시멘트 킬 른보조연료 RDF/RPF 정제연료유	검사대상 보일러 중 폐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검사대상 보일러 중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검사대상 보일러 중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검사대상 보일러 중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시멘트 공장 등에서 폐기물(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이용하는 업체 시멘트 공장 등에서 RDF/RPF를 이용하는 업체 폐유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제연료유
지열에너지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2009년 충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52,672 toe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5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체 비율로 보면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남(26.3%)과 경기(15.1%) 등에 비하면 저조한 것임

<표 3-122>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2009)

구분	생산량(TOE)	비율
전남	1,602,126	26.3%
경기	921,315	15.1%
강원	714,569	11.7%
울산	625,730	10.3%
충북	452,672	7.4%
경북	421,930	6.9%
인천	253,990	4.2%
전북	252,895	4.2%
경남	207,633	3.4%
서울	207,120	3.4%
대구	111,343	1.8%
충남	104,888	1.7%
부산	83,026	1.4%
제주	51,459	0.8%
대전	40,678	0.7%
광주	34,881	0.6%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 2009.

- 2009년 충북의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살펴보면 수력(전국 2번째 규모)과 폐기물(전국 6번째 규모) 분야에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3> 분야별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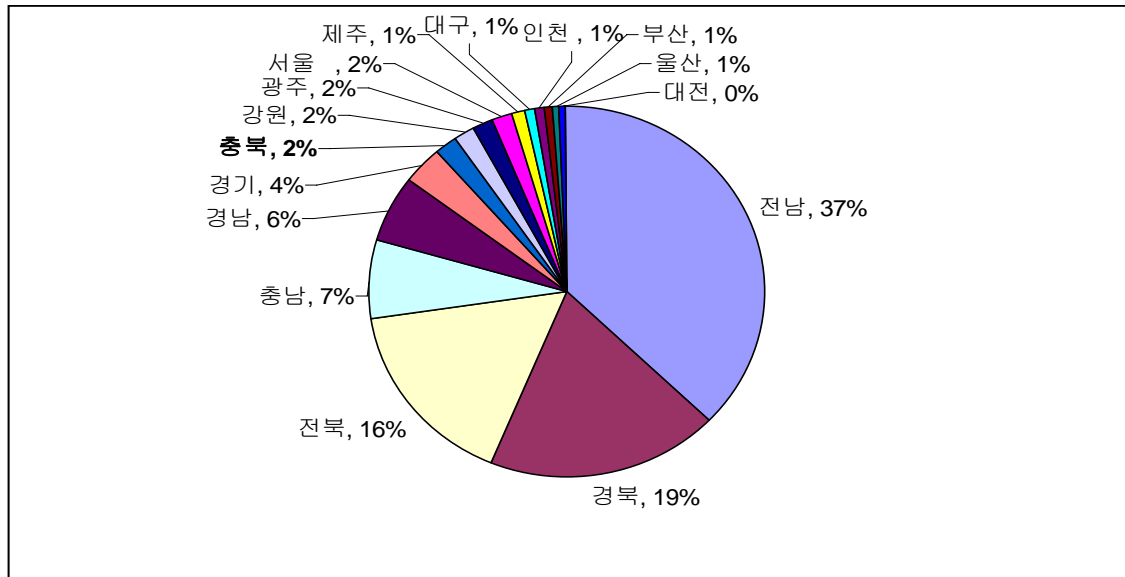
(단위 : TOE)

구분	태양에너지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강원	4,668	38,704	66,170	237,283	4	364,632	3,108
경기	10,476	121,344	9	126,736	1,581	655,637	5,532
경남	9,903	5,517	300	24,788	11	165,530	1,584
경북	24,736	10,269	51,820	20,971	3,576	309,199	1,359
광주	3,294	3,504	0	—	453	26,922	708
대구	2,704	44,941	3	72	14	63,129	480
대전	1,830	1,528	75	—	15	36,523	707
부산	1,524	6,733	121	—	5	74,255	388
서울	4,024	35,523	38	—	2,660	162,941	1,934
울산	1,357	109,111	2	333	4	514,625	298
인천	1,865	80,791	1	2,637	534	167,367	795
전남	47,395	45,099	1,531	17,859	2,758	1,486,808	676
전북	21,726	43,176	2,258	34,838	5,760	143,614	1,523
제주	1,981	2,049	25,020	—	—	22,336	73
충남	11,185	13,158	1	7,159	1,817	70,043	1,525
충북	3,730	18,976	3	133,953	—	294,572	1,438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생산현황』, 2009.

- 2009년 충북의 태양광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232 toe)로 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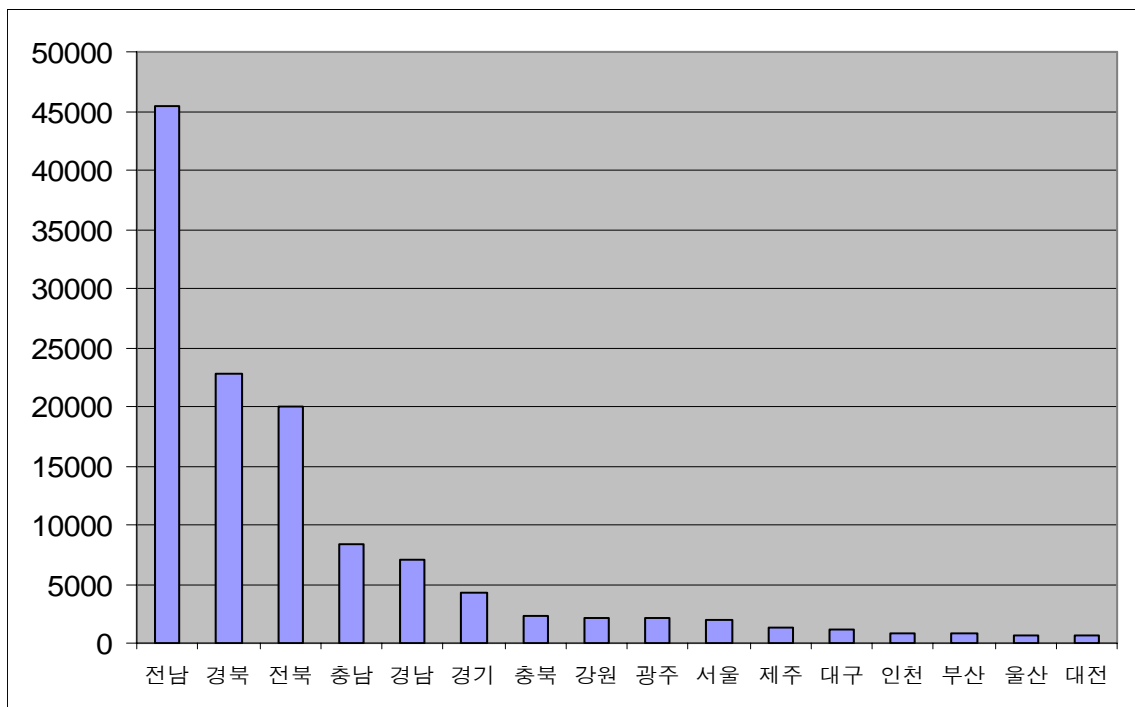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중에 7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광역자치단체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2> 태양광 에너지 생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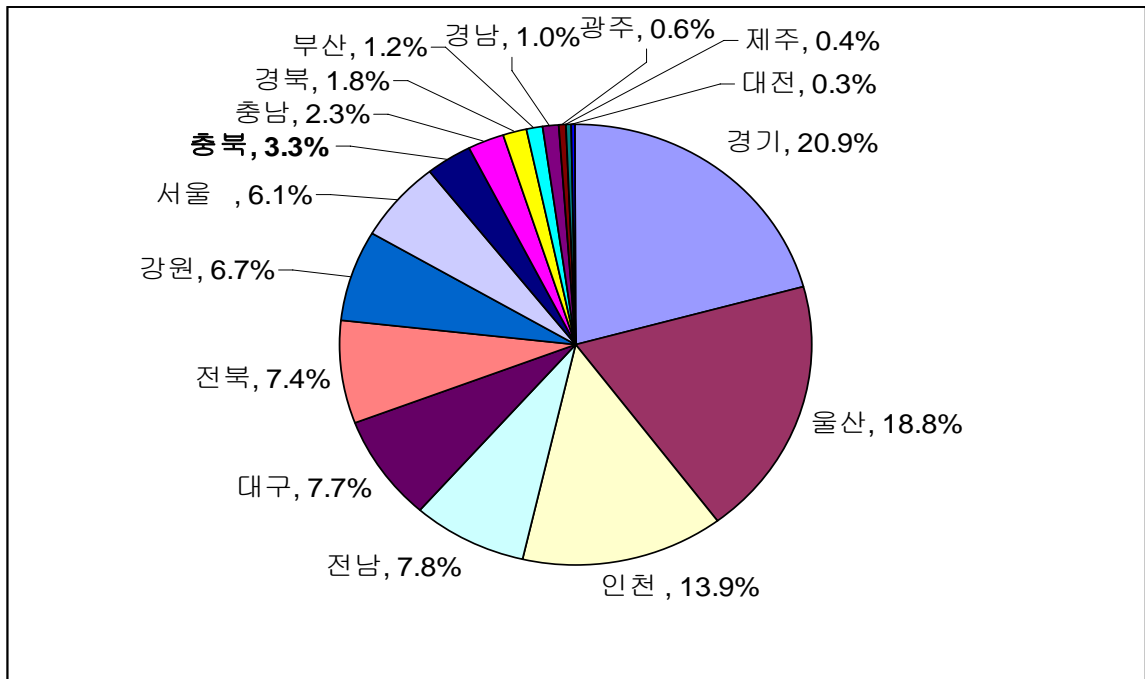
(단위 : TOE)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3>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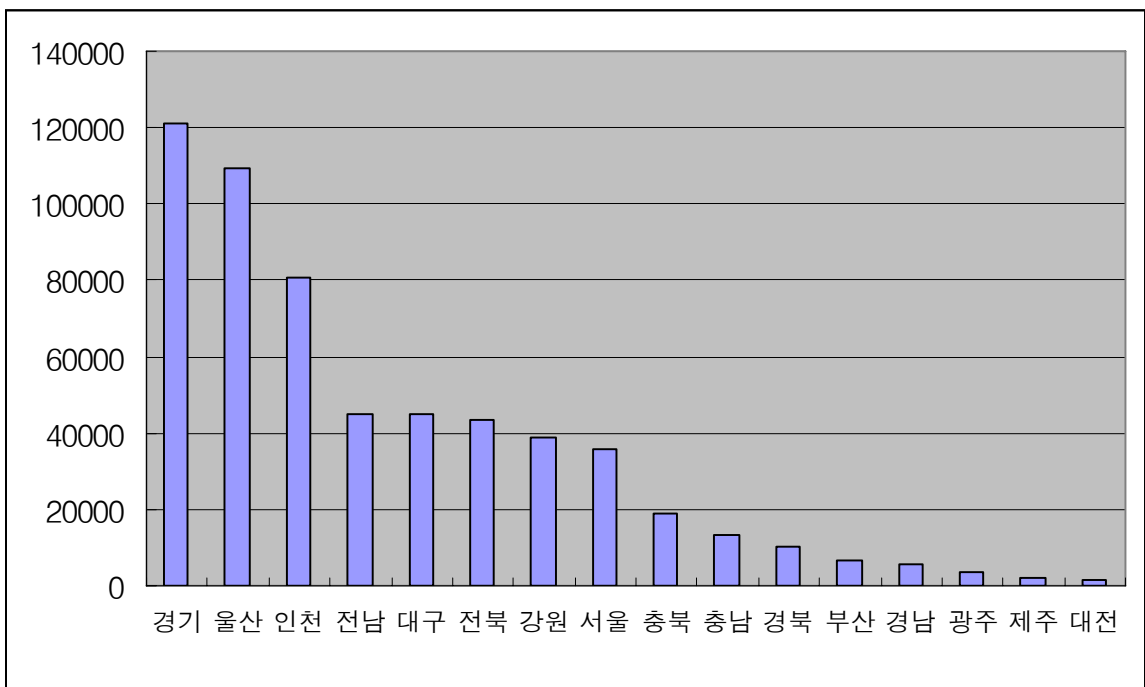
- 2009년 충북의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18,976 toe)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9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광역자치단체들과 많은 차이가 있음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4> 바이오에너지 생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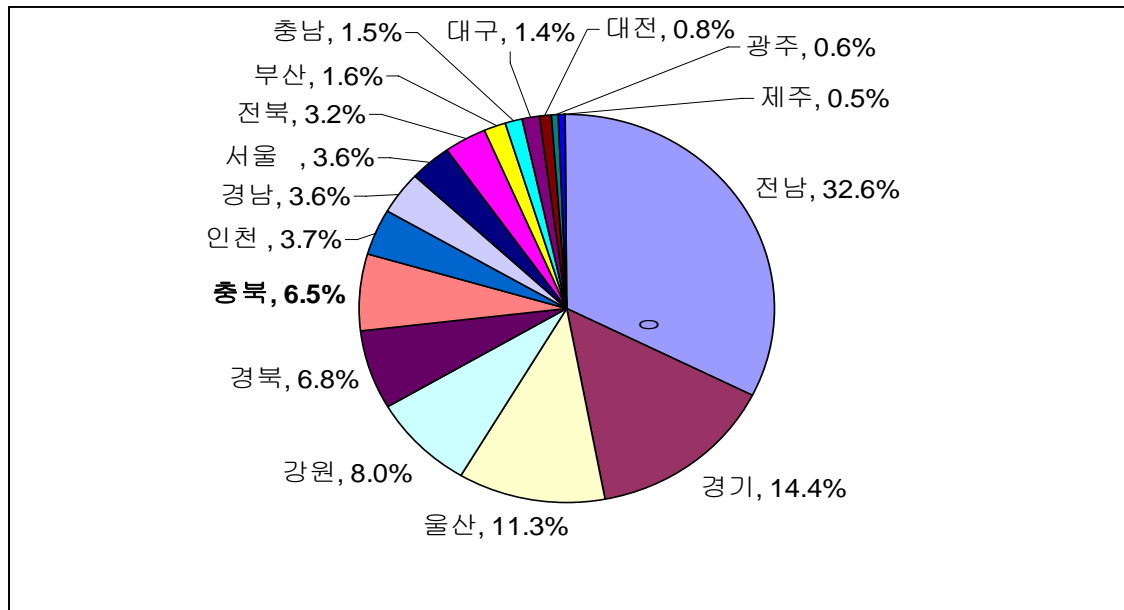
(단위 : TOE)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5>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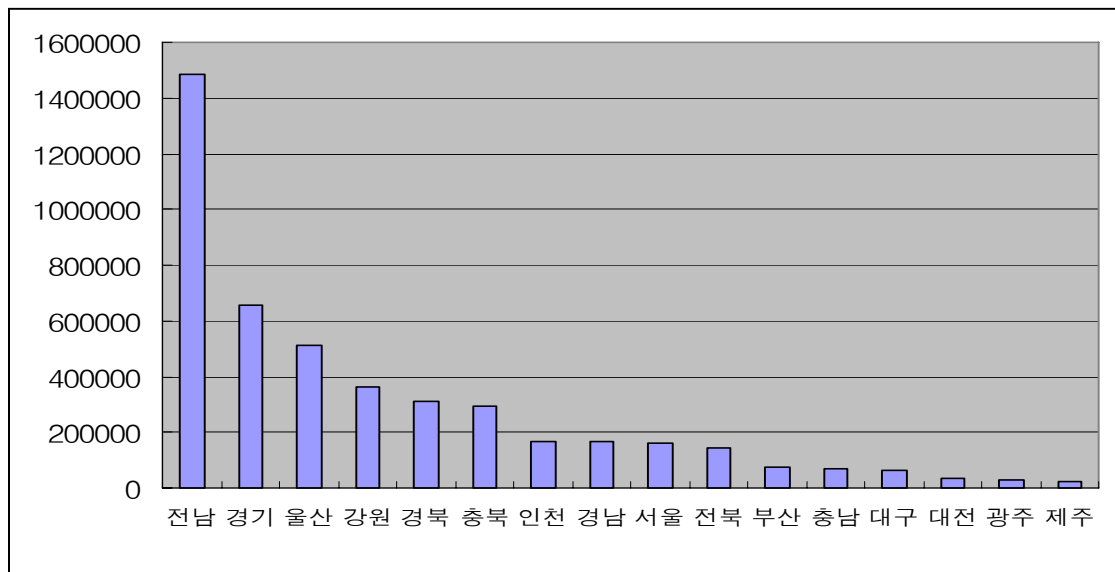
- 2009년 충북의 폐기물에너지 생산량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94,572 toe)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6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생산량이 비교적 많음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6> 폐기물에너지 생산비율

(단위 : TOE)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내부자료, 2010.

<그림 3-37> 폐기물에너지 생산량

- 2009년 충북의 연료전지에너지 생산량은 통계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 녹색기술분야의 특허를 통해 기술수준을 봤을때 2009년에 충북은 8개 기술분야에서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기술력이 앞선 분야는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분야임
- 기술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풍력(16번째), 수소전지(13번째), CCS(13번째), 연료전지(11번째) 분야임

〈표 3-124〉 녹색기술분야별 특허현황(2009)

(단위 : 건)

구분	8개 녹색기술	연료 전지	LED	CCS	풍력	태양 전지	수소 전지	바이오 에너지	그린카
강원	71	10	2	19	9	14	0	8	9
경기	8,169	1,489	1,588	381	116	3,795	102	97	601
경남	640	120	9	61	15	60	11	24	340
경북	660	106	85	196	11	186	16	44	16
광주	474	32	304	38	4	55	7	19	15
대구	379	7	19	33	12	94	5	30	179
대전	1,668	249	240	241	19	255	35	82	547
부산	231	4	24	53	23	91	8	16	12
서울	4,402	1,063	1,166	427	147	854	56	160	529
울산	468	28	7	20	6	6	4	2	395
인천	305	13	26	43	12	154	5	24	28
전남	122	15	5	36	12	33	5	9	7
전북	202	9	93	25	17	34	1	11	12
제주	10	1	0	4	0	3	0	2	0
충남	263	22	19	49	3	29	6	17	118
충북	387	12	73	25	2	222	3	25	25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지하자원 현황

- 지하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회석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07년과 2008년에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생산량 감소. 납석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 규석과 장석의 경우 2004년 이후부터 계속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9년에 증가세로 돌아섬(장석의 경우 2009년에 337% 증가)

<표 3-125> 지하자원 생산량

(단위 : M/T)

구분	납 석	규 석	고령토	석회석	석 탄	장 석	활 석
2004	299,509	307,110	52,647	21,947,034	78,356	237,284	74,970
2005	273,323	251,778	73,055	19,353,853	80,102	207,307	79,510
2006	157,291	185,010	53,445	18,889,683	81,821	84,121	58,793
2007	269,995	253,069	31,607	21,863,189	77,304	78,796	5,190
2008	362,131	234,583	27,744	22,176,631	71,480	79,775	1,700
2009	245,417	251,432	41,203	20,393,866	71,041	348,826	2,330

2.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분석

- 충북의 에너지 및 자원 분야의 강점은 신·재생에너지 개발(특히 태양광분야)에 대한 특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석회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임
- 약점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이 선도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특히 바이오에너지 및 연료전지 분야)과 지하자원의 개발이 국한되어 있음
- 기회요인은 자원·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대에 따라 지역 내에서의 기술개발 및 실험적 시도가 요구됨
- 위협요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자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선점이 요구된다는 점과 지하자원의 생산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임

2) 전망

☐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및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성 제고

- 국제 유가의 상승은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확보가 점차 어려워 질 것임
-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의 발현에 따른 국제적 압력가중이 예상되며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대외적 규제 강화 예상
-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쾌적 청정한 대기질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환경부하가 적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증가 전망

- 기존의 석유·석탄·가스 등의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저탄소 녹색공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 증대

□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확대

- 석회석, 납석, 규석, 장석 등 지역 향토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
- 폐기물의 에너지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요 증대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있어서 수력과 폐기물 분야가 강함 ■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에 있어서 태양전지와 바이오에너지 분야가 강함 ■ 석회석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하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있어서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에 있어서 풍력, 수소전지, CCS, 연료전지 분야가 약함 ■ 지하자원의 개발·이용 국한됨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 자원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역 간의 경쟁 ■ 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외적인 경쟁

3. 계획의 기본방향

□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및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성 제고

-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신성장동력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 맞는 구체적 전략 모색
- 대체에너지원으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지력 등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만들고, 지역 내의 산업체와 대학교, 연구기

관을 연계하여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

- 환경, 에너지, 그리고 지하자원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융합기술의 기반 마련
- 기존의 석유·석탄·가스 등의 에너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지역의 산업체와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와 공동연구 제안
-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저탄소 녹색공간 전환
-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실내 냉·난방온도의 적절한 운용,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효율적 에너지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함

□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확대

- 도내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석회석, 납석, 규석, 장석 등 지역 향토자원 및 미이용 또는 저이용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유도
- 신소재 개발, 폐자원의 대체원료 및 대체에너지 개발로 친환경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 핵심 미래형 지식기반산업화를 도모함
-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해 부동산정보체계 정비 및 토지자료의 DB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1)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세계 석유의 가채년수는 44년, 석탄은 174년, 천연가스는 57년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연구개발이 요구됨
- 대체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Biomass), 폐기물 에너지, 가스화 복합발전, 수소에너지, 소수력, 지열 및 해양에너지 등) 자원의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선진형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고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3대분야와 지역적인 폐기물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 ‘태양광 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산·학·연·관의 연계성을 강화
- 태양광 관련 산업체들의 입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학과들에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
-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가 유리한 지역에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축산폐기물에너지’ 등을 추진
-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등을 기술투자, 인력개발, 그리고 실용화 분야에 대한 계획수립 필요
- 추진방법으로는 개별 추진방법보다는 개별단위들을 통합,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실증연구 및 보급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함
-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하는 처리수를 소수력(小水力:Small Hydropower)으로 재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에너지원으로 활용함

□ 신·재생에너지 전략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체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에너지원 분야로 특화시킴
- 대학 및 연구소에 인력, 연구기자재,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기반 확충에 따른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환경친화시범마을(Green Village)을 조성함
- 에너지 생산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도 사용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함(예를 들어 2015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 지역 에너지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함

□ 에너지 관리체계 개선

- 전략적인 기술개발,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시장확대 조성 등으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기술개발 및 초기시장 창출에서 민간주도의 공급확대 구조로 전환함
- 원자력, 화력, 수력으로 대표되는 전기의 고효율 저장장치를 개발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함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안전하게 보관,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청정연료 확대 보급

- 주거밀집지역에는 LPG 또는 LNG 등 청정연료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보일러 등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원의 부하량을 저감하며,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함
- 공단 등 산업시설에도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장·지원하며, 태양열 급탕 및 난방시설 보급을 추진하고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함
-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난방을 확대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저공해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로 점진적 교체를 추진함

2)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 북부권의 환경친화적인 자원관리 및 환경개선

- 단양군을 포함한 충북 북부권의 석회석 생산량은 2008년 기준 약 2,200만톤(M/t)으로 주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거점 지역임
- 석회석을 이용한 친환경성 석회석 신소재의 개발로 공해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핵심 기간 미래형 지식기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석회석 신소재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석회석의 용도 다양화 및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지원시설로 활용함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지역산업의 클러스터 육성과 첨단소재 및 주력 기간산업용 석회석 신소재개발 및 육성을 위해 국내 유일의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지구(특화지구)의 개발을 도모함
- 제천, 단양 등 북부권 광해(鑛害)도시를 21세기 「석회석 신소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시멘트 분진 등 산업공해로 낙후된 지역환경의 복원을 통하여 「청정산업도시」를 구현함

□ 조정약수 『세종수』의 명품화 사업 추진

- 조정약수는 1444년 2월 세종대왕께서 60일간 안질치료를 목적으로 초정에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종을 수행한 군신들이 이서하여 “이것(조정약수)을 진귀하다 하지 않으면 하늘의 혜택을 배반하는 것이다”라고 칭찬한 역사적 기록 등으로 보아 세종께서 마시던 물이라는 의미로 그 가치를 제고시킴
- 『조정약수』는 『문화재보호법』 제 4조(보물·국보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조

2(국보)의 5(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에 의하여 국보(國寶)로 지정할 수 있음

- 『조정약수』는 이를 국보로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1조 {별표 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1(寶物)에 “7. 名所(①특별한 지형지세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②특별한 지형·지질적 배사구조로 인한 천연광천수, ③특별한 물리·화학적 구조에 의한 자연환경이 역사적 주요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 4조(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 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1999년 5월 24일 개정)

- 『조정약수』는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광천수로서의 특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6(천연기념물)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정약수』의 보물·국보·명승·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은 그것이 단순히 무분별한 천공과 채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행정적 조치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의[별표 1] <2000.12.29 개정>에 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시·도 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는 기준 국고보조율이 50%인 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에 대한 기준 국고보조율은 70%로 높음
- 『조정약수』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약수가 생성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약수의 채수금지와 자연용출시험·생성량 추정시험 등 종합적·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상수도를 포함하는 생활용수의 공급 등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감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126>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번 호	추진사업	기준보조율(%)	비 고
9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99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0	

자료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제7장 | 환경 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제1절 환경보전을 통한 자연이 숨쉬는 청정충북 실현

제2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제7장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제1절 환경보전을 통한 자연이 숨쉬는 청정충북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1) 충북 주요 환경현황

□ 기후

- 온대지역으로서 북한의 한대기후와 남단의 난대기후의 중간적인 기후특성을 나타냄
-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강수량은 국가 전체의 연평균과 대체로 일치하며, 바다와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비교적 심한 대륙성 기후임
- 청주기상대에서 지난 해 관측한 자료에 의하면 청주지역의 가장 추운 달은 1월과 2월로서 월평균 -1.0도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더운 달은 8월로 월평균 섭씨 25.7도
- 평균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규모의 증가에 따른 열섬효과와 CO₂의 배출량 증가로 발생하는 기후온난화의 영향임

<표 3-127> 청주지역 평균기온 변화

(단위 : °C)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월	-1.2	-3.0	0.7	-2.9	-1.7	-1.6	0.2	0.5	-1.0	-2.7
2월	-1.7	0.4	1.7	2.2	2.6	-0.9	0.7	4.3	-1.0	2.8
3월	5.7	5.5	8.1	6.3	6.1	5.2	6.1	7.2	7.7	6.3
4월	11.5	14.1	14.4	13.2	13.4	14.0	12.1	12.4	14.8	12.5
5월	17.2	19.7	18.1	19.1	18.2	17.9	18.9	18.9	18.9	18.8
6월	22.7	22.9	22.2	21.9	23.1	23.0	22.9	23.1	22.1	22.9
7월	26.2	26.3	25.5	23.4	26.0	25.5	23.8	24.7	27.1	24.4
8월	26.1	24.0	24.2	24.1	25.8	25.4	26.9	26.6	25.7	25.6
9월	19.7	21.5	20.5	20.8	21.4	22.4	20.2	21.7	22.5	21.7
10월	14.4	15.5	12.2	13.4	14.7	14.4	17.3	15.4	16.0	15.9
11월	6.4	6.3	4.1	9.3	8.7	8.2	8.7	7.0	7.0	7.4
12월	0.9	-0.5	1.6	1.0	2.5	-3.5	1.5	2.2	0.9	-0.1
연평균	12.3	12.7	12.8	12.7	13.4	12.4	13.3	13.6	14.3	13.0

자료 : 청주기상청, 『평균기온』, 2010.

- 최근 6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892.4mm으로 하절기(6월~8월)에 연강수량의 68%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 장마철 이후에도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강우가 나타나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발생

<표 3-128> 월별강수량

(단위 : mm)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753.3	17.2	50.2	42.2	182.7	145.6	173.8	477.3	310.4	248.0	46.7	41.8	17.4
2004	1,427.4	10.8	26.5	41.2	76.1	119.6	359.4	350.5	235.7	144.2	4.0	31.3	28.2
2005	1,337.5	1.5	20.2	44.4	55.6	63.2	181.7	357.7	290.1	265.6	47.5	7.5	2.6
2006	1,310.9	21.1	30.2	8.5	96.5	103.7	131.5	707.4	80.8	23.5	26.5	64	17.2
2007	1,583.5	7.4	37.5	129.3	26.1	127	116.2	306.3	404.6	358.6	36.6	15.2	18.9
2008	892.4	29.0	7.7	29.4	27.0	64.5	112.0	296.6	195.6	92.6	13.1	10.5	14.4
2009	1,019.8	17.8	13.1	54.9	30.4	109.6	77.2	345.7	187.5	49.5	49.5	43.9	40.7

자료 : 청주기상청, 『월별강수량』, 2010.

□ 자연생태계 현황

- 자생식물 : 충청북도에 자생하는 식물은 136과 499속 932종 4아종 181변종 16품종으로 총 1,133종이며 우리나라 전체 자생식물(4,191종)의 27.1%로 다양성이 높음
- 야생동물 : 포유류 41종, 조류 118종, 양서·파충류 28종, 열 76종 등 총 263종으로 우리나라 척추동물(1,440종)의 18.3%로 비교적 적은 편이며, 곤충은 1,083종으로 우리나라 곤충(11,853종)의 9.1%가 서식함
- 문헌기록에 의하면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은 39종임

□ 대기환경

- 충북의 대기오염 상태는 주로 도시지역의 문제로 청주, 충주, 제천 등 3대 도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어 있고 산업시설에 대한 오염원은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이 대부분 대도시 인근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청주 지역의 연평균 대기오염도는 환경기준 이하지만 오염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기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와 1·2종 사업장은 도에서, 나머지 3·4·5종 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리토록 하여 광역적 오염관리와 지역적 관리로 구분 관리되며 매년 증가 추세임

<표 3-129> 대기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2,700	68	108	103	766	1,655
충 청 북 도	386	65	75	16	84	146
청 주 시	72				29	43
충 주 시	212	2	3	14	75	118
제 천 시	148		2	4	46	96
청 원 군	468	1	6	13	117	331
보 은 군	66		2	1	17	46
옥 천 군	134		2	4	39	89
영 동 군	52		3	3	21	25
증 평 군	26		1	1	5	19
진 천 군	397		4	24	97	272
괴 산 군	97		3	3	31	60
음 성 군	580		4	17	182	377
단 양 군	62		3	3	23	33

주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는 산업단지와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의 오염물질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매년 유류의 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연료(청정연료, 저황유)의 공급 확대 등으로 오염 물질 총배출량은 매년 감소 추세임
-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변화추이를 보면 산업부분은 감소하는 반면, 난방과 자동차 부분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

- 2009년 기준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541톤으로 4.5톤 트럭 342대분이 발생하였으며, 도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0kg, 종이류, 음식물쓰레기 등 가연성쓰레기가 13.2% 유리, 금속 등 불연성쓰레기가 19.8%, 빈병류, 폐고지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58.1%를 차지함

<표 3-130> 생활쓰레기 발생량 변화추이

구분 연도별	총인구(천명)	발생량(톤/일)	1인1일발생량(kg)
1999	1,492	1,327	0.89
2000	1,498	1,390	0.93
2001	1,452	1,404	0.97
2002	1,472	1,433	0.97
2003	1,499	1,429	0.95
2004	1,493	1,493	1.00
2005	1,496	1,493	0.99
2006	1,505	1,511	1.00
2007	1,506	1,541	1.02
2008	1,542	1,500	0.97
2009	1,536	1,541	1.00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생활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매립 처리되어 왔으나, '95년 1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매립 22.7%, 재활용 58.1%, 소각 19.2%로 아직도 폐기물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편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 및 소각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3-131> 쓰레기 처리 변화추이

구분 연도별	계(톤/일)	매 립	소 각	재 활 용
1999	1,327	726	39	562
2000	1,390	811	34	545
2001	1,404	775	48	581
2002	1,433	812	35	586
2003	1,429	745	51	633
2004	1,493	735	48	710
2005	1,493	663	48	782
2006	1,511	702	43	766
2007	1,541	653	98	790
2008	1,500	564.1	197.6	739.1
2009	1,541	351	294	896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표 3-132> 쓰레기 매립지 현황

시군별	개소수	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계	13	422,580	5,146,304	3,229,184	1,917,120
청 주	1	100,500	1,288,000	1,263,850	24,150
충 주	1	62,296	1,258,079	633,123	624,956
제 천	1	29,380	259,410	58,400	201,010
청 원	-	-	-	-	-
보 은	2	24,253	216,836	113,727	103,109
옥 천	1	28,595	438,073	301,600	136,473
영 동	2	53,441	384,342	105,000	279,342
증 평	1	50,596	363,061	249,021	114,040
진 천	1	9,918	28,500	16,341	12,159
괴 산	1	32,400	527,000	184,936	342,064
음 성	1	17,100	280,000	266,000	14,000
단 양	1	14,101	103,003	37,186	65,817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0.

- 2009년도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총 4,320톤/일로서 이중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268톤/일, 각종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052톤/일을 차지함
 -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중부권이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아파트공사, 도로공사 등 각종 대형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경향임
 - 2009년도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7,071톤/일로써 불연성폐기물이 7,013톤/일로 전체의 99.1%를 차지함
 - 건설폐기물은 대부분이 재활용되는데 2009년도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7,010톤/일로 전체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이 0.1%, 소각이 0.8%를 차지함
- 2008년도 우리나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 3,501천톤으로 우리 도에서는 116천톤이 발생하여 전국 발생량의 3%를 차지함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나 처리업체가 없어 대부분 타 시·도에 위치해 있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함

□ 토양오염

- 충청도내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지점 총수는 260개소(측정망 85, 실태조사 175)임
- 도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수질, 대기, 폐기물, 사고발생, 민원유발 지역, 기타생활 등 5개 오염경로별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함

-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26개 지점 등 총 1개 지점에서 카드뮴(Cd), 구리(Cu)가 우려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어 조치됨
 - 시안(CN), 유류는 도내 전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음
 - 오염원별로 보면 수질 및 폐기물오염경로가 대기, 기타 등 다른 오염 경로에 비하여 높게 검출되어 산업활동에 의한 토양오염이 더 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함
- 토양측정망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은 충북도 내에는 없음

2. 여건변화와 전망

1) 국내외 여건분석

-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야생동식물 멸종, 사막화 등의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적 핫이슈로 대두
 - 21세기 지구평균 기온은 '90년 보다 1.4~5.8°C, 해수면은 최고 88cm까지 상승하고, 매년 0.5%의 야생동식물이 멸종할 것으로 추정
 -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제도약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 증대
- CO₂ 및 지구온난화 예방 등에 대하여 환경선진국 등의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구환경 규범을 이행토록 요구
 - 국제규범에 맞는 환경정책동향에 대응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구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도 국제화 협약 가입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을 무역규제에 이용하기 위해 EU 등은 규제조치를 강화 중
 - 인건비, 고령화, 생산성 낙후 등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지구환경문제 대응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저부하형 노력
 - 제한자원인 식량과 에너지자원의 부족에 따른 환경부하의 저하와 더불어 부족자원 확보를 위한 환경문제 야기 가능성 상존
 - 기존 도시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환경자원의 활용 및 복원을 위한 투자 증대 예상
-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특화된 환경 프로그램 추진

-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 및 이를 통한 최소 비용의 효율적인 정책개발
- 자원고갈에 대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 관리
- 동일 환경영향권내에 있는 동북아 지역간의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요구
 -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동북아 황사대응 ADB-GEF사업 등 다자간 환경협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동북아 지역내 양자간 협력도 활발히 추진
 - 1999년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U)가 창설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을 한층 강화
 - 최근 황사, 조류독감 등 지역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동북아 지역환경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 더욱 증대
 - 동북아 양자·다자간 공조체계 확립, 유·무상 공적원조를 위한 자금확보,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기능 강화 필요
-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서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지표수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의 질에 대한 우려와 대응의 시급성 제시
-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2020년까지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2009~2013년까지 107조원 투자
 - 환경과 산업의 연계요구 증대
 - 하수·폐기물 등의 자원화산업 적극추진 여건 조성
 - 국가산업에 선도적·주도적 참여 시책 발굴
-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력 제고 방안 강구
 - 시민단체, 공무원 등 범국민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사이버환경교육체계 구축」, 「환경교실 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
-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웰빙의식 확대로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 요구 증대
 -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정주환경 개선, 다양한 주거공간·휴식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암 발병, 아토피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유해환경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소음·진동 민원이 급증하는 등 정온한 생활환경권 요구 확대
 - 석면, 라돈 등에 의한 실내오염과 생활주변 유해물질 노출 우려 증대
- 국토공간의 보전전략 필요성 증대

- 대규모 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국토환경의 훼손 및 녹색 뉴딜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 행위 증가
-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입지결정 및 피해 최소화 방지 대책 마련
- 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한 핵심보전지역의 훼손방지 대책 필요
- 원자재의 가격 급상승과 품귀현상,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자원형 사회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 자원의 고갈과 경제성 등으로 폐기물의 자원화 필요성 증대
- 바젤협약 등에 의한 유해폐기물 이동 제한, 런던협약에 의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및 쓰레기 매립지 확보 곤란 등은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및 기술개발을 촉진
-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
- 정부는 핵심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기술·지식 집약적인 환경산업의 비중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구조조정 및 제도 선진화와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과학기술기반 강화
-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창출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있어야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대

2) 전망

□ 기후친화 저탄소 환경으로의 전환 가속화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경제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모든 국가의 일치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 지금의 세계는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둘러싸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으며, 산업 구조가 녹색기술과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소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저탄소 미래의 긍정적 모델을 창조하겠다는 의지 필요
- 지금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여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 앞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국제무대에서 녹색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긍정의 방향성 지향 필요

- CO₂ 및 지구온난화 예방 등에 대하여 환경선진국 등의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며 국제규범에 맞는 환경정책동향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한편,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
-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민·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국민의 녹색생활 및 환경보전의식 및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
- 기후변화 고도 적응 필수
 - 충북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에서 현 산업, 가정, 수송 부문의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용 역량 강화 필요
 - 기후변화 적응을 충북 각종 계획에 포함하고, 기후변화 영향 프로그램, 지역의 재해위험지도, 생태계 등 영향평가를 통한 적응대책 수립 필요

□ 녹색성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대 및 녹색경쟁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배가시키는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주목 받음
 - 저탄소화 : 경제 및 생활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
 - 녹색산업화 :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임
 - 경기침체 탈피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

□ 저탄소 녹색생활공간 및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

- 지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학적·사회문화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의 인식변화와 녹색생활 실천 모색
 - 주거·소비·운전 등 의식주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
 -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정책의 공감대 형성
 - 폐기물을 덜 배출하고(Reduce),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하며(Reuse), 버리기 전에 재활용하고, 버린 자원을 재자원화하고(Recycle)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Recovery)하는 생

태문화의 창조

- 저투입 · 저폐기 · 고효율의 친환경 생활문화 생태공간 만들기
 - 녹색행정, 녹색시장 · 녹색마케팅의 활성화
 - 녹색생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녹색생활 인센티브의 개발 · 보급
-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 그린네트워크 구축, 야영 · 취사 및 낚시행위 제한, 수질보전인센티브제도 시행, 자연하천 · 호소 · 지하수관리를 친환경적 · 효율적으로 관리 필요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충북의 강한 의지 ■ 2개의 댐과 3개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 · 관광자원 보유 ■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 육성정책 ■ 풍부한 탄소흡수원 및 그린에너지 기술 보유 ■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잘 보전된 청정 자연자원 보유 ■ 바이오매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규제 및 수도권 중심의 정책 ■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형적 약점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응체제 구축미비 ■ 온실가스 배출 DB 자료와 연구인력 부족 ■ 댐으로 인한 수중 생태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종 다양성이 훼손 우려 높고, 광역생태 네트워크 구축 없음 ■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넓은 규제지역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기업의 높은 관심도 ■ 정부의 지자체 탄소흡수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기후감시망 확충추진 중 ■ 녹색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기업의 투자의욕(그린에너지 시장 성장) ■ 웰빙문화, 녹색체험 등 삶의 질 욕구 확산 ■ 지속적인 충북 홍보로 인해 녹색 청정 도시로서 충북의 이미지 개선 ■ 자연환경과 수변의 이용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시 산업의 장기적 비용부담과 경제위축 우려 ■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녹색생활, 녹색문화 실천사업의 확산효과 미흡 가능성 ■ 녹색성장의 경쟁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 · 환경적 변화, 재해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위험 증가 ■ 개별입지 산업시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증가 및 광역 생태축 훼손

3. 계획의 기본방향

□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적 이슈
-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제적인 전략적·실천적 목표 설정
- 충청북도 환경정책의 근간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제하에서 수립

□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 보전

- 청정 충북이라는 것은 충북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광역생태네트워크, 생태하천 네트워크 등 생태계 보전 기반 구축에 초점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재활용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충북 성장동력화

□ 도민 생활 밀착형 환경서비스 확충

- 충청북도 도민이 항상 푸르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숲, 공원녹지를 대폭 확충
-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인 명제와 전략적 연계를 위해 공원 녹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부여

□ 도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

-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요구 증대와 더불어 자연생태, 문화, 기술, 생활환경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기회 확대 추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들의 생활양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실제적 필요성도 증가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 대기오염, 오존경보제 등 운영과 천연가스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원인 규명 및 대응방안 마련,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강화로 건강·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쓰레기의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체계 확립 등 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화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4. 세부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 지역별 기후변화 정도 분석·예측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내 취약성 평가 및 도면 제작
 - 비전·목표·추진전략 수립 및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 설정
 - 생태계·물 관리·건강·재난·산업·사회기반시설 적응프로그램 개발
- 탄소경제 대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사업 추진
 - 도내 환경기초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밀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
 - 한국환경공단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환경기초시설에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P-CDM을 UN에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여 탄소경제에 대비하는 전략 추진
-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제 대비 사업 추진
 - 2015년까지 10,000m²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진단 실시
 - 연차별 LED 조명 교체, 창호 단열필름 부착, 이중창호설치, 조명절전센서 부착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 등 개선사업 시행
-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사회복지 연계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
 - 그린청사 등 녹색생활 실천 강화
 - 전기·가스·수도 등 온실가스 배출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민의 탄소배출량 자발적 참여 유도시책
 -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의 기금화로 복지사업과 연계

□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 보전

-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 조사 기반 생태하천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수행
 - 하천의 생태적 기능성 조사
 - 생태하천, 도시림 등의 조성
 - 하천변 식생대 조성
-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보전계획 수립
 - 도내 생태계의 훼손과 단절로 악화된 생태적 건강성 복원 및 관리
 - 충북에는 생태축의 설정이나 보전지역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여러 개발계획 등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어떻게 관계되는 지에 대한 판단 불가
 - 세밀한 생태환경 조사, 가치평가, 생태자연도 및 비오톱 지도 제작
 - 동식물 생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광역생태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 도민 생활 밀착형 환경서비스 확충

- 공원 녹지 공간 대폭 확충
 - 백두대간 중심 충북의 주요 생태자원을 활용한 테마공간 조성
 - 나무심기, 담장허물기, 옥상녹화사업 등을 시민운동화
 - 농지·산림의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숲길네트워크 및 스토리텔링으로 녹색 트레킹코스 조성
 - 유흥지 녹색활력화 사업
- 환경 위해요인 관리강화 사업
 -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 석면 피해지역 구제
-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대체하여 강우시 하수차집 및 처리로 수질개선
 - 하수 미처리 지구의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시설 확충
- 비점오염 저감사업
 - 사업내용 : 인공습지, 산책로, 관람데크, 수생식물 식재 등

- 초기 우수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공습지 등 저감시설을 조성하여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 도모
- 인공습지 조성과 함께 관찰데크, 정자, 산책로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 조성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 面지역 지방상수도 신설·확장
 -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 소규모 수도시설 및 개인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 面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수준을 도시지역 수준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
- 지질공원 지정 및 관련 사업
 - 지질공원은 관광객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진흥효과가 가장 큰 유인요인
 - 충청북도도 지각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여 다양한 지질자원 보유
 - 지역의 지질자원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계기
 - 지질공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가 적음

□ 도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

- 기후변화 적응 환경교육 활성화
 - 『기후변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순회 교육
 - 기후변화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관련 도정정책 홍보에 기여
 -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문화 조기정착
- 충북 생물자원화 및 환경교육의 거점공간 마련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구축
 - 양서류 생태원, 맹꽁이 생태공원, 탐방로 등 설치
 - 자연생태학습관, 생태교육 시설 및 연구시설 설치
 - 세계 최초의 양서류 생태공원 조성으로 교육과 관광자원화
 -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청정 환경 조성

- 녹색 건축물 교육관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 테마파크 조성
 -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교육의 장 및 연구기관으로서 기후변화 연구교육관 설립
 -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녹색생활 등을 주제로 한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마련
 - 친환경 건축양식 도입,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에너지 저소비형 공원개발
 - 태양, 조력,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을 주제로 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 태양을 주제로 한 태양박물관, 에너지제로하우스, 에코-에너지 관련 조형물 설치
 - 에코-에너지를 활용한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 조성

□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 녹색도시로서의 기반 구축
 - 패시브, 액티브 주택 등 녹색건축물 건립 및 지원
 -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저NOx버너 설치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 안전위주의 유해물질관리와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제도 선진화 및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및 소음·진동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에너지·자원절약형 도시개발 유도 및 녹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유해폐기물 및 오염 물질의 관리강화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책임원칙 마련 및 제도 도입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화 사업 수행
 -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자료기술 및 폐자원 재활용관련 기술을 주제로 하는 자료기술 단지 구축
 - 가축 분뇨를 발효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활용 자료기술 및 액체비료를 활용한 복합비료 생산기술 등 기술 확보 혹은 기업유치
 -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및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전력 및 액비를 얻을 수 있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 확대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기술의 확보 노력
 - 축 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에너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용 우수 품종 개발,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 연구 추진

제2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1)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행정의 변화

□ 경관조직의 구성 및 운영

- 2007년 경관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는 경관조직 및 경관담당을 운영하고 있음
 - 충청북도 및 충주시 : 건축관련 부서
 -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 도시관련 부서
 - 진천군 : 지역개발과 주택팀
- 도내 경관조례 제정 현황(2011. 08. 26현재)
 - 충청북도 경관조례 : 2009. 04. 03 제정
 - 청주시 경관조례 : 2010. 01. 08 제정
 - 충주시 경관조례 : 2006. 01. 10 제정, 2009.10.09 개정, 2010. 08. 06 개정
 - 청원군 경관조례 : 2010. 04. 05 제정
 - 증평군 경관조례 : 2008. 12. 26 제정
 -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 2009. 12. 29 제정
- 2011년 8월 26일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한,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에서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구성 중에 있음
- 법정 경관계획의 작성 현황(2011. 08. 26현재)
 - 충청북도를 비롯하여,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이 수립을 완료하였음
 - 충청북도의 경우, 경관법 제정 이전에 작성된 비법정 경관계획이며,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의 경우, 경관법 프로세스에 따른 법정 경관계획임

〈표 3-133〉 충청북도 경관행정 현황(경관조례, 위원회, 경관계획)

구분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경관 위원회	경관계획
충북도	충청북도 경관조례	2009.04.03	-	구성	2006년 (비법정)
청주시	청주시 경관조례	2010.01.08	-	구성	2009년
충주시	충주시 경관조례	2006.01.10	2009.10.09 2010.08.06	구성	2010년
	충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청원군 경관조례	2010.04.05	-	구성	2009년
증평군	증평군 경관조례	2008.12.26	-	구성	2011년
진천군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2009.12.29	-	구성중	미수립

자료 : 충청북도 및 각 시군 내부자료.

□ 경관과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추진

-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관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주시와 충주시를 중심으로 청주시에서는 교량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충주시에서는 경관가이드라인 작성 등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경관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간판개선사업이 충청북도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경관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원의 부족으로 경관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제천, 진천 지역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그러나 그 외 지역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지원(인력 및 재원포함) 및 주민의 관심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2) 도시경관과 농촌 경관의 복합성

□ 자생적이며 자연중심적 경관

- 취락중심의 농촌지역 생활경관
 - 시가화 밀도가 높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내륙지방의 특성상 크게 높은 산지와 해안지 형이 없이 낮은 구릉지를 배경으로 자리 잡은 작은 소규모 취락들이 지역에 산재
 -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변을 따라 소규모 취락들이 자연과의 조화속에 자리 잡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경관 형성
- 보전상태가 우수한 자연경관
 - 속리산, 월악산, 금강, 대청호, 화양계곡, 쌍곡계곡 등 내륙지방 특유의 자연경관지역들이 고루 산재
 - 월악산과 충주호의 조화, 대청댐 주변 도로에서 보여 지는 수변경관, 속리산에서의 경관이 대표적인 지역 경관 이미지

□ 각종 개발 사업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경관 형성

-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 기존의 농촌지역에 오송, 오창,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첨단이미지를 강조하는 신도시 경관이 형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발사업의 경우, 주변 농촌경관과의 극단적인 변화로 인한 경관의 단절이 우려되므로, 주변 농촌경관과의 자연스런 조화가 가장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기존 도시의 신시가지 개발 및 도시재정비 사업
 - 청주시의 경우, 기존 도시지역에 각종 신시가지 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 사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기존 도시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임
- 오송 고속전철을 비롯한 각종 토목 사업
 - 철도 및 도로 등 각종 토목사업은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며, 교각 등 거대 토목구조물로 인한 경관악화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개별 공장의 난개발
 -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각종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입지가 활발한 지역임
 - 이같은 시설은 대부분 농촌과 도시 경계부분에 입지하게 되며, 주변 농촌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한편,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규모 개발공장이 기존 농촌지역을 잠식하는 형태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시설에 대한 경관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3)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 경관

□ 중원역사문화 경관

- 복합역사경관
 -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의 영토였던 지역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역사문화 경관 보유
 - 탄금대, 의림지 등 물과 관련된 역사경관, 법주사, 박달재 등 산과 관련된 역사경관 이외에도 산성, 사찰, 단양팔경 등 복합적인 역사경관 자원이 산재
- 조화 경관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역사문화경관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비시가화지역에서는 잠재된 문화적 성격이 공간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하나의 중원 문화경관을 창출

□ 지역별 축제 경관

-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되는 축제경관
 - 청주의 직지, 충주의 무술 등 지역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각종 문화행사는 독특한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청원의 농경지 경관, 단양의 관광지 경관 등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또다른 매력으로 활용이 가능함

2. 여건변화와 전망

□ 국가 차원의 경관정책 개선

- 중앙경관위원회 설치 예정
 - 사업 성격에 따라, 중앙경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지역 경관의 주축이 되는 중요 건축물이나 각종 SOC사업에 대해 경관적 고려를 강화할 필요 대두
- 경관관리 대상의 확대
 -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축물까지 경관관리 대상으로 확대예정
 - 시군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지역의 경관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필요

□ 경관계획 의무화

- 인구 3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경관계획 의무화
 - 충북 지역에서는 청주시만 해당되며, 청주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관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경관계획 수립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역 고유의 경관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 전국적으로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며, 각 지역에서 고유의 랜드마크와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여 차별성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최근 걷기 열풍을 비롯하여, 기존 도심의 골목길 조성 등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의 경향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살릴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촌의 정겨움과 고향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도시민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야간경관 활성화

- 주간 경관 뿐만 아니라, 야간 경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음
- 다만, 지나친 야간조명으로 인한 광공해를 방지하고,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차별한 분위기의 야간경관 형성은 향후, 중요한 경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구도심지역의 상가지역이나 오래된 주거지의 경우, 지역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전면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합의하는 경관개선 방안을 도입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주민참여형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 주민에게 경관관리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풍명월의 지역이미지에 걸맞은 우수한 자연경관 ■ 급속한 개발이 없어 역사적 자생경관을 유지 ■ 충주호, 청주가로수길, 대청호주변 등 지역별 대표적인 선적 경관요소를 보유 ■ 남한강과 금강수계로부터 파생되는 수변경관과 담수경관을 통한 시각적 경관 연속성 ■ 백두대간의 생태경관과 한남금북정맥의 하이킹경관 등 자연복합경관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기존 주거지 경관 ■ 도시 내 가로식재의 부족과 도로위계 체계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경관분절(영역성) ■ 수많은 다양한 조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망점에 대한 활용 미흡 ■ 경관 detail의 열악성(가로/교통/상징물/광고물/street furniture) ■ 야간 경관계획 수립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물(특히 고층, 대규모 건물의 상층부) ■ 관광자원현황에 비해 관광지 주변 경관이 매우 열악함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하천 복원, 생태통로 설치 등 다양하고도 활발한 경관복원운동이 진행 중 ■ 청주, 충주, 청원, 증평 등 경관계획 수립 ■ 오송, 오창, 혁신도시 등 서측의 도시화로 인한 도시 경관 형성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개발압력의 증가로 자연경관의 지속적인 파괴 ■ 불안정한 법적, 제도적, 계획적 지원체계의 미비 속에 급속한 경관형성지구 발전 ■ 주민인식부재로 인한 주민참여형 경관형성과 자치경관관리의 한계 ■ 많은 경관보전지역으로 인한 관리행정의 어려움과 개발민원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

3. 계획의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전 및 조화

- 충북 경관의 최대 장점은 우수하고 다양한 자연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들 자원을 공간적, 형태적, 시각적 연결체계를 통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의 우선적 부각

□ 정주환경의 쾌적성 증대

-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의 기능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심미성과 편안함을 첨가하여 다

양한 공간 및 시각적 즐거움이 풍부한 장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정체성 고취

☐ 주변과 조화된 신도시 경관 창출

- 오송신도시, 중부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계획초기부터 경관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신도시 경관 창출

☐ 지역별 대표 경관의 창출

- 지역의 위치, 토지이용, 도시의 규모, 경관유형에 따라 자연적 요소를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을 부여하여 지역 간 공간적, 시각적, 차별성의 부여

☐ 지역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된 경관 마케팅

- 단양의 관광자원, 청주의 수암골 및 직지, 충주의 충주호 및 무술축제 등 지역성을 발휘하는 지역축제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마케팅을 접목한 경관창출

☐ 주민참여 경관조성

-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효율적 형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의식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와 마을로서의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도입

☐ 경관행정조직의 구축 및 지원사업 강화

- 경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과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일부 지자체에서의 경관행정 구축 및 각종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4. 세부 추진과제

1) 경관구조의 구축

☐ 지역경관축의 형성

- 충북의 주요 경관요소의 흐름을 자연 경관축과 인공 경관축으로 구분,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고 도 차원은 물론 시·군 단위경관계획에서도 경관의 기본골격으로 활용
- 주요 경관축의 거점경관을 설정하여 경관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함은 물론 이들 각각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경관적 경험이 가능토록 계획

□ 경관권역(형성/보전/관리/재생/목적)의 형성

-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 및 관리의 기본단위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권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유도
- 지역의 경관 특성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형성, 보전, 관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여기에 재생권역과 지역의 전략지역이나 시범사업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경관권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관관리 실시

□ 콘텐츠를 통한 경관형성

- 자연경관, 인공경관의 각각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경관 영역을 형성하고 각각 경관에 구체적 내용이나 주제를 활용하여 의미가 있는 경관으로 유도
- 경관내용과 함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오감(Five Senses)은 물론 지역 경관 속성을 활용

□ 새로운 야간경관의 형성

- 주간 경관과 차별성을 가지는 경관형성구조를 형성하며 점, 선, 면적으로 야간 경관을 형성
- 상징구조물이나 대표적 경관대상을 적어도 지역마다 1개소 이상 선정하고, 지역이미지에 맞도록 야간 경관시설의 설치

2) 경관체계의 구축

□ 생태경관체계 구축

-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을 중심 생태경관축으로 형성하고 한남금북정맥을 보조 생태경관축으로 설정
- 지속가능성 및 성장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지역 생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이를 경관계획과 연계토록 구상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 보행중심경관체계 구축

- 청주, 충주, 제천의 기존 보행전용 공간의 확대를 모색하고 새로운 보행공간형성과 함께 공간적 연결은 물론 시각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모색
- 보행을 통한 이동성의 특성에 맞추어 경관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 그리고 역사문화 탐방로 등 테마나 주제가 있는 보행 중심경관체계 구축

□ 역사문화경관체계 구축

- 충북에 산재한 역사문화경관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변 건축물 입지에 대한 경관규제 및 가이드라인 형성
-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이들 자원 간 연계성 극대화를 위해 경관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과의 조직적 네트워크망을 구상

□ 경관도로체계 구축

- 충북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도로(Scenic Drive)를 발굴, 정비하여 주요 연결도로와의 연계망 구축
- 권역별, 지역별로 경관도로와 문화, 관광자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경관도로 루트를 설정하며 선적인 경관요소에 시각적 특징을 부여

3) 경관관리제도의 구축

□ 경관계획 수립

- 충북 야간 경관계획 수립과 함께 경관 관련 계획들과 법정 도시계획간 관계나 위계설정을 통해 체계를 수립하고 시·군별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실천성 강화
- 경관관련 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계획들이 일관된 계획의 기조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체계를 확립

□ 효율적 경관관리행정체계 구축

- 효율적 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 관리를 위하여 행정 전문인력확충과 기구의 재편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경관 관리체계의 개선

-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경관 센터, 도시 디자인 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며 함께 경관을 만들어 가는 환경형성

□ 조례 등 경관운영제도의 정착

- 지역의 경관적 정체성을 찾고 이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지역별, 유형별(인공, 자연, 혼합경관 등) 경관 조례의 작성 및 적극 활용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에 의한 경관, 공공사업에 의한 경관 등 사업 주체에 따른 경관지침의 작성과 적극적 활용

□ 경관 심의 체계 정착

-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지역 중복·공동사업,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시설물 등에 대해 충청북도 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군 단위의 경관심의 위원회 설치 유도
- 경관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과 성장의 질적 관리의 지표로 인식하고 영속성을 가지기 위한 상설특별기구의 구성
-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타 위원회와의 중복 심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경관심의원칙이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요령 등을 마련하여, 경관심의의 체계 확보

□ 추진주체별 경관시범사업 실시

- 경관의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도 중심의 경관시범 사업지구,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경관협정지구, 특수목적에 따른 경관지구를 설정하여 차별적으로 추진
- 지역별로 경관시범가로를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계획을 수립·실행토록 하여 타 공간계획 수립 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군별 주민자치협정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과 행정이 함께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근거와 기본틀을 작성하고 도 차원의 협정지구도 지정 및 추진
- 경관 협정지구에 대한 행정지원 매뉴얼의 작성과 주민참여 경관사례집을 작성하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경관을 이해하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경관형성 주민협의체 구성

- 경관협정지구 이외에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형성 주민참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유도
- 관·학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관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및 주민발의 경관지구 사업의 시행

□ 시민 경관모니터링제도 도입

- 경관형성주민협의체 등 지역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시민경관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 시민참여형 경관조성 아이디어 경연대회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북도 건축상 등 관련 시상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경관상 시상을 통해 경관의식 고취와 함께 일반시민의 관심유도 전략

□ 주민교육의 실시

- 경관계획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여 충청북도 경관이미지 및 계획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 시·군별 경관기본계획 수립시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과정을 일정 횟수 이상으로 규정하고(시군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시행 시 계획뿐만 아니라 경관의 일반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

□ 충북 경관홍보관의 운영

- 경관자원을 문화자원화하고 이를 지역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차원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관광 마케팅과 연계
- 지역별 경관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경관자원과 경관도로 등 지역이 보유한 경관문화를 지역홍보와 연계

4) 경관형성사업 추진

□ 문화경관 조성

- 청주의 직지거리, 충주의 젊음의 거리 등 지역의 중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함
- 충북 지역내 구도심 및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한옥을 경관요소로 활용하여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주거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재생으로 전환토록 함

□ 거점경관 조성

- 공원부족, 간판산재, 보행불편 등으로 혼잡한 산업단지 주변의 경관을 개선토록 하고, 특히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공장건축물의 색채 및 지붕 등을 개선토록 함
- 농촌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비롯하여, 진입도로, 난잡한 간판 등의 외부공간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경관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함
- 도심부는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야간조명을 규제하고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야간경관 시범사업 실시
- 시청, 동사무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 리모델링과 지역의 경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경관을 개선함

□ 주민참여형 경관 조성

- 전문가 지원이 포함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 경관의 중요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함
-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관모니터 모집을 통해 경관에 대한 관심도를 확대 추진하고 경관모니터에 의한 불량 경관을 개선토록 함

□ 자연경관 조성

- 도심지역 하천의 자연형 하천화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주변의 도로 및 시설물은 하천경관과 조화토록 구성함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의 도심에 소공원 등의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생대 등의 조성 및 관리로 도시공간의 여유로움을 창출함

□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지역의 중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요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
- 청주의 직지거리, 충주의 젊음의 거리 등

□ 한옥마을 조성사업

- 충북 지역내 구도심 및 농촌지역에 남아있는 한옥을 경관요소로 활용
- 노후화된 주거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재생으로 전환

5) 거점경관 형성사업

☐ 산업단지주변 경관 개선 사업

- 공원부족, 간판산재, 보행불편 등으로 혼잡한 산업단지 경관을 개선
- 특히,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공장건축물의 색채 및 지붕 등 개선

☐ 농촌지역 경관 개선 사업

- 노후화된 건축물을 비롯하여, 진입도로, 난잡한 간판 등의 외부공간 개선
- 공공부문의 경관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 유도

☐ 도심부 야간경관 정비 사업

-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한 무분별한 야간조명 규제
- 야간의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야간경관 시범사업의 실시

☐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교량 등 SCO구조물을 비롯하여, 공공건축물, 도시가로물 등을 대상으로 함
- 지역의 경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개선

☐ 공공건축물 경관 향상 사업

- 시청, 동사무소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 리모델링
- 지역의 경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개선
- 지역내 관공서를 경관홍보관으로 활용

6) 주민참여형 경관형성 사업

☐ 경관협정 시범사업 실시

- 전문가 지원이 포함된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실시
- 주민의 이해를 돕고 경관의 중요성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경관모니터 요원 시범 활동 실시

-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경관모니터 모집을 통해 경관에 대한 관심도 확대 추진
- 경관모니터에 의한 불량경관 개선

7) 자연경관 복원 사업

☐ 하천변 자연경관 복원 사업

- 도심지역 하천의 자연형 하천화 사업 추진
- 하천 주변의 도로 및 시설물은 하천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

☐ 도심내 공원 및 녹지 사업

-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의 도심에 소공원 등의 공원 조성으로 녹지 경관 형성
- 가로수, 식생대 등의 조성 및 관리로 도시공간의 여유로움 창출

8) 경관포럼 구성

☐ 충북 지자체 경관담당 네트워크 구성

- 지역내 경관담당 공무원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함
-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관답사 등을 통한 공무원의 경관에 관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함

□ 전문가, 지역주민의 경관클럽 구성

- 경관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경관알기 등의 사업을 실시함
-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경관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지역담당제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강조함

제 8 장 |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제1절 재난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제2절 방재형 도시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제8장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제1절 재난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1.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재해 환경의 변화

-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의 대형화 및 발생빈도의 급증
 - 지구온난화, 엘니뇨 등으로 한반도 강우특성이 변화하여 계절라성의 집중 폭우 또는 해수온도 상승에 의한 태풍의 집중 폭풍우로 인하여 어느 지역도 풍수해로부터 안전 지대가 될 수 없게 됨
 - 최근 강우나 폭설의 기록적인 경신으로 인한 피해규모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며 예상을 뒤엎는 돌발홍수의 빈발
- 재해유형의 다양화 및 광역화
 - 폭염, 폭한, 폭설, 쓰나미 등 새로운 재해유형이 등장하고 태풍 등 기존 자연재해 유형의 경우도 그 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지리적 영향범위도 광역화되고 있음
 - ※ 2003년 매미(최대풍속 60m/s), 2008년 쓰촨성 대지진(사망자 7만명), 2010년 미국 미시시피 강변 대홍수(이틀동안 330mm 강우), 2010년 아이티 지진 (20만명 이상 사망)
 - 지각변동에 의한 지진, 지진해일 규모 및 피해 증가 :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 류역사상 최대규모인 30만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

<표 3-134>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태풍	호우	대설	호우·태풍	폭풍설	강풍	풍랑	합계
계	10,304,314	4,456,414	1,240,144	1,301,099	811,478	31,338	38,815	18,183,602
1999	85,349	70,241	-	1,049,049	15,042	-	-	1,219,681
2000	146,249	247,152	-	252,050	-	-	-	645,451
2001	-	459,731	-	-	796,436	-	-	1,256,167
2002	5,185,728	929,564	-	-	-	-	-	6,115,292
2003	4,233,391	174,849	-	-	-	-	-	4,408,240
2004	341,562	214,978	673,896	-	-	-	-	1,230,436
2005	138,504	352,040	549,991	-	-	9,304	-	1,049,839
2006	11,804	1,906,278	5,175	-	-	14,039	5,687	1,942,983
2007	160,869	43,492	7,441	-	-	6,880	33,128	251,810
2008	858	58,089	3,641	-	-	1,115	-	63,703

자료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1999~2008.

□ 자연재해의 다양화와 대형화

- 충북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는 풍수해, 가뭄피해, 산사태·지반 붕괴 등이 일차적 유형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다양화 및 대형화에 대비하는 방재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충북의 최근 7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846~1,427.4mm로 연간 편차가 심함. 지역적으로 소백산맥으로 인하여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보은(1,112mm), 옥천(1,093mm)과 평야지대인 충주(1,065.3mm), 증평(1,077mm) 간에는 다소 편차가 있음
-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풍수해로 2003년 호우와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는 충북도내에 공공시설 412억, 사유재산 시설 87억 피해를 주었고 58명의 이재민 발생
- 풍수해는 많은 이재민과 함께 산사태 또는 지반붕괴, 시설물 붕괴 등을 동반하였음

□ 인위재난 환경의 격변

-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고층·지하화와 교통수단의 대형화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 우려 가증
- 대구지하철 참사 등 복합재난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 초래
- 복합영상관, 쇼핑몰 등 대형시설의 인명, 재산피해 우려 대상 급증
- 다양한 유형의 위험물 제조업 집중으로 도민의 안전위험성 상존
- 새로운 재난요소의 증가로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곤란하고 국지적인 분쟁 등으로 테러가능성 증가

□ 단순 사고·재난의 사회·국가적 파급효과 심화

- 소방업무 영역이 종래 단순 화재 또는 일상적 사고의 대응개념에서 사회안전 및 국가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확대
- 용산 철거민 농성('09) 및 쌍용자동차 파업사태('09)시 경찰·소방협력 합동작전
- 천안함사태('10) 및 연평도 포격('10) 등 안보위기사 소방의 역할 증대
- 단순 화재의 전국화 및 국제적 영향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07) 및 부산 사격장 화재('09) 등 단순 화재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문제로 한정되지 않음
- 국가경제 및 외교적 문제로 부각되거나 국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

□ 생활안전에 대한 도민수요 및 욕구 증가

- 사고의 일상화·다양화에 따라 사회안전망 확충 및 봉사조직으로서 소방에 대한 도민의 기대수준 증가
 - 생활위험요인 증가 및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라 신속한 사고·재난대응 필요
 - 일상적 사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소방활동 급속 증가 추세.

<표 3-135> 최근 3년간 구조·구급·민생지원 활동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구조	구급	민생지원
2008	79,033	11,924	64,285	2,824
2009	92,414	14,954	72,016	5,444
2010	100,509	15,092	70,940	14,477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0.

□ 화재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 인명피해는 2010년 87명으로 전년대비 42명 감소, 재산피해액은 175억으로 전년대비 16억 감소
- 화재발생건수는 2010년 1,351건으로 전년대비 92건 줄어 6.3% 감소
 - 2010년 화재 원인별 발생률은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5.6%로 가장 높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8.1%를 보이고 있음

<표 3-136>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소방활동현황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화재현장 인명구조
		계	사망	부상	피해액	경감액	
2008	1,518	136	20	116	14,595	329,100	341
2009	1,443	129	17	112	19,189	338,794	762
2010	1,351	87	15	72	17,434	463,235	68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0.

□ 개발위주 정책으로 안전 소홀 및 보행환경 열악

- 자연 발생적 도로 특성으로 교통환경 취약
- 보행자를 우선하는 인식 부족 및 교통소통 위주의 자동차 통행방식으로 보행안전 결여

□ 기존 재해대책의 문제점

- 방재 시설물의 설계빈도
 - 구조물의 설계, 시공, 운영상의 적정성 확보
 - 각종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과 유지관리체계 수립
- 하천정비 및 관리상의 문제점
 - 하천정비시 제내지의 토지이용도 고려 미비
 - 자연형 하천공법의 무분별한 도입
 - 현장여건을 고려한 정비 필요
 - 수해복구공사의 공사기간 부족
- 각종 개발사업에서 재해 사전예방 조치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시행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확충
- 사전예방의 재해대책 예산 미흡
- 도시계획 단계에서 방재개념의 미흡
- 재해홍보 및 방재교육 부재
- 범죄예방 관련정책 미흡
- 주민참여형 상향식 재난관리 정책의 미흡

2. 여건변화와 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도시화로 인한 재해위험성 증가

- 4대강 주변(충주호) 수변구역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금강유역(세종시) 건설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하천유역의 재해위험성을 가중시킴
- 도시화에 따른 인구 및 자산의 집중으로 잠재적인 홍수피해 규모가 증가
- 중부권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인위재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피해증가가 우려됨

□ 이상기후 및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위험 증가

-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태풍, 가뭄 등에 의한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기존 방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재해가 빈번히 발생
- 예측 불능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재해유형의 다양화

- 과거 재해유형은 호우 및 태풍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폭설, 태풍, 호우, 가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향후 지진관련 각종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의 향상 및 대피소 설계뿐만 아니라, 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재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함

□ 환경변화와 원인의 다양화로 예측과 사전대비 곤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재난 저감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현장중심의 자율 신속대응체계의 강화 필요
 - IT기술 활용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

□ 범집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요구 증대

- 사회환경의 급변속에서 도시화의 가속화와 범죄제어능력의 저하로 각종 범죄에 시달리는 현실에 직면
-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도민의 안전수요 증대 및 안전참여의식 확대

- 주5일제 근무와 웰빙 추구 등 생활패턴의 변화, 레저문화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및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대두
 -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소방안전수요의 양적 팽창
-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사후복구보다는 체계적 사전예방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절실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수준,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도민의 정책분야별 수요조사 필요성 대두
- 민간자율참여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한 도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 체질화를 위해 도민안전체험관 시스템기능 확대 및 장비보강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노령 사회화, 서구식 식습관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등 안전복지 확충에 대한 욕구 증가
- 구급수요 증가는 베이붐 세대가 노령인구가 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심정지 등 노인성 급성질환자의 병원 전단계 소생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 ■ 스마트폰 기반의 제보기능 보강 ■ 현장중심의 자율 신속대응체계의 강화 ■ 민간자율참여 안전문화운동의 확산 ■ 유관기관, 단체간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긴급구조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고층·지하화 ■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곤란 ■ 수해복구공사의 공사기간 부족 ■ 재해 홍보 및 방재교육 부재 ■ 유형별 재난대응조직의 분산 ■ 소방장비 보강 등 예산지원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5일제 근무와 웰빙추구 등 생활패턴의 변화 ■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소방안전 수요의 양적 팽창 ■ IT기술 활용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방의 재해대책 예산 미흡 ■ 재해, 재난 행정관리 체계 미흡 ■ 무질서한 난개발 우려 ■ 자연형 하천공법의 무분별한 도입 ■ 생활안전사고 증가

제2절 방재형 도시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1. 계획의 기본방향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 추진

-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축을 위한 방재형 도시계획의 단계적 추진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방재취약지구 대책반영 강화
- 방재시설과 건축물의 사전유지관리 지침 강화 및 정기적 도시방재 평가체계 확립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재대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재해·재난 취약성(Vulnerability) 분석 및 대책 강구
 - 시·군별 재해·재난 취약 지도 작성 및 활용
 - 재난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재난저지공동체 구축 추진
- 도시지역의 경우 교통사고, 화재, 구조물 등 재난관리에 역점을 두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수해에 대처하는 정책 집중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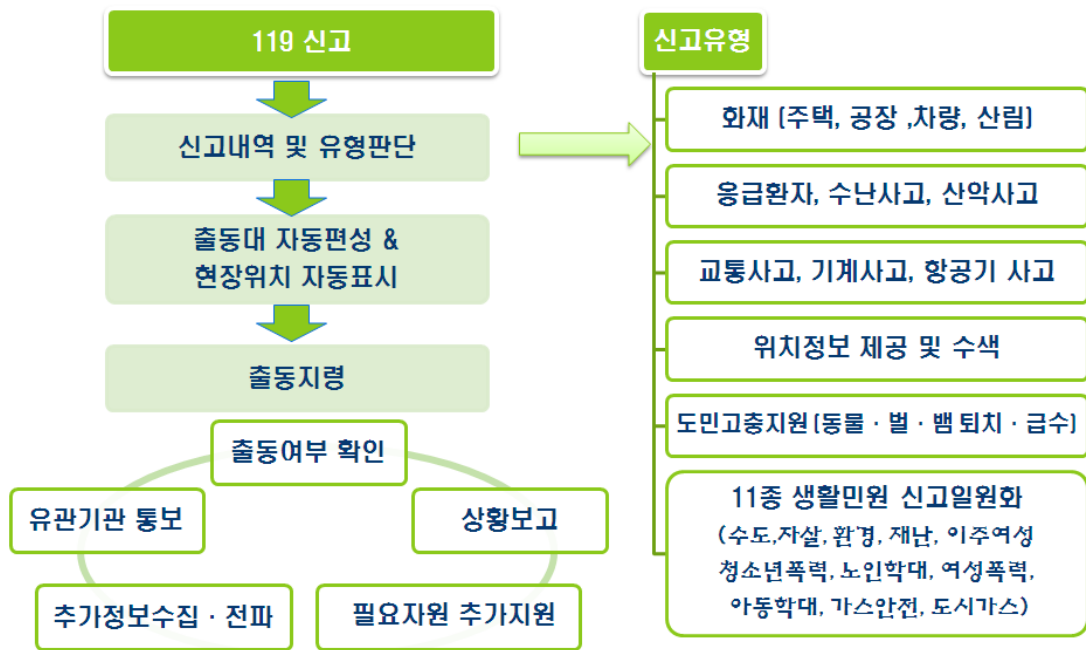
□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재난대비 방재 대책의 강구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강화
- 재난관리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실용적 정책개발기능 확보
- 재난 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운영
- 재난대비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재난대응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정비, 심사 평가를 통한 재난 정책의 환류시스템 구현

□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재난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발생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파악과 초기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강화
- 유관기관·단체간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긴급구조시스템 확립
- 수도·환경·폭력 등 재난사고 관련 긴급 신고 전화를 119로 일원화
- 재난사고 119콜센터 운영으로 도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신속한 사고 대응
- 과학적인 피해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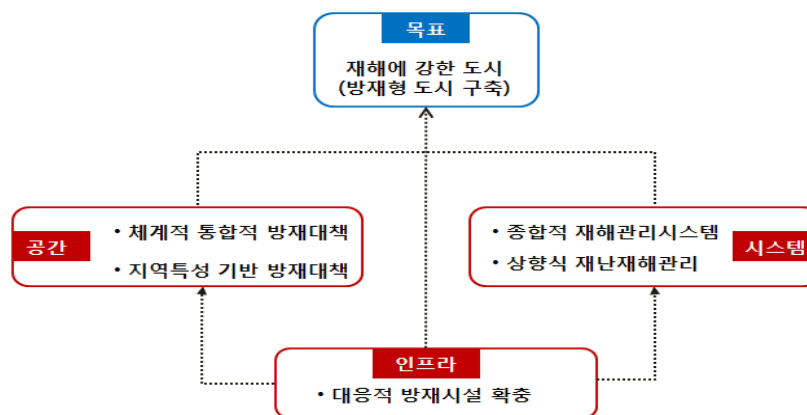
<그림 3-38> 상황처리 흐름도

□ 상향식 재난재해관리 역량강화

- 지방화, 분권 시대에 지역방재역량의 강화를 위해 기존 자율방재단, 새마을조직, 자원봉사 조직 등 민간조직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재난대비~대응~복구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검토
- 주민중심네트워킹 조직의 재난대비 학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민간조직과 도-시군 관련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계 상시 운영 활성화
- 민방위 훈련 시 시군별 주민참여형 시범훈련 매뉴얼개발 및 실시방안 강구

□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시설의 확충

- 도시기반시설의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도로공간 등의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교통시설, 라이프 라인 등 도시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설정비 강화
- 제방, 배수펌프장 등 기존시설 뿐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의 신규 도시방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지진피해 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교육, 훈련 및 대국민 홍보강화, 신속한 초동 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그림 3-39> 방재형 도시구축의 개념 모델

□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전문성 강화

- 재난의 복잡화·다양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형재난의 대비·대응단계부터 전략적·적극적 개입
 - 재난 대응은 현장행정으로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이 요구되며, 전문성이 반영된 정책결정이 필수
 - 재난환경 변화에 적응성 있는 능동적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조직원의 과학적·체계적인 육성
- 생활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조직의 신설 등 조직 재설계 필요

□ 범죄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사회적 범죄예방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차원의 치안정책 마련

2. 세부 추진과제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방재형 도시계획 종합 추진

- 최근의 재난관리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종합계획 및 수해방지종합대책 등과 연계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세부 집행계획 및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일체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 권역별 재해 발생가능성 진단 및 신개발지 수해 발생 방지책 제시
- 각급 도시계획의 각 부문계획에 방재계획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제시를 위한 기본계획 입안 추진
 -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은 우선적 개발대상에서 제외
 - 노후시설물 지구의 정비로 재해의 사전적 예방
 - 방재지구와 방화지구의 합리적 지정 및 재난관리대책 수립
 - 시가지내 위험시설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난 최소기준 제시
- 홍수위험이 높은 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의 재해가능성 예측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 유수지, 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치 의무화
- 홍수시 하천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수성 토지이용을 유도하거나 충분한 녹지 확보
- 농촌지역에는 홍수발생 시 농경지의 자연적 유수지 기능을 강화
- 위험물을 분산수용하며, 대규모 사고시 피난을 고려한 방재완충지대를 설정
 - 도로, 주차장, 공지,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시설은 재해 시 피해 장소이자,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개발 시 충분히 확보

□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수해방지시설 대폭 확충 추진
 - 간이펌프장 신·증설 및 빗물펌프장 자동운전 시스템 구축 : 펌프, 수문, 자동운전 및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 빗물 저류시설 설치 및 불량 하수관거 정비

-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 마련
 - 돌발홍수에 대비한 수방시설 재검토
 - 기습폭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재시설 기준 재정립 방안 강구
 - 극한강우에 따른 돌발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 수해상습지 개선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축조된 제방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일정한 홍수방어능력을 유지
- 도시특성과 수문학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 통합적 치수대책 마련
 -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홍수조절 댐 또는 저류지 위치 등을 고려한 계획 추진
 - 하천 유수특성 및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외수침수 및 내수침수에 대응하여 제방增高 및 건설 요구
- 치수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 등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지하 하천 방식의 하수 및 배수시설을 점검·정비하며, 우수유출 배제시설의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수해대책 및 침수피해 예측계획 확립, 홍수피해 조기경보 시스템 확립

□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역량 강화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92개 지구에 대한 정기적 관리 및 정비를 통해서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향후 추진 예정인 33개 지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재해·재난·교량업무 D/B 구축 보완 및 운영
 -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재자료 데이터 베이스화 및 재해관리정보시스템 기본도작성
 - 방재 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측시스템, 기상정보시스템, 시설물 관리 시스템, 방재 지령 시스템 등 서브시스템 개발 운영을 통한 종합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예방 사업분야 투자 확대 및 방재활동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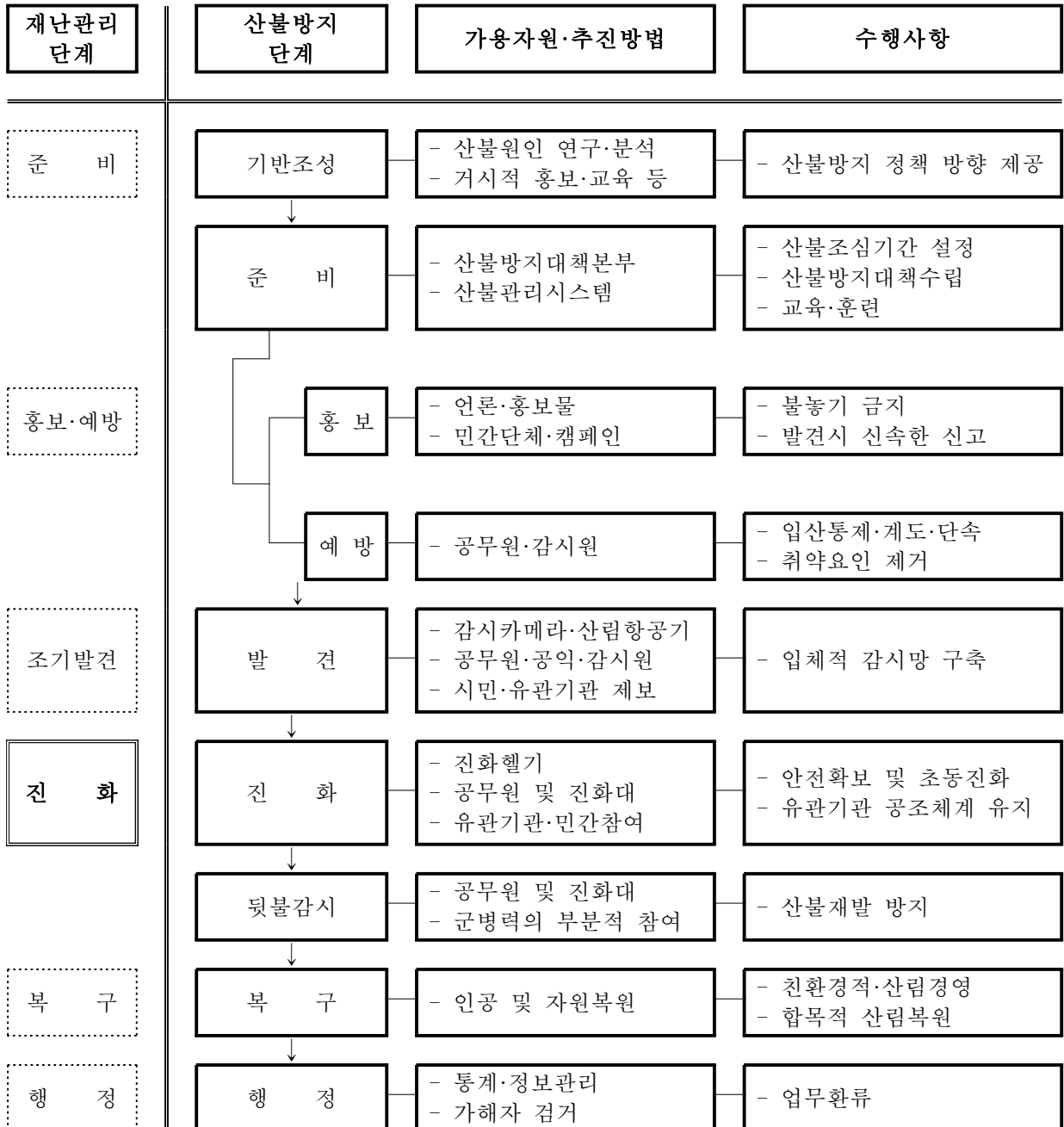
□ 방재공원 정비조성사업 추진

- 대도시지역 도시공원 중 거점공원을 방재공원화 하는 계획수립 및 조성
 - 1단계 : 청주
 - 2단계 : 충주, 제천, 중부신도시 등 대상
- 광역방재거점, 광역피난지, 1차 피난지 등이 되는 방재공원 및 「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 등 도시의 방재구조를 강화하는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 방재공원과 학교,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등 관계시설과의 연계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강화를 도모하고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나 재해시 방재공원의 이용계획을 포함한 방재공원정비 프로그램의 계획을 추진
 - 초등학교와 도시공원을 핵으로 하여, 각종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재해응급대책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범위 확대
 - 재해응급대책시설(비축창고, 내진성저수조, 방송시설, 헬리포트)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재해시 피난지가 되는 도시공원」 이외에 「방재거점이 되는 도시공원」 및 「그린 오아시스 등(1차 피난지와 같은 비축창고 및 내진성 저수조만을 대상)」의 기능을 추가
- 방재공원시설로 자연에너지활용형 발전시설, 다목적 지하수조, 수질정화시설, 하천바닥, 해안 등을 방재공원으로 이용, 평상시는 야외 생활체험시설로 사용하고 재해시는 피난 생활이나 식사 배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취사장을 포함

□ 산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건강하고 안정된 충북의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의 확립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 도민 홍보강화로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 산불의 조기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계 강화
 -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시책
 - 대형산불 또는 일일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진화를 위한 진입도로, 담수시설, 취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 산불담당 조직의 보강 및 전문인력 확충
- 산불진화의 과학화·현대화(산불진화차 확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휴대용 무전기 등)



<그림 3-40> 산불관리 통합시스템(예시)

□ 고객감동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복지 실현

- 도민의 생활안전 소방서비스 확대
 - 사회적 배려 화재취약대상 생활안전을 위한 서민 생활안전 119지원단 운영

-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농촌형 마을단위 자위소방대 구축으로 주택화재⁷⁾ 저감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생활안전환경 조성
-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24시간 비상진료를 위한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 삶의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
 - 안전한 산행기반 조성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저감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유형별 응급환자의 맞춤형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구조사 확보 및 원격화상진료시스템 구급차 등 장비보강
 - 도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활용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및 학교·역·터미널 등 다수인 이용장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 구급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환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 개선

□ 현장 밀착형 예방안전기능 강화

-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체제 강화
 - 재래·취약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집중밀착 안전관리
 - 지역별·시기별(명절, 연말연시 등)·계절별 화재위험 예측경보시스템 구축
 - 초고층 건축물, 위험물 제조소, 문화재 등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망 구축
- 재난 환경변화에 적합한 생활안전대책 추진
 - 구제역, 가뭄, 태풍 등 위기사황 민생안전대책 추진 및 기상특보,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 멧돼지, 벌, 뱀 등 위해동물 및 고드름 등 위험시설 제거 등 도민 생활안전 활동
- 계층 및 수준별, 재난의 유형별 다양한 소방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
 -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운영
 - 보고·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도민안전테마파크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 안전체험교실 강화(소방서별 이동안전체험차량 1대 배치)

□ 능동적인 현장대응체제 구축

7) (2010년 기준) 전체화재의 28%, 인명피해 46% 발생

- 재난현장 유기적 대응시스템 구축
 - 재난대응 기관단체별 유기적 대응 및 통일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구축
 - 위성영상(SNG)⁸⁾ 활용한 이동상황실 운영 등 대규모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충청북도 직할 119구조대 신설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구조대원(산악·화학·수난·일반구조대) 육성
 - 도서산간·고속도로 등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응급의료시스템(Helicopter EMS) 확대
 - 소방용수시설 보강(현장급수체제 구축)으로 물탱크 소방차 감소(6대) 및 차량 경량화
- 재난대응 참여기관 자율안전체제 구축
 - 민·관·군 긴급대응 자원동원체계 확립 등 유관기관 재난대응 자원관리
 - 소방기관과 원거리 지역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민간 자율소방체제 구축을 위한 최정예 전담의용소방대 육성(10개소)
 - 사업체별 재난 초동대응을 위한 자위·자체소방대자율 대처능력 강화
- 첨단 IT기술 도입으로 119 종합상황관리 및 진압체계 구축
 - 인터넷·3G동영상·USN⁹⁾ 등 다양한 119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 GIS 및 교통통제시스템을 연계한 최단시간 소방출동로 제공
 - 재난현장 실시간 전송 및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등 원격통합지휘체계 운영으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 가동
 - 건물내부 3D공간정보 및 소방활동정보카드 실시간 전송으로 소방활동 전개 및 119안전대피 시스템 구축

□ 소방행정 인프라 강화

- 소방환경 변화 적응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설치 : 11개 소방서 42개 안전센터
-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공무원 담당인구수 감소 : 1인당 1,000명
- 도민 소방기초교육 및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센터 설치
-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첨단 특수소방장비 보강

8)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적도 상공 약36,000km 궤도상에 있는 통신위서를 이용해 지역적 제한없이 현장에서 통신위성에 전파를 쏘아 지상지구국을 연결하여 생방송, 위성전화, 영상회의등을 할 수 있는 첨단 방송통신 서비스

9)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센서를 모든 분야(도시에서 다리에 진동 센서, 건물에 화재 센서, 넷가 유량 센서, 공해 배출 건물에 환경 센서, 환자에게 혈압센서) 센서를 부착하고 이 정보를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주고 받아서 상황 정보를 판단하여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미래 기술

- 30층용 100M 직진식 굴절사다리차, 테러 대비 생화학 인명구조차 등
- 밀폐건물·구조물의 진압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 도입
- 소방관서별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
- 소방자동차 현대화 추진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범죤예방 도시공간 구축

- 범죤을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죤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기법 적용을 통한 도시취약공간에 대한 범죤발생을 미연에 방지
 -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시 CPTED 디자인 인증 도입
- 범죤예방 및 범죤피해자를 위한 충북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노인 및 장애인,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사회안전체계 구축

□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종합계획 수립

- 종합설해 예방 및 대비책 강구
 -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대책 강구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지구 집중관리
 - 산악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및 농림시설 피해 경감대책 강구
 - 설해방재의 홍보강화 및 건축물 주변 책임제설 추진
- 가뭄재난 대책의 강구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빗물모으기 등을 통한 가뭄재해 저감대책 강구
 -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지하수 조사내역 D/B화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재난 대책의 강구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적용
 -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 활용
 - 위험시설물 및 화재예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강화
 - 방재관련시설 등의 내진성 확보 및 액상화 방지대책 강구
- 보행자 안전 취약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보행안전도 제고

-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권내 보행 안전시설 보강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등
- 보행자가 많은 도로의 도로선형 개선, 보행로정비 등 도로시설 개선
- 교통사고 통계와 현장조사 및 유형별 최적의 도로정비 방안 마련
- 각종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위험교량에 대한 통행제한과 과적차량단속의 수시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전기가스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별 책임관리제 실시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 계획 및 위험 정보 시스템 구축
 -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부근 관리 철저 및 산사태 및 지반붕괴 방지를 위해서 위험지구의 설정과 관리
 - 도로, 공항 부근 의료 응급체계 확보
 -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방설비와 소방기술 반영
 - 물 공급 부족시 발생하는 수리권 확보 및 도시지역의 물공급 안전도 고려
 - 내진설계를 강화한 도시계획시설물 축조 및 사회기반시설의 분산배치
 - 전기시설, 가스시설의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한 방화지구의 지정

□ 충청북도 종합방재센터 건립

-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종합방재센터를 건립
 -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응하는 체계 구축
 - 홍수, 태풍, 대형화재, 산불, 건축물 붕괴, 방사능, 폭발, 가스안전사고, 전기사고, 교통사고 등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재난 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교육프로그램 수립
 -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 실시
 - 대피소의 지정·관리·홍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수립
 -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시군의 대비 및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군 안전성평가제도 확립
- 재해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상호지원시스템 구축
 - 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변화, 강우량, 재해위험상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
 - 재해유형 및 분야별 행동요령의 메뉴얼 구축 및 시군활용
 - IT기술활용으로 재해발생 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지역과 주민의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

[제 4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3장 투자 · 재원조달 계획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 1 장 |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제1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1) 세종시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공주·연기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1위원회)과 소속기관 16개 기관 등 총 36개 기관을 이전
- 세종시의 건설로 인하여 우리 도의 외부 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천안 등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함
- 세종시의 건설은 집권국가·집중사회에서 분권국가·분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각 지방이 고루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세종시 인근 자치단체의 교육·문화·의료·관광 등의 배후기능 강화, 기업체 및 금융기관 이전으로 인한 민간수요 증대, 국제교류기능의 확대, 고급 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른 충북차원의 연계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2)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체제의 효율성 제고

- 2013년까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완료에 대응한 조직내부의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주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증대

〈표 4-1〉 행정구역 규모에 따른 장단점

구분	행정구역 확대	행정구역 축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경제에 따른 행정 효율성 확보 ○ 광역행정의 효율적 대처 ○ 지역갈등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제고 ○ 공동체 의식 확보 ○ 지역별 특성 반영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저하 ○ 공동체 의식 훼손 ○ 지역별 특성반영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불경제에 따른 비효율 초래 ○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 곤란 ○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발족(2011.2.16)에 따른 시·군·구 개편, 시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대도시 특례 발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의 강화 등 개편분야별 개편대안 논의시 도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 충청북도의 시·군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과 중앙정부의 개편 논의시 주도적인 역할 필요

〈표 4-2〉 지방행정체제 현황(2011년 1월 현재)

구분	기초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				면적 (㎢)	인구 (천명)
	계	시	군	일반구	읍	면	동		
전국	288	73	86	33	215	1,201	2,061	100,212	50,515
충북	12	3	9	2	14	89	51	7,433	1,549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1.

3) 도민의 실질적 도정 참여

-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형식적인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행정방식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집행의 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예산편성의 참여기회 보장 필요
- 2010년 전국 100개 자치단체(41%)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운영

4)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민원행정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운영정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998년 2만6천건에서 2009년 39만8천건으로 15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보공개 건수는 1998년 2만4천건에서 2009년 27만5천건으로 11배가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의 행정에 대한 정보접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전달과정을 체계적으로 공식화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 해 나가는 체제가 필요하고, 도민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5) 자치단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충청북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상위권을 달성하고 있어 행정운영에 있어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가’등급 : ‘08년 1위, ‘09년 2위, ‘10년 2위
-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대안의 도출을 위한 개별사업이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충청북도의 예산은 2009년 2조 5,949억원, 2010년 2조 8,423억원, 2011년 2조 9,992억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각종 자원이 방만하게 관리되어 낭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도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2. 여건변화 및 전망

□ 세종시 등의 환경 변화

- 최근 세종시의 이전에 따른 우리 도의 외부 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 충남, 천안 등과 연계한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선도적인 충청권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오창·오송 지역 등의 IT, BT 분야 개발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유치 등으로 인해 지역내의 산업·경제 분야의 외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생산성 제고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

□ 세계화와 지방화의 가속화

- 지방정부의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일류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반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세계화라는 시대 변화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행정개선 노력을 지방정부의 세계화 노력으로 규정되어야 함

□ 스마트워크시대 도래에 따른 행정체계의 개편 요구

- 최근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스마트워크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어, 충청북도 역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참여요구 증대

-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방식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행정집행의 비용 감소를 추구해야 함
-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응하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전달과정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식화하고 관리하며,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체제 필요

□ 이해관계자간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 요구 증대

- 과거와는 달리 작은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간, 계층간, 성별, 세대간, 소득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정책결정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반영하는 시스템 필요
- 사업의 갈등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갈등의 정도를 차등화하여 관리 하는 시스템 필요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간 발전격차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신속한 대응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자치단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요구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각종 자원이 방만하게 관리되어 낭비를 초래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방만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능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
 - 행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도와 시군간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나 도내에서 부서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중복기능 수행으로 인한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형 행정체제 구현 ■ 지역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정참여의 형식적 소통체계 ■ 갈등조정시스템의 부재 ■ 자치단체 자원활용도 미흡 ■ 주민밀착형 서비스 체제 미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행정체제 활성화 요구 증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광역자치시대의 도래 ■ IT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대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전·충남지역 개발의 가속화 ■ 국책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에서의 지역간 갈등 첨예화

3. 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비전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계획의 목표는 ①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②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③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④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⑤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임
-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문은 혁신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목표로 “도정의 통합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종합계획의 역할 강화”로 설정
- 다양한 행위주체간 지역협력체계 강화 : 국가, 도, 시·군간 기 구축된 다양한 협력체계의 실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강화
- 국가계획 및 도내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강화 : 산업, 문화·관광, 복지, 지역개발, 방재 등 다양한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계획의 정합성 제고
- 가치간 배분체계의 확립 :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발전축과 공간개발에 상충되는 이해관계간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내의 시스템 개편
-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응 : 계획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응시스템 구축



<그림 4-1> 행정부문 목표 및 기본방향

- 행정부문의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과제의 관계
 -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세종시, 중부신도시·기업도시, 중소도시 등 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권 관리시스템 및 기존 도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4대 전략산업, 바이오와 태양광 산업, 첨단기술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의 강화
 -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 지역정체성 확립과 고품격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협력체계 확립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의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 주거환경의 재편 및 교육·복지·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의 복지지향형 대응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간 가치충돌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가치배분체계 확립
 -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 통합적 광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 현장밀착형 재해재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

4. 세부 추진과제

1) 추진전략

□ 기본방향에 입각한 위계의 설정

- 지역간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의 공간창출을 위한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가치배분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립된 가치의 배분 관점에서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가치와 협력에 대한 합의는 행위주체간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위해 능동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슈
 - 가치 배분체계 : 지역균형발전, 형평과 효율,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
 - 협력체계 : 지역혁신 주체간의 상호연계 및 협력, 시·군간 협력

-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응시스템 : 계획 과제의 효율적인 지원,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선도적 관점의 행정수요 창출

□ 충청북도 발전전략과 유기적인 조화

-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
 - 도민의 도정참여 창구를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열린 도정을 구현
 - 도의 지역간, 계층간 소통부재에서 오는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간 벽을 허무는 다가가는 행정 실현
 - 주민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도민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 일과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
 -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구현을 통해 조직효율을 극대화
 - 주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투명한 자원배분체계 구축
 - 대한민국의 중심 창조를 위한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역량 강화
- 미래를 선도하는 도정
 -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창조를 위해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의 목표 실현과 도민의 여망 충족
 - 도정목표, 비전 공유 및 도민 참여 유도를 위한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에너지 결집의 계기 마련
 -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충북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완하고, 도내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2) 추진과제

가. 지역협력체계의 강화

□ 광역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

- 광역도시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효율적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 강화
-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장 및 공원 등 광역시설에 대한 도시별 기능의 특화 및 분담을 통해 상호이용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수립시 도민참여시스템 구축

-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형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회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심의위원의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이해와 창조성이 활용되는 구조를 구축함
- 계획의 수립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도민의 자주적 활동 지원

- 도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역할이 수행되어야 함
- 도민들에게 참여의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도민의 힘을 집결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도와 주민간 협력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 도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공개하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생각하며, 결정된 정책을 도민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먼저 정보의 공유와 도정홍보 활동의 충실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하여 도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는 도민과의 대화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단방향적인 의사전달구조가 아닌 쌍방향적·대화형 의사전달구조가 될 수 있도록 도정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의견의 제출현황과 그 반영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가계획 및 도내 부문별계획 정합성 강화

□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

- 우선, 권역별 선도·전략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하여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

□ 국토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개발보다는 국토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하고, 특히 기존 도심의 중추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수립·추진
- 또한, 유사·중복된 계획·지구제도의 통폐합,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및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구축
- 아울러,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토지이용의 확대, 중앙-지방간 협약을 통한 지역개발, 주택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다. 가치배분체계의 확립

□ 도중합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 충북도중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
- 도정을 보다 고객지향적으로 유도하고 참여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나 행정모니터제 이외에 장기적으로 도정수행에 대한 도민평가제를 도입
- 도중합계획의 실무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며, 연도별로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지역균형발전협의기구인 활성화

- 도↔시·군↔지역혁신주체↔지역주민 간 상호연계 및 협력을 위해 구성된 기존 조직의 활성화 필요
 - 본청내의 혁신을 담당할 정책기획관과 각종 혁신협의체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망을 구성하고 이를 혁신주체 세력의 허브로 육성함
-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와 물리적 접근도 및 업무수행상 접근도 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두고 일상적 업무는 물론 도정의 장·단기계획 입안시에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함

□ 충북갈등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충북도내의 갈등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교육, 연구 및 실제 갈등해결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충북갈등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도종합계획의 추진에 따른 지역간 갈등, 지역내 현안에 대한 계층간 갈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단체간 갈등 등 충청북도내 산재해 있는 갈등현안을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갈등관리센터 운영
- 충청북도는 공공갈등관리의 동향을 분석하고, 사전에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을 예측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정책갈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각 시·군 지역포럼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유도함

라.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응

□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

- 함께하는 도정운영
 -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 있는 전문가 중심의 도정정책자문단 및 명예 도지사 제도 운영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
- 도정운영 효율화
 - 정책수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연구체제 확립을 통한 충북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화 추구
 - 도-시군 인사교류 확대 실시를 통해 도·시군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연계기능 강화
 -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부, 남부 출장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 도모
-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 초·중학생(163,387명)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자상환부담을 경감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초등학생 등 취약계층 치안안전망 구축을 통해 각종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 도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효율성 제고
 - 일사천리(1472) 도민 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전화 및 민원접수 일원화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

□ 일과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

- 조직 효율 극대화
 - 도지사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
 -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및 조직 경쟁력 제고 :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중점과제 추진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시·군 위임사무 재정립 등을 통해 생산적 조직운영으로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
 - 민선 5기 도정운영 방향과 도정 성과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소식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도민과 대화의 장 운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용
- 대한민국 중심창조
 -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충북도민, 충북의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 및 우수사례 전파로 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중심 창조에 참여하여 긍지와 자긍심 고취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 2 장 | 재정계획

제1절 재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제1절 재정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1) 충북재정 일반현황

- 재정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결산기준 충북재정규모는 29,263 억원으로 전국의 2.93%를 점유하고 있음
- 충북의 지방재정 규모는 2001년 이후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이 9.9%인데 비해 충북은 11.5%로 큰 폭을 보임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2009년 기준 87.1%로 나타나 전국평균 77.6%를 상회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비중은 12.9%로 전국평균 22.4%를 하회하고 있음

<표 4-3> 광역자치단체 회계별 결산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충북			전체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1	12,250 (100.0)	10,557 (86.2)	1,693 (13.8)	465,770 (100.0)	345,549 (74.2)	120,221 (25.8)
2002	15,080 (100.0)	13,185 (87.4)	1,895 (12.6)	562,714 (100.0)	422,536 (75.1)	140,178 (24.9)
2003	17,057 (100.0)	15,059 (88.3)	1,998 (11.7)	597,203 (100.0)	465,709 (78.0)	131,494 (22.0)
2004	19,849 (100.0)	16,458 (82.9)	3,390 (17.1)	606,599 (100.0)	461,421 (76.1)	145,178 (23.9)
2005	18,536 (100.0)	15,386 (83.0)	3,150 (17.0)	642,638 (100.0)	489,029 (76.1)	153,608 (23.9)
2006	20,965 (100.0)	17,991 (85.8)	2,974 (14.2)	720,906 (100.0)	549,616 (76.2)	171,290 (23.8)
2007	23,695 (100.0)	19,558 (82.5)	4,137 (17.5)	795,497 (100.0)	591,556 (74.4)	203,941 (25.6)
2008	25,311 (100.0)	21,384 (84.5)	3,927 (15.5)	863,564 (100.0)	661,699 (76.6)	201,865 (23.4)
2009	29,263 (100.0)	25,482 (87.1)	3,781 (12.9)	997,881 (100.0)	774,718 (77.6)	223,162 (22.4)
연평균증가율	11.50	11.64	10.57	9.99	10.62	8.0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2) 충북재정의 세입 및 세출구조

□ 세입구조

-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에 의한 세수 조달 기반은 취약한 편임
- 2009년 세입결산 규모는 26,313억원으로 이중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1년 이후 충북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7%이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 7.3%, 세외수입 6.2%, 지방교부세 7.0%, 보조금 16.6%로 나타남

<표 4-4>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지방 세수입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증액 교부금	지방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2001	11,705 (100.0)	2,813 (24.0)	1,354 (11.6)	2,481 (21.2)	33 (0.3)	1,143 (9.8)	3,850 (32.9)	32 (0.3)
2002	16,104 (100.0)	3,404 (21.1)	1,874 (11.6)	2,563 (15.9)	65 (0.4)	890 (5.5)	7,036 (43.7)	272 (1.7)
2003	16,968 (100.0)	3,623 (21.3)	3,887 (22.9)	2,792 (16.5)	102 (0.6)	1,127 (6.6)	5,437 (32.0)	0 (0.0)
2004	18,570 (100.0)	3,880 (20.9)	3,063 (16.5)	2,905 (15.6)	79 (0.4)	1,232 (6.6)	6,604 (35.6)	807 (4.3)
2005	17,501 (100.0)	4,115 (23.5)	2,893 (16.5)	3,616 (20.7)			6,767 (38.7)	110 (0.6)
2006	20,743 (100.0)	5,401 (26.0)	2,666 (12.9)	3,909 (18.8)			8,481 (40.9)	286 (1.4)
2007	21,432 (100.0)	5,280 (24.6)	3,356 (15.7)	4,085 (19.1)			8,268 (38.6)	443 (2.1)
2008	22,803 (100.0)	5,197 (22.8)	2,598 (11.4)	4,647 (20.4)			9,995 (43.8)	365 (1.6)
2009	26,313 (100.0)	4,936 (18.8)	2,193 (8.3)	4,268 (16.2)			13,115 (49.8)	1,801 (6.8)
연평 균증 가율	10.7	7.3	6.2	7.0			16.6	65.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 세출구조

- 사회개발비 지출 비중 확대,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 축소
 - 2007년 충북의 일반회계 세출액은 19,558억원으로 이중 경제개발비 7,589억원(38.8%), 사회개발비 6,672억원(34.1%) 순으로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충북 일반회계 세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세출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 7.3%, 사회개발비 12.6%, 경제개발비 9.8%로 나타나고 있음

<표 4-5>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2001~2007)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기타경비
2001	10,557 (100.0)	1,714 (16.2)	3,277 (31.0)	4,332 (41.0)	417 (3.9)	817 (7.7)
2002	13,185 (100.0)	1,771 (13.4)	3,913 (29.7)	6,032 (45.8)	519 (3.9)	951 (7.2)
2003	15,059 (100.0)	1,793 (11.9)	4,670 (31.0)	6,793 (45.1)	576 (3.8)	1,228 (8.2)
2004	16,459 (100.0)	1,931 (11.7)	5,374 (32.7)	6,509 (39.5)	633 (3.8)	2,013 (12.2)
2005	15,386 (100.0)	2,346 (15.2)	5,018 (32.6)	6,052 (39.3)	769 (5.0)	1,201 (7.8)
2006	17,991 (100.0)	2,338 (13.0)	5,912 (32.9)	7,130 (39.6)	739 (4.1)	1,873 (10.4)
2007	19,558 (100.0)	2,620 (13.4)	6,672 (34.1)	7,589 (38.8)	767 (3.9)	1,911 (9.8)
연평균 증가율	10.8	7.3	12.6	9.8	10.7	15.2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표 4-6>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2008-2009)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지역 개발	기타
2008	21,384 (100.0)	2,247 (10.5)	1,064 (5.0)	1,501 (7.0)	834 (3.9)	1,557 (7.3)	4,883 (22.8)	488 (2.3)	3,503 (16.4)	988 (4.6)	1,755 (8.2)	896 (4.2)	1,668 (7.8)
2009	25,482 (100.0)	2,432 (9.5)	1,588 (6.2)	1,389 (5.5)	925 (3.6)	1,900 (7.5)	6,521 (25.6)	513 (2.0)	3,912 (15.4)	1,255 (4.9)	1,982 (7.8)	1,345 (5.3)	1,720 (6.7)
연평균 증가율	16.1	7.6	33.0	-8.1	9.8	18.1	25.1	4.9	10.5	21.3	11.5	33.4	3.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3) 충북의 재정지표 추이

- 예산기준으로 충북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005년 31.7%에서 2008년 34.2%로 증가하다가 이후 2011년 32.7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1년 전국평균(51.9%)보다는 19.2% 낮음
- 충북의 시계(市計) 재정자립도는 2011년 28.5%로 전국평균 38.0%보다 9.5% 낮음
- 반면, 군계(郡計)는 2011년 21.1%로 전국평균 17.0%보다 4.1% 상회하고 있음

<표 4-7> 충북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충북전체	전국평균	56.2	54.4	53.6	53.9	53.6	52.2	51.9
	충 북	(31.7)	(31.3)	(33.3)	(34.2)	(33.3)	(33.7)	(32.7)
시계	전국평균	40.6	39.4	39.5	40.7	40.7	40.0	38.0
	충북시계	(35.7)	(32.6)	(33.3)	(31.9)	(31.8)	(32.8)	(28.5)
군계	전국평균	16.5	16.1	16.6	17.2	17.8	18.0	17.0
	충북군계	(18.7)	(18.6)	(20.3)	(20.8)	(22.0)	(22.1)	(21.1)

자료 :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년도.

-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은 전국 군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시군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청주시	55.1	47.4	48.1	43.2	43.2	44.0	37.8
충주시	21.2	20.7	20.9	20.9	20.1	20.3	20.7
제천시	22.2	20.6	20.0	21.4	22.9	24.4	22.4
청원군	28.1	28.1	30.1	34.2	35.8	37.5	32.0
보은군	9.8	9.8	11.8	11.5	11.5	12.1	13.2
옥천군	15.7	13.9	15.4	14.1	14.3	14.4	16.0
영동군	15.3	13.3	15.3	16.0	15.9	14.5	14.3
증평군	12.2	11.6	17.1	16.5	23.3	22.9	18.1
진천군	26.2	27.0	28.7	28.1	29.6	26.3	26.0
괴산군	13.0	14.4	12.4	12.0	12.5	13.1	14.0
음성군	21.9	21.6	24.7	26.2	27.8	28.6	26.5
단양군	17.3	19.4	20.8	19.6	19.1	17.2	18.3

자료 :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년도.

- 다음은 「FY 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의 충북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임
- 재정효율성 부문과 재정계획성 부문은 양호하지만 재정건전성 부문은 다소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수준이나 지표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높게 나타나 재정안정성과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상수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건전성 관련 성과가 미흡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의 경우는 미흡하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관리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예산집행률과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은 동종단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의 운용은 미흡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표 4-9〉 충북 재정지표 분석

구분		충북	도평균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7.78%	-7.08%
	2. 경상수지비율	64.46%	74.11%
	3. 지방채무잔액지수	48.50%	43.9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10.16%	6.97%
	5. 장래세대부담비율	8.58%	8.12%
	6. 자체수입비율	14.91%	17.84%
재정 효율성	6_1. 지방세입증감률	-6.80%	-4.88%
	7. 지방세징수율 제고	1.0011	1.001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18	0.0215
	9. 경상세외수입 확충	0.9322	1.0138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2383	-0.1118
	11. 탄력세율 적용	1.0000	1.0001
	12. 인건비 절감	0.0314	0.058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702	0.0657
	14. 업무추진비 절감	0.1412	0.1168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6472	0.2014
재정계획성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3013	0.0767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13.54%	105.75%
	18. 예산집행률	97.11%	94.73%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7.83%	52.66%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100.00%	83.35%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FY 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2010.

2. 여건변화 및 전망

□ 지역개발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

-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 경제, 유연적 전문화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도 변화
- 세종시 건설에 따른 청주,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IT·BT 산업의 허브화 추진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 증대
- 고속철도 오송역이 개통됨에 따라 역세권개발 등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 행정중심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지방이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지방중심의 논리 확립
- 각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분권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필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필요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세 확충이 필수적
 - 외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세제지원 강구 등에 주력
 -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

□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신규사업 차질 우려

- 충청북도의 예산은 2010년 28,423억원에서 2011년 29,99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재정투입을 위한 세입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의 경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분야는 세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소하는 등 세출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표 4-10>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규모		29,992	100.0	28,423	100.0
세 입	지방세수입	6,291	21.0	5,964	21.0
	세외수입	2,465	8.2	2,431	8.6
	지방교부세	4,562	15.2	4,049	14.2
	보조금	14,924	49.8	14,181	49.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50	5.8	1,797	6.3
합계		29,992	100.0	28,423	100.0
세 출	일반공공행정	4,314	14.4	3,762	13.2
	공공질서 및 안전	1,735	5.8	1,543	5.4
	교육	1,574	5.2	1,514	5.3
	문화 및 관광	909	3.0	869	3.1
	환경보호	2,545	8.5	2,170	7.6
	사회복지	8,183	27.3	7,723	27.2
	보건	449	1.5	410	1.4
	농림해양수산	3,569	11.9	3,804	13.4
	산업·중소기업	862	2.9	1,025	3.6
	수송 및 교통	2,245	7.5	1,966	6.9
	국토 및 지역개발	1,315	4.4	1,568	5.5
	예비비	347	1.2	256	0.9
	기타	1,945	6.5	1,812	6.4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

-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더불어 도내에서도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충북의 권역간(북부, 중부, 남부)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는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부권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 정책 등으로 인한 타지역과의 갈등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시스템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취득세세율 인하 등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기반 약화

- 주택거래의 등록세 인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까지 주택거래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말까지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50%감면하여 지방재정의 세수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2009년 기준 도세에서 취득세는 34.3%, 등록세는 35.8%를 점유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세원개발 및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조정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음

<표 4-11> 연도별 지방세수입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 개발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수입
2005	4,115 (100.0)	1,441 (35.0)	1,543 (37.5)	22 (0.5)	26 (0.6)	115 (2.8)	906 (22.0)	63 (1.5)
2006	5,401 (100.0)	2,114 (39.1)	1,937 (35.9)	23 (0.4)	29 (0.5)	138 (2.6)	1,058 (19.6)	100 (1.9)
2007	5,280 (100.0)	2,118 (40.1)	1,786 (33.8)	24 (0.4)	26 (0.5)	147 (2.8)	1,112 (21.1)	66 (1.3)
2008	5,197 (100.0)	1,938 (37.3)	1,815 (34.9)	22 (0.4)	23 (0.4)	168 (3.2)	1,158 (22.3)	73 (1.4)
2009	4,936 (100.0)	1,691 (34.3)	1,768 (35.8)	22 (0.4)	20 (0.4)	170 (3.4)	1,180 (23.9)	86 (1.7)
연평균 증가율	4.6	4.1	3.5	(0.2)	(6.7)	10.3	6.8	7.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부운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 지방재정 약화로 인한 신규사업 차질 우려 ■ 지역별 지방재정 격차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 사회복지비 부담 가중 현상 지속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경제상황의 호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개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중으로 인한 지방채 증가

3. 계획의 기본방향

□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충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정기반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의 주요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 안정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행정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적 재원확보의 다각화가 필요함
-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확보 노력
 -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 재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 및 투자 효과 극대화
 -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 강화와 예산집행의 성과평가활동 강화 등 전략적·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의 강화
 -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평가체제 확립
-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강화
 - 지역개발 및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자치단체와 자율적·협업적 네트워크 결성

□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재정확립

- 도민중심의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 예산편성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의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
- 재정공개제도의 확대운영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정운영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

4. 세부 추진과제

1) 추진전략

☐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 지방재정의 기본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성 강화
- 도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원 포착
 - 지역부족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세입기반 확충
 -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 위주의 사업에서 공익성 및 수익성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이용자,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체계 구축
- 주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 중장기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투명한 자원배분체계 구축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2) 추진과제

가.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 기존 지방세제의 개편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입구조의 합리적인 개편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5% 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상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

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 20%로 상향조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대안으로는 세원배분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수입의 자치성을 확보해 준 후에 추가적인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2에서 6:4 수준으로 개편

□ 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보완

- 국세의 지방세 이양시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단순히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행
- 행정체제의 개편시 지방교부세제도를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육성
-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대상사업영역에서 탈피하여 보다 새로운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이용자, 수익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 민간위탁 등 감축관리로 다운사이징(Down Sizing) 실현

나.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지방재정운용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근간이 되는 제도로 민주적인 참여방식에 기반한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편성 과정에의 도민 참여 확대
- 도민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 지방재정 경직화 해소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
-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경직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경상이전경비 등에 대한 재평가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지속 정비
 -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 발굴 확대
 -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적극 운영 및 투자재원 확보

□ 중장기 정책과 예산이 연계된 투명한 자원배분체계 구축

-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

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방재정운용 시스템 강화
-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현장중심의 재정투·융자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확보
 - 투자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선정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

□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미래를 대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가사업과 도 현안사업과의 연계체계 강화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점검

-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 강화

라. 민간부문 활용의 극대화

□ 민간부문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

- 민간부문의 공공부문 참여를 높이기 위해 BTL사업의 확대도입 검토
 - BTL사업을 통해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대와 창의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주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대응성 제고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자에 의한 시설투자 계획
 -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당해년도 예산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를 계획
 - 민간부문의 유희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하여 부족한 소비와 투자를 보완하여 생산적인 공공투자 촉진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기반의 확충

- 외자유치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
 - 세계화의 출발점이 지역임을 인식하고, 충북의 산업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음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 3 장 | 투자·자원조달 계획

제1절 투자 · 자원조달 계획

제3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제1절 투자·재원조달 계획

1. 재정투자의 방향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 계획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과제 수립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확보 방향 수립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경기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

- 대내·외 재정운용 여건, 경기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 재정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대와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 병행
- 자체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
- 적절한 지방채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

2. 투자계획

1) 투자계획 개요

- 2011년~2020년 기간 동안 도 종합계획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86조 4,693억원 정도로 추정됨
- 기투자자는 사업기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16조 7,766억원임

<표 4-12>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총계	864,693.07	167,766.38	368,840.72	328,085.97

2)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물류부문 30조 3,696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산업경제부문 22조 4,664억원, 생활복지부문 11조 8,934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4-13>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계	864,693.07	167,766.38	368,840.72	328,085.97
지역개발	66,325.50	30,329.80	23,265.70	12,730.00
산업경제	224,664.02	38,032.99	115,762.67	70,868.36
문화관광	64,530.97	12,709.13	21,919.74	29,902.10
교통물류	303,696.24	33,557.39	134,390.65	135,748.20
생활복지	118,933.53	26,449.22	38,570.12	53,914.19
지역자원	36,680.87	11,745.62	13,928.08	11,007.17
환경보전	27,193.43	8,141.33	9,850.65	9,201.45
안전방재	22,668.51	6,800.90	11,153.11	4,714.50

- 주체별 분담내역을 보면 사업전체로는 국비가 48조 88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가 12조 2,037억원, 기타(공공기관 등)가 10조 9,590억원, 시군비가 8조 523억원, 도비가 7조 1,657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4-14> 부문별/자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864,693.07	480,885.05	71,657.01	80,523.85	122,036.91	109,590.25
지역개발	66,325.50	9,371.40	5,292.90	4,323.20	32,711.00	14,627.00
산업경제	224,664.02	76,324.16	15,075.70	12,167.96	50,074.15	71,022.05
문화관광	64,530.97	22,975.31	5,499.60	15,241.75	15,837.91	4,976.40
교통물류	303,696.24	271,739.14	7,535.51	1,749.44	22,439.15	233.00
생활복지	118,933.53	53,648.07	25,848.62	25,051.38	651	13,734.46
지역자원	36,680.87	19,798.58	1,853.91	10,664.88	7.70	4,355.80
환경보전	27,193.43	12,819.39	3,032.26	10,384.24	316.00	641.54
안전방재	22,668.51	14,209.00	7,518.51	941.00	—	—

3. 자원조달계획

1) 추진방향

- 국비 및 지방비 확보방안 구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 86조 4,693억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기금, 융자, 민자 등)에 의해 조달
 - 국비, 도비 등 자원조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
 - 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민간투자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사업비 조기투입을 통한 조기활성화
 - 사업 관련 기본 인프라사업비 산정은 기 계획 중인 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및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투입에 중점을 두고 전략 수립

2) 국비 및 지방비 등 투자자원 확보방안

가. 국비 확보방안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대응력 강화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실과별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국비확보대응팀을 사업기간 중 운영하여 적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업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성 강화

- 국가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도의 싱크탱크인 충북발전연구원 부설 (가칭)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논리 개발

나. 지방비 확보방안

□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과 중점추진과제 전략적 지원에 있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사업을 축소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종합계획 재정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
- 중앙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충청북도는 주요 SOC 관련 현안사업 중앙정부 제안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고보조 비중 확대에 따른 재정 자율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자체 ‘국고보조사업 점검반’ 운영을 통한 지원효과 분석, 전달체계 및 지방비 부담능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투자사업 적기 대응을 위한 세출구조 재설계

- 예산운영시스템 전략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원칙에 입각한 예산지배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사업의 도출 및 투명한 운영·감독체계 구축
-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재량지출(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세출조정 기준으로는 ①사업별 우선순위, 성과(사업별 감액률 차등적용), ②한시사업은 효과 및 필요성 등 점검 등을 통해 ①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 ②유사·중복사업의 통합·정비, ③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억제 등의 세출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수행

□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한 재투자 추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상사업 중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투자 추진

□ 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의 운영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수입확충의 관건임
 - 첫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총괄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업무처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둘째, 체납액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제재수단을 강구
 - 셋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는 원가대비 80% 수준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시정하고 장기 미조정된 종목과 원가보상률이 일정수준 미달하는 종목부터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주민참여와 주인의식이 제고되면서 지방행정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도화
 - 지방세 신장의 한계성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유희부존자원을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 자세로 지역의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
 - 이를 기반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고 나아가서 지방행정서비스 기

능을 기업경영원리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업무를 정착시켜야 함

-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산하는 서비스는 충북도내의 특성, 주민의 선호 등에 따라 다름
-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의 증진과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라는 공공목표의 달성을 위해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임
- 그러나 초기에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크게 미흡하나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연구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민간자본 확보방안

□ 적극적 인자유치 확대

-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자본만이 아닌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수기반 확대를 도모
- 충북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 우수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함
-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내 생산 및 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세 세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민간자본 유치방안으로는 BTL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를 고려

3)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편을 통한 투자자원 확보방안

가. 단기투자자원 확보방안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과세표준은 실재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과세형평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반영여지가 많음
- 지방세 과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실재건물가격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보유과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와 거래과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가 일반납세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 함

□ 비과세·감면의 축소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에 집중되어 있어 비과세·감면으로 인하여 세수증대에 걸림돌로 작용
-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은 물론 징세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은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감면단계의 세분화와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갖고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세지원제도의 한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면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적용

나. 중장기투자재원 확보방안

□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세원 발굴

- 충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 필요
- 충북의 입장에서는 신세원의 발굴이 쉽지 않으나 지방탄소세, 관광세, 고향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방탄소세 :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국세인 탄소세(논의중)와 병행하여 도입
- 관광세 :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
- 고향세 :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고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자치의식의 진화 및 지방경영능력 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세목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세입예산 총규모 중 자체수입 비중은 2007년 58.87%에서 2010년 56.8%로 2.07%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은 38.01%에서 39.51%로 증가
- 2007년~2008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재원중에서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을 상회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 추월
-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경직성, 행

정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로 재정 자율성 제약 심화 우려

- 국고보조사업의 점진적 규모 축소와 이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부세율 확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5>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111.99	100.00	124.97	100.00	137.53	100.00	139.86	100.00
자체수입	소계	65.92	58.87	73.65	58.94	80.84	58.78	79.43	56.80
	지방세	38.07	34.00	43.55	34.85	47.07	34.22	47.88	34.23
	세외수입	27.85	24.87	30.10	24.09	33.77	24.55	31.56	22.56
의존수입	소계	42.57	38.01	47.82	38.27	53.01	38.54	55.25	39.51
	지방교부세	21.41	19.12	24.13	19.31	26.51	19.27	25.55	18.27
	보조금	21.16	18.89	23.69	18.96	26.50	19.27	29.70	21.24
지방채		3.50	3.12	3.50	2.80	3.69	2.68	5.17	3.70

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년도

□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확대

- 탄력세율이란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선택권을 지방정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말함
 - 즉 지방세법상 정하여진 세율을 법률이나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
 - 탄력세제의 목적은 첫째,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확대, 둘째 지방세수입의 증대와 셋째, 지역활동의 활성화와 억제임
-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도입
 - 탄력세율은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세율선택권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세율선택권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고 있는 임의세율과는 차이가 있음
- 지방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은 지역의 특정 활동의 활성화와 특정 활동 억제수단으로 이용
 - 특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율을 최고세율이하로 낮추고 반대로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초과세율을 적용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제도를 실시하면 주민들의 세부담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액의 공평성 시비의 문제가 발생
- 따라서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실시할 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

[제 5 편 시 · 군별 발전방향]

제1장 청주권

제2장 중부권

제3장 북부권

제4장 남부권



제5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 청주권

제1절 청주시

제2절 청원군

제1장 청주권

제1절 청주시 : 300만 그린광역권을 선도하는 생태중심 문화도시

1. 기본목표

- 효율적인 도로계획과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도시
- 역사의 정체성 재현과 생태중심의 문화도시
- 첨단과학기술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미래형 경제도시
-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청정 녹색도시
-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복지가 보장되는 삶의 질 높은도시

2. 발전방향

- 수요를 예측하는 효율적인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
- 전통문화 교육의 계승 발전으로 지역특성화 전략 구축
- 첨단산업(IT·BT)과 생태문화산업(GT·CT)집중 육성으로 역동적 경제기반 조성
- 항상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
- 노인·여성·장애인·아동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3. 발전전략

① 사람중심의 도로계획과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도시

〈기반구축〉

- 100만 인구를 수용하는 광역도시기반 구축
- 주 개발축 설정
 - 충북선 철도 및 국도 36호선을 주 개발축 설정(세종시-청주·청원·증평-음성-충주)
 - 중부고속도로를 주 개발축 설정(대전-청주·청원·증평-진천-수도권, 상주-보은-청주·청원-진천-수도권)

〈철도〉

-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과 연계한 국토의 X축 고속철도망 구축
- 천안~청주공항~증평 간 수도권 전철연장(천안~조치원~청주공항~증평)
- 충청권 광역 전철망 구축(천안, 청주, 대전, 논산 등 충청권 거점도시)

※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증평 구간은 향후 교통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함

〈도로〉

-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증평IC~미원~보은~영동)
-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연결(경부 옥산 JCT ~ 중부 오창 JCT 간)
- 청주광역권내 고속(화)도로의 건설
- 청주~오송간 연계도로망 구축
- 세종시와 연계 도로망 건설(세종시~청주, 오송역~휴암교차로, 오송~청주공항 확장)
- 청주광역권내 국도, 국도대체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청주역~옥산, 월오~남일)

〈공항연계〉

-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속추진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743m → 4,000m)
 - 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L=900, B=25m)
 - 계류장, 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 확충, MRO 및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
- 대전 ~ 세종시 ~ 오송역 ~ 청주공항 간 BRT 구축
 - 세종시 ~ 오송역간 우선추진, 오송역 ~ 청주공항 구간 장기사업
- 청주국제공항 및 오송역을 중심으로 광역 복합 환승체계 구축
 - 오송역은 KTX-충북선-BRT-대중교통 등의 연계 환승체계강화(경부고속철, 호남고속철-충북선/충청선-BRT-대중교통-자가용)
 - 청주국제공항은 충북선 청주공항역, 수도권 전철, 고속철도 오송역 연계 BRT, 기존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교통수단 간 복합 환승 시스템
 - 권역별 복합교통센터 조성사업과 연계(북부-오창·진천, 서부-조치원·오송, 동남-동부종점, 경부IC·중부IC입구)

2] 역사의 정체성 재현과 생태중심의 문화도시

- 청주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020년 문화정책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시 유희토지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화
 - 舊국정원, 舊KBS, 舊연초제조창, 舊법원·검찰청
- 독자적인 청주 역사문화권 조성
 - 성곽·문화재·옛시설복원·재현, 문화재 주변 정비
 - 도심공원 확충 및 정비, 미래 문화관광사업 기반마련
- 청주 역사문화 재현 및 복원
 - 청주읍성 4대 성문터 및 성곽 재현
 - 남석교 복원 및 용두사지 철당간 문화광장 조성
 - 도심 중앙공원(central park) 조성
- IT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 김수현 문화관 건립, 청소년 복합 테크노 문화물 조성
 - SMART 컴퓨터, WI-FI존 설치 등 청소년 여가공간 조성
 - Green Art Frontier(IT 생태미술관) 건립
- 제7회 청주국제 공예비엔날레 개최(2011. 9. 21 ~ 10. 30)
- 직지를 통한 선진 지식정보 도시화 추진
 - 직지 문화특구 조성(금속활자 주조전시관, 문방사우 전시관 건립)
 - 제4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개최
- 청주 콤플렉스 조성(청주권 종합 스포츠 타운)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기반 조성
 -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및 각종 문화시설 확충,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는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육성
 - 청주첨단문화산업육성 및 공예산업인프라 구축

③ 첨단과학기술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미래형 경제도시

-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 청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도시생태지도 작성관리
 -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 초록마일리지 개발 및 도입
- 탄소배출 저감 모범도시 조성
 - 탄소중립 시범단지 및 마을공동체 조성, 한국형 탄소제로 시범단지 조성
 - 녹색환경 택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저에너지 녹색건축물 보급
- 신 재생에너지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 의무발전량 시범사업 태양광 발전설치
 - 바이오 에너지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 저감형 녹색산업단지 조성
 -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 청주산업단지 방류수를 활용한 지역용수 공급
- 일자리 4만개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및 지원
 -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 태양광 산업관련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 녹색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 도시형 녹색기업 컨택센터, 지식산업센터 유치
 - 청주토박이 프랜차이즈 산업육성 지원
-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
 - 생명산업, 차세대반도체, 항공우주(오송·오창·청주·증평)
- 광역단위 클러스터 육성
 - 미래첨단산업벨트 : 청주·청원~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
 - 청주산업단지의 재구조화 : R&D기능 보강, Office형 산업유치

4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청정 녹색도시

- 청주권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
 - 세종시, KTX오송역, 수도권 전철연장 등 발전여건 수용
 -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청주권 특화발전전략 마련
- 녹색수도 도심재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청주만의 색채를 지닌 도시경관 구축
 -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 야간 조명 및 가로경관 형성사업 추진
- Zero-Waste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청주광역시각시설 제2기 증설, 청주광역매립장 증설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환경순환 녹색시범단지 조성
-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시조성
 - 생명나무 1,000만그루 심기운동전개, 1,000개의 손바닥 공원조성
- 권역별 테마형 도시공원 조성
 - 역사문화 중심의 도심활성화 사업(쌈지공원, 읍성옛길 정비)
 -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 명암유원지 문화생태 공원화
 - 북부권(무심천, 미호천 합수부), 서남부권(구룡산, 망원산) 도심 유원지 조성
- 역사와 문화가 있는 둘레길 조성
 - 상당산성 옛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 우암산 둘레길, 청주옛길(한남금북정맥) 조성
 - 청주 삼백리 둘레길 조성
- 맑은물 공급 안정화 및 생태하천 복원
 - 청주광역정수장 현대화사업, 무심천 생명의 강 조성
 -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 녹색교통(보행, 자전거)전용 Cool Street 조성
 - 시범구역 지정, 도로다이어트, 녹도축 조성 등
-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선진형 교통정보체계 구축,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 대중교통 위주의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대중교통 전용지구 신설, 차없는 거리)

5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복지가 보장되는 삶의 질 높은도시

- 청주시복지재단설립(사회복지서비스 체계화 등 조사, 연구, 교육, 시설지원)
- 복지수요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기초생활보호, 위기가정 긴급복지, 자활·자립지원)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장애인 자립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여성 일자리 제공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강화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확대, 자립기반을 위한 자금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바우처 지원
- 어르신이 행복한 청주구현
 - 해피케어 확대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확대
-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청주해피콜, 저상버스)
 - 장애아동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대여
-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보편적 복지에 맞는 주민서비스 강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빈틈없는 서민보호
 -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확대
- 아동과 연성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조성
 -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전략목표 확대(50개 과제)
 -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
 -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인프라 구축
-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예보시스템 구축

제2절 청원군 : 친환경 첨단신산업 중심지역

1. 기본목표

- 첨단산업 도시
- 친환경 농업 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 효중심 나눔 복지 도시

2. 발전방향

- IT·BT·NT가 결합된 첨단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과 환경친화형 휴식공간 제공
- 녹색 신재생 에너지 보급
- 노인이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

3. 발전전략

① 첨단산업 기반 육성

- 첨단산업단지 연관 협력체제 구축
 - IT·BT 산업 유치 확대 및 집중 육성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 대덕연구특구 등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능수행 및 기능 분담
-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
 - 오송역 (우리국토 X축의 중심지), 청주공항을 활용한 광범위 교통망 활성화
 - 산·학·연·행 협력 클러스터 기능 수행
 - 오송신도시 정주권 개발
- 첨단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오창제2산업단지
 - 오송제2산업단지
 - 옥산산업단지

② 친환경 농업 전략적 지원

-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 친환경 브랜드 집중 육성 (청원생명쌀, 마뜨린포크, 육품정 등)
 - 바이오 기능성 농산물 개발, 친환경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확대
 - 환경 친화형 휴식공원 조성(휴양형, 피크닉형 공원)
- 전원 주거 환경 지원
 - 그린 주거단지 개발, 서민형 전원주택 개발

③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공공기관 및 시설에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 보급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 우드펠릿, RDF 생산 보급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활발한 거버넌스 활동
 - NGO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녹색활동 전개
- Clean-up Soil(토양), Clean-up Stream(하천), Clean-up Sweepings(쓰레기) 운동 사업의 추진

④ 노인중심, 약자가 행복한 나눔복지

- 노인복지 강화
 - 노인 섬김이 사업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밑반찬 배달사업 등
 - 효도청원 청원노인행복 네트워크 센터 운영
 -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저소득층 자활 기반 조성
 - 자활 공동체 사업 규모 및 참여기회 확대 : 미래자원 공장 규모 확대
 -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확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확대
 - 민간에 의한 복지사업 확산(지역별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저출산에 대한 대책 강구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 지속추진 확대 시행, 영유아양육비등 지원 방안 강구, 출산을 저하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 적극 홍보 등

제2장 | 중부권

제1절 증평군

제2절 진천군

제3절 괴산군

제4절 음성군

제2장 중부권

제1절 증평군 : Green-BEST 증평, 친환경 녹색모델 도시

1. 기본목표

- 솔라밸리 중심 지역 및 태양광 산업 육성 - 레드벨트(Red-Belt) 솔라도시
- 쾌적한 녹색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조성 - 그린벨트(Green-Belt) 디자인 도시
- 수변 생태환경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 블루벨트(Blue-Belt) 웰빙체험도시
- 인삼자원을 활용한 청주공항 연계형 건강 관광도시
- 농·도(農都), 증·도(曾道) 상생발전, 균형발전 모델도시
-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통한 충북의 중심, 중부권 거점도시
-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문화도시, 더불어 잘사는 보건복지도시

2. 발전방향

- 태양의 땅 충북, 솔라밸리 구축과 연계한 태양광 산업의 중점 육성
- 생명의 땅 충북, 바이오밸리 구축과 연계한 인삼산업 육성과 관광 자원화
-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광역적 교통 인프라의 지속 구축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모델도시 건설
- 미래지향적 공간 구조 재편을 통한 거점별 특성화
 - 블루벨트 : 원남저수지 일원 에듀팜 특구 조성, 생태하천 복원
 - 레드벨트 : 제1산업단지(태양광,LED), 제2산업단지(태양광전문단지)
 - 그린벨트 : 자전거 중심 녹색교통, 좌구산 일원 산림생태단지, 친환경 농업 육성
- 증평(曾坪)과 도안(道安)이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도모
-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인재육성과 복지타운 복지 거점화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3. 발전전략

① 태양광 산업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 태양광산업 육성을 통한 솔라도시 증평 실현
 -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태양광전문산업단지의 조성
 - 태양광 중심 그린IT산업의 지역 전략 산업화와 연관 기업 집중 유치
 -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지구온난화 대비 미래지향적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
 -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체간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 태양광산업특구내 지역간 연계협력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솔라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태양광 전문도시로의 위상 정립
 - 5+2 광역경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계 태양광클러스터 구축
 - 그린홈 100만호 선제적 추진과 의무할당제(RPS) 도입 시장 선도

②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충북의 중심, 중부권 거점도시

- 청주공항 및 고속(화)도로를 연계한 도로망 및 철도망 구축
 - 청주공항 북측 진출입로 추진에 따른 공항이용 편리성 향상
 -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 조기 건설로 미래산업 견인
 - 충청 제1,2내륙 고속화 도로 결절지역으로 충북의 중심 역할 수행
 - 천안~청주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 계획과 연계한 물류 거점화
- 외부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류 및 유통 활성화
 - 증평(청원 북이) ~ 청주(내덕) 자동차전용 도로 조기건설
 - 증평(증평읍 송산리) ~ 진천(진천읍 성석리) 국도 34호선 4차로 확·포장
 - 증평(내성리)~괴산 청안(금신리) 지방도 592호선 확·포장
- 인접 지역과 연계한 발전축 형성과 광역적 동반성장 도모
 - 청주시 : 청주국제공항 및 항공정비 복합단지(MRO) 연계 성장
 - 청원군 : 오창 IT산업과 태양광산업, 오송BT산업 인삼 연계 성장
 - 괴산군 : 동일 생활권 (사리, 청안) 연계 활성화
 - 음성군 : 태양광 산업, 인삼산업(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듀팜특구

- 진천군 : 국도34호선 확장(기착공 : 진천~증평, 향후 : 입장~진천) 연계

③ 쾌적한 주거환경 및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 송산지구 친환경 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인구 유입 유인
 - 주택 단지 인근 보강천변 체육공원 및 천변공원(자연녹지) 편의 기능 강화
 - 한전주 지중화, 야간경관, 태양광, 자전거도로 구축 등 고품격 주거경관 조성
- 증평의 생명수 보강천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과 하천의 친수공간화
 - 보강천, 삼기천, 입장천, 연천천, 봉천 생태하천 복원
 - 비점오염 저감 시설(인공습지 조성 등) 설치로 하천의 녹색공간화
-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기반 구축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정비·확충
- 저수지 독높임 사업과 연계한 삼기저수지 생태테마공원화 및 명소화
 - 수변산책로, 주차장, 인공식물섬 등 생태탐방과 수변생태 관찰 공간 조성
- 공원, 숲, 주차장, 건축물 등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모델의 창조
 - 증평읍 정비 및 도안면소재지 종합정비로 쾌적한 공간 재창조 및 도시재생
 - 경관계획 수립·시행과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으로 도시 미래상 설정 및 정체성 부각
 - 녹색숲과 쌈지공원의 조성, 철도역 광장의 주민쉼터화 등 녹지공간 체계 구축
- 자전거 중심 녹색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④ 도시와 농촌, 증평읍과 도안면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모델도시

- 자연순환경 경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생산기반 시설 구축
- 증평인삼과 홍삼의 명품화·명소화 및 1, 2, 3차 융합 6차 산업으로 육성
 - NH한삼인, 충북인삼조합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홍삼산업 메카 육성
 - 충북인삼유통센터, 증평인삼관광휴게소 연계 인삼유통타운화
 - 증평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체계적 관리와 유통 활성화
 - 증평 홍삼포크샵결살 축제의 명품 축제 육성 및 농가소득화
- 개발촉진지구(기초인프라 정비), 신발전지역 지정·개발을 통한 낙후성 탈피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개발 사업을 통한 증평과 도안 지역간 균형발전
 -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경관 개선
-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 농촌생활환경 정비(정주권 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 산과 물, 그린벨트와 블루벨트 공간 구축을 통한 녹색휴양관광 도시

- 증평 최북단 도안면 연촌리 일원 에듀팜 특구 조성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 개발원, 체험센터, 가족호텔, 대중골프장
- 증평 최남단 증평읍 울리 좌구산 일원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울리 휴양촌, 좌구산천문대, 녹색 명품길
 - 산림자원 연계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및 웰빙공원(거북이 공원) 조성
 - 초정약수 연계 광역적 관광단지 육성과 MTB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도안면 연촌리(북단) ~ 증평읍 울리(남단) 생태벨트화
 - 보강천 ~ 삼기천변길 Bike-Road의 생태 명소길 육성

6 수준 높은 교육문화 , 따뜻한 보건복지도시

-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과 교육환경 지속 확충과 개선
 - 교육복지의 확대, 지역 학교 환경의 지속적 개선
 - 군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교육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 맞춤형 학습지원, 영어체험 학습기회의 확대
 - 우수대학, 특성화고교, 군부대 등과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우수인재 양성
 - 군민아카데미, 사이버강좌 등 수요자 중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
 - 평생학습 운영의 체계화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증
 - 지역 명문고 육성과 장학금 확충 및 장학금 지원 확대
- 수준 높은 문화·체육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증평의 인물 발굴 및 함양

- 민속체험박물관 확충과 테마 관광자원 발굴
- 증평인삼씨름장 조성과 스포츠센터 일원 종목별 스포츠 타운화
- 계층별 복지인프라 확충과 따뜻한 보건복지의 실현
- 보건복지타운 확충,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

제2절 진천군 : 생명존중 건강도시, 역동적인 생거진천

1. 기본목표

- 꿈이있는 명품교육도시
- 함께하는 생거문화도시
- 생거특화 산업육성도시
- 참여하는 건강복지도시
- 조화로운 생태환경도시
- 군민감동 열린행정도시

2. 발전방향

-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명품 교육 기반 조성
-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건강한 경제기반 조성
- 누구나 평등한 건강한 복지기반 조성
- 자연과 군민이 어우러지는 명품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능동적·창조적 열린 행정 체제 조성

3. 발전전략

①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명품 교육 기반 조성

- 글로벌 인재 양성
 - 우석대 아셈진천캠퍼스, 세계태권도대학 중심 국제화 교육특구 조성
- 특성화 전문 교육
 - 바이오, 태양광 산업 분야와 연계한 마이스터고 개설 및 지역명문고 육성
 - 지역내 업체와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전문교육 시행
- 평생학습 기반 구축

-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 추진으로 개개인 역량 강화
- 충·효·예의 공동가치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 구축
- 지역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계획 수립

②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 창출

- 참여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 지역 문화예술 이끌 전문 문화재단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
- 생거 문화예술 발굴
 -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사업 발굴·육성
 - 주민 참여형 테마축제 발굴·육성으로 생거문화예술 진흥
- 생활 예술 체육 기반 조성
 -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확대 조성
 - 진천종합스포츠센터(진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융합형 관광 육성
 - 놀이와 레저, 여행과 건강, 쉼과 체험 등 여러 목적을 지닌 융합형 멀티관광 육성
 -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 구축 사업
 - 초평호반 수변테마파크 조성 사업
 - 농어촌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조성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건강한 경제기반 조성

- 산업기반 경쟁력 제고
 - 신척, 산수 등 조성중인 산업단지 지속 추진
 -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등 국책사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 적극 발굴 육성
-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 서민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 우석대 아셈진천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대학타운 조성 사업
- 농·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 지역 우수농산물 선별적 유통 시스템 갖춘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
- 수박, 채소 등 경쟁력 있는 도시 근교 농업 집중 육성
- 지역생산 농특산물 신규판로 개척 및 농업 고부가가치화 실현
-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 광역간선 교통망 및 연계도로망 체계적 확충
 - 물류비 감소로 산업경쟁력 강화

4] 누구나 평등한 건강한 복지기반 조성

- 생거건강도시 계획 추진
 - 건강한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군민 육성
 - 장수산업 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육성
- 약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고령화 사회 대비한 노인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등 시니어클럽 사업 확대
 - 노후 생활 환경 개선 및 실버산업 육성
 -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신축
 -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이 지역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참여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
 - 바람직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 군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안정된 노후생활 등 평등한 복지기반 조성

5] 자연과 군민이 어우러지는 명품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 보전
 - 30년 교류의 숲 조성, 숲 가꾸기 등 공원화 사업 확대
 -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보완사업
 -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진천의 자랑, 깨끗한 물 보전
-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 기후변화 적응 계획 등 대책 수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 추진
 -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
-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
 -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정착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적정 배출 등 실천하는 녹색생활양식 유도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순환 교육

6] 능동적창조적 열린 행정 체제 조성

- 활력 있는 조직, 열린 행정 구현
 - 행정 수요에 능동적 조직 운영, 열린 행정 구현으로 자치역량 강화
- 정보역량 강화로 U-진천 구현
 - 지역내 산업정보화 기반 시설 확충
 - 충북혁신도시 U-사업 추진으로 지역내 정보접근 기회 확대
- 행정구역 개편에 능동적 대응
 - 향후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선제적 대응방안

제3절 괴산군 : 청정자연 BIO농산업 중심지역

1. 기본목표

- 경쟁우위의 농축산업을 육성하는 괴산
- 활력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괴산
-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현하는 괴산
- 특색있는 문화관광을 개발하는 괴산
-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괴산

2. 발전방향

- 경쟁우위의 농축산업육성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유치
- 민생경제 활성화
- 주민편의의 지역균형 개발
- 함께 잘사는 사회복지기반 조성
- 특색있는 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
- 생태보전 및 산림자원 개발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3. 발전전략

① 경쟁우위의 농축산업 육성

- 자연순환형 농업 육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료공장 운영 및 톱밥공급
 - 유기질비료 생산, 축산용 복합 생균제 생산, 왕우렁이 종패 생산
 - 축산품질의 청정화 및 고급화, 생산기반 확충으로 청정 축산물 경쟁력 제고
 - 한우명품화 사업, 내수면어업 육성

- 산림자원의 소득화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산촌생태마을, 펠릿보일러 보급, 송이산가꾸기
 -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조성
- 고품질 농축산물 유통 지원
 -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사이버거래 활성화

② 지역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살맛나는 실물경제 실현

-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
 -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괴산)
 - 건축자재특화 산업단지 조성(괴산)
 - 장류식품산업 육성(괴산)
 - 감물가구 산업단지 조성(감물)
 -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칠성)
 - IT·BT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청안, 사리)
- 산업발전 지원체계 구축
 -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중원대학교와의 산학협력단 운영으로 인력활용
-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 학군장교 교육의 산실로 조성, 3만2천여명의 연간교육인원과 상주인구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확대
- 민생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괴산,청천,목도,연풍) 환경개선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노인·청년·녹색의 일자리 창출

③ 이름답고 살기 좋은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

- 입체화된 교통·물류망 구축
 - 천안-충주-괴산-문경간 동서철도에 연풍역 유치

- 국도 확포장 : 괴산~괴산IC(19호선), 괴산~연풍(34호선), 괴산~음성(37호선), 괴산~미원(19호선)
-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권역별 균형개발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으로 낙후지역 개선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광농어촌테마공원 조성
-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
- 균형있는 개발로 도시성장기반 확충
 -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토지이용 활성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관리
-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 생태도시
 - 생태공원, 생태마을 조성 및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도시숲, 녹지환경 개선, 탄소 흡수원 확충
- 생활환경 보전 :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생태하천환경 조성(동진천,성황천), 청천강수변공원 조성, 달천 고향의 강 사업
-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확충

4 사람이 모이는 관광, 스포츠

- 계절·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장연골프장, 수옥정관광지, 한지체험박물관
 - 괴강관광지, 길(산막이옛길, 이백리선유길), 구곡테마 관광, 35명산
- 지자체간 관광 연계협력사업 추진
 - 중부내륙권 숲관광메가시티 개발사업(충주, 제천, 문경, 영월, 단양)
 - 백두대간 회랑길 복원사업(충주, 단양, 보은, 문경)
-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 전천후 게이트볼 대회 활성화, 생활체육 확대
 -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의 차원 높은 최상의 체육시설 운영

5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 복지사회 구현

-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설
 - 영유아 교육 양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위기가구 관리
- 노인과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 수립
 - 소외계층의 자활기반 구축,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 보육시설 확충
 - 노인·여성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매년)
- 복지시설의 활용과 확충
 - 장애인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물류센터 운영
 - 충혼탑·충열탑 재정비
- 저출산 대책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세자녀 이상 가구 지원
 - 영유아 지원 : 첫째아50만원, 둘째아200만원, 셋째아300만원, 넷째아4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

6] 수준높은 교육문화 창달

-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
 - 친환경 쌀 등 학교급식 지원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군민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 특색있고 수준높은 지역문화 창조
 - 미륵산성 복원정비, 한지체험박물관, 복합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김홍도 거리 조성

제4절 음성군 : 그린토피아 청정농산업 중심지역

1. 기본목표

- 군민 모두가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
-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활력있는 음성
-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음성
-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음성
- 전통역사 문화자원의 발굴계승을 통한 뿌리 깊은 음성

2. 발전방향

- 도시성장관리축 : 도시 및 편익시설 재정비, 도시기능의 활성화
- 농공균형육성축 : 첨단산업 유치 및 농산물의 명품화를 통한 농공병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도모
- 청정기술환경축 : 공해유발업종 제한, 청정기술형 첨단산업유치, 농촌마을
- 정비, 녹지축의 조성 등 개발과 보전의 조화

3. 발전전략

① 지역통합과 공동체 형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 소도읍 개발 육성사업 : 음성읍과 금왕읍 대상 테마별 육성프로그램개발, 주민소득사업 연계
 - 산업환경개선지구 지정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대소,삼성)
 - 대소 신도시 개발추진 : 계획적 토지이용, 거점도시화, 도시적 서비스 제공 산업인력 안정적 정착
 - 삼성도시계획 수립 : 계획적 토지이용과 친환경적 도시정비
 - 대학타운 조성 : 극동대 - 극동정보대 중심의 감곡대학타운 조성
 - 소형임대아파트 공급 : 산업인력 주거안정도모(금왕,맹동,대소,삼성)

- 중부신도시 건설 : 첨단 미래형 U-City 건설
-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 역세권 개발
- 골프장 건설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개발(코스카, 잔스필스)
- 농촌개발사업 추진
 -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 마을공동체 역사, 문화, 환경적 특성반영
 - 문화마을 조성사업 : 선진국형 농촌환경, 지역별, 마을로 고유한 특성 부각(획일화 방지), 주민밀착형, 전원주거형 개발
 -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 주민공동체, 농촌고유의 자연환경생태 유지복원
 - 생활환경개선사업 : 정부지원 규모확대 건의, 읍면별 균형배분
 - 농촌종합개발 사업 확대추진 : 정주여건 조성 및 테마공원 조성등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구온난화방지
 - 원남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 연꽃단지, 생태배움터등 정주여건 조성
- 교육강군 육성
 - 우수인재 양성 : 장학기금 50억원 조성
 - 교육환경 개선 : 무상급식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 지역명문고 육성 : 장학생 선발 및 우수학생, 우수학교 인센티브지원

②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환경 조성

- 웃음과 즐거움이 언제나 있는 농촌건설
 - 생산적조직 활성화 및 산지유통 혁신 : 자율적 조성기능 강화와 전문적인농업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 지역특화작목의 혁신 : 고품질화 방안 마련
 - 농산물시장 개척의 적극 지원 :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시장 개척
 - 조수익 1억원 프로젝트사업 : 살맛나는 농촌건설, 활력있는 복지음성
- 젊음과 의욕이 넘치는 농촌건설
 - 농업후계자 양성 : 농업을 사랑하고 자긍심 높은 차세대 농업인 육성
 - 전문영농인 육성 : 품목별로 선정하여 전문기술과 최신기술의 훈련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농업기술 해결사로 양성
 - 벤처농업인 육성 : BT를 이용한 신 농작물의 재배 및 지역특화 작목지원

-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건설
 - 녹색농촌 관광육성 : 각 읍면별로 특성적인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 농촌의 여유와 정감, 평온을 느끼는 전통농촌회복
 - 농어촌 의료복지 및 문화기반 종합지원 : 농어촌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향상 및 도시와의 문화복지 격차 최소화
- 음성형 선진 농업행정 구현
 - 음성군 농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자율적 상향적 농정체계 구축
 - 고품질,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추진
 - 농업행정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농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농업의 선진화
 - 음성형 농업철학의 지속적인 연구와 완성으로 선진 과학영농 실현
 -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 생활자원복지형공동체 사업

③ 유망 중소기업 육성등 신 성장동력 확충

- 경제 주체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주체간 상호협력 및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
 - 기업애로 및 고충처리기능 확대, 마케팅 지원체계 강화
- 산업기반 확충과 재정비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재편
 - 산업 및 농공단지 리노베이션 : 유희 산업단지 임대지원, 인력공급 및 기업지원 강화
 - 음성테크노파크 조성 : 산학연 연계, 창업보육, 교육훈련, 경영지원 기능
 - 감곡벤처밸리지 조성 : 벤처기업활성화, 주거연구여가문화기업지원 기능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 휴폐업 산업용지의 전환
 -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 계획적 단지조성 및 개별공장 집단화 유도
- 뉴 IT, 바이오산업 육성, 솔라밸리
-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 현대중공업, 경동솔라, 신성씨에스
- 농공단지 재생사업 : 기반시설 확충, 기업 생산성 향상
- 산업단지 추가조성 : 난개발 방지, 집적화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원남, 감곡, 생극, 용산, 육령, 중부산단)
- 생태산업단지 조성 : 자원재이용

4 유통 및 서비스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보시장과 재래시장 구조 개선
 - 지역업체의 유통정보시스템 도입유도 및 지원
 - 기업내, 기업간, 소비자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정착
 - 재래시장인 5일장을 지역문화를 이벤트화하며 브랜드화 추진
 - 핵심적 전통요소 부각,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
- 농공산품의 유통물류기반 확충
 - 대소유통센터 : 중부내륙권, 수도권, 청주대전권을 연계하는 종합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농산물 직거래 시장 :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활용, 계절별 직거래장터개설
 - 농산물거점유통센터 건립 : 농산물 집산 및 출하, 민속빌리지, 농업광장
 - 물류유통 인프라 구축 :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 중부내륙철도 통과 및 역사건립
 - 축산물 공판장 건립 : 축산물 공급의 핵심기지로 육성

5 지역문화창달과 관광기반확충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이미지 4가지 구상
 - 지역에 산재한 호수와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등의 시각적 구상
 - 세연 철 박물관, 매곡유물관, 의약박물관 등의 문화적 구상
 - 풍부한 유교문화, 중원문화권 연계, 산성과 봉수 등의 역사적 구상
 - 청결고추, 햇사레복숭아 등 농특산물과 자린고비 고장 등 심리적 이미지 구상
-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관광자원 발굴
 - 테마별 문화관광코스 개발, 생극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 삼림욕장 확충 : 금왕 백야리 삼림욕장 조성, 봉학골 삼림욕장기능보완
 - 금왕읍일원(3형제저수지),삼성면 일원에 관광지구조성(양덕, 대사, 대야)
 - 반기문 테마 관광지 조성 : 한옥마을, 외국어 교육원, 자생식물원 등 조성
 -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 동요대회, 심성치유, 청소년 쉼터 제공

6 맑고 푸른 음성의 청정이미지 정립

- 그린 음성 21 추진
 - 환경보존계획 수립, 자연하천 정화사업, 맑은 물 푸른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수질정화 식물의 군락지를 조성
 - 훼손 녹지복원 사업과 생태통로 확보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업단지에 대한 완충녹지와 생태교육장을 조성하고 세천 정비사업을 추진
 - 음성천 자연생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와 여가공간으로서 이용도를 높이는 등 맑고 푸른 음성의 청정이미지를 정립
-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기반 정비
 - 음성지역의 인구와 산업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이로인해 나타난 환경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
 - 하수관거 정비,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건설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가로망연계 하수도정비
 - 광역쓰레기 매립장(폐기물종합처리시설)확장이전
 -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방지
 - 저탄소 녹색성장 : 기후변화, 폐자원에너지화 등 탄소포인트제

7 사회복지 및 보건의로 체계 확립

- 적극적인 복지사업 전개
 - 지역특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분야별 복지대책 수립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전문의료기관 설립
 - 공공의료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질적 수준 제고
 -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
 - 소외계층을 위한 특성화된 보건의로 프로그램 도입
- 선진국형 사회복지기반 조성
 - 지역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을 위한 복지예산 배가운동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제3장 | 북부권

제1절 충주시

제2절 제천시

제3절 단양군

제3장 북부권

제1절 충주시 : 내륙산업벨트의 중심도시

1. 기본목표

- 첨단산업 중심도시
- 친환경 명품농업 도시
- 매력있는 문화관광 도시
- 차별없는 평생복지 도시
- 창의적 인재양성 도시

2. 발전방향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
- 앞서가는 친환경명품농업 육성
- 매력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세계무술 도시브랜드화 및 수상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
- 차별없는 평생복지 실현
-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

3. 발전전략

①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심도시 건설

- 국가 5대 초광역 개발축인 「내륙첨단산업벨트」 개발계획과 연동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
- 「충주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인근 「신산업단지」를 의약, 식품 및 바이오, 첨단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중부내륙선철도, 동서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열십자 고속교통망을 활용한 전국과 연결되는 「공동물류 집·배송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을 신규 확충

-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롭게 형성되는 신 개발축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 위상 선점 및 개발 극대화

2] 앞서는 친환경명품농업 육성

- 수입농산 개방에 맞서 선택과 집중으로 고부가가치의 도내 1위인 친환경 명품농업 지속 육성
- 지역별 차별화된 지역특화작목 체계적 육성
 - 수안보면과 살미면에 대학찰옥수수과 꽃감 생산기지화
 - 노은면에 버섯재배단지·산척면에 고구마
 - 양성면 노은면에 복숭아·소태 밤
 - 신니면과 달천동의 방울토마토 등
-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으로 농촌의 어려움 해소와 활력 있는 농촌 건설

3] 매력이 가득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세계무술 도시브랜드화 및 수상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

- 온천·산악·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중원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개발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남산 역사테마 산길공원」, 「온천레포츠 관광단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
-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로 국·내외 수상스포츠 시장선점으로 선진국형 수상스포츠 관광도시로 발전
- 세계각국의 전통무술과 문화예술이 망라된 2014 세계무술엑스포 개최로 무술관련 영화, 게임, 산업 시장 선점 및 무술의 도시브랜드화
- 다양한 관광소프트웨어 개발로 관광소득 및 관광분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4] 차별없는 평생복지 실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등 선진복지제도 도입
-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출생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선진적인 평생 복지 체제 구축

5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

- 기존 「장학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경비」 확대 및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 분야별 자랑스러운 장학생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 교육분야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역량과 잠재력 제고

제2절 제천시 :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 건강휴양 도시

1. 기본목표 : 활력 있는 경제도시 실현

- 지식정보화 시대의 미래형 한방바이오산업도시
-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한 웰빙·체험형 관광휴양도시
- 유구한 역사와 중원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도시
- 체계적 복지시스템을 갖춘 능동적 복지도시
- 중부내륙권 중추거점 물류유통도시
- 국토 동측연결 중심의 철도거점도시

2. 발전방향

- 제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식·고부가가치형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 수도권과 경남권 연결 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철도산업 육성
- 천혜의 산수자원을 활용한 웰빙·체험형 관광산업 육성
- 제천의 특색있고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정비 확충
-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으로 물류유통도시 기반 확충
- 자연순환형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 정보·인적 인프라 확대로 U-지식정보도시 기반 구축
- 청풍호반 주변지역의 복원과 개발을 통한 지역개발 가속화
- 농촌지역 기반시설 및 녹색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잘사는 농촌 실현

3. 발전전략

① 고부가가치형 지역선도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

- 한방특화도시 기반구축 및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 특구 및 한방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
 - 중부내륙권 한방산업 연계육성(시군 연계사업)

- 제3 지방산업단지 조성
- 제1, 제2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차별화로 집적기능 강화
- 수도권과 경남권 연결 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철도산업 육성
-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조기 개발
- 지식재산도시 기반 구축, 기술·기능인력 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② 입체화된 교통물류망 구축

- 동서고속도로(안중~삼척) 및 충청고속화도로(영월, 평창 경유) 조기 건설
- 중앙선 및 태백선 복선 전철화 조기완료
- 국도 확충 : 36호선(충주~제천~단양), 5호선(봉양~원주)
- 지방도 확충 및 정비 : 82호선 확장(금성~청풍~수산), 402호선 정비(백운 평동~운학), 522호선 확장(두학~단양), 532호선 확포장(금성 구룡~청풍 오산), 534호선 확장(덕산 성암~문경시)
- 관광순환도로망 구축 : 청풍관광순환도로, 지역관광순환도로, 간선도로 연계(자전거도로 병행)
- 거점형 물류기지 건설(제천유통단지)
- 농축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권역별유통단지 신설 및 정비
- 기존 화물터미널 활성화 및 철도수송 기반 조성
- 물류·유통시설의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③ 중부내륙권 관광의 거점화 및 세계화

- 역사·호수·명산이 어우러진, 체류형·테마형·지역문화형·환경친화적 관광개발
- 권역별 관광개발 : 박달권(자연휴양리조트 지역), 의림권(도시공원형 관광지역), 청풍호반권(체류형 관광거점지역), 월악권(농촌휴양리조트 지역)
-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 MTB 코스 개발
- 한방의료관광 기반 구축 :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 조성, 치유의 숲 및 생태한방 밀원숲 조성, 제3한방명의촌 조성 및 1,2호점 연계
-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관광상품 개발(시군 연계사업)

- 청풍호변 친수구역 친환경적 관광 개발 :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친환경 연수원 및 의료시설 건립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정비사업(역사·문화, 관광, 도로) 완료

4] 친환경 생명농업기반의 조성으로 잘사는 농촌 구현

- 지역농업개발권 설정, 지역특화단지 조성 : 박달권, 청풍권, 월악권, 내토권
-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전원마을 조성 : 농어촌테마공원, 녹색관광마을, 산골체험마을 조성 등
-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및 우수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및 명품화
- 한방특화도시 2020프로젝트와 연계한 우수한약재(GAP) 생산기반 확충 및 한방약초 산업 활성화, 한방음식 브랜드 확대, 우수한약재 생산가공 및 연구소 설치
-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립 : RPC 및 건조·저장시설 증설, 한약초·과수 산지유통센터(APC) 건설,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시설,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건립 등
- 농축산품 수출시장 개척, 수출 전략상품 선정·지원
- 영농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농업정보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5] 지역개성이 발현되는 고품격 문화도시 기반 구축

-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보존·정비로 관광자원화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등 추진
- 제천10경 및 주요관광지의 관광순환도로망 구축
-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 교육문화컨벤션 타워 건립
- 지역특화 박물관 건립 : 의림지 역사관 (농업사박물관)
- 지역 역사적 인물 발굴 및 기념사업 추진
- 지역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방건강축제, 청풍 벚꽃축제
- 문화예술인과 단체 창작기반 지원 확대
-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6 친환경 웰빙 정주기반 조성

- 녹색생태도시 지향 : 백두대간 생태녹지축 보전, 도시내 녹색회랑 구축 및 그린로드 조성, 주제공원 확충 등
- 생태환경 순환체계 구축 : 녹지네트워크 구축, 주요하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 연료개선 및 청정연료 대책 추진 : 지역난방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
-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및 저감 : 청정산업 유치, 천연가스 버스 확대 운영,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자전거도로망 구축, 보행자 보호구역(Green Zone) 지정
- 마을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지속적 확충 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심공원 CCTV 설치
-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 미래형 주택지 개발 : 환경친화적 전원주거단지, 도농 연계지점의 기능형 주거단지, 독특한 지역형, 관광형 주거단지 등
- 자원관리센터 시설 가용능력 확대
- 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7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성

-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의 확립 : 통합네트워크 활성화, 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양질화
- 저소득층 생활지원서비스 강화 : 삶의 질 보장, 자활능력 제고
-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전용 복지공간의 확대와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재활 및 자활능력 도모, 전용 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
- 장기적·포괄적인 여성복지서비스 체계 확립, 여성복지 운영 프로그램 개발지원, 일자리 확대, 안심 보육시설 운영
- 다양한 아동보육사업 및 서비스 제공의 확대
-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확대
- 통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보건소의 기능 확대 및 장비의 현대화,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체계화

제3절 단양군 : 친환경관광전문도시 단양 조성

1. 기본목표 : Clean - wellbeing 단양

- 깨끗한 단양(Clear) 행정도 환경도 깨끗한 단양
- 신나는 단양(Lively) 전국 제일의 레저스포츠 체험관광지 단양
- 마음편안 단양(Easeful) 군민과 내방객이 마음 편한 웰빙 단양
- 체류하는 단양(Abide) 먹고, 자고 가는 체류형 리조트 단양
- 자연그대로 단양(Natural) 체험하며 즐기는 자연휴양지 단양

2. 발전방향

① 휴양레저 관광도시

- 수변공간 활용 관광상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체류체험형 전문관광도시 건설
- 체험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및 삶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하고 싶은 휴양레저관광도시 개발

② 역사문화 관광도시

-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 관광자원화 하여 중부내륙권 거점형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 단양의 청정자원과 풍부한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산악 및 수변 휴양공간을 주거복합형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주말 관광객 유치

③ 생태환경 관광도시

-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관광 등 환경친화형 생태관광 육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발전 도모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확대
-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농촌관광의 구현

④ 친환경관광전문도시

- 휴양레저문화를 연계한 네트워크형 다기능 복합관광 유도
-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연계성 강화를 통한 관광특화사업 추진
- 순환형 가로망 체계 구축을 통한 Green Tourism

3. 발전전략

①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로 고용창출
 -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 조성,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기업체 유치
 -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으로 자원순환의 메카로 육성
- 지역경기 활력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단양읍소재지 육성사업, 전국규모의 체육행사 유치 및 관광객 유치
 - 단양사랑상품권 확대 유통, 지역건설업 및 관내 건설중장비 사용 활성화 등

② 중부내륙의 거점 문화관광도시 구현

- “남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
 - 충주호 적정수위 유지를 위한 수중보 건설
 - 수중보 건설 이후 단양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수상관광레포츠 거점시설 및 기반 확충
- 4계절 종합 휴양·관광지 육성
 - 스키장, 골프장을 겸비한 겨울철 휴양레저시설 조성으로 4계절 관광이 가능하도록 단양종합리조트 조성
 - 양방산 모노레일 스카이 파크 및 상진 테마파크 조성
 - 단양관광의 핵심 축이 될 단양 다(多) 누리센터 건립 및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광역 관광개발계획 추진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확대
 - 단양팔경 자전거 여행길, 남한강 수변탐방 자전거길 조성 등 슬로우타운 조성
 - 북부권 관광상품 공동 개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선사문화테마파크 조성, 향산석탑 주변정비 및 복원, 온달산성정비 및 온달·평강 스토리텔링
 -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등 지역축제의 명품화
 - 그린 콘서트 주말 상설공연(7~8월),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및 명품문화 공연 등 생활중심의 공연문화 향유기회 확대

3 도시가 부럽지 않은 살맛나는 농촌 조성

- 농·산촌 체험과 관광을 결합한 환경친화적 생태관광, 농촌관광 구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흰여울 권역, 영춘면 거점면 권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확대 조성,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귀농·귀촌사업 추진
 -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장 조성, 소백산 화전민촌 조성, 중부내륙 산악권 숲 메가시티사업, 소백산 산악초 타운 조성
- 경쟁력 있는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 친환경 인증농가 및 실천농가 확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판매장 운영,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등
 - 농촌발전기금 조성, 농업재해보험 가입
-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확대
 - 단고을 연합사업단의 법인화, 농산물 소포장 확대 지원, 돈 버는 웰빙경로당 운영, 농·특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확대

4 교육의 낙원과 행복한 단양 구현

- 평생교육 진흥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
 - 단양장학회 장학기금 확대 조성, 평생교육 활성화, 인재양성 교육지원 등
- 여성, 청소년,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구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문화존 사업, 보육환경 개선, 다문화 가족 복지 지원, 경로시설 보수 및 노인복지 향상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생태공원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별곡지구),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가대비점저감사업, 매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제 4 장 | 남부권

제1절 보은군

제2절 옥천군

제3절 영동군

제4장 남부권

제1절 보은군 : 향토문화관광산업 중심지역

1. 기본목표

- 국토의 중심, 사통팔달의 교통망 : 균형보은
- 생산과 물류의 거점 : 활력보은
- 관광과 휴양의 중심 : 관광보은
- 청정환경 보존과 인간 존중 : 쾌적보은

2. 발전방향

- 대전~충북~경북을 잇는 Clean Triangle의 중심 조성
- 미래지향적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 전통문화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개발
- 생산적 복지실현과 청정환경 보전

3. 발전전략

① 지역발전축 설정과 생활권 조성

- 국도 중심의 지역발전축 설정
 - 농업발전축 형성(25번 국도 중심) : 청원~보은~장안~탄부~마로~상주
 - 내륙순환관광벨트 형성(37번 국도 중심) : 괴산~산외~속리산~보은~수한~옥천
 - 첨단산업축 형성(19번 국도 중심) : 청주~미원~내북~보은~삼승~영동
- 권역별 5대 생활권 조성
 - 동부생활권(속리산, 장안) : 관광·스포츠·휴양·레저·문화
 - 서부생활권(회인, 회남) : 관광·휴양·전원주거
 - 남부생활권(마로, 탄부, 삼승) : 과학영농, 물류유통, 스포츠, 축산단지
 - 북부생활권(내북, 산외) : 특용작물, 관광농원, 레저관광단지

- 중부생활권(보은, 수한) : 중심상업, 스포츠 중심, 유통물류중심, 청정산업, 산업지원서비스

②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 지역간 연계성 강화
 - 지역 통합을 위한 고효율의 광역도로망체계 구축
 - 교통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 개발촉진지구 도로의 조기 개설
 - 체계적인 교통정보화 추진 및 권역별 물류시설 및 유통단지 건설
- 교통망·물류시설 확충
 - 대전~회남~회인~오송간 고속국도 신설
(대전~세종시~청주~오송 우회도로 개념)
(중부고속~당진 상주고속~경부고속~대진고속 연결 개념)
 - 보은~미원간 국도의 4차선 확장
 - 보은~옥천간 국도의 4차선 확장
 - 보은~영동간 국도의 4차선 확장
 - 청주~회인~회남~대전간 지방도 개량
 - 회인~문의간 연결도로(보은, 청주, 대전, 세종시)신설
 - 금거리~아곡리간 도로신설(국지도)
 - 보은물류단지 조성 (보은IC 인근), 농특산물 유통시설(속리산IC 인근)

③ 농림축산업의 생산기반 확충

- 기능별 특화단지 조성
 - 지역 특산품과 청정지역의 특징을 살린 특화단지 조성
 - 첨단농업전략 추진 : 다면적 공익기능농업, 관광농업, 환경농업
 - 생태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유지관리
 - 한육우 공급 기지화 : LPC중심의 쇠고기 생산 콤비나트 구축
- 지역여건을 살린 농업권역 설정 육성
 - 동부 산간지 :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을 통한 그린투어리즘 육성
 - 서부 중간지 : 유실수와 내수면어업 중심의 도농교류형 근교농업 육성

- 북부 중산간지 : 특용작물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 중부 평야지 : 고품질 미곡생산단지 조성

④ 제조업 및 유통기능 활성화

- 선계획 후개발원칙 준수
 - 기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절제된 개발계획 추진
- 환경을 최우선하는 산업정책 추진
 - 산업단지내 입주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높은 중소형 특화산업 육성
 - 계획단지 내 인프라 시설의 공동설치로 경쟁력 향상
- 벤처기업 전문화단지 육성
 -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
 - 지식기반 1차 산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 유치
 - 동부지방산업단지 조성
-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농산업 육성

⑤ 효율적 지역정보화 추진

- 정보 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망 고속화 및 고도화,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제도 및 환경 조성
- 산업 정보화
 -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기반 구축
 - 기업체 정보 및 산업경제 Data Base 구축
- 생활 정보화
 - 정보화를 통한 사회복지수준 향상 및 주민의 정보화 대처능력 배양
- 행정 정보화
 - 첨단 행정전산망 구축으로 열린행정 기반 구축
 - BPR 구축(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6 테마형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 역사테마관광의 '보은 3-1-4 비전'
 - 3종(컨셉 활용) : 불교문화, 동학 + Bio Park, 전통민속문화
 - 1종(자연자원 이용) : 백두대간 속리산국립공원 일원의 문화생태공원 조성
 - 5종(이벤트 개최) : 대추축제, 복실동학축제, 속리죽전, 세계민속축제, 오장환문학제
- 관광 휴양 및 스포츠 메카 육성
 - 레저 관광단지 조성, 황토농촌 휴양단지 조성, 에코빌리지 조성 등
- 전천후 스포츠 메카 육성
 -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국궁장 조성, 골프장,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 시설 확충
 - 스포츠전지훈련장(트레이닝센터) 조성
- 차별화된 관광개발
 - 신정지구 개발, 대청호 유람선 운항, 속리산 고향의 강 정비
 - 삼년산성 고분군 발굴 및 체험장 설치

7 청정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리

- 녹지공간 확충
 -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생태계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자연환경조사
- 대기환경 및 수자원 관리
 -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환경전광판 설치와 오존경보제 실시 등
 -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수요전망 및 수급대책 마련, 하천관리 체계의 일원화, 종합화
- 통합적 폐기물 관리
 - 폐기물 감량 시책 마련,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비용 정밀분석

8 편리한 생활환경 및 미래형 복지사회 건설

- 주거·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권역 중심의 생활환경 조성
 - 테마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및 지역교육환경 개선

- 상하수도 시설 확충
 - 깨끗한 상수원 확보, 안전하고 맛있는 음용수 공급
청원 취수탑→미원→내북면→보은읍 대청댐 광역상수도망 구축
 -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 제고
- 보건복지시책 확대
 -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강화
 -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대책 추진과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제2절 옥천군 : 친환경 과학영농특화 및 산업·물류 중심지역

1. 기본목표

- 첨단과학기술산업과 지식정보화 농업의 거점도시
- 쾌적성이 으뜸가는 생명의 환경도시
- 자연과 전통 역사문화가 생동하는 테마형 관광도시
- 생산과 물류유통의 중심도시

2. 발전방향

- BINT 등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토대 구축
- 지식정보화과학영농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
- 행정도시권 및 대도시권역과 연계한 발전기반 구축
- 세계적 향토 역사문화의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 인간 중심의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확립
- 교통과 국토면적의 중심체적 역할제공 소재 개발

3. 발전전략

① BINT 등 첨단기술의 집적도시 토대 구축

- 민학관 연구조직과 네트워크체제와 지역혁신역량 강화
 - BIT산업기술 연구시설과 지역주민 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집적 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성장 동력기반 조성
 -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군서), 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고품질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
 - Bio농산업 특성화단지 유치 조성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첨단사업벨트 조성
 - 대덕연구단지~옥천(첨단산업단지, 의료기기단지)~오송첨복단지~오창산업단지화

② 전통 농산업의 특성화 집중육성 기반 구축

- 옥천묘목유통단지 확충
 - 종자관련업체 및 연구소, 벤처기업 등 유치로 단지의 집적화,
 - 묘목테마공원 조성, 묘목축제의 확대
 - 옥천묘목특구 특화 활성화
- 옥천 참웃 명품화 사업 추진
 - 웃나무 재배단지 조성
 - 웃산업 추진 : 칠 정제/가공, 칠 관련 제품 제조
 - 웃 체험관광 자원화 등
 - 충북도립대 등과 산학연관 클러스터 체계 구축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전개
- 지역 물류유통 거점단지 조성
 - 친환경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 특화물류유통단지(문정·이백뜰)등 물류유통 중심도시 조성

③ 세종시권과 연계한 발전기반 구축

- 대전광역도시계획권 및 도내 북부지역 간 경전철 연결
 - 옥천~대전~신탄진~세종시~조치원~오송~청주~증평
 - 세종권의 미래 교통수요 대비 및 도내 북부지역과 연결을 통해 지역통합성 강화
- 세종시 연계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개발 촉진
- 광역도시계획권 및 행정권과의 균형적 개발
 - 옥천~대전간 국도4호선 확포장 공사
 - 옥천-대전간 전철화 사업
 - 지방도 501호, 505호선 확포장 공사

④ 세계적 향토 역사문화의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 지역적 향토 역사문화를 특성화한 관광자원의 개발
 - 육영수 여사 생가 명소화 및 육영수 기념관 건립추진

- 동학혁명유적지 조성
- 장계관광지 친수구역조성
- 향수 자전거길 명소화 추진
- 역사 테마 관광벨트 조성 (동학혁명유적-청마리제신탑-정지용생가-장령산휴양림)
- 대청호유역 친환경 발전방안 추진(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 재개)
- “5도 2촌” 생활여가 시대에 대응한 테마형 여가지대 조성
 - 약초테마파크 조성 : 야생화 체험단지, 약초 찜질방, 학생 체험학습장 등(식약청 중부시험장 옥천약용작물재배시험장 연계)
 - 문학캠프촌 건립 : 정지용, 유승규, 류시화, 정순철 등 지역출신 문학인을 활용한 문학캠프 및 문학기행 등 전국단위 행사로 확충
 - 도예촌 조성 : 공예 전수관, 공예 체험관, 산골예술제 개최
 - 지용문학공원 조성 : 지용생가와 문학관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문학 공원 조성(신규)
- 댐 주변과 관광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
 - 국내 최대 은어 서식지 조성
 - 대청호 순환관광도로 개설 (이백~환평~추소~이평~항곡~증악)
 - 연꽃단지 조성 및 대청호주변 대단위 유채꽃단지 조성
- 레저스포츠위락 관광시설 조성
 - 오토캠핑장 건설, X-게임파크 조성
 - 골프 리조트 조성(이원, 동이)

5 인간중심의 안전한 사회보장체계 확립

- 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수해 등 긴급재난에 대한 철저한 구호체계를 확립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 노인용품전시 및 판매점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 확충(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실버타운 등)
- 장애인 복지 지원
 -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 강화, 공동생활시설 확대 설치 운영, 보건소 장애예방사업 확대 및 복지관내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복지 서비스 향상

- 폭력 피해여성 일시 보호시설(쉼터) 확충, 이혼 위기 가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운영, 자녀 양육문제 상담 및 여성 세대주의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종합복지시설 신축 및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민간자원의 발굴 및 민간참여 활성화로 자활복지 강화
- 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건강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 및 표준화 사업 전개
- 건강휴양종합타운 조성(청산면)
 - 건강관리시설, 휴양시설, 레저시설을 갖춘 종합시설

[6] 환경친화형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 농산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 : 군서 금천지구(장령산휴양림 주변)
- 농산촌 테마형 체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향토사업 육성 : 페터널(고속도로, 철도)을 이용한 저온저장고 및 재배 시설단지 조성
- 도시공원 및 도시 숲, 생태숲(장령산휴양림 일대) 조성
- 고급형 전원주택 주거단지조성

제3절 영동군 : 생명 문화의 고장 영동 실현

1. 기본목표

- 인간을 존중하는 고장
- 청정자연이 생명력을 키우는 고장
- 생명산업이 육성되는 고장
- 미래에 살고 싶은 건강한 고장

2. 발전방향

- 인간을 존중하는 고장
 - 편안함과 쾌적함 그리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본도시
 - 사회 소외계층 수용으로 복지사회 구현
- 청정자연이 생명력을 키우는 고장
 - 자연 및 인공환경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 감나무 가로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보전
 - 청정자원 생태공원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생명산업이 육성되는 고장
 - 산업의 지식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신지식산업 육성
 -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로 첨단기술산업 성장 촉진
 -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 미래에 살고 싶은 건강한 고장
 - 인간중심의 문화터전으로 건강한 영동 구현
 - 주요 개발사업 지역의 친환경적 개발
 - 농촌주변지역의 특성화된 정주체계 확립

3. 발전전략

① 신세기를 개척하는 생명도시 정책만들기

- 1촌 1품 특성화 전략 수립추진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전략 추진
 - 특성화 발전 도모, 특화상품 육성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조직체의 정비
 -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의 교육문화 창달
 - 지역정보 통합관리, 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 농업, 레저·관광, 지역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② 지역특화 바이오 생명 산업만들기

-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 추진
 -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로 세계적인 과일체험 명소 개발
- 영동 테크노파크 조성
 - 영동테크노파크 건립하여 생물건강산업,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및 행정 기술 지원
 - 영동대학교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 분야 특성화 추진
- 고품질·친환경 농업 육성
 - 친환경 농업 생산 성장기반 구축
 - 친환경 농산물 품질 고급화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 친환경 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 포도·와인산업 육성
 - 영동포도·와인·감 산업 특구 운영 활성화
 - 영동포도 명품화,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 농가형와이너리 육성 지원
- 포도·와인축제 명품축제화, 과수 생산유통기반 구축
- 신성장 와인 및 가공산업 육성
- 생태체험 관광농업 육성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
 - 체험마을, 명품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
 - 무공해 농특산물 브랜드화, 직판장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3 생명존중의 건강한 문화만들기

- 국악대중화 및 국악단지 조성사업
 - 초·중·고·대학과 연계한 체계적인 국악 교육
 - 국악타운 조성으로 국악문화 대중화 및 세계화 토대 마련
-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
 -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 개선 및 확충
 -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복지 인프라 구축
 - 생산형 실버단지 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
 - 종합복지센터 설립 및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 교육산업 발전 및 활성화
 - 평생교육센터·정보센터·문화센터 운영
 - 군립전자도서관, 연수원 건립
- 생태체험형 관광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코스, 생태테마공원, 관광상품, 먹거리 등을 개발
 - 생활체육, 먹거리 문화, 국악 등 다양한 문화상품과 연계
 - 빙벽장 프로그램 다양화 및 주변관광지 연계 사업 개발

- 국악·와인·과일과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 개발
- 옥계폭포를 활용한 사계절 레저타운 조성
 - 단학을 이용한 체험관광코스 개발
 - 건강형 수상레저 관광지 개발
- 지역인재 육성 및 출산 장려
 - 생애학습지원센터 구축 운영
 - 장학사업 및 교육경비 지원 확대, 학교 무상급식
 - 출산장려 시책 추진

4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도시 기반만들기

- 선진화된 재난관리 및 사전재난 예방
 - 저지대에 대한 종합검토후 수방건설 시행
 -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
- 영동읍 주차종합정비계획
 - 주차문제의 근원을 파악 블록별 주차수요 관리계획 수립
 - 중심 상업·업무용지내 주차시설 확충
- 대학도시 구현을 위한 대학타운 조성
 - 영동대학교 주변 대학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공간 확충
-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상
 - 국도 19호선의 경부고속도로 및 무주-보은-청원 등 지역 연계성 강화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계성 강화
 - 영동읍 시가지 도로 정비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 황간물류단지 조성
 - 영동산업단지 조성

5 청정생명을 지향하는 환경만들기

- 농촌 어메니티 시범지구 사업
 -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사업과 연계 추진 방안 검토

- 생태공원 조성
 -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인공 생태공원 조성
- 특화 경관지구 지정 및 운영
 - 난계국악당 주변지역에 한옥, 전통골목 등 특화 경관지구 조성
- 청정수자원 환경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홍수 예경보 체계와 연계 구축
 - 청정 수자원 관리 시민 감시단 조직 운영
 - 상수원 보호구역 CCTV설치
- 안정적 용수수급체계 구축
 - 미급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
 - 용담다목적댐 하류 수리권 확보

[부 록]

1. 부문별 투자계획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의 비교



부록 1. 부문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비 (억원)	기간별			재원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864,693.07	167,766.38	368,840.72	328,085.97	480,885.05	71,657.01	80,523.85	122,036.91	109,590.25
지역개발	66,325.50	30,329.80	23,265.70	12,730.00	9,371.40	5,292.90	4,323.20	32,711.00	14,627.00
산업경제	224,664.02	38,032.99	115,762.67	70,868.36	76,324.16	15,075.70	12,167.96	50,074.15	71,022.05
문화관광	64,530.97	12,709.13	21,919.74	29,902.10	22,975.31	5,499.60	15,241.75	15,837.91	4,976.40
교통물류	303,696.24	33,557.39	134,390.65	135,748.20	271,739.14	7,535.51	1,749.44	22,439.15	233.00
생활복지	118,933.53	26,449.22	38,570.12	53,914.19	53,648.07	25,848.62	25,051.38	651	13,734.46
지역자원	36,680.87	11,745.62	13,928.08	11,007.17	19,798.58	1,853.91	10,664.88	7.70	4,355.80
환경보전	27,193.43	8,141.33	9,850.65	9,201.45	12,819.39	3,032.26	10,384.24	316.00	641.54
안전방재	22,668.51	6,800.90	11,153.11	4,714.50	14,209.00	7,518.51	941.00	-	-

부문 : 지역개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66,325.50	30,329.80	23,265.70	12,730.00	9,371.40	5,292.90	4,323.20	32,711.00	14,627.00
중부신도시 건설	06~'20	9,969.00	4,880.00	5,089.00						9,969.00
기업도시 건설	06~'15	4,621.00	3,350.00	1,271.00						4,621.00
택지개발사업	'06~'20	23,655.00	14,803.00	5,139.00	3,713.00				23,655.00	
개발촉진지구사업	'06~'20	13,087.00	4,946.00	5,000.00	3,141.00	2,299.00	300.00	1,432.00	9,056.00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20	4,972.00		2,486.00	2,486.00	3,480.00	447.00	1,045.00		
도계마을 육성	'06~'20	300.00	100.00	100.00	100.00		60.00	240.00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06~'20	462.00	165.00	147.00	150.00	374.00		88.0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11~'20	1,402.70	2.70	500.00	900.00		702.70	700.00		
충청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	'11~계속	332.80	117.10	210.70	5.00	258.40	52.40			22.00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08~계속	3,693.00	658.00	1,535.00	1,500.00	450.00	3,243.0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02~계속	168.00	68.00	50.00	50.00	102.00	19.80	46.20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07~'14	380.00	99.00	281.00		190.00	57.00	133.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4~계속	1,555.00	698.00	857.00		1,114.00	154.00	287.00		
산촌개발사업	'96~'17	683.00	305.00	273.00	105.00	472.00	98.00	98.00		15.00
전원마을조성사업	'04~'13	195.00	138.00	57.00		142.00	21.00	32.00		
자립농촌마을 조성	'12~'18	150.00		75.00	75.00		75.00	75.00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12~'20	700.00		195.00	505.00	490.00	63.00	147.00		

부문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224,664.02	38,032.99	115,762.67	70,868.36	76,324.16	15,075.70	12,167.96	50,074.15	71,022.05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05~'14	309.14	159.14	150.00		250.00	10.00			49.14
바이오 시험비용 지원	'06~'20	26.00	6.00	5.00	15.00		26.00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	08~'14	12.00	6.00	6.00			12.00			
지방우수대학원 육성(BK21)	'06~'12	381.83	329.01	52.82		282.43	8.39	0.60		90.41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06~'13	132.50	53.00	79.50		112.35	5.65			14.50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	'06~'13	30.20	12.10	18.10		25.25	1.30			3.65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06~'20	750.00	210.00	260.00	280.00	375.00	187.50			187.50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10~'13	389.00		389.00			389.00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	11~'15	880.00		880.00					880.00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10~'17	1,609.00	139.00	710.00	760.00	1,609.00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13~'38	78.00		6.00	72.00					78.00
UN생명과학협력센터 유치	'11~'20	765.00		365.00	400.00	680.00	85.00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 설립	12~'16	370.00		346.00	24.00	230.00	47.00			93.00
BT융합대학원 건립	'13~'16	483.00		150.00	333.00				483.00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11~'14	350.00		350.00		100.00	160.00			90.00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11~'15	480.00		480.00		270.00	60.00	60.00		90.00
슬라엑스포 개최	'16~'20	300.00			300.00	150.00	150.00			
반도체 설계전문(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사업	'12~'14	225.00	141.00	84.00		143.00	82.00			
첨단 반도체 부품산업 육성	'13~'14	130.67	-	130.67		79.8	21			29.87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10~'13	324.75	133.50	191.25		84.25	22.50	18.00	175.00	25.00
2단계 전략산업 육성	'08~'12	1,540.00	1,081.00	459.00		1,013	527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창출확대	'06~'20	147.60	27.60	60.00	60.00	73.80	73.80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 중점 발굴 추진	'04~	469.00	284	185.00		310.00	28.00	39.00	92.00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SW산업진흥지원	'06~'20	166.50	21.50	97.60	47.40	94.00	72.5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20	19,600.00	1,800.00	8,900.00	8,900.00		1,300.00			18,300.00

부문 : 산업경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도별			재원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농공단지 재생사업 추진	'11~'15	78.00		78.00		39.00	19.50	19.50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10~'15	6,175.00	392.00	5,783.00		6,175.00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건립	'11~'14	230.00		230.00		40.00	20.00	20.00		150.00
기업유치 활성화	'10~'14	1,366.00	266.00	1,100.00		800.00	358.00	208.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06~'16	3,256.00	1,435.00	1,504.00	317.00	1,950.00	309.00	883.00		114.00
신규단지외국인투자지역 조성	'06~'20	2,516.00	1,116.00	600.00	800.00	2,012.00	504.00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06~'20	85.00	15.00	35.00	35.00		85.00			
경제림특약용수조립	'00~'20	211.00	61.00	70.00	80.00	42.20	84.40	84.40		
경제성어종 치어 매입 방류	'11~'20	45.50	15.50	15.00	15.00	31.90	6.80	6.80		
광우병 등 질병검사 및 상해동물처리	'05~'20	28.90	8.90	10.00	10.00		8.70	20.2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95~'14	2,349.52	1,580.06	769.46		1,783.91	281.08	284.53		
토종어류 종 보존 및 치어생산 방류	'10~'20	12.26	0.66	5.60	6.00	8.60	3.66			
내수면어업활성화	'11~'20	108.00	33.00	35.00	40.00	32.40	32.40	43.20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	'05~'20	135.00	55.00	40.00	40.00		32.00	76.00		27.00
농기계임대사업	'06~'20	370.00	70.00	150.00	150.00	185.00	56.00	129.00		
농업경영권신틱링 지원	'99~'12	93.94	75.74	18.20		28.18	5.64	13.15		46.97
농특산물판촉행사	'85~'20	92.00	52.00	10.00	30.00		92.00			
대구확정리사업	'94~'15	3,420.18	2,342.09	1,078.09		2,440.91	431.99	547.28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 지원	'00~'20	321.00	91.00	115.00	115.00		77.04	179.76		64.20
못자리뱅크운영	'05~'20	336.00	116.00	110.00	110.00		81.00	188.00		67.00
발기반정비사업	'94~'15	2,417.24	943.25	1,473.99		1,850.26	246.34	320.64		
산림병해충방제	'00~'20	404.00	104.00	150.00	150.00	210.00	60.00	134.00		
소나무재선충 예방	'09~'20	110.00	50.00	30.00	30.00	55.00	44.00	11.00		
소득보전바이오킨환경농업 지원확대	'02~'13	910.00	610.00	300.00			273.00	637.00		
승용이앙기 공급사업	'07~'13	46.00	40.00	6.00			8.30	19.30		18.40
악취저감가축생균제지원	'11~'20	150.00	50.00	50.00	50.00		22.50	52.50		75.00
잡초방제종이멀칭재배사업	'05~'20	63.00	23.00	20.00	20.00		15.10	35.30		12.60

부록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1~'20	214.00	82.00	66.00	66.00		39.00	90.00		85.00
지역명품화작목육성	'00~'20	130.00	70.00	30.00	30.00		31.20	72.80		26.00
지역우수농특산물TV홍쇼평홍보판매	'05~'20	42.50	12.50	15.00	15.00		29.80	12.70		
지역특화사업육성	'04~'20	1,309.00	1,009.00	150.00	150.00	655.00	131.00	131.00		392.00
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05~'20	71.00	51.00	10.00	10.00	25.50	10.65	14.65		20.20
축산농가가축재해보험 지원	'04~'20	126.00	46.00	40.00	40.00		6.30	25.20		94.50
친환경농업지구조성	'00~'20	234.00	134.00	50.00	50.00	83.60	51.80	51.80		46.80
HACCP컨설팅지원	'10~'20	30.30	2.30	14.00	14.00	8.70	8.70			12.90
유기농특구 조성 종합계획 수립	'11~'20	8,158.00	170.00	2,742.00	5,246.00	1,970.00	489.00	508.00		5,191.00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개발	'12~'14	0.60		0.60			0.50			0.10
학교급식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10~'14	257.00	50.00	207.00		53.00	47.00	80.00		77.00
쌀 고품질화 생산시설 현대화	'10~'14	274.00	62.00	150.00	62.00	104.00	27.00	29.00		114.00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10~'14	627.60	428.80	138.00	60.80	156.00	66.60	96.20		308.80
충북 대표 작목 및 브랜드 육성	'11~'14	1.60		1.60			1.20			0.40
증평인삼 명품화사업 지원	'11~'14	2.40		2.40			1.20	0.80		0.40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	'12~'14	30.00		30.00			4.50	10.50		15.00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	'11~'14	31.60	7.60	24.00			9.48	22.12		
녹색축산 활성화	'11~'20	1,081.00	193.00	444.00	444.00	447.00	104.00	247.00		283.0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02~'20	131.00	63.00	40.00	28.00	39.00	13.00	52.00		27.00
청정양돈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10~'20	103.50	13.50	45.00	45.00		10.30	41.40		51.80
청정 꿀벌산업 육성	'10~'20	440.00	185.00	127.50	127.50	13.00	49.60	167.60		209.80
기후변화 대응 마늘 우량품종 육성 및 명품화 촉진	'10~'15	13.60	2.00	11.60		8.60	5.00			
수박 신품종 육성 및 작부체계 개선기술 개발	'11~'15	6.10	1.40	4.70		2.20	3.90			
고품질 양감산업 육성 및 기능성 산물 생산기술 개발	'10~'15	54.20	2.40	51.80		38.30	8.90			7.00
복숭아 지주개선 신기술 보급	'10~'13	5.40	0.60	4.80		1.50	0.72	2.22		0.96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기술 개발	'11~'15	9.10	1.30	7.80		5.30	3.80			

부문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	‘11~’15	34.40	10.40	24.00		17.20		17.20		
수산동물전염병 방역(내수면)	‘11~’20	8.70	0.79	3.95	3.96	4.35	4.35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04~’20	147.00	47.00	50.00	50.00	73.50	17.60	19.10		36.80
농가도우미 지원	‘05~’20	135.00	28.80	53.20	53.00		27.00	81.00		27.00
농산촌체험마을 상해보험가입 및 홍보	‘07~’20	25.80	5.80	10.00	10.00		10.30	10.30		5.20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05~’20	558.43	228.83	165.60	164.00	279.21	83.77	195.4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90~’13	3,841.00	3,262.20	578.80		2,606.16	325.52	540.90		368.42
쌀소득등보전직불제지원	‘06~’20	4,926.00	1,926.00	1,500.00	1,500.00	4,926.00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10~’20	386.00	32.00	177.00	177.00	159.00		150.00		77.00
조간블리지역직불제	‘00~’15	806.00	606.00	200.00		564.00	97.00	145.00		
친환경농업직불제	‘00~’20	170.70	70.70	50.00	50.00	170.70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확대	‘10~’20	1,349.00	349.00	500.00	500.00	282.00	320.00	747.00		
웰빙특수미재배단지확대조성	‘10~’20	88.00	8.00	40.00	40.00		21.00	49.00		18.00
유희지 활력화사업	‘11~’20	300.00		70.00	230.00	210.00	27.00	63.00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11~’14	10.00		10.00		5.00	0.75	1.75		2.50
향토산업 육성	‘10~’20	208.00	40.60	117.40	50.00	104.00	20.00	42.00		42.00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11~’20	25.20		16.80	8.40		4.50	10.60		10.10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개량 지원	‘11~’14	16.00		16.00			4.80	11.20		
자급사료 제조시설 지원	‘11~’15	597.00	99.50	497.50		27.00	156.00	216.00		198.00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방제 지원	‘10~’15	12.50	3.00	9.50		6.00	1.50	5.00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지원	‘11~’13	12.00		12.00			1.80	4.20		6.00
잉여우유 가격안정을 위한 치즈공장 건립	‘12~’13	29.00		29.00		14.60	8.60			5.80
산촌소득증대 기반확충	‘10~’20	734.00	112.00	510.00	112.00	250.00	78.00	78.00		328.00
우량 잡종 및 묘목 생산 공급 확대	‘10~’14	32.60	11.00	21.60		14.40	18.20			
국내외박람회 참가	‘00~’20	15.00	5.00	5.00	5.00		15.00			
농산물수출단지육성	‘03~’20	339.00	139.00	100.00	100.00		101.70	169.50		67.80
농특산물인터넷쇼평물운영	‘10~’20	29.20	9.20	10.00	10.00		7.30	7.30		14.60

부록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농특산품해외시장개척단파견	'00~'20	15.00	5.00	5.00	5.00		15.00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01~'20	59.00	29.00	15.00	15.00		23.60	35.40		
산지조직화를 통한 농산물유통체계 개선	'10~'14	228.00	40.00	188.00		38.00	39.00	73.00		78.00
지역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	'11~'14	4.00		4.00			0.60	1.40		2.00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1~'14	20.00		20.00			4.00	6.00		10.00
친환경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10~'15	73.00	43.00	30.00			10.00	41.00		22.00
농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07~'20	85.50	21.50	32.00	32.00		17.10	68.40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03~'20	15.00	5.00	5.00	5.00	7.50	1.50	6.00		
창업농후계연계·농업권선택농업인턴제 등	'04~'20	44.00	14.00	15.00	15.00	30.80	4.40	4.40		4.40
홈페이지구축 등 농업인교육센터지원	'00~'20	45.00	15.00	15.00	15.00		22.50	22.50		
마을사무장제도	'07~'20	47.00	9.00	19.00	19.00	23.50	5.60	13.00		4.90
벼 신품종 육성 및 식량 안정생산기술 개발	'10~'15	15.30	2.40	12.90		6.90	8.40			
수요자 맞춤형 전작물 실용 신기술 개발	'10~'15	14.80	2.30	12.50		9.40	5.40			
특용작물 품종육성 및 조기접목 신기술 개발	'10~'15	13.50	3.40	10.10		7.20	6.30			
기술·경영·마케팅이 결합된 농업경영모델 구축	'10~'15	31.50	4.00	27.50		14.50	5.70	11.30		
채소 소비자 트렌드 대응 및 대체자원 이용기술 개발	'11~'15	9.10	1.30	7.80		3.10	6.00			
과수산업 리더로 도약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10~'15	12.90	2.50	10.40		6.90	6.00			
화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11~'15	9.70	1.90	7.80		3.70	6.00			
첨단 BT기술 활용 신품종 육성 및 대량번식기술 개발	'11~'15	8.50	1.80	6.70		2.50	6.00			
포도 신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기술 개발	'11~'15	16.50	1.50	15.00		4.50	12.00			

부문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농산물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식품 개발	'11~'14	4.40	1.10	3.30		1.80	2.60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11~'14	9.10	2.50	6.60		2.40	6.70			
포도 부가가치 향상 및 친환경 재배기술 확립	'11~'15	2.70	1.40	1.30		1.50	1.20			
마늘 친환경 재배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10~'15	13.60	2.00	11.60		8.60	5.00			
시설수박 고품질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10~'15	7.70	1.80	5.90		3.90	3.80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05~'20	621.00	421.00	100.00	100.00	310.50	124.20	124.20		62.10
여성농어업인 센터 지원확대	'11~'14	62.20	20.50	20.70	21.00		6.84	46.03		9.33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및 종합관리 체계구축	'10~'15	5.51	0.87	4.64		4.70	0.81			
종축시험장 분리이전 추진	'12~'15	250.00		250.00		40.00	210.00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08~'20	14,337.00	6.00	12,024.00	2,307.00	14,331.00	6.00			
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09~'38	42,738.00	713.00	7,741.00	34,284.00	13,074.00	1,964.00	64.00		27,636.00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10~'15	7,696.00	75.00	7,621.00		1,002.00				6,694.00
MRO산업 유치 및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10~'20	4,106.00	107.00	1,999.00	2,000.00	1,440.00	222.00			2,444.00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07~'20	2,437.00	29.00	2,408.00		1,547.00	162.00	63.00		665.00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구체화(국제공모, 연구용역)	'11~'12	15.00		15.00			15.00			
태양광산업 특구 사업	'10~'15	3,026.00	1,949.00	1,077.00		72.00	42.00	3.00		2,909.00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11~'계속	51,513.00	6,665.90	39,283.30	5,563.80	3,454.00	1,022.00	1,022.00	46,015.00	
기초(연) 오창캠퍼스 조성	'06~'20	3,000.00	2,083.00	488.00	429.00	2,815.00	185.00			
교류와 통상의 일체화	'10~'15	12.00	2.00	10.00			12.00			
도, 시·군, 부서간 협력 시스템 구축	'10~'15	6.00	1.00	5.00			6.00			
지구촌 휴먼네트워킹 강화	'10~'15	12.00	2.00	10.00			12.00			
수출상위 10개국의 유망품목 시장점유율 확대	'11~'15	15.00		15.00			15.00			
신흥 수출유망 10대국에 공격적 해외마케팅 전개	'11~'15	15.00		15.00			15.00			

부문 : 산업경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중소기업 맞춤형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10~'20	300.00	30.00	120.00	150.00	100.00	200.00			
경제외교 및 수출인프라 확충	'06~'15	13.00	5.00	8.00			13.00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사업	'11~'14	1,417.50		1,417.50		135.00	70.00			1,212.50
대추 신제품 육성 및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	'12~'15	15.90		15.90		4.70	11.20			
대추 병해충 방제 및 양분관리 기술 개발	'12~'15	10.90		10.90		4.70	6.20			
충북 대표 브랜드 쌀 명품화	'12~'16	25.00		20.00	5.00		6.00	14.00		5.00
RPC 생산시설 현대화	'12~'15	24.00		24.00			4.32	10.08		9.60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96~'13	1,860.00	1,520.00	340.00			418.00	419.00		1,023.00
지역특화작목육성	'96~'13	674.00	574.00	100.00			134.80	202.20		337.00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06~'20	177.00	53.00	62.00	62.00		141.60		35.40	
바이오국제공동 연구사업	'10~'13	18.75	11.25	7.50			15.00		3.75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12~'20	4,724.00		1,889.00	2,835.00	716.00	430.00	1,291.00	2,287.00	
옥천의료기기 마스터플랜	12~'20	910.50		546.00	364.50	112.00	387.50	308.00	103.00	
글로벌 경쟁력한방바이오산업육성	11~'15	77.60		77.60		36.80	7.40	33.40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11~'14	150.10		150.10		43.00	5.00	5.00		97.10
바이오코리아 박람회 개최	06~'16	28.50	16.50	12.00			28.50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	06~'15	18.00	6.30	11.70			18.00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11~'15	50.00		50.00		15.00	3.00	32.00		

부문 : 문화관광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64,530.97	12,709.13	21,919.74	29,902.10	22,975.31	5,499.60	15,241.75	15,837.91	4,976.40
국내외 문화교류 확대	'06~'20	16.00	5.00	5.00	6.00		16.00			
문화예술 활동 지원	'06~'20	140.00	45.00	45.00	50.00	28.00	112.00			
충북문화재단설립	'11~'20	7.35		7.35			7.35			
문화산업육성	'06~'20	932.00	282.00	300.00	350.00	168.00	82.00	620.00	62.00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대	'06~'20	612.00	312.00	150.00	150.00	153.00	153.00	306.00		
충북학연구소 활성화지원	'99~'20	15.00	6.70	3.30	5.00		15.00			
중원문화유산의 발굴과 정비	'06~'20	2,850.00	950.00	950.00	950.00	1,200.00	825.00	825.00		
문화유산의 연구, 보존 및 정비	'06~'20	2,994.00	994.00	1,000.00	1,000.00	1,330.00	832.00	832.00		
도 지정 예술단 운영	'11~'14	20.00		20.00			20.00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 추가 조성	'10~'14	253.00	169.00	84.00			153.00	100.00		
아이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11~'14	20.00		20.00			4.00	16.00		
충북영상위원회 구성 및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	'10~'14	85.10	4.00	81.10			44.80	40.30		
직지 금속활자 복원	'11~15	18.10		18.10		9.10	2.80	6.20		
문화기반시설 확대 조성사업	'10~'14	2,120.00	420.00	800.00	900.00	530.00	424.00	1,166.00		
국립 세계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	'11~'14	490.00		490.00		390.00		100.00		
진통문화진흥사업 확대	'10~'20	33.30	0.90	8.10	24.30		14.03	19.27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06~'20	1,534.00	372.00	775.00	387.00	468.00	578.00	488.00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개최	'11~'12	30.00		30.00		15.00	15.00			
충청북도관광정책포럼 운영	'07~'15	1.55	0.80	0.75			1.55			
관광상품개발센터	'06~'20	30.00	5.00	10.00	15.00		30.00			
6대관광거점개발(관광지개발)	'06~'20	19,283.01	5,488.53	8,896.06	4,898.42	1,311.33	444.04	2,095.58	15,432.06	
증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12~'20	3,236.66		1,215.78	2,020.88	1,250.38		1,642.43	343.85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08~'12	1.80		1.80			1.80			
관광특구활성화	'06~'20	413.00	313.00	40.00	60.00	168.00	56.00	185.00		4.00
관광상품개발	'06~'20	14.90	4.90	4.00	6.00	7.00	7.90			
1지역1테마개발	'06~'20	677.00	227.00	225.00	225.00	300.00	150.00	227.00		
바이오관광 육성 지원	'06~'20	22.90	4.90	8.00	10.00	11.00	11.90			

부문 : 문화관광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	'10~'20	23.00	11.00	6.00	6.00	11.50	11.50			
관광컨텐츠개발	'06~'20	9.90	3.90	3.00	3.00		9.90			
관광전문인력양성	'06~'20	116.00	26.00	45.00	45.00	34.80	34.80	46.40		
관광관련기관지원	'06~'20	23.00	8.00	7.50	7.50		23.00			
관광안내체계개편	'06~'20	113.00	33.00	40.00	40.00	30.00	60.00	23.00		
관광안내소확대	'06~'20	34.00	11.50	7.50	15.00	14.75	14.75	4.50		
축제운영 지원체제 강화	'06~'20	116.40	29.80	41.60	45.00	39.45	76.95			
문화관광자원개발	'06~'20	3,856.00	1,044.00	1,250.00	1,562.00	1,928.00	156.00	1,772.00		
청남대 관광 활성화	'06~'20	324.00	39.00	227.00	58.00	30.00	294.00			
해양수산문화체험관(아쿠아리움) 건립	'12~'14	1,600.00		1,600.00		1,600.00				
자연테마파크 조성	'11~'14	167.00		167.00		83.50	15.03	35.07		33.40
도시민이 찾아오는 내수면 체험·관광어업 육성	'11~'14	135.00	96.40	38.60		70.00	30.50	30.50		4.00
산림생태자원 체험시설 확대	'11~'14	443.00	27.00	416.00		222.00	80.00	141.00		
중부내륙 산성군 명소화(세계유산 등재) 사업 추진	'10~'14	50.00	6.80	43.20		20.00	30.00			
중부내륙 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	'11~'13	53.00		53.00		26.00		27.00		
산막이 산행유정 마을 조성	'12~'15	116.00		116.00		40.00		76.00		
강변 문화관광사업 강화	'11~'15	101.00		101.00		50.50		50.50		
증원문화권 특장지역 개발사업 추진	'10~'19	17,274.00	1,357.00	900.00	15,017.00	8,573.00	284.00	3,487.00		4,930.00
한방생태체험마을(제3한방명의촌)조성	'11	20.00		20		0	5	10		5
고향의 강 사업 추진	'10~'20	3,106.00	10.00	1,050.00	2,046.00	1,863.00	373.00	870.00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사업 추진	'08~'12	1,000.00	401.00	599.00		1,000.00				

부문 : 교통물류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303,696.24	33,557.39	134,390.65	135,748.20	271,739.14	7,535.51	1,749.44	22,439.15	233.00
동서5축고속도로(옥산JCT~오창JCT)	'08~'15	2,422.00		2,422.00		300.00			2,122.00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10~'20	13,531.00	5.00	13,526.00		13,531.00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10~'20	7,319.00	48.00	2,832.00	4,439.00	5,309.00	2,010.00			
공주~청원간 고속도로	'08~'20	5,405.00		1,300.00	4,105.00	800.00			4,605.00	
서울~세종시간 고속도로 건설	'12~'20	15,000.00		1,985.00	13,015.00	7,500.00			7,500.00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음성~제천 구간 : 69.3km)	'07~'16	16,243.00	5,572.00	10,671.00		16,243.00				
세종시~청주시 연결도로 사업	'11~'15	1,727.00	150.00	1,577.00		1,727.00				
세종시~오송역간 연결도로 사업	'08~'12	3,034.00	2,170.00	864.00		3,034.00				
오송역~청주공항간 연결도로 사업	'11~'17	1,298.00		698.00	600.00	1,298.00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 (옥천~영동 구간 : 23.5km)	'01~'17	12,326.00	6,553.00	4,523.00	1,250.00	12,326.00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	'06~'20	18,416.00	7,433.00	5,495.00	5,488.00	18,416.0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15	6,549.00	4,710.00	1,839.00		5,688.00		861.00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10~'16	5,507.00	2,212.00	3,205.00	90.00	5,020.00		487.00		
지방도 확포장 공사	'06~'20	5,081.00	1,010.00	2,071.00	2,000.00		5,081.00			
오창 산단~청주산단간 도로건설 추진	'08~'14	935.00	31.00	904.00		904.00	31.00			
호남고속철도 건설	'06~'14	3,057.00	874.00	2,183.00		3,057.00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03~'16	14,774.00	149.00	14,000.00	625.00	14,774.00				
중앙선(도담~영진) 복선전철	'10~'17	34,284.00		31,834.00	2,450.00	34,284.00				
태백선(제천~백산(쌍용)) 복선전철	'08~'14	3,814.00	2,157.00	1,657.00		3,814.00				
중부내륙선(이찬~충주~문경) 전철 사업	'05~'21	19,248.00	82.00	9,583.00	9,583.00	19,248.00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1~'15	12,132.00		12,132.00		12,132.00				
충청권 광역철도	'16~'20	11,708.00			11,708.00	11,708.00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	'11~'15	2,426.00		2,426.00		2,426.00				
충북선 고속화 개량	'16~'20	1,474.00			1,474.00	1,474.00				
경부 고속선(평택~오송) 2복선 전철화	'20년까지	30,604.00			30,604.00	30,604.00				
중부선(동탄~청주공항) 건설	'20년까지	30,000.00			30,000.00	30,000.00				

부문 : 교통물류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용역	'11년~계속	3.00		3.00			3.00			
KTX 오송역세권 개발	12년~계속	8,113.00		5,200.00	2,913.00				8,113.00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11~'14	49.00		49.00			25.00	24.00		
국제노선 개설 추진	'10~'14	40.00	5.00	35.00			40.00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확충	'06~'20	222.35	80.71	52.44	89.20	95.87	58.34	68.14		
청원농산물유통단지 조성	'09~'13	500.00	200.00	300.00		250.00	250.00			
제천 물류단지 조성	'05~'12	261.00	98.00	163.00		14.00	7.00	7.00		233.00
영동 황간 물류단지 조성	'09~'12	251.00		251.00		23.40		227.60		
충북 물류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12	3.00		3.00			3.00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10~'15	198.29	10.28	188.01		49.57	14.87	34.70	99.15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10~'12	86.60	7.40	79.20		43.30	7.30	36.00		
사이버농가 종합지원센터 운영	'11~'15	10.00		10.00		1.00	5.00	4.00		
공항복측 진입도로	'11~'15	145.00		145.00		145.00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11~'18	1,500.00		185.00	1,315.00	1,500.00				

부문 : 생활복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118,933.53	26449.22	38570.12	53914.19	53648.07	25848.62	25051.38	651	13734.46
마을다목적광장및쉼터조성	'03~'16	180.00	96	70	14		73	107		
농촌주택개량	'76~'20	12,906.00	3687	100	9119		3667			9239
아파트 품질 검수단 설치운영	'11~'20	7.00		2	5		7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생활안전환경 조성	'11~'15	1.12		1.12		0.12	1			
취약계층 복지기반 확충	'06~'20	30,025.00	8160	9983	11882	24020	3002	3003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06~'20	2,071.00	541	750	780	1036	453	582		
아동 청소년 복지확충	'06~'20	2,464.00	799	820	845	1232	616	616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06~'20	487.00	151	162	174	194	195	92	6	
농촌여성지원대책	'06~'20	314.00	83	107	124	134	112	68		
종합사회복지센터의 발전적 운영개선	'10~'20	25.50	3.7	18.1	3.7		25.5			
시니어클럽확대설치및지원	'06~'20	6.00		6			1.5	4.5		
사회복지시설 인력처우 개선	'10~'20	6,470.00	515	2836	3119	214	1164	2802		2290
자활(장애인) 생산품 전시회 및 판매의 날 운영	'10~'20	4.10	0.4	2.5	1.2		3			1.1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07~'20	1,357.00	72	598	687	985	120	252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11~'14	37.00		37		19	8	8		2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확대	'11~'14	274.20		274.2		168.9	33.8	71.5		
장애인 일자리 사업	'10~'14	144.00	16	128		73	21	50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11~'20	5.00		2.5	2.5		5			
한국자활연수원 건립·유치	'11~'14	253.00		253		253				
1차산업을 이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12~'13	9.80		9.8		2.6	4	3.2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제고	'06~'20	31.00		16	15		15.5	15.5		
군단위 드림스타트 사업 확충	'06~'20	302.00		122	180	302				
노인장기요양보험 미 이용자 복지사각지대 축소	'06~'20	562.00	106	171	285	378	58	126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	'06~'20	1,513.00	90	643	780	677	142	694		

부문 : 생활복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경로당 복지지도사 배치제도	'06~'20	82.00		32	50		24	58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06~'20	22.00		11	11	16	6			
청년창업자금 지원	'11~'14	100.00		100			100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11~'14	1,414.00		1414			14			1400
햇살론 보증제원 출연	'11~'14	91.60		91.6			36.8	54.8		
도내 대학생 국내 우량기업 취업지원	'10~'14	38.20	1.2	37			38.2			
도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12	1.80		1.8			1.8			
공공보건의료 인프라확충	'94~'20	994.00	740	182	72	584	188	222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06~'20	1,164.00	419	370	375	584	114	466		
방역활동강화사업	'06~'20	756.00	306	200	250	290	245	221		
치매예방 및 지원사업	'06~'20	103.00	7	47	49	38	31	34		
도시보건지소 확대 등 공공보건 강화	'10~'20	994.00	740	182	72	584	188	222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12~'20	72.00		32	40	36	36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	'09~'13	280.00	60	220		250	30			
충주의료원 신축 및 장비보강	'10~'20	824.00	152	520	152	130	130		564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11~'13	200.00		200		100	100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11~'20	37.30	1.3	16	20	1.3	10			2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1~'14	12.00		12		6	0.4	5.6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1~'14	9.60	4.6	4	1	2.3	7.3			
평생교육 추진	11~'20	30.00		15.00	15.00		30.00			
화장품&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개최	'11~'13	204.00		204		70	104			30
농촌 119구급지원 시스템 구축	'10~'12	1.40	1	0.4		0.7	0.7			
전문체육 진흥	'06~'20	771.00	211	280	280		771			
국제스포츠 교류	'06~'20	5.80	1.8	2	2		5.8			
생활체육 활성화	'06~'20	724.00	154	270	300	253	232	239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06~'20	3,762.23	1376.08	1386.15	1000	831.05	960.9	1544.84		425.44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진흥	'06~'20	2,214.00	709	720	785	539	626	968	81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센터 운영	11~'20	96.00		41	55		48	48		

부문 : 생활복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10~'20	54.00	4	25	25	13.2	16.44	24.3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취약 보육시설 지원 확대	'06~'20	79.00		38.5	40.5	39.5	19.7	19.8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11~'13	88.00		88		61.6	26.4			
지역리더 양성 교육	'11~'14	2.00		2			2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	'10~'14	29.00	2.8	26.2		0	20.6			8.4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유치	'12~'17	3,505.10		986.81	2518.29	3505.1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11~'14	170.00		170		36	62	72		
근대5중 훈련장 건립	'11~'12	20.00		20		6	14			
충북체육진흥기금 200억원 조성	'11~'19	200.00		100	100		200			
충주세계조경선수권대회 개최	'11~'13	936.48	588.34	348.14		0	324.48	324.48		287.52
양성평등문화조성	'06~'20	48.00	15	16	17	5	9	9		25
여성인권 복지증진	'06~'20	191.00	54	66	71	117	37	37		
가족지원 사업확대	'06~'20	699.00	134	240	325	409	112	178		
아동보호기관 지원사업	'06~'20	145.00	39	52	54		145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06~'20	1,002.00	303	333	366		130	872		
어려운가정 아동지원사업	'06~'20	2,237.00	359	925	953		1119	11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06~'20	253.00	77	84	92	127	38	88		
보육서비스 강화	'06~'20	15,069.00	3861	4925	6283	7527	3778	3764		
보육시설 기능보강	'06~'20	560.00	144	183	233	280	140	140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06~'20	116.00	10	52	54		116			
영유아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06~'20	17,153.00	1124	5272	10757	6623	5265	5265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11~'12	0.50		0.5			0.5			
여성인력실태조사 및 직업훈련 특화사업 개발	'11~'15	1.00		1		1				
경력단절 여성 및 기혼여성 취업촉진	'10~'14	188.00	33	155		94	40	54		
북부권역 여성세로일하기지원센터 설치	'11~'14	10.80		10.8		8		2.8		
성폭력에 방앗파해자일시보호시설운영	'11~'14	9.90		9.9		5.9	2	2		
농촌마을 여성공동일자리 창출	'11~'12	1.60		1.6		0.8	0.8			

부문 : 생활복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초등학교 등 취약계층 치안안전망 구축	09~'14	264.00	86	178		132		132		
위기청소년통합지원	'06~'20	323.00	73	120	130	103	142	78		
청소년수련시설확충	'06~'20	1,038.00	338	350	350	525	245	268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확대	'11~'14	87.50		87.5		25	37.5	25		

부문 : 지역자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36,680.87	11,745.62	13,928.08	11,007.17	19,798.58	1,853.91	10,664.88	7.70	4,355.80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	'06~'20	172.00	72.00	52.00	48.00		68.80	103.20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09~'18	2,369.00	298.00	1,000.00	1,071.00	1,422.00	284.00	663.00		
소하천정비사업	'95~'16	14,310.00	7,135.00	1,820.00	5,355.00	7,155.00		7,155.00		
가물대비 용수개발사업	'01~'20	181.14	136.64	22.25	22.25	144.90	18.12	18.12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02~'20	300.00	100.00	100.00	100.00	150.00		150.00		
지역에너지사업	'06~'20	625.00	225.00	200.00	200.00	370.00		255.00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	'06~'20	5.10	1.50	1.60	2.00		5.10			
수산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	'11~'14	38.30		38.30		23.00	2.30	5.30	7.70	
그린에너지 보급	'06~'20	272.00	154.00	86.00	32.00	85.00	28.00	77.00		82.00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09~'15	74.59	1.88	72.71		53.28	10.66	10.6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계획 수립 추진	'11년	2.00		2.00		1.00	1.00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건설	'12~'15	3,046.00		3,046.00		914.00				2,132.00
하수관거정비사업	'20년까지	4,712.47	669.20	2,700.35	1,342.92	3,298.72	141.33	141.33		1,131.09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06~'20	2,866.00	941.00	1,244.00	681.00	2,265.00	300.50	300.50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08~'20	1,384.00	720.00	501.00	163.00	968.80	124.56	290.64		
유수율 제고사업	06~'20	1,904.00	447.00	190.00	1,267.00		660.00	1,244.00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	08~'20	208.00	73.00	98.00	37.00		83.20	124.80		
하수처리장건설	'06~'20	3,649.78	668.55	2,386.69	594.54	2,554.83	109.50	109.50		875.95
친자연적 하수처리	'06~'20	561.49	102.85	367.18	91.46	393.05	16.84	16.84		134.76

부문 : 환경보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27,193.43	8,141.33	9,850.65	9,201.45	12,819.39	3,032.26	10,384.24	316.00	641.54
바이오숲 조성	'06~'20	400.00	125.00	125.00	150.00	280.00	60.00	60.00		
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12~'17	496.00		262.00	234.00	248.00	248.00			
오송 치유의 숲 조성	12~'14	200.00		200.00		100.00	30.00	70.00		
생활환경보전 주민참여 확대	'06~'20	140.00	75.00	30.00	35.00	22.00	90.00	10.00		18.00
자연생태계보전 및 이용	'06~'20	1,244.00	484.00	380.00	380.00	299.00	489.00	456.00		
야생동식물 보호	'06~'20	102.00	30.00	36.00	36.00	13.00	36.00	36.00		17.00
충북자연환경정비 100선 정비	'06~'20	70.00	20.00	20.00	30.00		35.00	35.00		
대기질 관리개선	'06~'20	190.00	103.00	37.00	50.00	95.00	47.00	48.00		
농촌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06~'20	1,500.00	500.00	500.00	500.00	1,350.00	75.00	75.00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	'11~'20	62.00	7.00	31.00	24.00					62.00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06~'20	42.00	12.00	15.00	15.00		21.00	21.00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06~'20	2,486.00	1,951.00	535.00		806.00		1,680.00		
발생량최소화,자원회추진	'06~'20	1,200.00	400.00	400.00	400.00	600.00	150.00	150.00	300.00	
다이어신 저감대책	'06~'20	180.00	60.00	60.00	60.00	90.00	45.00	45.00		
기타지역 매립장 건설	'06~'20	2,300.00	300.00	1,000.00	1,000.00	690.00		1,61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06~'20	461.00	131.00	150.00	180.00		138.00	323.00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	'06~'20	213.00	63.00	70.00	80.00	8.00	64.00	125.00	16.00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06~'20	520.00	170.00	150.00	200.00	234.00		286.0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06~'20	2,103.00	603.00	700.00	800.00	631.00		1,472.00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06~'20	1,563.00	463.00	500.00	600.00	469.00		1,094.00		
도시생태계기능강화 숲조성	'08~'17	784.00	109.00	175.00	500.00	392.00	71.00	321.00		
미동산수목원 운영	'06~'20	64.40	4.40	15.00	45.00	32.20	32.20			
탄소저감 산림사업 확대	'06~'20	3,669.00	336.00	1,633.00	1,700.00	2,005.00	359.00	1,052.00		253.00
산지보전을 위한 치산사업 추진	'06~'20	4,574.00	1,821.00	1,393.00	1,360.00	3,317.00	667.00	375.00		215.00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06~'20	1,515.70	231.40	507.90	776.40	532.90	269.80	712.20		0.80
기후변화 적응 환경교육 활성화	'11~'15	18.10	0.30	17.80		0.40	17.70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	'09~'15	27.20	4.20	23.00		13.00	0.60	13.60		

부문 : 환경보전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11년	2.00		2.00		1.00	1.00			
양서류 생태관 건립	'11~'14	480.00		480.00		240.00	48.00	192.00		
환경 위해요인 관리강화 사업	'11~'15	162.00		162.00		99.00	7.00	29.00		27.00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11~'13	189.50	27.00	162.50		94.70	17.90	76.90		
먹는물공동시설 미생물살균시설 설치사업	'12~'15	32.40		32.40		15.00	6.96	10.44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20년	203.13	111.03	46.05	46.05	142.19	6.10	6.10		48.74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20년	-								
도심내 공원 및 녹지 사업	'20년	-								

부문 : 안전방재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연 도 별			재 원 별				
			기투자	2011~ 2015	2016~ 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22,668.51	6,800.90	11,153.11	4,714.50	14,209.00	7,518.51	941.00	-	-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	'09~'14	560.00	71.00	489.00		493.00		67.00		
저수지 등 높이기사업	09~'12	2,937.00	489.00	2,448.00		2,937.00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8~'15	4,430.00	2,721.00	1,709.00		2,206.00	1,350.00	874.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9~'18	12,439.00	2,722.00	5,500.00	4,217.00	7,463.00	4,976.00			
농촌형 마을단위 자위소방대 구축	'11~'14	-								
기초 소방전술 훈련장 설치	'12~'13	18.00		18.00			18.00			
옥천소방서 신축	'11~'12	45.61		45.61			45.61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09~'11	19.00	8.00	11.00			19.00			
오송119 안전센터 신설	'12년	5.00		5.00			5.00			
소방차량 보강 사업	'11~'20	457.00		217.00	240.00	77.00	380.00			
소방용수시설 보강	'11~'20	35.90	0.90	17.50	17.50		35.90			
하도준설사업	02~'18	1,722.00	789.00	693.00	240.00	1,033.00	689.00			

부록 2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의 비교

명 칭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기 간	· 2008~2020	· 2011~2020
비 전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융합발전축의 중심지역 ⇒ 『코아충북』 -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 『첨단충북』 - 민족문화·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 『관광충북』 -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 『웰빙충북』 -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 『쾌적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 지역·부문·계층·산업간 균형발전 실현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 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공 간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역 및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X자형 발전축 · 3대 발전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발전축, 문화관광 발전축, 열린충북국제축 · 4대 광역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 중부권, 청주권, 남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내륙 발전축 구상 · 4대 발전축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발전축, 균형발전축, BIO웰빙발전축, 동서연계발전축 · 6대 연계협력지구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협력지구, 세종·대전권 협력지구,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영호남 융합권 협력지구,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수륙연계 협력지구
발 전 방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추진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토코어를 향한 발전축 설정과 공간개조 ② 선진화된 교통·물류·정보체계의 구축 ③ 혁신·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④ 테마형 문화관광 충북 조성 ⑤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의 실현 ⑥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⑦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조성 ⑧ 지역의 안전 및 방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대 추진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살기좋은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②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고부가 가치산업육성 ③ 함께하는 문화 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④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⑤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⑥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⑦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⑧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지 역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중앙권 어반 클러스터 육성 · 오송·오창단지의 집중육성과 클러스터 조성 · 성장거점지역과 연계체계 구축 · 교육·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연합도시체계 강화 · 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 지역특화형 전문기능도시 육성 · 지역특성 반영의 차별화된 중소도시 활성화와 인본적 도시환경 정비
산 업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성장동력중심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 권역별 8개 특화기술 클러스터 형성 · 미래형 성장동력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농업 및 농산물유통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 1 프로젝트 중심의 신산업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시군별 특화 전통산업 육성 · 신성장 녹색친환경 농업 육성 · 첨단 기술과 시설을 갖춘 맞춤형 농산업 육성 · 경제외교 및 수출인프라 확충

명 칭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문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지역정체성 확립 ·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인적 인프라 구축 · 지역특성을 연계한 테마관광개발 · 지식기반형 관광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의 고유한 문화정체성 확립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지역특화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 21세기 신개념 관광개발방향 정립 ·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추진 ·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교통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한 통합교통망 체계구축 · 더 편리하고 더 빠른 하늘길로 통하는 청주 국제공항 육성 ·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 ·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역동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권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저탄소 에너지저감형 철도교통망 구축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성 · 에너지 교통복지구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충 · 물류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거점 육성
생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도시와 연계한 지역 도시계획 재수립 · 계획적 토지이용체계 및 시스템 구축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증진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 · 안정적인 주택계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주택단지 개발 및 다양한 주택모형의 개발 · 농촌 정주생활환경 개선체계 확립 · 보편적 복지 실현 ·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종합적계획 추진 · 사회복지 인프라의 확충 ·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및 건전 육성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
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충북의 건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수도의 실현 · 도민에게 쾌적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보전 ·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정립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 적극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기후변화 대응 ·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 보전 · 지역경관축의 형성
안전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에 강한 도시구조 및 방재형 도시계획 추진 · 체계적·통합적인 재난대비 방재 대책 추진 · 균형있는 소방여건 조성 및 안전문화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방재형 도시계획 종합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역량 강화 · 재난/재해 유형별 방재종합계획 수립
집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투자규모 70조 1,057억원(2008~2020) · 지방세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 · 경상수익사업의 확대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노력 · 적극적 외자 및 민간자본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투자규모 86조 4,693억원(2011~2020) ·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적극적 외자 및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연구총괄 : 원 광 희(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부문별 참여연구진

부 문		부문책임	소 속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축 설정 및 농촌·도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발전축 및 공간개발	원 광 희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권 태 호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첨단신산업 육성	윤 영 한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농림축수산업육성	우 장 명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김 창 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함께하는 문화충북, 명품 테마관광 실현	문화관광개발계획	정 연 정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녹색농촌관광활성화	우 장 명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 · 정보통신망 구축	교통·물류계획	이 현 상	(주)이산엔지니어링 전무이사
	정보통신계획	윤 영 한	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주택계획	채 성 주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용수공급계획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참여복지기반강화	최 승 호	전)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교육문화체육시설확충	김 충 구	전)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토지이용계획	채 성 주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수질보전대책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에너지 및 지하자원개발	김 성 표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환경보전계획	배 민 기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경관계획수립	변 혜 선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 구현	재 해 및 방 재 계 획	김 지 학	충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권 태 호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계획의 집행과 관리	행정계획	김 덕 준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재정계획		
	투자재원 조달계획	원 광 희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시·군별 발전방향	12개 시·군 발전방향	원 광 희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업무지원	연구전반 업무지원	홍 병 곤	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초빙연구원

※ 시군별 발전방향은 12개 시·군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 수정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행정자문

- 고 규 창(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
- 오 진 섭(충청북도 정책기획관)
- 이 강 명(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관리팀장)
- 김 원 목(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주무관)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

발 행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발행일 : 2012년 7월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전 화 : 043-220-2132

